

---

# 水原學研究

---

第三號



水原學研究所



## 간행사



| 유 병 현 |  
수원학연구소장  
수원문화원장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시의 문화·예술정책 등 장·단기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안을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수원지역 전통문화의 재현, 계승, 계발을 위한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수원학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의 현황 파악 및 제언 중심의 사업에서 나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월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운영위원, 그리고 수원시 관계자 등을 모시고 수원학연구 장·단기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고, 5월에는 수원관련 민속 자료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수원학연구사료총서 간행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 토양 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여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문화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료총서 및 연구총서의 발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수원학연구 3호는 수원학연구소 춘계학술세미나 “수원지역 민속 문화의 현황과 발전방안”의 논문 4편과 수원지역 역사 관련 일반논문 4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은 지금까지 논의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쉽게 착수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지역 전통문화총서와 같은 학술자료집 간행, 영화역 복원사업과 같은 수원시 문화정책 및 전통문화 축제 연구,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문화교육 사업 등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벌여갈 예정입니다.

올해로 3호 째를 맞이하는 수원학연구가 비록 작은 결실이지만 이것이 바탕이 되어 더욱 지역문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결과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수원학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여 수원학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평소 수원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의 제언 부탁드립니다.

## 水原學研究



간행사 • 유병헌 (수원학연구소장 · 수원문화원장) 5

### 특집 : 수원지역 민속문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 경기남부지역 민속예술의 공연화 양상과 발전방안 • 홍원의 9  
경기도당곳의 현재와 미래-수원지역을 중심으로 • 이용범 35  
수원지역 농악연구-대유평농악을 중심으로 • 시지은 49  
경기민요의 지속과 변화-수원지역 민요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최자운 73

### 일반논문

- 水原의 고승 眞覺國師 千熙와 고려말 불교계 • 황인규 97  
화성건설의 노동력 동원과 노동조건 • 이달호 127  
수원군 지역의 3·1운동 • 박 환 163  
일제강점기 수원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 한동민 187

### < 종합토론 녹취록 >

- 제3회 수원학연구소 춘계학술세미나  
: 『수원지역 민속문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227

### < 휘 보 >

-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243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247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249

## 경기남부지역 민속예술의 공연화 양상과 발전방안

- 축제를 중심으로 -

홍 원 의 (안성맞춤박물관 학예연구사)

---

머리말	1) 경기도민속예술축제 개요
1. 축제의 개념	2) 경기남부지역의 민속예술축제 참가현황
2. 경기남부지역의 전통축제	3) 경기남부지역 민속예술축제의 특징
1) 경기남부지역의 전통축제 현황	맺음말 -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제언
2) 경기남부지역 전통축제의 특징	
3. 경기도민속예술축제	

---

### 머 리 말

현대사회는 가히 축제의 시대라고 불리도 좋을 듯하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부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축제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축제를 통하여 그 지역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과 주민화합,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및 지역 문화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많은 축제가 열리는 만큼 축제에 대한 논문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 있다. 주로 민속학과 관광학 및 행정학에서 다루었는데, 관광학 및 행정학에서는 축제의 관광상품으로서의 ‘활성화방안’, ‘발전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민속학에서는 ‘축제의 어원’과 축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방향에 대하여 논

의해 왔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축제 속에서 민속예술의 공연화 양상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속예술공연은 주로 축제장에서 볼 수 있다.<sup>1)</sup> 왜냐하면 민속공연은 많은 경비, 많은 스텝이 필요하고, 관람자들도 많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공연이 이루어지지는 못한다. 축제장은 주최측에서도 뭔가 관람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관람자는 구경거리를 찾아서 오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정부에서의 적절한 예산지원으로 각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면서 공연이 활성화 되어 나간다.

이 글에서는 전통축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이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축제와 또 하나는 경기도와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주관하고 경기도내 시·군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경기도민속예술축제이다. 이 두가지 축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속공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양상을 파악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이번 연구에서는 수원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용인, 화성, 광주, 평택, 이천, 오산, 안성, 여주, 양평 등 경기남부권 10개 시군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시군은 웃다리농악이라고 불리는 경기도지역 풍물과 거북놀이라는 민속놀이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분포된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던 지역이다. 그 중 평택과 화성은 바다를 접하고 있다. 이런 공통점 속에서 산업화로 인하여 각자 생업환경이 변한 시군별 민속예술의 공연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축제의 개념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①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잔치', '축전'으로

순화 ②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sup>2)</sup>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축제'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순수 한자어에는 없는 신조어로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고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이지만, 1920년대 동아일보 기사<sup>3)</sup>에는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구한말쯤 생겨난 용어로 보인다. 순수 우리나라 말로는 '잔치', '굿', '난장'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현대적 의미의 '축제'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은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축제'란 용어 자체가 신조어이기 때문에 개념정립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 의미가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축제라고 하면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젊은이들의 축제 '○○가요제', '바둑인의 축제', '기술인의 축제' 등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즐기는 대규모의 행사를 흔히 '축제'라고 이야기 한다. 흔히 생각하는 축제장이라는 특정장소에서 공연과 더불어 난장이 펼쳐지는 것은 '전통축제'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우리말로 잔치라고 하면 혼례식을 떠올리게 되고, '회갑잔치', '돌잔치' 등 개인 또는 집안의 일생의례에서의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가깝고, 굿의 경우에는 마을 또는 개인들의 종교적 의례를 떠올리게 된다. '난장'은 시끌벅적하고 마시고 즐긴다는 면에서 내용상으로는 요즘의 '전통축제'와 가장 가까우나, 난장의 본래 의미는 상거래의 진작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인 '장마당'을 개설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축제와는 또 다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축제는 보통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일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축제는 마을 단위의 대규모놀이이다 굿과 같은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를 함해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오의 여러 행사나 정초의 고삿반에서 줄다리기가까지를 포함하는 전 과정에 걸친 마을 행사가 축제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로 바꿀 적절한 용어를 찾을 수는 없으나 정초 보름간, 단오절, 추석절, 동제 기간 등이 '전통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초 보름간은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놀이와 행사가 많다. 마을대동놀이를 비롯하여 오곡밥 햅터머기, 제웅치기, 용알뜨

1) 그 외에 민속예술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군의 명칭을 딴 ○○예술제, ○○문화제 등이 있으나 축제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제나 문화제 속에서도 축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상당부분 중복되며, 축제 또한 그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공식명칭이 ○○축제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3) “前 『바이에른』왕 『루-드위-』는 『바이에른』 『니라 일텐왈드』村에서 同王을 위하여 開催된 國王黨祝祭에 臨席하였는데...” 1921. 9. 8일 동아일보 기사.

기, 더위팔기, 고삿반, 차례 등 진정한 '祝' 과 '祭' 의 의미로 마을민들의 자발적인 흥겨운 축제기간이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세시풍속을 통틀어도 자발적인 축제는 찾을 수가 없고 인위적으로 만든 축제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김명자는 '자연성' 과 '인위성' 의 이율배반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축제가 전통사회에서처럼 지역에서 필연성에 의해 자생적으로 전승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인위성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설사 필요에 따라 복원된다 하더라도 예전의 그 축제와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여기에 지역축제 전승문제의 '자연성(自然性)과 인위성(人爲性)' 이라는 이율배반이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늘 말해지듯이 원형의 보존과 재창조는 결국 이러한 이율배반이 교차되면서 정착하는 것이다.<sup>4)</sup>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사회와 달리 더 이상 자발적으로 지역축제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축제 개최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민들의, 지역민들을 위한 '잔치' 라는 성격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입맛에 맞는(National Standard) 프로그램 일색으로 맞추어지고 있다. 순수 주민들을 위한 생사는 '시·군민 체육대회', '시·군민의 날'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주로 체육대회를 겸한 먹고 마시는 유흥으로 진행된다.

향토축제는 고장인 향토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 고장에 살고 있는 축제의 주체인 주민이 있고, 그 주민들이 기려야 할 그 고장의 역사적이거나 지역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판을 벌여야 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향토축제에는 대체로 농악과 민요, 춤이 있으면서 그런 기반 위에 지역에 따라 탈놀이·줄다리기·씨름·그네뛰기·웃놀이 등이 따른다. 그러나 이런 예능적인 것이나 놀이들도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것이어서 축제의 보편적 차원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한잔 마시고 노는 선술집의 놀이판이 아니고 '향토' 자가 붙는 '향토의 축제' 일 때는 그 고장의 지역적인 '향토의 뿌리' 가 그 지역 향토의 특수성과 개성을 갖는 지역 주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부양시켜주는 요건이어서 그런 '향토의 뿌리' 는 절대 필요 요건이다.<sup>5)</sup>

4) 김명자, 「축제의 기능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체육부, 1996, 31쪽.

5) 김태곤, 「향토축제(郷土祝祭)의 방향」, 『에산학보』 제5집, 1987, 45쪽.

향토의 뿌리가 절대로 필요한데도 실제 지역축제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나 예능은 전국적으로 유사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민속예술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지역적 특성을 가릴수 있는 예능이나 놀이가 많이 남아있다면 향토의 뿌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면 문제는 다르다. 또 '막국수축제', '토마토축제', '복숭아축제' 등 새로 생긴 축제는 주제와 내용상 지역성 전통성을 연결시키기 어려울 때도 있다.

또 하나 문제는 오늘날의 축제는 '祝' 만 남아있고 '祭' 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전통적 축제가 생산성과 놀이성을 기반으로 한 일련의 대동적 제의인데 비해 오늘날의 축제는 제의에서 일탈한 놀이의 성격만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sup>6)</sup> 축제의 구성내용은 바로 민족의 신앙적 심성의 표상이다. 곧 우리의 전통 축제속에서 외적으로 유흥성 혹은 오락성이 두드러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축과 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속에는 민족의 생존적 의미를 근원적으로 담고 있다. 대보름이나 단오·한가위 등의 명절에 중부 이남에서 주로 하는 줄다리기는 승부에서 이긴 편이 농사에 풍년이 든다고도 했다. 바꾸어 말하면 줄다리를 함으로써 복을 받아 풍요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놀이 자체가 소망을 기구하는 신앙성을 지니기에 놀이에 쓰여 졌던 동아줄도 신력(神力)을 부여하여 신성물(神聖物)로 여긴다.<sup>7)</sup>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 축제를 구경하러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공연이라는 관점에서 축제를 바라본다. 공연장에서 굿도 이루어지고, 공연장에서 줄다리기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구경의 대상이다. 굿판에서는 나이 많은 할머니나 신앙심 많은 사람은 더러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아서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관람객은 관광으로만 여긴다.

축제의 개최 목적을 보면 과거의 축제는 주로 주민화합의 목적을 가진 내적 축제를 지향하다가<sup>8)</sup> 최근에 들어서는 점차 관광 및 산업축제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자신의 지역을 전국에 알려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도구로

6) 장장식, 「지역공동체와 축제」,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체육부, 1996, 40쪽.

7) 김명자, 「축제의 기원」,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체육부, 1996, 22쪽.

8) 1996년 문화관광부 발행 『한국의 지역축제』에는 전체 축제 중 68.9%를 주민화합축제로 분류하였다.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경기남부만 하더라도 안성바우덕이축제, 양평은행나무축제, 이천쌀축제, 화성포구축제, 여주진상명품전 등 많은 축제의 개최목적이 지역관광수입과 농수산물판매에 있다. 이는 경제를 최우선시 여기는 IMF이후의 시대적 조류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목적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내용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 2. 경기남부지역의 전통축제

### 1) 경기남부지역 전통축제 현황<sup>9)</sup>

#### (1) 수원

수원에서는 3종의 전통축제가 개최된다. 수원화성문화제, 화홍문 답교놀이, 화성백중놀이가 그것이다. 수원화성문화제는 매년 10월 10일을 전후하여 4일간 개최된다. 내용은 가족체험행사로 화성깃발전, 화성축성체험, 궁중문화체험, 정조시대 체험행사로 정조대왕능행차연시 및 시민퍼레이드, 장용영수위의식, 혜경궁홍씨 진찬연, 정조대왕 친림과거시험, 정조시대야간군사훈련, 화성을 주제로 한 경연대회로 전국마칭경연대회, 화성그리기, 화성백일장대회 등이 있다. 기타 떡거리, 불거리 축하행사로 경축타종 및 불꽃축제, 개막식, 시장거리축제, 화성문화예술축전, 수원양념갈비축제, 국제자매도시 교류공연 등이 있다.

서둔동~화홍문에 이르는 길에서 한국 국악협회 수원지부 주관으로 화홍문 답교놀이가 이루어진다. 서둔동 대유평에서 시작해 화홍문에 이르러 다리를 밟는 민속놀이로 화성 축성 연대와 세시에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부는 화령전 영신례, 신칼대신무, 화관무, 서호납줄갱이 소리로 이루어지고, 2부는 지신밟기, 서호수상선회, 화홍문 수문제, 다리밟기 순위내기, 이무기 놀이로 이루어진다.

9) 이 글에서 조사된 축제는 경기남부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전통축제를 중심으로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민속예술공연과 관련이 있는 적당한 축제를 골라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 실린 축제 외에도 많은 축제가 있으며, 내용은 주로 시·군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하고 필요할 경우 시·군 및 문화원 관계자 그리고 향토사학자에게 추가조사를 하였다.

매년 8월 백중무렵에 서화성일원에서 사단법인 '우리'가 주최하고, 풍물춘 '꼭두'가 주관하는 화성백중제가 열린다. 백중명인전으로 춤, 경기민요, 기악, 상쇠놀이 등 평생 동안 소중히 지키고 살아온 명인들의 공연과 우리소리여행으로 젊은 국악인들의 신명을 느낄수 있는 공연(사물놀이, 민요, 기악, 춤)이 개최된다. 한·일 문화교류로 일본 태고팀과 한국의 사물놀이팀이 함께 연주하는 옷다리 사물놀이 공연이, 풍물마당으로 사물판굿 공연, 뽕내기 한마당으로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참여마당이 펼쳐지고, 워크샵으로 한국과 일본의 악기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부대행사로 백중장터, 기네스, 팔씨름대회, 민속놀이, 퀴즈마당, 악기, 생활한복 전시 판매 등이 이루어진다.

이중 민속예술공연 형식이 보이는 것은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정조대왕능행차연시 및 시민퍼레이드, 장용영수위의식, 혜경궁홍씨 진찬연, 정조시대 야간군사훈련이, 화홍문 답교놀이에서 화령전 영신례, 신칼대신무, 화관무, 서호납줄갱이 소리, 지신밟기, 화홍문 수문제, 다리밟기 순위내기, 이무기 놀이가, 화성백중제에 한·일 사물놀이팀이 함께 연주하는 옷다리 사물놀이공연이, 풍물마당으로 사물판굿 공연이 이루어진다.

수원지역 민속예술공연의 특징은 역시 화성 관련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화성축성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전승이 끊어졌다가 최근 다시 복원된 것이다. 그 내용상 전통성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수원에서 화성의 불거리를 위하여 새롭게 복원하고 정성을 들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하나 화홍문 답교놀이에서 신칼대신무, 화관무 등 전통무용이 섞여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발굴과 재현에 무용가가 맡아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놀이의 발굴은 조선시대 마지막 재인칭 도대방을 지냈던 고(故) 이동안 선생이 발굴하고 국악인 유청자씨가 재현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전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고증이 필요하다.

#### (2) 용인

매년 10월초에 용인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등에서는 아래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문화

창달을 이룩코자 용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내용으로는 시민장기자랑 한마당과 처인성첩길놀이, 민속 경연 대회, 각종 전시회, 한복맵시대회, 전국 궁도대회 등이 개최된다.

이 중 민속공연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은 처인성첩길놀이 정도이다. 몽골의 살레탑이 쳐들어 왔을때 고려의 김윤후 장군이 처인성에서 적장을 사살하고 승리로 이끈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이 역시 거리행진이라는 형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행사이다.

### (3) 화성

매년 6월초에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는 화성포구 축제가 개최된다. 바다 장승제, 바다생명을 깨우는 북소리, '침묵의 바다'를 주제로 한 행위예술, 미니 서커스, 우주와 인간을 위한 위령제 퍼포먼스, 유람선과 낚싯배를 타고나가 우럭과 광어 치어를 방류하는 마린투어, 궁평 낙조를 배경으로 한 해넘이음악회, 바다그림 그리기, 포구축제 사진촬영대회, 개펄썰매타기, 육지에서 배를 제작한 후 해안까지 끌고 가는 배 끌기, 만선 깃발을 앞세운 풍어제, 어린이들을 위한 별자리 관측프로 그램인 별빛축제 등이 있으며, 바지락잡기, 바지락까기, 천일염 만들기, 바지락 젓갈 담그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또 수산물 먹거리장터, 궁평항 선착장에 도착한 어선에서 낚잡 경매도 진행된다.

이 중 민속공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풍어제이다. 바닷가 포구라는 특성상 전통적으로 행하여오는 풍어제를 주제로 잡은 것이다. 축제가 주로 체험 위주로 되어있어 공연이 많지는 않지만 풍어제는 주제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특성에 맞는 민속공연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 (4) 이천

이천은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및 이천쌀문화축제의 2종류의 전통축제가 개최된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에서는 주민화합 용줄다리, 풍년기원제, 길놀이, 성화 봉송, 개막식 그리고 축제화합의 한마당으로 시민, 면민 노래자랑, 문화공연, 경품 추첨이 이루어진다. 또 태권무 공연, 전통 혼례, 산수유사생대회 및 백일장, 퓨전 난타 공연, 산책로 걷기대회, 삼도 사물놀이와 우리춤, 육괴정에 배향된 육현성현

에 대한 추모행사로 육현추모제가 이루어진다.

이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며 상징인 이천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수확기에 개최되는 쌀문화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축제 중 예비축제로 선정된 우수 축제이다. 문화마당으로 추수감사제, 개막식 및 축하공연, 햅쌀 한마당, 모듬북과 사물놀이, 신명나는 사물놀이, 우리가락 좋을시고, 햅쌀 음악회, 햅쌀 노래자랑, 모듬북 콘서트, 퍼포먼스 희망의 땅, 우리춤 좋을시고, 함께하는 노래 향연, 사물판굿, 갯돌 해원제, 들소리 상생제가 이루어 지고 기원마당으로 풍년 마당극, 풍년대장군제/햅쌀여장군제, 쌀사랑 깃발 만들기, 희망솃대 만들기, 운수대통, 옷놀이와 옷점이 펼쳐진다.

솃씨마당으로 이천쌀밥 명인전, 가족 인형극, 가마솃밥~ 이천명! 이천원!, 명인 쌀밥 품평회, 쌀떡 찰떡 콩떡, 뽕이요, 햅쌀장터로 햅쌀 장터, 우수 농축산물/과일/한과 전시판매가, 그리고 시골장터가 펼쳐진다. 이천쌀문화관에서는 전시행사가 열린다.

풍년마당에서는 거북놀이, 학생품물경연, 짚공예경연(이영/짚신/용마름/명석), 외국인 장기자랑, 외국인 요리경연, 축산물 요리경연, 과일깎기 경연, 무지개 가래떡, 종이탈 만들기, 탁배기 한사발, 농촌지도자연찬회, 쌀전업농연찬회, 4-H경진대회가 개최되며, 놀이마당에서는 사물놀이, 풍년마당질, 짚공예사랑방, 엽전제기 만들기, 탁본뜨기, 짚 조형물전시, 짚가리 방방, 쌀가마지게꾼, 쌀집아저씨자전거, 도전! 쌀 한말달기, 풍년대박 터뜨리기, 짚단멀리던지기, 3종 씨름(밭/밭/새끼줄), 새끼꼬기/새끼줄넘기, 허수아비전이 열리고, 햅쌀거리로 길놀이(갯돌/들소리)축제 및 농경문화 사진전, 이천쌀 진상행렬, 용싸움 대동놀이가 주막거리로 이천쌀밥, 술, 안주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 중 민속공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이천 백사 산수유꽃축제에서는 용줄다리, 풍년기원제, 길놀이, 태권무, 전통혼례, 삼도 사물놀이와 우리춤, 육현추모제, 쌀문화축제에서는 모듬북과 사물놀이, 신명나는 사물놀이, 우리가락 좋을시고, 우리춤 좋을시고, 거북놀이, 용싸움, 이천쌀 진상행렬을 들 수 있다. 이천은 전통축제의 종류도 많고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다. 특히 쌀이 유명한 고장답게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거북놀이, 용싸움 등 풍농과 관계되는 민속공연이 눈에 띈다.

### (5) 광주

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매년 9월말에서 10월 초에 3일간 펼쳐진다. 내용으로는 남한산성 축성시 죽은 영혼과 병자호란으로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청량당에서 혼령을 모셔서 원혼을 달래는 의식인 남한산성 대동구(위령제)가, 백제시조 온조대왕과 남한산성 축성의 총책임자 이서장군을 위한 제향인 승열전 제향이 봉행된다. 또 거리행진 및 어가행진, 창작극 ‘아! 남한산성’ 공연, 남한산성을 방비하던 병사들의 교대의식인 남문수위 군정식이 재연되며, 팝스오케스트라 공연도 이루어진다.

이 중 민속공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대동구, 승열전 제향, 어가행진, 남문수위 군정식 등이 있다. 이들 공연은 남한산성이라는 주제와 잘 맞으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들이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면도 있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전통공연으로 보이나 내용상으로는 역사성이 있는 행사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공연이기 때문이다.

### (6) 안성

매년 9월말~10월초에 안성공설운동장에서는 안성바우덕이축제추진위원회 주최로 안성바우덕이축제가 열린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축제전문위원회에서 대표적인 축제성공사례로 꼽는 안성바우덕이축제는 전야제 및 길놀이로 남사당이 마을에 들어와 공연을 하여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 곱벵이트기를 시작으로 가장행렬 시가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며, 마당놀이 삼국지, 폴란드·스페인·중국·러시아 등 세계민속춤대공연, 바우덕이 음악회, 그리고 세상을 돌리는 환타지란 주제로 줄타기·풍물놀이, 버나놀이, 살판 등이 개최된다.

안성옛날장터 재현마당에서는 전통의상을 입은 상인, 군관·가축시장, 상가, 군관(포졸), 대장간, 한지공방, 유기공방 등이 재현되고, 남사당놀이가 체험마당에서는 남사당버나놀이체험, 남사당풍물놀이 체험 및 악기 배우기, 남사당 살판 체험, 남사당 덧뵈기 체험 및 종이탈 만들기, 남사당 인형극 체험 및 각시인형 만들기, 남사당 줄타기체험 및 줄 만들기가 펼쳐진다.

남사당 바우덕이 홍보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 남사당 문화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15세 나이에 꼭두쇠가 되어 23세의 나이에 요절한 유일한 여

성 꼭두쇠 바우덕이 일생을 전시판넬과 닥종이 인형전, 홍보영상물 등을 통하여 보여주고, 전통무용으로 향당무 공연, 태평무 공연이 열린다.

이 중 민속공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가장행렬 시가퍼레이드, 마당놀이 삼국지, 폴란드·스페인·중국·러시아 등 세계민속춤공연, 영국·프랑스·한국줄타기, 풍물놀이, 버나놀이, 살판, 덧뵈기, 꼭두각시놀이 등 남사당 6마당과 향당무, 태평무, 도당굿 공연이다.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남사당이라는 전문예인집단을 주제로 잡고 있는 만큼 다른 축제보다는 공연 프로그램이 많고 명확한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주제의 핵심 인물인 바우덕이에 대하여 좀더 학술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7) 오산

정월 대보름 무렵 오산천둔지에서 오산문화원 주관으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행사내용으로는 연날리기, 제기차기, 투호, 널뛰기, 깡통돌리기,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불꽃놀이가 열린다. 이 중 공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달집태우기이나 풍물놀이가 따르기 때문에 공연으로 보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속예술공연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점이 아쉽다.

### (8) 여주

매년 9월말에서 6일간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의 전통을 간직하고 여주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자 여주진상명품전이 개최된다.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남한강변 빵돌수제비뜨기, 진상행렬 및 진상외식 재현행사, 우리술 시음, 우리떡 만들기 경연, 업정행의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사물놀이와 전통혼례식, 민요공연, 남한강 우리소리 공연, 스포츠댄스공연, 줄타기공연, 전국 고구마요리 경연대회, 남한강가요제, 군악대 공연, 농업인 씨름대회, 매직페스티벌(마술공연), 도전농업골든벨, 농업인정보화사냥대회, 청소년한마당 한강가요제, 풍물한마당이 이루어진다.

전시 행사로는 친환경전통농업관에서 친환경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지렁이농법 등을 소개하고 현대농업관에서는 여주의 우수 농산물 소개, 형형색색의 화초용 고추, 화초용 호박, 기이 농산물, 특히 농산물 소개와 자연 소재를 이용한 작품전이

열리며, 희망의 미래농업관은 각종 신기술과 관련된 전시관으로 각종 종자기술전시, 기능성 벼, 옥수수, 감자 등을 소개하고, 접목 기술을 이용한 무추, 토감 등과 가공신기술, 농업관련 곤충, 향기치료 등 전시된다.

우리자랑 진상명품관에서는 우리전통기술과 전국의 진상되었던 각종 우수농산물을 소개하고 체험행사로 고구마 캐기, 미꾸라지 잡기 행사, 전통가마타기, 숯불 고구마 굽기, 짬뽕공예, 고구마케익 만들기, 전통농기구 체험, 우리떡 만들기, 대왕복입고 수라상 받기, 동물농장, 지게질장사, 도랭이 입은 김삿갓, 우유 가공 체험 등과 여주명품, 나의 추억, 페이스 페인팅, 가훈 써주기, 농업관련 사진전시, 타로카드점이 펼쳐진다.

이 중 민속예술공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진상행렬, 사물놀이, 전통혼례식, 민요 공연, 남한강 우리소리 공연, 줄타기 공연을 들 수 있다. 전체적인 공연과 전시체험이 종류는 다양하나 민속예술공연만을 보았을때 여주는 비교적 특색이 없는 행사를 하고 있다. 여주라는 지역을 떠올릴만한 공연 또는 여주의 쌀이나 농산물 또는 풍요를 연상시킬만한 공연은 없이 너무 잡다한 공연으로 인하여 주제와의 관련성을 흐려놓고 있다.

(9) 양평

매년 10월 중순경에 양평군 주최로 은행나무축제가 열린다. 용문면 연수리 주민들이 제작한 10일간의 영화창작교실과, 악극 “여자의 일생”,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문산 은행나무에 행하는 영목제가 열리며 인도, 캄보디아의 전통무용 및 한국전통예술 공연과 요가수행, 단전호흡, 명상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대중가수 초청 콘서트,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이 펼쳐진다.

양평 친환경농산물 장터에서는 관내 농산물 판매 및 민속놀이 체험, 양평 열두고를 맛자랑(토속 음식점 판매), 벼룩시장 장터 부스, 외부 판매상인 부스, 문화예술 체험부스가 열리고, 즐거운 놀이터, 신나는 문화예술 행사로 초등학교 중심의 체험예능학습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전통 혼례식 거행, 러시아 써커스 및 중국 기예단의 상설공연, 경동방송의 ‘짱노래자랑’ 공개방송, 남진과 짝통가수 콘서트, 곶고리 창작가요제가 펼쳐진다.

이 중 민속예술공연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은 용문산 영목제, 세계사물놀이 겨

루기 한마당, 용문산 전통예술제, 인도·캄보디아의 전통무용, 한국전통예술공연이다. 은행나무라는 특정 자연물을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주제를 직접 연상이 되는 공연은 한정되어, 민속예술공연은 영목제밖에 볼 수가 없고 주로 현대식 가요제와 외국 예능인들의 공연이 주를 이룬다. 전체적인 공연의 내용으로 봐서 영화창작교실, 짝통가수 콘서트 등 주제와 벗어난 공연이 과도하게 많다.

2) 경기남부지역 전통축제의 특징

경기남부지역의 전통축제는 수원에서 3종, 용인에서 1종, 화성에서 1종, 이천에서 2종, 광주에서 1종, 안성에서 1종, 오산에서 1종, 여주에서 2종, 양평에서 1종이 열리며 평택에서는 축제가 열리지 않는다. 그 중 민속예술공연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원은 화성과 관련된 내용, 용인은 특별한 주제가 없는 지역의 문화축제로 처인성 관련 내용이 곁들여져 있고, 화성은 포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천은 쌀과 산수유 등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며, 광주는 남한산성, 안성은 남사당과 관련된 내용이다. 오산은 대보름 민속놀이 관련이며, 여주는 여주 농산물과 관련, 양평은 은행나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수원이나 광주, 이천, 안성과 같이 주제에 맞는 민속예술을 공연하는 곳도 있으나 축제 자체의 주제 의식이 결여되고 자기 지역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축제를 개최하는 곳도 있다. 또 화성, 양평과 같이 축제의 주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잡고 있으나 그 내용면에 들어가면 주로 현대식 가요제, 음악회 등으로 채워져 주제와 내용이 유리되는 경우도 있다. 오산은 대보름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전통축제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공연화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전반적인 축제 프로그램속에서 민속예술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최근의 관람객들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함께 즐기는 체험형 관람을 선호한다. 각 축제장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점점 고구마 캐기, 우리떡 만들기 등 체험 행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자연히 공연프로그램이 줄어들게 되었다.

전통축제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축제목적 설정의 부재가 큰 원인이

다. 축제 개최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즉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나 아니면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나 하는 관람객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과거의 축제는 주로 지역민들의 단합과 향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의 축제는 관광객 확보와 지역의 홍보 및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축제가 외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짱노래 자랑 공개방송, 남진과 짝퉁가수 콘서트, 곳고리 창작가요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국에 축제가 즐비한 9~10월에 이런 공연을 보려고 외부 관광객이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면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로 목적을 전환하고 체육대회라든지 하루를 그저 흥겹게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 3. 경기도민속예술축제<sup>10)</sup>

#### 1) 경기도민속예술축제 개요<sup>11)</sup>

##### (1) 목적

사라져가는 우리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전승, 보존시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과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10)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1982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하여 2005년 안성시종합운동장에 이르기까지 15회째 개최되었다. 1982년에서 1986년 5회 대회까지는 매년 개최하였고 1989년 6회 대회 이후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그 사이에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또 1999년 12회 대회부터는 경기도민속예술축제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원래 목적인 새로운 민속예술의 발굴이 어느 정도 끝이 나서 더 이상 새로운 민속예술의 발굴이 어렵다는 점과 경연대회의 성격상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목적으로 경기도민속예술축제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11) 2005년도 15회 대회 행사개요(경기도청 문화정책과)

##### (2) 방침

- 축제 참가 분야는 농악, 민요,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속극 등의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민속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함
-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인원을 80명 이내로 제한
- 참가작품은 인위적 연출을 자제하고 향토민속예술의 원형 재현에 충실
-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민속예술을 축제형식으로 개최하고, 경기지역 무형문화재 공연 등으로 관람객의 관심과 흥을 고조시킴
-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자율적 참여분위기 조성

##### (3) 심사기준

- 종전의 5개 분야에서 골고루 시상하는 방식을 탈피, 성적 순위에 의한 시상
-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 신규 발굴팀 가점제
- 전승, 보존 차원에서 종전에 수상한 팀도 수상 가능

경기도민속예술축제의 개요를 보면 전통민속예술의 발굴,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침 및 심사기준은 이전의 농악, 민요,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속극 등의 구분을 폐지하고, 종전의 분야별 시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적 순위에 의한 시상으로 바뀌어 적극적인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있음도 보인다. 또 출연인원을 80명 이내로 제한하고 신규발굴팀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 눈에 띄며, 전승·보존 차원에서 종전에 수상한 팀도 수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또 참가작품의 인위적 연출을 자제하고 향토민속예술의 원형 재현에 충실한다고 되어 있어 인위적 연출에 대한 경계를 뚜렷이 하고 있다.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민속예술을 축제 형식으로 개최하고, 경기지역 무형문화재 공연 등으로 관람객의 관심과 흥을 고조시킨다고 하여 민속예술축제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경기남부지역의 민속예술축제 참가현황<sup>12)</sup>

시군	경기도의 민속예술 I (1996년)	경기도의 민속예술 II (1997년)	경기도의 민속예술 III (2004년)	14회 (2003년)	15회 (2005년)
수원	③장치기, ⑤길마재 줄다리기	②못골호신당제	⑧화성축성놀이	①대유평진때 배기농악	①대유평진때 배기농악
용인	①두레싸움, ③동해놀이, ⑧타맥(打麥)놀이	①웃다리풍물, ②할미성대동굿	①두레싸움, ②대감/무감놀이	-	②할미성대동굿 대방위놀이
평택	①평택농악놀이, ④평택고두레 박놀이에 논에는 상사대소리, ⑤동령샘제 줄다리기(지신밟기)	-	①두레풍물, ①평택농악	①서정 웃다리 농악	①웃다리농악
화성	①봉담역말농악	④구장터 면생이, ⑤원리줄다리기	④왕재호상놀이	②신외동도당굿	①화성농악
이천	①풍물놀이, ③거북놀이, ④자채농요	⑤단드래줄다리기	-	④정승달구지 놀이	④울면정승 달구지
광주	②무갑산도당굿, ③해동화 놀이, ③거북놀이, ⑥화관무	②남한산성 위령제	①광지원풍물놀이	①광지원농악	①광지원농악
안성	①남사당풍물놀이, ④상여 소리제연, ④지경다지기	⑨극적루	-	⑥태평무	⑤대동줄다리기
오산	②내삼미 필봉산신제	①길놀이	-	①외미농악	①외미농악
여주	③원부리 알담교놀이, ③조기울 낙놀이, ⑤혼암리쌍용개줄다리기	①여주농악마래리, ③거북놀이, ③장채놀이	③조기울낙화놀이	①여주풍물놀이	-
양평	①웃다리풍물	②산신제 축원굿, ⑧풍년 가원놀이, ⑧쌍겨리놀이	②백운봉령제	⑦봉산탈춤	⑦남사당놀이

### 3) 경기남부지역 민속예술축제의 특징

이상 출전 종목을 살펴보면 1회 대회에서 15회까지 파악 할 수 있는 총 출전 중

12) 1982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15회에 이르기 까지 년도별, 시군별 참가 종목을 모두 알 수는 없다. 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군 지자체 및 문화원과 행사를 주관하는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그리고 후원을 하는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도 전체 참가 종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지로 참석을 주관하는 각 시군 문화원은 잦은 이사와 직원의 교체로 인하여 대체로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자료만 가지고 있었다. 개괄적인 자료는 경기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경기도의 민속예술』이란 제목으로 3권에 걸쳐 발행되었다. 1권은 1996년에 '82년부터 10년간에 걸친 내용을 수록하였고, 2권도 마찬가지로 1997년에 '82년부터 10년간에 걸친 내용을 수록하였다. 3권은 1999년~2003년에 걸친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표에 수록된 시군별 참가목록은 3권의 『경기도의 민속예술』 책자와 2003년 14회 대회 이후의 자료들 중 중복되지 않게 발췌하였다. 그리고 14회 대회와 15회 대회에 대한 자료는 안성시와 안성문화원 자료를 받아 수록하였다.

목수는 66회이다. 종류별로 보면 ①과 같이 두레싸움을 포함한 풍물놀이류가 가장 많은 23회, ②와 같이 굿이나 산신제 등 신앙 관련이 10회, ③과 같이 거북놀이, 해동화놀이 등 순수 마을민들의 놀이류가 10회, ④와 같이 지경다지기, 호상놀이를 포함한 소리류가 8회, ⑤와 같이 줄다리기류가 6회, ⑥과 같이 봉산탈춤, 남사당놀이<sup>13)</sup> 등 전문연희집단의 놀이류가 2회, ⑦과 같이 태평무, 화관무 등 무용류가 2회, ⑧번과 같이 노동을 놀이화한 타맥놀이, 쌍겨리놀이 등 노동놀이류가 4회 ⑨번과 같이 역사적 사실을 재현한 극적루가 1회 개최되었다.

이중에는 풍물놀이류는 평택의 웃다리농악, 수원의 진떼백이농악처럼 여러번 중복 출전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풍물놀이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총 66회의 출전 중 23회를 차지하여 약 3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1997년 이전은 총 39종의 출연중에서 9종의 풍물놀이류가 포함되어 약 23%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1997년 이후에는 총 28종 중에서 14종의 풍물놀이류가 포함되어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05년 제15회 민속예술축제를 보면 9종의 출전 작품중 5종이 풍물놀이류를 차지해 점점 풍물놀이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풍물놀이류가 많아지는 이유는 발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각 마을마다 기량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을 두레패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현재 전승이 끊어진 곳에서도 뛰어난 지도자와 몇몇 수준급 예능인을 다른 곳에서 데려와 지역민과 적당하게 섞어 몇 달 연습하여 새로운 종목으로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 고중·발굴자 명단을 보면 동일한 예능인이 여러 곳을 발굴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발굴자의 기예가 여러 지역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풍물놀이류에의 집중현상은 단순히 출전에 의의를 두는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역대 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 현황을 보면 총 15회 중 광명농악과 동두천 이담풍물놀이 두 종목만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뿐이다. 35%라는 높은 출연빈도에 비하면 수상 실적은 아주 낮은 편이다. 수상 실적

13) 남사당놀이는 안성에서는 「안성남사당풍물놀이」로 남사당놀이 중 풍물종목만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참가종목도 풍물만이기에 풍물로 분류하였고, 양평은 참가종목에서 남사당 6마당 중 4마당을 연행하였기에 전문연희집단류의 놀이로 분류하였다.

이 공연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에서는 풍물류보다는 농요 같은 소리류가 월등히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현황〉

회수	일시	장소	출연팀	최우수상팀
1	'82. 10. 16	수원종합운동장	20개팀	연천군 아미산울어리
2	'83. 10. 28	"	21개팀	김포군 주사손돌공 진혼제
3	'84. 10. 13	수원실내체육관	22개팀	이천군 거북놀이
4	'85. 10. 4~5	"	26개팀	강화군 용두레질 노래
5	'86. 9. 12~13	수원종합운동장	36개팀	김포군 두레농요
6	'89. 9. 8~	안양종합운동장	26개팀	김포군 상두꾼소리
7	'91. 9. 12~13	수원종합운동장	33개팀	포천군 메나리
8	'93. 9. 2~3	"	32개팀	수원시 장치기
9	'94. 9. 8~	안양종합운동장	31개팀	광명시 광명농악
10	'95. 9. 14~1	성남종합운동	31개팀	수원시 이의동길마제줄다리기
11	'97. 9. 25~2	여주공설운동장	23개팀	고양시 상아대(말장박는)소리
12	'99. 9. 1~2	동두천종합운동장	17개팀	동두천 이담풍물놀이
13	'01. 9. 22~2	광명종합운동	18개팀	광명시 아방리줄다리기
14	'03. 9. 19~20	고양시 중산공원	25개팀	광명시 아방리 농요
15	'05. 9. 1~2	안성시종합운동장	26개팀	이천시 율면 정승달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새로운 종목의 발굴에 힘쓰기 보다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종목의 반복출연 또는 이름만 바꾼 풍물류의 출연이 많은 것은 새로운 내용 발굴에 대한 노력의 부재도 있지만 주로 예산상의 문제점이 많다. 1982년부터 시작된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초기에는 경연대회라는 성격에 맞게 각 시·군에서 경쟁을 하여 우수한 작품들이 발굴이 되었지만 점차 회를 거듭 할수록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 원형에 대한 고증보다는 오히려 흥행적 연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노력과 경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다.

14) 민속예술이 과연 경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임재해, 『비교민속학』 13집「민속예술경연대회의 비판적 검토와 생산적 대안」, 1996 참고). 이 글에서는 공연내용의 예술적 우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전문가들인 심사위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주목한다.

## 맺음말 -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제언

지역에서 많은 민속예술공연이 열리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호응도는 썩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민속예술 공연이 내용면이나 신선도에서 그동안 지역민들이 보아왔던 것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한된 공간과 시간이라는 공연장의 한계 때문에 많은 공연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보여주지 못하고 매번 비슷한 내용의 공연만 보여준다.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같은 공연을 여러 번 봐왔던 지역민들에게는 무척이나 식상한 일이 되고 만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새로운 공연종목에 대한 발굴과 기존 공연팀의 공연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다. 기존 공연팀의 공연능력 향상에 대한 것으로는 안성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처음에는 안성남사당보존회로 단원 20명 안팎의 친목단체의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안성시에서 시립화를 시키면서 단원을 40명으로 늘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안성시에서 단원들에 대한 월급이 지급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자 처음에는 풍물놀이만 하던 것이 줄타기, 버나, 살판, 덧뵈기, 꼭두각시놀음 등 현재 재현할 수 있는 남사당 6마당을 모두 연습하여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을 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과거 몇 일간에 하던 것을 하루 상설공연에 모두 보여 줄 수 없으므로 매년 공연 때마다 약간씩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꼭두각시놀음에서 표생원 거리를 하였다면 올해는 평양감사 재상거리를 하는 식으로 공연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번 본 관람객들도 또 새로운 기분으로 관람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모든 공연팀을 시립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연을 새롭게 짤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발전된 공연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의 일관된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많은 시군에서 몇 년간 축제를 개최하다가 폐지하고 또 다른 축제를 개발하고, 해가 바뀔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정상 지원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여 일관성 있는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일례로 ○○시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모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축제의 대폭적인 축소 또는 폐지를 시장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대대적인 축제를 거행하여 전국에 그 지방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얼굴을 알릴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기회가 많아지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상대방 후보는 축제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야말로 민속예술공연 발전의 중요한 사항이다.

민속예술축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원 관계자들과 면담한 결과 대부분이 예산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균등배분하고 거기에 시군의 자체 예산을 합하여 마련하는 1,000만원 미만의 경비로는 새로운 민속예술의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소 1달 이상에서 몇 개월간의 연습과 복장, 악기, 소품, 참가시 소요되는 버스대여료, 식대, 고증 절차 등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단순히 전체예산을 늘인다고 하여도 현재와 같은 균등배분 방식으로는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무한정 예산을 늘릴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몇 명이 기존에 하던 것을 똑같이 반복출전하는 것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민속예술축제 몇 개월 전에 참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참가에 필요한 예산, 인원, 발굴유래, 내용 등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며 그 신청서를 보고 주최측인 경기도나 문화원 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현지실사를 한다. 현지실사 후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각 신청팀 별로 예산을 차등 배분하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심사와 관련하여는 당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고 공연이 끝난 후 몇 일 또는 몇 주에 걸쳐서 심사 기준에 따라 창작극인지, 전통에 입각하여 발굴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지금은 경연대회가 아닌 축제로 성격이 바뀌어 경연대회와 다르다고는 하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축제로 명칭이 바뀐 결과 실질적인 내용도 바뀌었는지는 아직까지는 뚜렷이 말할 수 있는 단

계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심사를 하고, 수상을 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더 심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경기도로부터 매년 전승보조금으로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전승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상을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종목을 적당하게 출연하여서 참가에 의의를 두든지 하는 양극화 현상에 처해져 있다.

또 지역적 연관성이 없는 종목과 역사적 맥락이 부족한 종목의 참가는 막아야 한다. 양평에서 봉산탈춤이 나오는 것 같은 지역적 기반을 무시한 종목은 출전을 막아야 하며, 타맥놀이, 풍년기원놀이, 쌍겨리놀이, 극적루 같이 놀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농요와 풍물, 춤을 뒤섞어서 짜깁기하여 만드는 종목도 전반적인 민속예술축제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심사로 출전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굳이 출전을 한다면 정식종목이 아닌 시연종목이나 번외종목으로 하여도 좋을 것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각 시군 단위의 전통축제 기획자는 보통 관련공무원과 추진위원회라고 이름 붙여진 지역의 명망가들 중심이다. 때로는 관련 공무원의 협의를 통하여 이벤트사에서 대부분을 관할하고 경우도 있다. 특별히 축제위원회에 축제 관련 상근 인력을 채용하여 일년내내 아이디어를 짜고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몇몇 공무원과 지역 명망가들의 아이디어에 의존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다른 지역의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흉내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순환보직 하에서의 공무원 조직 특성상 길면 2~3년 후에는 다른 부서로 옮기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다시 발령받아서 오는 축제 담당 공무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매년 프로그램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곳도 있다.

축제 담당 추진위원회 구성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알고 적절히 도출해 낼 수 있는 역사·민속 등 관련전문가 그룹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990년대 이후 각 시군에서 시군지를 새로 발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

은 그 지역의 문화와 특징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나 민속예술축제 프로그램 개발시 시군지 편찬관련 전문가 그룹 및 각 대학의 관련 전공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고, 문화관광부나 상급기관에서는 추후 평가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들 그룹들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시 차등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참고로 1936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민속놀이 가운데 현재 연행되고 있는 놀이도 있지만 연행되지 않는 놀이도 있다. 이들 놀이 가운데 재현하여 공연화가 가능한 것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 참고 <재현할 수 있는 민속놀이><sup>15)</sup>

시군	놀이명
수원	쥐불놀이, 줄다리기, 다리밟기, 관등, 농악, 호미씻이, 거북놀이, 활쏘기, 말놀이
용인	쥐불놀이, 다리밟기, 줄다리기, 달맞이, 오광대(여러명의 광대 초청, 줄타기 등), 닭잡기, 활쏘기, 장치기, 가면극(박침지, 흥동지놀이), 농악, 호미씻이, 거북놀이, 사자놀이
평택(진위)	쥐불놀이, 달맞이, 줄다리기, 농악, 화전놀이, 말놀이, 별신, 호미씻이, 장치기, 닭잡기
이천	다리밟기, 달맞이, 쥐불놀이, 화전놀이, 활쏘기, 보싸움, 연등, 거북놀이, 수박따기, 호미씻이, 농악, 인형극, 기와밟기, 군사놀이
광주	달맞이, 다리밟기, 줄다리기, 거북놀이, 기와밟기, 쥐놀이, 쥐불놀이, 사자놀이, 동계, 화전놀이, 활놀이, 두레(농악), 호랑이놀이, 닭잡기, 말타기, 투계, 별장수 등
안성	달맞이, 쥐불놀이, 다리밟기, 줄다리기, 닭잡기, 농악, 호미씻이, 거북놀이, 보싸움, 광대놀이, 장치기, 활쏘기, 별신, 닭잡기
여주	달맞이, 쥐불놀이, 줄다리기, 장치기, 농악, 거북놀이
양평	달맞이, 다리밟기, 농악, 화전놀이, 줄다리기, 호미씻이, 별신, 연등, 소싸움, 투계, 활쏘기

참고문헌

1. 경기관광공사, 「2005경기방문의해」축제성공사례집, 2005.
2. 경기도,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6.
3. 김길수, 「지역축제의 특성과 방향 -전라북도의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전북행정학보』

- 제 16권 제2호, 2002.
4. 김지옥, 「경기도 지역축제의 현황과 특징」『문화재』제28호, 문화재관리국, 1995.
5. 김진수,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광주, 이천, 여주 도자기 축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Journal of Culture& Tourism』, 1999.
6. 김태곤, 「향토축제의 방향」, 『애산학보』 제5집, 1987.
7. 문화관광부,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5.
8. 문화연대 축제모니터단, 『2004 하반기 문화관광축제 “축제평가보고서”』, 2004.
9.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1996.
10. 민현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분석을 통한 민속놀이의 지역별 특성연구」『한국체육철학회지』제10권 제2호, 2002.
11. 방일영문화재단,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방일영문화재단 총서 1, 1994.
12. 수원시·수원문화원, 『수원화성문화제 평가 및 발전방안』, 배재대학교관광이벤트연구소, 2003.
13. 임재해, 「민속예술경연대회의 비판적 검토와 생산적 대안」, 『比較民俗學』13輯, 1996.
14. 장순희,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三陟大學校 産業科學技術研究院 論文集』第7輯 第1號, 2002.
15. 장호찬·김시중, 「지역축제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제1권 제1호, 1999.
16.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Ⅱ, 1997.
17.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Ⅲ, 2004.
18. 村山智順 編·朴銓烈 譯, 『朝鮮의 鄉土娛樂』, 집문당, 1992.

15) 村山智順 編·朴銓烈 譯, 『朝鮮의 鄉土娛樂』, 集文堂, 1992, 57~94쪽.

## Abstract

# The scheme of the development and the cultivation of the Folk Art performances/festivals in south Gyeonggi Province

Hong Won-Eui (Anseong museum)

This article will try to Recognize aspects of folk performances in South Gyeonggi province headed by Suwon, Yongin, Hwasung, Gwangju, Icheon, Osan, Anseong, Yeosu, and Yangpyeong, etc. Traditional Festivals are divided into two portions. One is the local festivals which are financially supported and managed by local district and the other one is the folk art festivals which are hosted in cities and counties within the Gyeonggi province and managed by the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the culture federal organizations, and the province assembly. These two portions of festival ar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the folk performances hosted in Gyeonggi province because the most of the festivals are hosted by these two ways.

Traditional festivals are held in South Gyeonggi province; three times in Suwon, two times in Icheon, Yeosu, and one time in Youngin, Hwasung, Gwangju, Anseong, Osan, Yangpyeong every year. There is no festival held in Pyeongtaek. Analyzing the folk art performances, Suwon's performances are related with Hwaseong Fortress. Youngin do not have their unique theme although they make cultural festival with Cheoin Fortress, also Hwasung has a port related performances. Icheon has their uniqueness with agriculture such as rice and Sansuyu tree. Namhan Fortress is famous in Gwangju, and Anseong is famous for Namsadang performance. Also Osan has Year's First Full Moon Play, Yeosu has theme with agricultural products, and Yangpyeong has theme with

ginkgo trees.

Although there are places like Suwon, Gwangju, Icheon, and Anseong have their folk art performances fit to their theme but also there are places do not carefully examine their tradition and historicity when they hold their festivals. Also places like Hwasung and Yangpyeong have fitted the theme to their festivals but they schedule the performances with modern song performances and concerts so sometimes the theme and the content are isolated. Osan is just reconstructing the Year's First Full Moon Play so it is unsuitable to analyze the performance's aspects as a traditional festival.

Looking at the side of performance's aspect, the problem is the folk art performance's overall weight in festival's programs are too low. Recently spectators are not satisfy by just watching moreover they prefer experiential performances. To keep with the trend, experiential programs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and getting more places in the festival's programs.

Whenever the organizations try to hold the festivals, they have to think about the audiences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at the festival is for the local people or it is for the tourists from outside. In the past festivals, the objective was usually about the strengthening the unity and to promotion the folk culture. However these days the festivals are changing to lure the tourists form outside and try to advertise their cities or counties and sell their local agricultural products.

Looking into the participating tendency in the Gyeonggi Province Folk Art Festival, the play which used instrument for folk music, some folk bands like Pyeongtaek's Wookdari folk band and Suwon's Jinttebaekgi folk band have participated in this festival couple times and this kind of folk bands are keep increasing. Out of 66 teams 23 were folk band teams. It means about 35% were folk bands. Before the 1997 out of 39 teams 9 teams were folk bands, it is about 23%. Since 1997 out of 28 teams 14 were folk bands, it has been risen up to around 50%. Especially

looking at the 15th Folk Art Festival 2005, out of 9 teams 5 teams were folk bands. Participation of the folk bands are increasing in the festival.

Many teams just consider the meaning of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 even though they should care about the evaluations of their teams. And also folk band play is easy to revive. That is why the concentration of the folk bands are keep increas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teams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 it requires reviving the variety of the items, participation, and financial support.

Key words : folk band play, folk performances, Gyeonggi Province Folk Art Festival, folk music, Namsadang performance

## 경기도당굿의 현재와 미래

-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

이 용 범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머리말	2. 지역공동체
1. 경기도당굿 전문가	3. 사회문화적 환경
1) 화랭이	맺음말
2) 무당	

---

### 머 리 말

이 글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경기도당굿은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도당굿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흔히 ‘미지’라고 불리는 무녀와 ‘사니’라고 하는 화랭이들에 의해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행해지는 이른바 이 지역의 전통적인 형태의 도당굿을 말한다.

어떤 현상이든지 그것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그 현상이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경기도당굿은 매우 복합적인 현상으로 그것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단순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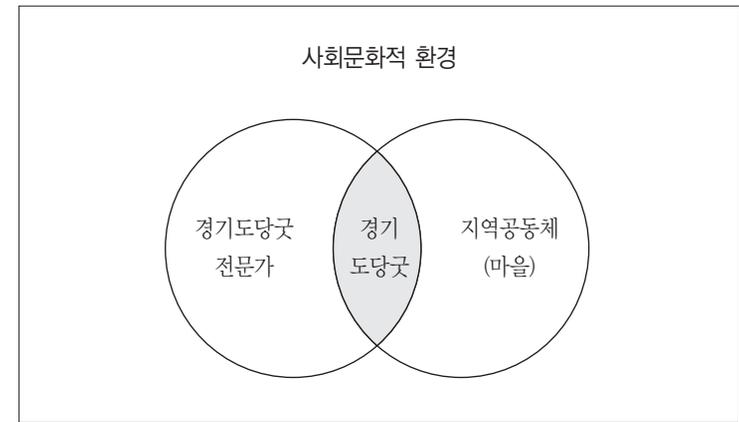
경기도당굿이 하나의 굿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굿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만 한다. 경기도당굿을 실행하는 전문가에는 위에서 말한 무녀와 화랭이가 있다. 흔히 굿은 무속의 사제라는 무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당곳에서는 남자 화랭이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자 화랭이들은 곳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악사(樂士) 이상의 역할을 하며, 이들의 역할이 사라진 경기도당곳은 아마도 전통적인 형태의 경기도당곳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당곳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무당과 아울러 화랭이는 중요한 고려 대상의 하나이다.

또한 경기도당곳이 하나의 곳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전문가들 외에 그 곳을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 곳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더라도 그 곳을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곳으로 존재할 수 없다. 경기도당곳은 한 가정이나 개인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한 마을과 같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곳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마을 전체의 요구와 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마을로 대표되는 지역공동체 역시 이 글의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곳이나 마을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경기도당곳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마을 역시 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지 못한다. 그것은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며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란 자연환경, 생업과 생산양식, 주거형식, 놀이, 종교, 법과 제도, 생각과 의식세계 등 생산양식, 의식주, 자연환경, 사고양식 등 한국인의 삶 전반을 가리키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경기도당곳은 이러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관계를 통해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록 경기도당곳 전문가와 경기도당곳의 수용자인 마을공동체보다는 간접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역시 경기도당곳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정리하면 이 글은 경기도당곳의 전문가인 무당과 화랭이, 도당곳을 수용, 실천하는 지역공동체(마을), 그리고 이 양자를 포괄하면서 양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라는 세 측면을 고려하면서 경기도당곳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해보려는 것이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1. 경기도당곳 전문가

### 1) 화랭이

경기도당곳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곳에서 차지하는 화랭이의 역할이다. 흔히 화랭이는 곳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짚이나 악사의 또 다른 호칭으로 여긴다. 실제로 경기도 도당곳에서 화랭이는 곳의 모든 음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큰 곳에 수반되는 대금, 해금, 북, 가야금, 쌍피리, 징은 물론이고, 흔히 곳에서 무녀들이 친다고 알려진 장구 역시 화랭이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곳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것은 화랭이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곳에서 화랭이가 음악을 담당하는 것은 경기도당곳의 특징만은 아니다. 황해도 곳, 서울곳, 동해안 곳, 전라도 곳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서울곳에서는 무당이 장구를 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현상이다. 무당들의 설명이나 일제시대 자료에 의하면 장구와 서사무가(敍事巫歌) 구송(口誦)을 담당하는 ‘기대’라는 존재가 장구를 담당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무속의 어느 지역 곳에서도 음악을 담당하는 별도의 존재가 있다는 점에서 화랭이가 곳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것을 경기도당곳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말하기 어렵다.

화랭이의 역할을 경기도당곳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는 이유는 화랭이가 곳의

음악만을 담당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당곳에서 화랭이가 맡는 역할을 곳의 구체적인 절차와 연결시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1)</sup>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이용우(1899-1987)와 조한춘(1919-1997)은 1980, 90년대까지 생존했던 경기도당곳의 대표적인 화랭이들이다. 이 표를 보면 화랭이들은 부정, 돌돌이, 시루말, 제석곳, 본향곳, 군웅곳, 중곳, 뒷전 등 대부분의 곳 절차에 참여하면서 무녀와 함께 곳 진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2)</sup>

동막도당곳 (1984. 4. 2-3)	장말도당곳 (1991. 11. 15-16)
1. 당주곳 (서간난, 조한춘)	1. 당주곳 (오수복, 조한춘)
2. 거리부정 (서간난, 조한춘)	2. 부정곳 (조한춘, 오수복)
3. 부정곳 (서간간)	3. 도당모시기 (조한춘, 오수복)
4. 도당모시기 (서간난)	4. 돌돌이 (조한춘)
5. 돌돌이 (조한춘)	5. 장문잡기 (오수복, 조한춘)
6. 시루말 (이용우, 서간난)	6. 시루말 (오수복)
7. 제석곳 (이용우, 서간난)	7. 꽃반세우기(장한갑)
8. 신장곳+손곳+공곳 (남무)	8. 제석곳 (오수복, 조한춘)
9. 본향곳 (조한춘)	9. 터벌림 (조한춘, 이동안)
10. 터벌림 (이용우, 조한춘, 이영수 외)	10. 별상+홍손넙곳+대장곳 (김순덕)
11. 군웅곳 (서간난, 조한춘, 이용우)	11. 군웅곳 (오수복, 조한춘)
12. 도당모시기 (서간난, 조한춘)	12. 중곳 (여무)
13. 중곳 (조한춘)	13. 도당모시기 (오수복)
14. 뒷전 (이용우, 조한춘)	14. 뒷전 (오수복, 조한춘)

더욱이 경기도당곳의 진행에서 화랭이들이 차지하는 이러한 역할은 도당곳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반 가정을 위한 경사곳에서도 부정청배·시루청배·제석청배·조상청배 및 성주풀이와 서낭곳, 그리고 제석곳의 뒷풀이인 중타령을 남자 화랭이들이 진행하였다. 그래서 화랭이들이 참여하지 않고 무녀들만이 진행하는 곳을 시시하다고 해서 통탱이곳이라 한다.

1) 이 표는 인천 동막과 부천 장말에서 행해진 경기도당곳을 기초로 김현선이 정리한 것을 인용하였다.  
 2) 경기도당곳에서의 화랭이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조사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보형·황무시·김수남, 『경기도 도당곳』, 열화당, 1983; 이두현·장주근·정병호·이보형, 『경기도 도당곳 :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자료 제186호』, 문화재관리국, 1990.

이런 점에서 화랭이는 일반적으로 곳에서 무악(巫樂)을 담당하는 짝이로 알려져 있지만 이 지역 곳에서 그들의 역할은 단순한 무악을 담당하는 짝이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이 지역 화랭이들이 곳에서 단지 무악을 담당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곳의 한 주역으로서 역할하는 모습은 도당곳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들이 참여하는 경기도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곳에서 남자 화랭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경기도 전통곳의 중요한 한가지 특징으로 들 수 있다.<sup>4)</sup>

따라서 경기도당곳의 현재와 앞날을 논의함에 있어서 화랭이의 역할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당곳에서 활동했던 화랭이들은 일정한 가계 출신들로서 집안의 가업을 이어서 화랭이의 일에 종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당곳 화랭이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용우, 조한춘의 예를 들 수 있으며, 그들 화랭이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사가 이뤄졌다.<sup>5)</sup>

그러나 현재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출신이면서 경기도당곳에 종사하는 화랭이 집안 출신의 화랭이는 극소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더우기 생존하는 화랭이들의 기량이 선대의 화랭이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서 현재는 주로 악사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경기도당곳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여겨지는 군웅곳에서 무녀와 함께 화랭이가 쌍군웅을 놀아야 하고, 이어서 온갖 사설, 재담, 소리로서 본격적인 군웅곳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내는 화랭이가 없다.

현재 경기도당곳에서 활동하는 악사들 중에는 경기도 남부나 아니면 타 지역의 이른바 화랭이 집안 출신들이 있다. 또한 대학에서 전통 음악과 춤을 전공하던 젊은이들이 경기도당곳 음악을 배워 도당곳에서 악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 모두 악사가 아닌 진정한 화랭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으며,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진정한 경기도당곳 화랭이의 역할을 익히기 위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젊은

3) 이런 이유에서 그들을 단순히 악사로 칭하지 않고 남무(男巫)로 표현하기도 한다.  
 4) 줄고, 『경기도 남부 무속의 지역적 정체성: 신태소개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29, 비교민속학회, 2005, 179쪽.  
 5) 대표적인 예로서 김현선, 『한국화랭이 무속의 역사와 현실』, 지식산업사, 1997, 147~206쪽 참조.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경기도당굿의 한 축인 화랭이의 역할이 일정한 가계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기존방식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유지되고 전승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 경기도당굿에서의 화랭이의 역할은 기악과 춤, 사설과 재담, 소리 및 연극적 행위 등 전통 예능의 전범위에 걸쳐 있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예능교육은 기악과 춤, 연희가 각각 별도의 분야로서 분리되어 교육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악사들이 과거 화랭이들이 포괄적인 역할을 온전하게 전승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2) 무당

화랭이와 함께 경기도당굿을 진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무당이다. 경기도당굿에서 무당은 신을 청하여 신에게 인간의 바램을 청하고, 인간이 잘 되기를 축원하며, 인간의 앞날을 알려주는 종교적 사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무당의 역할은 화랭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종교적인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경기도당굿은 이러한 무당과 화랭이 양자의 역할의 균형과 조화로서 이뤄져 있다.

흔히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남부 지역의 무당들을 신체험과는 무관한 이른바 '세습무'로 규정하지만 '강신무/세습무'의 구분을 전제로 한 이러한 규정은 이 지역 무당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지역 무당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강신무인가 세습무인가라는 점보다 그들이 무속의례인 굿을 어떻게 진행하고 굿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사실 수원지역 무속계에서 무당들의 구분은 '강신무/세습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굿 절차에 의해 이뤄진다. 즉 이 지역 무당들을 구분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것은 이른바 입무(入巫) 과정을 기준으로 한 강신무/세습무의 여부가 아니다. 신이 내렸느냐 아니면 집안의 대를 이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어떤 무당집단에 속하는가, 그리고 어떤 형식의 의례를 행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비록 신이 내리고 무당집안 출신이 아니더라도 화랭이패 무당집단에 속해서 화랭이패 무당의 굿을 행하면 그는 화랭이패 무당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지역 무당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습무와 강신무라는 기존 학계의 범주보다는 화랭이패 굿을 하는 무당, 서울굿을 하는 무당, 황해도 굿을 하는 무당, 앓은굿을 하는 법사 등으로 나누는 무속현장의 구분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 지역 무당들도 나름의 신체험이 있고, 신당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용우, 조한춘을 비롯한 이 지역의 여러 화랭이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sup>7)</sup> 한편 이 지역 무당들의 굿에서는 굿 절차나 각 절차에서 나타나는 사설, 음악, 춤 등의 차이 외에도 서울굿과 같은 분명한 공수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한 가지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당굿에 참여하고 있는 무당들 중 이른바 좁은 의미의 세습무의 범주에 드는 무당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당굿 인간문화재인 오수복조차도 신체험을 하였으며, 개인신당이 있고, 굿에서 공수를 준다. 그럼에도 오수복 본인은 자신이 이른바 강신무에 속한다고 여기지 않는다.<sup>8)</sup> 현재의 이 지역 무당들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습되어 온 무당집안 출신의 무당만으로 경기도당굿을 이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경기도당굿의 전승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당들이 이른바 강신무인가 세습무인가가 아니라 그들 무당들이 경기도당굿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굿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설, 춤, 노래, 굿 음식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연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이 지역 무당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익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sup>9)</sup> 그래서 경기도당굿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무당을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린다.

이것은 수원지역의 현재 무속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

6) 생산과 놀이, 예술, 종교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의 미분화를 전제하는 전통사회를 염두에 둘 때 이런 구분은 작위적인 구분으로서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다. 단지 여기서 이처럼 무당과 화랭이의 역할을 종교적인 것과 예능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은 순전히 양자 역할의 이론적 구분을 위한 것이다.

7) 이에 대해서는 줄고, 154~164쪽 참조.

8) 강신무의 신내림이 대부분 집안 내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세습무/강신무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9) 물론 이는 필자 개인의 판단으로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의 곳은 - 그 목적과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 경기도 화랭이패 무당에 의한 곳, 이른바 강신무에 의한 서울곳과 황해도 곳, 그리고 법사에 의한 앓은곳으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서울곳과 법사의 곳이 혼합된 겹곳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은 서울곳이다. 이 지역에서 쇠퇴일로로 걷고 있는 곳은 단연 경기도의 전통곳으로 여겨지는 화랭이패 무당에 의한 곳이다. 이른바 화랭이패 무당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선무당(즉 서울곳을 하는 무당)시절이다'고 말한다. 경기도당곳 인간문화재인 오수복은 서울곳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으로 된 지가 20년이나 된다면서 경기도 곳은 배우기 힘들고 서울곳은 배우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요즘 만신들이 서울곳을 주로 하고 옛날 경기도 곳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기도당곳을 제대로 알고 연행할 수 있는 무당이 드물게 된 상황은 무당들의 태도에서만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세태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요즘 세태에서는 뭐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경기도식의 곳은 일반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경기도식의 곳을 하더라도 약식으로 줄여서 하거나 아니면 짧은 공수 위주의 서울곳을 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곳만을 가지고서는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래서 경기도당곳에 참여하고 있는 무당들은 전통적인 경기도곳과 서울곳을 동시에 익혀서 상황에 따라 경기도 곳을 하기도 하고, 서울곳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행하게 되는 곳은 생계의 필요에 의한 서울식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기도당곳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무당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이 지역에서 계속 유지된다면 경기도당곳에서의 전통적인 무당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약화,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른바 서울식 곳의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세태에 따른 변화는 당연한 것이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정반대로 본래적인 모습의 변질이라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 부정의 평가를 떠나서 경기도당곳의 현재와 앞날이 어둡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 2. 지역공동체

경기도당곳은 마을과 같은 지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지역의 공동의 신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단위로 드리는 의례의 하나이다. 경기도당곳은 이러한 지역의례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약화, 소멸된다면 경기도당곳 역시 약화,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당곳의 현재와 미래는 암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이용우와 조한춘의 두 화랭이를 중심으로 경기도당곳이 막 관련 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경기도당곳은 인멸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전통사회에서 가족과 같은 혈연집단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단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한 지연공동체인 마을이다. 마을은 기본적인 삶의 영역으로서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보통이었다.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빈번하고 자유로운 이주가 불가능하였으며 그러한 이주 자체가 상상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될 지역은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실존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거주지역은 그 개인의 정체성과 사고, 인간관계, 생활방식 등 삶 전반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한마디로 전통시대의 삶은 상당한 정도로 지역 의존적이었다.

이러한 마을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경기도당곳과 같은 마을의례는 마을공동체의 유지와 전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마을의례는 마을공동체의 생활주기에 맞춰 행해짐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삶에 리듬을 부여하고 마을공동체 생활에 대한 재인식을 가져온다. 또한 마을의례는 일상의 삶의 공간인 마을공간을 종교적 공간으로 전환시키면서 마을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역시 가능케 한다.

마을사람들은 마을의례를 위해 마을회의를 하고, 금기를 지키며, 마을 출입을 삼가고, 공동으로 정성스럽게 의례를 행하는데, 이처럼 마을의례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행하며, 의례에서 같이 마시고 즐기는 과정은 마을사람들에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마을의 당, 신목(神木), 장승, 솟대로 표상되는 마을의 신은 마을의 상징이었다. 이처럼 지역 단위의 마을의례는 가족이나 씨족의 혈연관계를 뛰어넘어 공동체 의식

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는 한국인의 삶에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축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산업화, 도시화, 교통의 발달 및 자연마을의 생활권과 경계를 무시하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개발, 이와 관련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새로운 주거단지의 조성 등등의 요인으로 이제 더 이상 마을은 사람들의 삶의 기본단위로서 작용하지 못한다. 이제 많은 한국인에게 지역공동체는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지역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이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의식의 변화로 인해 마을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며, 유의미한 삶의 단위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당곳의 수용 주체가 약화되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경기도당곳의 유지, 전승은 매우 어렵게 되고 말았다. 현재 수원이나 기타 경기지역에서 경기도당곳이 행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적으며, 그나마 그런 지역도 마을의 몇몇 노인들의 노력과 관의 지원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의 전통적인 예능과 놀이, 종교적 신앙심이 통합된 이전 경기도당곳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경기도당곳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어렵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바로 경기도당곳의 사회문화적 기반인 지역공동체의 약화와 해체, 소멸 때문이다.

### 3. 사회문화적 환경

한국무속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당곳은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기도당곳 전문가인 무당과 화랭이, 굿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마을과 개인들은 그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영향받고, 그러한 영향은 다시 경기도당곳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무속은 일반적인 삶의 활동이나 사회조직, 문화로부터 분화되어 상대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일반 한국인들의 현실 삶의 활동이나 조직, 문화와 분리되지 않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실천되는 '생활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분명한 종교조직이나 그 믿음과 의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자화된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

은 그만큼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경기도당곳을 둘러싼 현재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III장에서 말했듯이 경기도당곳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되는 전통적인 마을과 같은 지역공동체와 그 문화는 약화, 해체되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생산활동의 중심이 농어업에서 제조업으로, 삶의 근거지가 전통적인 마을과 같은 지역공동체에서 개인 위주의 도시로 바뀌었다. 아울러 교통의 발달과 함께 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촌의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는 대부분의 거주민 특히 젊은층의 대부분이 도시로 떠나간 상황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형편도 열악해지면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는 약화,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마을과 같은 지역은 한국인의 삶의 유일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 자신의 마을은 그저 선택 가능한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가 될 뿐이다.

지역의 개발 방식 역시 마을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가속화한다. 현재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은 기존 자연마을의 경계나 삶의 방식, 자연조건에 대한 고려가 거의 배제된 채로 진행된다. 자연마을의 생활권과 경계를 무시하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개발 및 이와 함께 추진되는 새로운 도로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조성은 수백 년 내려 온 한 마을공동체와 문화를 한순간에 지워버린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조성은 지역 삶의 문화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으며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외부 이주민들을 다수가 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전통문화 유지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인 인적기반을 무너뜨린다. 삶의 성향과 스타일이 다른 다수의 외부 주민이 한 지역에 유입됨으로써 이제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온 상대적으로 단일한 지역문화를 고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수원지역에서 경기도당곳의 형태가 아닌 유교식 제례의 형태라도 전통적인 마을의례가 유지되는 곳이 있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가 형성되지 않아서 외부 이주민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박이들의 수가 많아서 전통적인 문화가 아직 살아있는 곳들이다. 이런 점에서 한 지역의 원주민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방식의 개발이 경기도당곳과 같은 전통적인 마을의례의 전승 여부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아울러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의식의 변화 역시 경기도당곳의 유지와 전승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근대화와 함께 한국인들의 삶의 양식과 의식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사람들의 생활리듬은 전통적인 시간 흐름과 크게 달라졌고, 의식주를 비롯한 삶의 문화도 기존의 지역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국내의 다른 지역의 것 또는 나아가서 외국의 것까지 향유하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고방식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삶의 장소의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문화, 사람들의 의식의 측면에서도 지역성을 탈피하여 다양성과 합리성이 지배적 요인이 되는 상황은 경기도당곳과 같은 지역의 마을의례에 대해서 유일한 것으로서의 가치 보다는 상대적 가치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즉 삶과 문화, 의식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한 지역의 마을의례가 그 마을에서 이전과 같은 지배적이고 안정적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기도당곳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경기도당곳과 같은 무속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연극, 음악, 미술 등 관련 문화계의 관심, 중요한 곳과 곳 전문가인 무당과 악사들을 인간문화재로 인정하고 후원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관심, 후원정책은 곳이 실천되는 삶의 현장인 지역의 마을공동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역공동체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그러한 학계와 문화계, 정부의 노력이 경기도당곳과 같은 무속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유도해 낼 수는 있겠으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의 긍정적인 위상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맺음말

지금까지 경기도당곳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입장을 제시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경기도당곳의 전문가인 무당과 화랭이, 경기도당곳의 수용자인 마을공동체와 마을주민들, 이러한 요인들이 놓여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세 측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도당곳 전문가인 무당과 화랭이는 새롭게 키워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무당과 화랭이 못지않은 출중한 기량을 자랑하는 무당과 화랭이들이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무당과 화랭이들이 사라진다 해도 적어도 경기도당곳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음악과 춤, 사설, 연극적 행위 등은 녹음, 촬영, 채록되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경기도당곳과 경기도당곳이 담지하고 있는 이 지역의 독특한 전통 민속문화가 살아남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믿음이나 신앙도 그것이 하나의 종교현상으로 자리잡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요구된다. 경기도당곳의 경우 마을이라는 지역공동체, 그 지역공동체 문화가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전반적 변화는 그러한 공동체적 사회문화 기반을 상실케 하였다.

이러한 경기도당곳의 사회문화적 기반의 상실은 도당곳 전문가의 재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현실적 수요와 요청이 없는 곳을 익히고자 하는 무당과 화랭이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무속의례 중에서 경기도당곳과 같은 마을관련 곳은 점차로 사라지고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이나 가정곳은 살아남게 된 것이다. 현재 수원지역에서 행해지는 평동이나 고색동 도당곳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관심과 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와 수용이 요청된다.

그러나 현재 수원지역의 개발의 바람이 그러한 도당곳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필요를 얼마나 더 유지시켜 줄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한 지역이나 마을의 자연환경, 삶의 모습, 문화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친 전통문화, 친 지역문화적”인 개발이 입안되고 수행되기 전에는 경기도당곳과 같은 이 지역 민속문화는 설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수원에서 옛날과 지금,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기대해본다.

## Abstract

# The present and future of Gyeonggi Dodanggut in Suwon

Yi Yong-Bhum (The Korea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and future of Gyeonggi Dodanggut in Suwon considering the religious specialists of Gyeonggi Dodanggut, that is shamans and hwarengies(화랭이), local communities(maeul, 마을) that practices Gyeonggi Dodanggut, and general socio-cultural environment.

Speci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ocal communities in consider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Gyeonggi Dodanggut. Because local communities have played a decisive role as the socio-cultural basis of Gyeonggi Dodanggut. Now local communities have been greatly weakened or disappeared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in Korea.

So this paper takes a pessimistic view of the future of Gyeonggi Dodanggut. Because new shamans and hwarengies can be cultivated, but it is very difficult to revive local communities and many social developments damaging local communities continue.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conclude that it is difficult for folk cultures in Gyeonggido to be preserved in this situation without the social developments respecting the value of traditional local communities and their culture.

Key words : shamans, hwarengies(화랭이), local communities(maeul, 마을), socio-cultural environment, social developments

## 수원지역 농악연구

- 대유평농악을 중심으로 -

시지은 (경기대학교 국문과 강사)

---

머리말	2) 대유평농악의 순서와 가락
1. 대유평농악에 대한 검토	2. 대유평 농악의 특징과 가치
1) 대유평농악의 유래와 특징	맺음말

---

### 머 리 말

우리나라 민속문화 중 농악은 산간지역과 평야 그리고 해안지방을 막론하고 골고루 분포해 있다고 할 수있다. 농악은 지역에 따라 크게 경기도·강원도·전라도·경상도 농악으로 나누는데 이는 단순히 지역에 따른 분류 차원을 넘어 커다란 공통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각 지역의 경계를 중심으로 위아래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옆 지역의 특성이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는 동일한 형태의 농악이 존재하고 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일 수 있다.

농악의 전국적인 양상이 그렇듯이 경기도의 농악도 두레농악과 걸립농악으로 나뉘어 전승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김포, 동두천, 강화, 양주 등 경기도 서북부 지역은 농사필이를 중심으로 한 두레농악이 중심이 되어 전승되

고 있다. 반면 안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 지역은 일명 ‘웃다리 농악’이라고 하는 기예적으로 발전한 농악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경기도 농악은 흔히 웃다리풍물이라고도 하는데, 경기도의 농악을 단일하게 보지 않고 변별하는 시각이 이미 존재한다. 경기농악을 안성을 중심으로 한 남부농악과 김포지역 등의 북부농악으로 나눈 시각과 한수이북(漢水以北)의 농악과 한수이남(漢水以南)의 농악으로 나눈 시각이 그것이다.<sup>1)</sup> 이렇게 봤을 때 수원은 지역적으로 경기도 농악이며, 경기도 농악 중에서도 경기남부농악에 속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원지역의 농악으로는 골곶대농악, 역말두레, (웃)버드내농악 그리고 대유평농악이 있다.<sup>2)</sup> 수원지역의 농악을 연구하고자 하면서 수원의 여러가지 농악 중에 대유평농악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이유는 수원지역의 농악 중에 대유평농악이 그 유래와 발굴경위 그리고 농악 내용 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대유평농악에 대한 내용들이 여느 경기농악과는 색다른 독특한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수원을 대표할 만한 농악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유평농악은 ‘대유평 진떼배기농악’이라는 명칭으로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2003년),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2005년)에 출전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대유평농악을 정확하게 들여다 봄으로써 대유평농악의 올바른 전승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농악관련문헌을 기초로 하였으며, 대유평농악에 대한 문헌·시청각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 가장 많은 도움과 힘이 된 것은 여러 선생님들과의 소중한 면담자료임을 밝힌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안봉현(수원시민족놀이연구소 소장, 2003년·2005년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수원대유평농악으로 참가)·김문향((사)경기문화가족협회 부회장, 2003년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수원진떼배기농악 기획)·유청자(경기도무형문화재 제34호 안성향당무 전수조교, 대유평농악발굴)님이다.

1) 김원호·노수환, 『경기도의 풍물굿』, 경기문화재단, 1999, 13쪽.

2) 골곶대농악, 역말두레, (웃)버드내농악, 대유평농악은 「민족놀이연구소」 안봉현씨와 경기도문화재 제43호 「안성향당무」 전수조교 유청자씨와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수원지역의 농악이다.

## 1. 대유평농악에 대한 검토

대유평농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2003년과 2005년에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수원대표로 출전한 대유평농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두 해에 작성된 대유평농악 안내문과 출전 당시의 공연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두 해에 작성된 팸플릿 내용 중 상이한 부분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공연 자료는 그 진행내용이 더욱 상이하여 대유평농악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웠다. 이렇게 2년 동안에 같은 대유평농악이 상이한 점을 나타내는 것은 각 출전년도에 따라 지도·연출·기획한 사람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출연한 사람도 큰 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003년에 출연한 55명과 2005년에 출연한 48명 중 동일인물은 7명에 불과하다. 이 장에서는 두 해에 출전한 대유평농악을 기본으로 하여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보았다.

### 1) 대유평농악의 유래와 특징

대유평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예능보유자였던 이동안(1906~1995) 고증, 유청자·오경환 발굴로 알려져 있다. 대유평농악의 유래와 특징은 2003년과 2005년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면서 작성된 안내문의 내용만이 문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하였다.

대유평농악의 유래는 2003년과 2005년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2003년 안내문에는

대유평진떼배기농악 일명 수원華城농악은 진대가 있는 논배미에서 행해진 데서 유래되었음을 의미한다. 진떼배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 화서문과 서북공심돈이 서 있는 장안공원 앞이라는 설이 있다. 정조대왕이 친히 동북각루(방화수류정)에 거동하시어 화성의 낙성연을 열 쯤해서 대유둔에 대풍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고 대유둔을 대유평이라 부르게 하셨다. 농군이라 하여 농한기에는 각종 무술을 연마하고 나발·나각·북 등을 들고 진행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전해내려온 풍물이 용인·남양·안성 등지에

서 올라온 뜰쇠와 전문패 계열의 재능을 융합하면서 좀 더 세련되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또한 화성재인청이 생기면서 군악의 면모와 행궁지의 위용을 흡수하여 발전하였다.

로 서술되어 있고, 2005년 안내문에는

대유평 진떼배기농악은 정조대왕이 수원에 화성을 축성하면서부터 유래된 역사깊고 의미있는 전통농악이다. 수원에 화성이 축성될 대둔이 설치되면서 농민들이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을 받던 때로부터 군악과 농악·굿판이 함께 어우러지고 축성과정·근무형태·왕의 거동 등을 내포한 풍물로 발전하였다.

로 서술되어 있다.

문화는 항상 움직이고 변화한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민속문화는 제대로 기록된 부분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구전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같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유래에 대해 다르게 서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안내문의 내용이 다르게 서술되어 있음에도 다행히 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대유평농악이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축성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둔(屯)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화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을 축성하면서 주둔하는 병사와 일꾼들을 먹여 살릴 경작지가 필요했다. 그 경작지가 바로 둔(屯)인 것이고, 그 둔이 바로 대유평농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화성에 대규모 경작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과 시설들이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1> 정조 44권 20년 1월 20일 (정묘) 001 / 현릉원에 배알하려고, 화성 교귀정을 지나 행궁에 이르러 밤을 지내다

(국역) 장차 현릉원(顯陵園)에 배알하려고 어가가 화성(華城) 교귀정(交龜亭)에 이르러 우의정 윤시동에게 이르기를, “관개(灌溉)하는 이익이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 못을 파면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앞 들판에서 수확한 것이 이미 1천 곡(斛)이 되었다.” 하고는, 인하여 정자[亭]를 ‘영화(榮華)’로, 야(野)를 ‘관길(觀吉)’로, 평(坪)을 ‘대유(大有)’로, 도랑[渠]을 ‘만석(萬石)’으로 각

각 명명하고 비석을 세워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행궁(行宮)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원문) 丁卯/將謁顯隆園, 駕至華城^交龜亭, 謂右議政尹著東曰: “灌溉之利, 不已博乎? 自鑿斯池也, 未過一年, 前坪所收, 已爲千斛。” 仍賜亭名曰迎華, 野日觀吉, 坪曰大有; 渠曰萬石, 命伐石以識之. 至行宮經宿.<sup>3)</sup> 【원전】 46집 627면.

<2> 정조 48권 22년 4월 27일 (신유) 004 / 화성에 만년제를 완성하다

(국역) 만년제(萬年堤)를 완성하였다. 만년제는 현릉원(顯隆園)의 동구(洞口)에 있다. 상이 연신에게 이르기를, “이번 화성(華城)의 만년제 공사는 백성 한 사람의 힘도 쓰지 않고서 몇 일만에 완성했으니, 참으로 큰 다행이다. 원침(園寢)의 수구(水口)에 이 방죽물을 저장해두면 현릉원 밑의 백성들 토지에 이것으로 물을 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마치 저 장안문(長安門) 밖에 만석거(萬石渠)를 만들고 여의동(如意洞)을 쌓고 대유둔(大有屯)을 설치한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만석거를 만들고 여의동을 쌓고 대유둔을 설치할 당시에는 백성들이 모두 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누차에 걸쳐 권유 신칙하고 내탕전(內帑錢) 수만 금을 내려서 결심하고 시행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백성들이 도리어 주위가 광활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으니, 백성들과는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함께 즐길 수도 있으나 일의 시작을 함께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 그러나 지극히 신명한 것이 또한 백성들이니, 뒤에 의당 나의 고심을 알 것이다.” 하였다.

(원문) 萬年堤成. 萬年堤在顯隆園洞口. 上, 謂筵臣曰: “今番華城^萬年堤役, 可謂不費一民之力, 而不日告完, 誠大幸也. 園寢水口, 貯此堤水, 園底民田, 以此灌溉, 與長安門外, 開萬石渠, 築如意洞, 設大有屯一般意. 而萬石築洞設屯時, 民皆不肯, 屢勤勸飭, 下內帑錢數萬金, 決意爲之, 到今民人, 反以週遭不能廣闊怨之, 可與樂成, 不可與謀始, 有如此. 然至神者, 亦小民也, 後當知予苦心.”<sup>4)</sup> 【원전】 47집 84면

<3> 정조 49권 22년 10월 19일 (기유) 006 / 비변사가 아뢴 장용위 외영 5읍 군병의 절목②

(국역) 또 팔달위(八達衛) 서쪽으로는 평야가 광막하게 펼쳐지면서 셋길이 이리저리 엇갈려 있는데, 숙지산(孰知山) 둔대와 고양동(高陽洞) 둔사(屯舍) 뒤 언덕의 둔대는 요해지(要害地)로서 모두 관방(關防)에 함당하니, 남쪽 수구

3) ~ 5) 인터넷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서 정조실록.

(水口) 및 귀산(龜山)의 돈대와 아울러 동돈(東墩)의 예에 따라 장졸(將卒)을 배치하여 경계하게 함으로써 서성(西城)의 노대(弩臺)까지 단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또 서둔(西屯)의 제언(堤堰)에 물을 모아 둠으로써 북둔(北屯)의 수전(水田)에 물을 댄은 물론 만석거(萬石渠)에 통하게 하고, 요로(要路)를 차단하면서 수택(水澤)이 전면과 좌측에 있게 하는 뜻을 부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원문) 八達以西, 平野曠漠, 間路交錯, 而孰知山墩臺, 高陽洞屯舍後岡墩臺處在要害, 俱合關防, 竝南水口, 龜山墩臺, 而依東墩例, 置將卒守警, 以爲連梯於西城弩臺. 又貯水於西屯堤堰, 以爲連北屯水田, 而通萬石渠, 遮截要路, 以寓前左水澤之義.<sup>5)</sup> 【원전】 47집 120면 중에서.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인용문<1>에서는 화성에 못을 파면서 1년 안에 1천곡이 넘는 큰 수확이 있었으며, 그것을 기념하여 정조가 화성에 영화정, 관길(야), 대유평, 만석거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2>에서는 현릉원 동구에 만년제가 완성되어 현릉원 백성들이 토지에 물을 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이전에 장안문 밖에 만석거와 여의동, 대유둔을 설치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인용문<3>을 통해서는 화성에 서둔·북둔·만석거 등의 수리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인용문들을 통해 화성에 대규모 경작을 위한 인위적인 수리시설이 여럿 있었다는 것과 그 수리시설로 말미암아 큰 수확을 거두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유청자는 ‘대유평(大有坪)’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도세자 능을 화성으로 옮긴 해에 서둔동 일대에 대풍이 들었다. 큰 풍년이 드는 해는 대유년(大有年)<sup>6)</sup>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조대왕이 풍년 든 쌀로 혜경궁마마 잔치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풀어 먹였다. 그래서 그 쪽이 대유평이다.”

그러면 대유평은 구체적으로 수원의 어느 지역을 가르키는 것일까? 안봉현은 “대유평은 만석공원에서 내려오는 만석지기의 넓은 들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문향은 “만석공원에서 서호까지 내려오는 길의 뒷편 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 ‘大有’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①大有年 : 크게 풍년이 든 해 ②大有卦 : 육십사괘 중 이괘(離卦:☲)와 건괘(乾卦:☰)가 겹쳐져 이루어진 괘로 불이 하늘 위에 있음을 상징한다. 불이 천상에 있어서 비추는 데가 광범위하므로 성대하고 풍유함을 상징한다. 『東亞 漢韓中辭典』, 동아출판사, 1998, 276쪽.

두 진술의 내용로 보아 대유평은 지금 화성의 서북쪽에 있는 일왕저수지 윗쪽에 있는 만석공원에서 서호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유평의 실재를 살펴보았으나 크게 남는 문제가 남았다. 바로 ‘진떼배기’라는 용어인데, 2003년과 2005년의 안내문 모두에 ‘대유평진떼배기농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진떼배기는 언뜻 높은 장대에 새를 얹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솟대의 다른 명칭인 진포배기·짐대배기·진대배기로 생각하기 쉽다. 이 명칭에 대해 면담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봉현은 “군사훈련의 진을 짚다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였고, 김문향은 “진떼배기는 솟대를 가리키는 말로, 솟대를 세워놓은 마을은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을 뜻한다”고 하였다. 유청자는 “진떼배기는 진대서낭에서 나온 말로 대유평이 되기 전에 진대서낭이 있어서 방생을 하고 고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대유평농악에 직접 관련했던 세 사람이 진떼배기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 것은 구전전승의 한계로 볼 수도 있고, 잘못 붙여진 명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진떼배기농악’이라는 명칭에 대해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대유평진떼배기농악’이란 명칭보다는 ‘대유평농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자는 최소한의 공감과 근거를 갖는 ‘대유평농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 대유평농악의 특징으로 2003년 안내문에는

군악과 농악이 어우러진 대유평진떼배기농악은 타 지역에 비해 토속적인 질박한 맛은 덜하나 질서있고 법도 있는 화려한 군악 및 도시풍물의 특징을 보인다. 진쇠장단 등 경기도 도당굿의 고유한 무속장단이 내포되어 있고 화성 축성시의 형상과 군인들의 근무형태·원천물굿·성밧기·입성놀이·잉어몰이굿·탑돌이·십자걸이 등 소리굿·고사굿·진굿·춤·마당굿 등이 어우러진 종합민중예술로서 어느 지역보다 자극적이고 강렬하다. 잡색의 특징으로는 도대방·남시도사·연무대무사·잽생이 등이 등장한다고 한다. 그 밖에 화려한 쌍용이 그려진 기를 사용한다.

고 되어있고, 2005년 안내문에는

대유평진떼배기농악은 타 지역 풍물에 비해 토속적이고 질서와 법도 있는 화려한 군악 및 도시풍물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군악과 농악이 어우러져 진쇠장단 및 터벌림 장단 등 경기 도당굿의 고유한 무속장단이 내포되어 있다. 수원 화성축성시의 형상과 군인들의 근무형태·원천물굿·성밧기·입성놀이 등 양반들의 향락문화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임금님이 거동하시어 어가에서 내리고 오르시던 모습과 서얼이 남매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단무동놀이 등 주변 지역과는 특이한 점이 많다. 팽택이나 안성농악과도 대조적인 고유의 소리굿·고사굿·진굿·춤·마당굿 등이 있는 지역 전통민속예술이며 마당풍물놀이로서 보존 육성하며 발전시킬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 설명되어 있다.

2003년과 2005년 공연 자료를 보면 대유평농악의 특징으로 “법도 있는 화려한 군악, 진쇠장단·터벌림 장단 등 경기도 도당굿 장단, 화성축성시의 형상과 군인들의 근무형태·원천물굿·성밧기·입성놀이·잉어몰이굿·탐돌이·십자걸이, 소리굿·고사굿·진굿·춤·마당굿, 서얼이 남매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단무동놀이 등”을 들고 있다. 고증과 발굴의 내용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내문에 담긴 내용을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지는 측정하기 어렵다. 안타까운 것은 2003년과 2005년 실제 공연 내용에는 위에 서술된 대유평농악의 특성이 거의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나는 대유평농악의 특징으로는 우선 군악의 모습으로 취타복장과 나각(2003년)에서 볼 수 있고, 군인들의 근무형태는 택견동작을 하는 군졸(2005년)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으며, 입성놀이는 기수가 깃발을 서로 비스듬히 잡고 있으면 그 아래로 다른 치배들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고(2003년, 2005년), 십자걸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2003년, 2005년). 그러나 경기도 도당굿 장단은 들리지 않으며, 원천물굿·성밧기·잉어몰이굿·탐돌이·소리굿·고사굿·진굿·춤·마당굿·단무동놀이는 두 해 공연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유평농악의 특징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들 중 상당부분이 재연되지 않고 있다면, 고증과 발굴 그리고 연출과 실제행위가 서로 이해되고 조화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행히 여러 선생님들 면담 중에 유청자 선생님의 기억에 서얼이 남매이야기와 기세배·동아줄놀이(성터밧기)·탐돌이 무동 등에 관한 내용이 남아있는 것은 대유평농악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2) 대유평농악의 순서와 가락

대유평농악의 구체적인 순서와 가락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2003년과 2005년의 안내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출전시 안내문 내용	순서	2005년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출전시 안내문 내용
입장	1	입장
입성놀이 : 미지기 · 입성장단	2	오방진굿과 (원천)물굿 : 소리굿
당산벌림 1 : 상쇠 너설놀이 · 버꾸 개인놀이	3	사통막이(가세배기)
길군악칠채와 오방진, (원천)물굿 : 소리굿	4	당산벌림 1 : 북 · 무동 · 버꾸 개인놀이
당산벌림 2 : 개인놀이	5	열십자진(가세진)
열십자진(가세진) : 십자진	6	사통막이 : 터벌림장단
사통막이 : 십자진에서 각각 네 개의 원	7	성밧기(동아줄놀이, 3단치기) : 자진모리 · 동살풀이 · 새끼꼬기 소리
	8	입성놀이 : 미지기 · 맴돌이 8박 · 좌우치기
사통막이(가세배기) : 쌍줄배기대형 · 미지기	9	두원(쌍원진) : 으쓱이 장단 · 찌찍이 장단 · 풍년가락 · 굿거리 · 안팎원이 바뀜
네줄배기 : 집단 좌우치기	10	당산벌림 2 : 자진모리 · 상쇠의 진쇠춤 · 징의 명금무춤 · 서호북춤 · 버꾸놀이 · 무동춤 · 삼색 오색 열두발 상모놀이 · 용주사 탐돌이 · 무동
퇴장	11	마무리 원진 : 원 좌우치기
-	12	네줄배기 : 집단 좌우치기
-	13	퇴장
휘모리 · 자진모리 · 맴돌이 8박 · 입성장단 · 길군악칠채 · 동살풀이 · 타령장단	가락	자준가락 · 더드래기 · 길군악칠채 · 자진모리 · 동살풀이 · 터벌림장단 · 맴돌이 8박 · 으쓱이 장단 · 찌찍이 장단 · 풍년가락 · 굿거리
이 외에 설명이 안 된 것은 일반 경기웃다리 풍물과 같다.	비고	돌림벽구 · 절구벽구 등의 채상놀이와 찌찍이 등을 포함한 경기웃다리 농악의 판굿은 동일하다.

위의 표에서 보면 2003년과 2005년 안내문에 제시된 대유평농악의 순서와 내

용 그리고 가락은 상이하다. 진행하는 순서에서 차이가 나고 2005년에 성불기와 쌍원진이 추가되었다. 사용하는 가락 역시 2005년에는 터벌림장단·으쓱이장단·풍년가락 등 2003년에 비해 더 다양한 가락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일반 경기웃다리 풍물과 같다고 설명되어있다. 참고로 경기웃다리농악을 대표하는 두 지역의 판굿 순서를 제시한다.

평택농악의 판굿 : 인사굿·돌림법고·당산벌림 1·오방진·돌림법고·당산벌림 2 (무동놀리기, 법고놀이)·사통백이·돌림좌우치기·합동좌우치기·가새벌림·찍찍이춤(연풍대)·돌림법고·무동놀이·채상놀이·인사굿<sup>7)</sup>

안성남사당패 풍물판굿 : 인사굿·돌림법고·소리판·겹돌림벽구·당산벌림·벽구놀림(양상치기)·당산벽구놀림(허튼상치기)·당산돌림벽구·오방진(오방감기)·오방진(오방풀기)·무동놀림·벽구놀림(쌍줄백이)·사통백이·가새벌림·좌우치기·네줄백이·마당일채(찍찍이굿)·밀치기벽구·상쇠놀이·징놀이·북놀이·장고놀이·따벽구·시나위·무동서기(새미받기도 곁함)·채상놀이·마당걸이(구경꾼과 어울려 벌이는 군무)<sup>8)</sup>

표의 비교에 나와있는 설명처럼 대유평농악 역시 평택과 안성의 웃다리농악과 같이 사통백이·당산벌림·네줄배기·버꾸놀이·가새치기·오방진 등의 순서가 있으며, 휘모리·자진모리·길군악칠채·다드래기·찍찍이 장단 등 웃다리농악의 공통적인 장단을 사용한다. 그런데 제시된 안내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유평농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물굿·소리굿·진쇠춤·징의 명금무춤·서호북춤 등의 내용과 맴돌이8박·입성장단·동살풀이·터벌림장단·맴돌이8박·으쓱이 장단·찍찍이 장단 등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단들은 구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안내문에 제시된 내용과 달리 실제 연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2003년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출전시 실제공연 내용	순서	2005년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출전시 실제공연 내용
입장	1	입장
입성놀이	2	입성놀이
당선벌림 1	3	당선벌림 1
오방진	4	오방진
무동춤	5	당산벌림 2(버꾸놀이)
당산벌림 2(버꾸놀이)	6	가새치기
가새치기	7	십자진
십자진	8	사통백이
사통백이	9	돌림좌우치기
돌림좌우치	10	합동좌우치기
합동좌우치	11	겹원진
겹원진	12	
개인놀이(버꾸·상쇠·무동놀이·열두발 상모)	13	당산벌림(군졸들의 택견 개인놀이 및 대련)
농기·대회기·청룡기·황룡기·오방기·나각·나발·태평소·쇠·징·장구·북·무동·채상소고	구성	농기·대회기·청룡기·황룡기·오방기·영기·나발·태평소·쇠·징·장구·북·군졸·농민
흰 옷에 파란조끼(상쇠만 빨간조끼)와 삼색띠	복색	흰 옷에 빨간조끼와 삼색띠
휘모리·자진모리·찍찍이·칠채·다드래기 등	장단	입성장단·휘모리·자진모리·칠채·찍찍이·다드래기 등
납시도사·양반·농민·아낙	잡색	양반·아낙

2003년과 2005년 안내문에 제시된 대유평농악은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실제 공연된 대유평농악은 그 순서와 내용이 거의 같다. 그러나 유의해서 보아야 할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악기구성에서 2003년에 있던 나각이 2005년에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2003년에 무동과 채상소고가 2005년에는 무동과 채상소고가 보이지 않고 군졸과 농민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2005년에 상쇠를 담당했던 안봉현은 위에서 진떼배기를 “군사훈련의 진을 짠다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개념하고 있기 때문에 군졸과 농민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군사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봉현의 이런 견해는 그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2005년 대유평농악을 구성하고 연출했던 김철형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김철형과의 면담은 이

7) 『평택농악』,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111쪽.  
8)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 동화출판공사, 1974, 53~54쪽.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떼배기'와 '군졸과 농민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에 대한 부연설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2005년에 채상이 빠진 이유는 준비가 덜 돼서이지 없애려고 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대유평농악의 유래와 특색을 살펴볼 때 '대유평'에 대해서는 근거와 공감대가 마련되지만 '진떼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가진 것이 실제 공연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현재 대유평농악이 실연되는 상황은 일반 경기웃다리 농악과 크게 다른 것이 없으며, 대유평농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순서와 내용 그리고 가락은 실연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 2. 대유평 농악의 특징과 가치

앞 장에서 대유평농악이 안내문에 제시한 것과 같은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실연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기웃다리 농악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유평농악이 지니는 특징과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대유평농악이 정조시대 계획도시인 화성에서 발생한 유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독특하게 실연하고 있는 진풀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안내문에 제시된 것과 같은 순서와 내용 그리고 가락을 좀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대유평농악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시대 화성축성시에 발생했다고 전해지며 대유평이라는 지명에 대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었고 현재 수원에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낼 수 있었다. 또한 화성축성시에 만들었던 시설들 - 만석거 · 서둔 · 만년제 등 - 이 지금 수원의 지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 만석공원 · 서둔동 등 - 유래에 대한 근거는 더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역사적 자료 연구로 대유평농악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한 군악과 농악이 결합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유평농악이 다른 지역보다 군악적 성격이 강하게 보이는 면은 농악 구성에 나각이 들어가 있다는 것과 나각 · 나발을 부는 구성원이 취타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농악에 관악기가 들어가는 것은 태평소와 나발이 가장 일반적이고 간혹 경상도 지방에 대나무로 만든 땡가리(부산

아미 풍물굿)와 나무로 만든 고동(청도 차산농악)이 보인다. 그러나 나각이 농악에 편성된 예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대유평농악에 나각이 편성된 것은 대유평농악의 유래와 군악적 특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둘째, 현재 대유평농악이 일반 경기웃다리농악과 큰 차이없이 실연되고 있긴 하지만, 대유평농악의 독특한 진풀이가 세 가지 존재한다.

가. 입장을 하고 나서 입성놀이에서 깃발들을 양쪽에서 비스듬히 세우고 그 아래로 치배들이 지나가는 일명 입성놀이이다. 이 입성놀이는 다른 지역에서 간혹 보이는 문굿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농악에서 문굿의 형태는 이리농악의 문굿, 영광농악의 문굿, 화순 한천농악의 문굿 등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9)</sup> 전라도 지방의 농악에서 문굿과 대유평농악의 입성놀이는 '문이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깃발로 형상하는 것'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전라도의 문굿은 한 마을의 풍물패가 다른 마을에 기예를 선보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고, 대유평농악의 경우 새로 축성된 화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형태에 대한 차이를 논할 수 있겠다.

나. 일명 쌍원진을 만드는 과정과 쌍원진의 형태이다. 입성놀이 후 두 줄로 나뉘어 있던 앞치배줄과 뒷치배줄이 한 줄로 원진을 만들 때 앞치배와 뒷치배가 한명씩 번갈아 끼어들어서 원진으로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한 줄로 있던 치배들이 홀 · 짝으로 번갈아 나뉘었다가 다시 홀 · 짝으로 합쳐져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는 진풀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대유평농악과 같이 앞치배와 뒷치배가 번갈아 끼어들어 한 줄을 만드는 형태의 진풀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치배와 뒷치배가 엇갈려 끼어들어 원진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쌍원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앞치배와 뒷치배가 원진을 만들어 돌아가 뒷치배가 원 안으로 들어가 안의 원을 만들고 앞치배가 원 밖으로 나가 밖의 원을 만들어 돈다. 그렇게 뒷치배 원과 앞치배 원으로 돌다가 어느 순간 뒷치배가 밖의 원이 되고 앞치배가 안의 원을 만드는 것이 이른바 쌍원진이다. 이 쌍원진이 가지는 의미를 2005년 안내서에는 "병진년에 대풍이 들어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워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병진년이란 바로 정조실록 인용문에서 '1천곡을 수확했다'는 정

9)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94, 207~236쪽.

조 20년이 바로 병진년이므로 안내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대로 대풍에 대한 기쁨을 성 안팎으로 누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쌍원진 또한 대유평농악의 큰 특징이라 여겨진다.

다. 두 번째 당산별림이 끝나고 사통백이로 들어가기 전에 앞치배와 뒷치배가 열십자(+)로 서서 오른쪽 왼쪽으로 대형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열십자(+)진은 대전 옷다리농악과 전남 여천 백암농악에서 보고된 바 있다.<sup>10)</sup> 대전과 여천의 열십자(+)진 역시 대유평농악과 마찬가지로 열십자(+)진이 끝나면 각 줄마다 각각의 원을 만들어 돈다. 대유평의 열십자(+)진은 2003년과 2005년 안내서에 “완전히 +자로 만든 뒤 타령장단으로 좌우로 움직이다가 안으로 모였다가 풀었다가 한다. 이는 화성 축조시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중심을 맞추어 상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뾰기고 풀때 중심에 서는 고사소리(상량굿)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유평농악의 열십자(+)진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고 다른 지역의 열십자(+)진과의 차이와 공통점을 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내문에 제시된 것과 같은 순서와 내용 그리고 가락을 좀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유평농악의 안내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유평농악의 각 순서에는 위의 쌍원진과 열십자(+)진에서 설명이 되어있는 것처럼 화성 축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풀이의 의미와 관련지어져있다. 대유평농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입성놀이·원천물굿·쌍원진·열십자(+)진에 화성 축성과 관련된 설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경기옷다리농악에서 볼 수 있는 칠채로 쌓는 오방진·사통백이에도 화성 축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농악의 진풀이에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안내서에 제시된 내용들이 구전에 의한 것들이 정리된 것이라고 본다면 실제 연행되지 않는 진풀이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은 확대되는 것이다.

## 맺음말

10)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94, 159쪽, 261쪽.

대유평농악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안타까움이다. 안타까움이 일어났던 까닭은 화성 축성 내용과 관련된 특이한 내용은 무척 많은데 실제 제대로 재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고증을 하신 이동안 선생님이 1995년에 돌아가셨으니 대유평농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어도 1995년 이전에 정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유평농악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3년이다. 발굴에 참여했던 오경환 선생님이 작고하시고 또 다른 발굴자인 유청자 선생님이 이제 안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오경환 선생님의 경우 대유평농악 고증과 발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sup>11)</sup> 그의 생애담이나 예술활동에 대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다행히 유청자 선생님은 대유평농악의 많은 부분들 - 동아줄 밟기(성터밟기)·입성놀이 기배례·십자놀이의 기증기 놀이·뉘시도사·납줄갱이 소리 등 - 을 기억하고 계셔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복원하고 재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제 대유평농악은 지명에 있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화성 축조시 이름을 하사받은 대유평이라는 지역의 민속문화가 성안의 문화와 만나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특색을 띠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는 작업은 이제 농악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대유평농악의 각 순서에 부여된 의미들은 수원지역의 설화나 전설 그리고 역사적 사료와 만나야 할 것이고, 대유평농악의 장단은 경기도 도당굿 장단과 새롭게 만나야 하고, 소리굿의 재연을 위해서는 수원지역의 민요와도 만나야 할 것이다.

대유평농악의 한 차원 높은 복원과 재연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능하다면 토박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대유평농악의 고증이나 발굴 그리고 재연에는 대유평지역의 토박이 주민의 제보나 견해가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대유평지역에서 했던 농악의 형태나 내용을 직접 전해 듣거나 보았던 분들의 의견이 기존의 안내서에 제시된 내용들과 비교되어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11) 2006년 6월 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경기에총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경기도지회, 1994.
- 김원호·노수환, 『경기도의 풍물굿』, 경기문화재단, 1999.
- 『東亞 漢韓中辭典』, 동아출판사, 1998.
- 민속학회, 『강의실 밖에서 배우는 민속학』, 태일출판사, 1995.
- 박명용 외, 『예술과 인생』, 소명출판, 2000.
-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 1994.
-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94.
- 정병호, 『民俗紀行』, 눈빛, 1992.
- 『평택농악』,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 화성연구회, 『수원 문화예술사』, 화성연구회, 2004.

### 2. 학술지논문

- 성기숙, 「화성 재인청춤의 대가, 李東安의 전통춤」, 한국미래춤학회 연구논문집 9집, 2002.
- 화성재인청 복원사업 추진위원회, 「화성재인청 복원을 위한 1차 학술회의」, 2004.

### 3. 영상자료

- 2003년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수원대유평진떼배기농악 VCD.
- 2005년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수원대유평진떼배기농악 VCD.

### 4. 인터뷰 자료

- 김문향 선생님과 인터뷰(2006년 6월).
- 안봉현 선생님과 인터뷰(2006년 5월).
- 유청자 선생님과 인터뷰(2006년 6월).

### 5. 기타 자료

- 인터넷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나의 삶 나의 길 이동안翁 편, 京仁日報, 1995년 1월 1일~2월 17일.  
 2003년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수원대유평진떼배기농악 안내문.  
 2005년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수원대유평진떼배기농악 안내문.

## 〈붙임 1〉 2003년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대유평진떼배기농악」 안내문

### 〈유래〉

대유평 진떼배기농악 일명 수원화성농악은 진대가 있는 논배미에서 행해진 데서 유래되었음을 의미한다. 진떼배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 화서문과 서북 공심돈이 서 있는 장안공원앞이라는 설이 있다. 정조대왕이 친히 동북각루(방화수류정)에 거동하시어 화성의 낙성연을 열 쯤해서 대유돈에 대풍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고 대유돈을 대유평이라 부르게 하셨다. 농군이 라 하여 농한기에는 각종 무술을 연마하고 나발·나각·북 등을 들고 진형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전해내려온 풍물이 용인·남양·안성 등지에서 올라온 뜯쇠와 전문패 계열의 재능을 융합하면서 좀 더 세련되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또한 화성재인청이 생기면서 군악의 면모와 행궁지의 위용을 흡수하여 발전하였다.

### 〈특징〉

군악과 농악이 어우러진 대유평진떼배기농악(수원화성농악)은 타 지역에 비해 토속적인 질박한 맛은 덜하나 질서있고 법도 있는 화려한 군악 및 도시 풍물의 특징을 보인다. 진쇠장단 등 경기도 도당굿의 고유한 무속장단이 내포되어 있고 화성축성시의 형상과 군인들의 근무형태·원천물굿·성밧기·입성놀이·잉어몰이굿·탑돌이·십자걸이 등 소리굿·고사굿·진굿·춤·마당굿 등이 어우러진 종합민중예술로서 어느 지역보다 자극적이고 강렬하다. 잡색의 특징으로는 도대방·뉘시도사·연무대무사·잽쟁이 등이 등장한다고 한다. 그 밖에 화려한 쌍용이 그려진 기를 사용한다.

### 〈진풀이〉

입장 : 다른 풍물과 마찬가지로 두 줄로 서서 나발·나각 삼취 후 어림굿으로 시작 휘모리로 맺은 다음 자진모리로 시작한다.

입성놀이 : 상쇠 · 부쇠 · 버꾸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다시 원 위치 한 다음 다시 중앙에 모여 좌우로 돈 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선 다음 양 쪽이 서서히 마주보고 전진하여 서로간에 미지기를 한 다음 좌우치기와 맴돌이 8박을 하고, 영기와 나발이 만든 문으로 들어간다. 장단은 자진모리뻗음과 자진모리 · 입성장단이 쓰인다. 수문장회의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은 성문을 순시하는 의미이며 좌우치기와 입성은 능 행차 때 행렬이 장안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당산벌림 1 : 썰래질을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에 무동 뒤로 버꾸가 가서 대형을 만든다. 여기에서는 개인놀이를 행하는데, 상쇠가 너설놀이를 하고 버꾸가 각각 개인놀이를 행한다.

길군악 칠채와 오방진 · (원천)물굿 : 오방진은 행궁터의 오방지신을 다스려 행궁의 영원무궁을 비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장단은 늦은 길군악 칠채에서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몰아친다. 이때 오방진이 들어설 자리에는 각 방위를 나타내는 기가 서며 중앙 황(룡)기에서는 (원천)물굿이 행해지는데 옛날 만석거와 축만제 원천저수지를 만들 때 고사소리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물굿을 할 때의 장단은 빠르게 모는 길군악 칠채에서 자진가락으로 치다가 중앙으로 모였다 나갔다 하면서 소리굿을 한다. 소리는 ‘물업쇼 물업쇼 원천에 물업쇼, 문업쇼 문업쇼 사동팔달 문업쇼, 길업쇼 길업쇼 대대길에 길업쇼’이다.

당산벌림 2 : 두 원에서 상쇠와 부쇠가 나란히 나와 한 줄로 만들어 나오다가 그대로 ‘ㄷ’ 자 형으로 만들어 개인놀이를 한다.

열십자진(가세진) : 개인놀이 후에 상쇠쪽으로 무동이 뒤따르고 부쇠쪽에는 버꾸가 뒤따라가면서 쌍줄배기 대형으로 만들었다가 비스듬히 들어와 서로 교차해 선다. 장단은 자진모리에서 쌍줄배기가 되면 동살풀이로 바꾼다. 다시 가세진에서 진쇠장단으로 완전히 +자로 만든 뒤 타령장단으로 좌우로 움직이다가 안으로 모였다가 풀었다가 한다. 이는 화성 축조시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중심을 맞추어 상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통박이 : 십자진에서 터벌림장단에 맞춰 십자진의 각 끝이 중심이 되어 사방을 막았다 풀었다 한다. 이는 화성 건물을 지을 때 틈을 없애고 튼튼하게 하여 성 안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통박이(가세배기) : 물굿이 끝나면 상쇠는 자진모리로 몰아 쌍줄배기 대형으로 만드는데 장단은 계속 자진모리로 친다. 이 때 상쇠는 소무와 버꾸를 데리고 제자리로 인도해 주고 미지기를 두 번 진행한다.

내줄배기 : 원진에서 좌우치기가 끝나면 어림굿을 신호로 상쇠 앞으로 네 줄을 만들어 서서 대대 좌우치기를 한다. 돌림벅구 · 절구벅구 등의 채상놀리와 짝짝이 등 경기웃다리와 동일하다.

퇴장 : 좌우치기가 끝나면 기들은 대형 앞으로 서고 입성장단으로 들어가다가 휘모리와 인사굿으로 끝을 맺는다.

이 외에 설명이 안 된 것은 일반 경기웃다리풍물과 같다.

## 〈붙임 2〉 2005년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대유평진때배기농악」 안내문

### 〈유래〉

대유평 진때배기농악은 정조대왕이 수원에 화성을 축성하면서 부터 유래된 역사깊고 의미있는 전통농악이다. 수원에 화성이 축성될 때 둔이 설치되면서 농민들이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을 받던 때로부터 군악과 농악 · 굿판이 함께 어우러지고 축성과정 · 근무형태 · 왕의 거동 등을 내포한 풍물로 발전하였다.

### 〈특징〉

대유평진때배기농악은 타 지역 풍물에 비해 토속적이고 질서와 법도 있는 화려한 군악 및 도시풍물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군악과 농악이 어우러져 진쇠장단 및 터벌림 장단 등 경기 도당굿의 고유한 무속장단이 내포되어 있다. 수원 화성축성시의 형상과 군인들의 근무형태 · 원천물굿 · 성밧기 · 입성놀이 등 양반들의 향락문화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임금님이 거동하시어 어가에서 내리고 오르시던 모습과 서열이 남매의 역을 담은 단무동놀이 등 주변 지역과는 특이한 점이 많이 있다. 평택이나 안성농악과도 대조적인 고유의 소리굿 · 고사굿 · 진굿 · 춤굿 · 마당굿 등이 있는 지역 전통민속예술이며 마당풍물놀이로서 보존 육성하며 발전시킬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순서〉

입장 : 다른 풍물과 마찬가지로 네 줄로 서서 나발·나각 삼취 후 어릿공으로 시작하여 자진가락으로 맺은 다음 더드래기로 시작한다. 이 때 기수들과 나발수는 서로 마주보고 서서 기와 나발로 문을 만든다. 치배들은 이 사이로 나온다. (때에 따라 군악장단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행궁의 취타대 영향을 받은 듯 하다.)

오방진과 (원천)물굿 : 오방진은 행궁터의 오방지신을 다스려 행궁의 영원 무궁을 비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장단은 낮은 길군악 칠채에서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몰아친다. 이때 오방진이 들어설 자리에는 각 방위를 나타내는 기가 서며 중앙 황(룡)기에서는 (원천)물굿이 행해지는데 옛날 만석거와 축만제 원천저수지를 만들 때 고사소리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물굿을 할 때의 장단은 빠르게 모는 길군악 칠채에서 자진가락으로 치다가 중앙으로 모였다 나갔다 하면서 소리굿을 한다. 소리는 ‘물업쇼 물업쇼 원천에 물업쇼, 문업쇼 문업쇼 사통팔달 문업쇼, 길업쇼 길업쇼 대대길에 길업쇼’이다. 물굿을 행하는 동안에 중앙에서는 나발 삼취 후 민무동을 선다.

사통막이(가세배기) : 물굿이 끝나면 상쇠는 자진모리로 몰아 쌍줄배기 대형으로 만드는데 장단은 계속 자진모리로 친다. 이 때 상쇠는 소무와 버꾸를 데리고 제자리로 인도해 주고 씨래질을 두 번 진행한다.

당산벌림 1 : 씨래질을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에 무동 뒤로 버꾸가 가서 대형을 만든다. 여기에서는 개인놀이를 행하는데, 상쇠가 너설놀이를 하고 버꾸가 각각 개인놀이를 행한다.

열십자진(가세진) : 개인놀이 후에 상쇠쪽으로 무동이 뒤따르고 부쇠쪽에는 버꾸가 뒤따라가면서 쌍줄배기 대형으로 만들었다가 비스듬히 들어와 서로 교차해 선다. 장단은 자진모리에서 쌍줄배기가 되면 동살풀이로 바꾼다. 다시 가세진에서 진쇠장단으로 완전히 +자로 만든 뒤 타령장단으로 좌우로 움직이다가 안으로 모였다가 풀었다가 한다. 이는 화성 축조시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중심을 맞추어 상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피기고 풀때 중심에 서는 고사소리(상량굿)을 한다.

사통박이 : 십자진에서 터벌림장단에 맞춰 십자진의 각 끝이 중심이 되어

사방을 막았다 풀었다 한다. 이는 화성 건물을 지을 때 틈을 없애고 튼튼하게 하여 성 안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밟기(동아줄놀이, 3단치기) : 사통배기에서 상쇠를 무동이 따라가고 부쇠를 버꾸가 따라가는데 상쇠는 동쪽에 부쇠는 서쪽으로 가서 거리를 두고 마주 선다. 움직일때 장단은 자진모리이며 서로 마주보고 서면 동살풀이로 바뀌면서 서로 전진하면서 3명씩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는데 상쇠와 부쇠 앞에는 여기가 선다. 또 교차가 끝나면 다시 한번 교차하는데 장단은 치지 않고 새끼꼬기 소리를 부른다.

입성놀이 : 잉어몰이가 끝나면 수문장 회의를 하는데 각 줄의 맨 끝인 상쇠·부쇠·버꾸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다시 원 위치 한 다음 다시 중앙에 모여 좌우로 돈 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선 다음 양 쪽이 서서히 마주보고 전진하여 서로간에 미지기를 한 다음 좌우치기와 땀뿜이 8박을 하고, 영기와 나발이 만든 문으로 들어간다. 장단은 자진모리맺음과 자진모리·입성장단이 쓰인다. 수문장회의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은 성문을 순시하는 의미이며 좌우치기와 입성은 능 행차 때 행렬이 장안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담고 있다.

두 원(쌍원진) : 입성장단으로 문을 통과하며 진쇠장단으로 몰아가 두 원을 만드는데 상쇠가 원 안을 부쇠가 바깥 원을 만든다. 원이 만들어지면 으쓱이 장단·쩍쩍이 장단과 풍년가락으로 좌우로 움직이다가 멈춰 서서 굿거리로 안 원이 바깥원이 되고 바깥원은 안으로 들어가기 반복하는데, 굿거리 장단은 장구만 치고 풍년가나 농사풀이를 부르며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는 병진년에 대풍이 들어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워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당산벌림 2 : 두 원에서 상쇠와 부쇠가 나란히 나와 한 줄로 만들어 나오다가 그대로 ‘ㄷ’자 형으로 만들어 개인놀이를 한다. 장단은 자진모리이다. 개인놀이는 상쇠의 장단으로 진쇠춤을 추고 징들이 자진모리 장단에 징춤(명금무)을 추고 수북에서 말복까지 서호복춤·버꾸놀이·무동춤·삼색 오색 열두발 상모놀이·용주사 탐돌이·무동등을 행한다.

마무리 원진 : 당산벌림 후 그대로 원을 만든 뒤 좌우치기를 하는데, 상쇠가

중앙에 서서 지휘를 한다.

네줄배기 : 원진에서 좌우치기가 끝나면 어림굿을 신호로 상쇠 앞으로 네 줄을 만들어 서서 대대 좌우치기를 한다. 돌림벅구·절구벅구 등의 채상놀이와 짹짹이 등 경기웃다리과 동일하다.

퇴장 : 좌우치기가 끝나면 기들은 대형 앞으로 서고 입성장단으로 들어가다가 휘모리와 인사굿으로 끝을 맺는다.

이 외에 설명이 안 된 것은 일반 경기웃다리풍물과 같다.

〈발굴 경위〉

130여년을 이어오던 경기재인청이 1920년 일제에 의해 해산되자, 운학 이동안(1906~1995)선생께서는 무용학원과 여성농악단을 조직하여 영·호남 등지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었다. 말년에 서울에 계신 선생을 수원에 모시고 유청자·오경환 선생등이 발굴·복원하였으며, 정진태·천용식·유병하·황선만씨 등에 의해 이어져 왔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사라질 뻔한 대유평 진떼배기 농악이 임광식선생님의 농악지도로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대유평 진떼배기 농악단은 2002년 6월 23일 장안공원에서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첫 발표를 가진 후 2002년 11월 3일 경기농악전국대회에서 장원을 수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고증 안 된 부분이 있으며, 원형에 가까운 고증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Daeupyung-Nongak in Suwon Area

Si Ji-Eun (Kyonggi Univ.)

Nongak(農樂, farmer's band music) is distributed equally a plain, the coast, a remote place in Korean folk customs culture. Suwon-Nongak is belong to the southern part of the Gyonggi-Nongak. There are Golgutdae-Nongak, Yeokmal-Nongak, Boedeunae-Nongak and Daeupyung-Nongak in Suwon. The origin of the Daeupyung-Nongak is distinct in comparison with other farmer's band musics.

This thesis is refer to Daeupyung-Nongak sight and hearing materials, written materials and an interview materials. Daeupyung-Nongak take part in the 「Gyonggi folklore festival」 in 2003 and 2005 as a Suwon representative.

Daeupyung-Nongak is related to irrigation facilities 'Dun(屯)' which made by Jungjo. When Jungjo build a Hwasung fortress, He order to prepare 'Dun(屯)'. 'Daeupyng' signify the Seoho region of the Suwon 'Manseok park' geographically.

Daeupyung-Nongak which performed in 'Daeupyng' is similar to Pyungtaek-Nongak and Ansong-Nongak which belongs to Utdari-Nongak in rhythm and order. But, This farmer's band music have an element of a military music in ceremonial costume and the organization of musical instrument and 'Jinpuri' which related to construct a Hwasung fortress. This is the peculiar point of the Daeupyung-Nongak.

Each order of the Daeupyung-Nongak must discussed in details. It can be debate the relation of the tales, legends and historic events. The rhythm of the Daeupyng must compare Gyonggi-Dodanggut and Folk

song in Suwon to present again Sorigut. In order to achieve these works, we must investigate the natives and performing artists in Daeupyung area.

Key-words : Suwon, Hwasung Fortress in Suwon, Daeupyung-Nongak (Daeupyung farmer's band music), Utdari-Nongak(Utdari farmer's band music), Gyonggi folklore festival

## 경기민요의 지속과 변화

– 수원지역 민요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최자운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경기대학교 국문과 강사)

머리말

1. 문화재 지정 경기민요의 양상

1) 향토민요

2) 경기잡가

맺음말 – 경기민요 및 수원지역

민요의 발전 방안을 대신하며

### 머 리 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기민요에 대한 연구는 크게 향토민요에 대한 것과 통속민요 및 경기잡가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향토민요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그곳에서 조사된 노동요나 의식요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분석,<sup>1)</sup> 그리고 경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음악 및 사설의 의미에 대한 연구

1) 아래 논의들이 특정 지역 향토민요에 대한 사설 및 선율에 대한 연구들에 속한다.

김대호, 「강화도 향토민요의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김현선, 「경기도민요의 실상과 의의」, 『한국구전문요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6.

김혜정, 「강화도 농요의 음악적 특성과 의미」,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제2호, 2003.

박광준, 「이천시 민요조사연구」, 강남대 석사논문, 1997.

유한동, 「안성 민요연구」, 고대교육대학원, 1996.

홍순석, 『이전의 옛노래』, 민속원, 2002.

가 있다.<sup>2)</sup> 경기지역 통속민요 및 경기 잡가에 대한 연구의 경우 대체로 특정 소리를 중심으로 그 소리의 선율이나 사설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sup>3)</sup>

일반적으로 경기민요라고 하면 경기잡가(긴잡가, 휘몰이잡가)와 통속민요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앞의 두 자료들 외에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불리는 향토민요까지 포함되어야 본질적 의미의 경기민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실상부한 경기민요-향토민요, 통속민요, 경기잡가-의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향토민요 및 경기잡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민요를 살핍에 있어 보존회의 운영이나 공연 방식, 무형문화재 정책 등과 같은 부분도 다루어져야겠으나 여기서는 소리 자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 뒤 기존에 경기민속예술축제에 출품된 각 지역 향토민요자료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수원지역 경기민요의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래 논의들이 경기지역 향토민요의 특정 소리군 및 전체 양상을 대상으로 한 논의에 속한다.  
 강동학, 「경기지역 논매는 소리의 기초적 분석과 지역적 판도」,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고혜경, 「경기지방 민요의 전승 및 사설의 양상」, 『한국민요대전』 경기도 민요해설집, 삼보문화사, 1996.  
 김현선, 「경기도민요의 분류와 실제」,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 - 연구편』, 집문당, 1997.  
 백대웅, 「경기지방 민요의 음악적 특징」, 『한국민요대전』 경기도 민요해설집, 삼보문화사, 1996.  
 신은주, 「경기지역 민요토리에 관한 고찰」, 『한국민요학』 11집, 2002.  
 이보형, 『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기도 편, 문화재관리국, 1978.  
 3) 아래 논의들이 경기지역 통속민요 및 경기잡가에 대한 연구에 속한다.  
 김영운, 「경기 십이잡가의 음악 형식」, 한국민요학회, 『한국민요학』 10집, 2002.  
 류의호 편, 『목계월 경기소리연구』, 깊은샘, 2003.  
 손인에, 「경기민요 한강수타령연구」, 『한국음반학』 11, 한국고음반연구회, 2001.  
 정창관, 「콜럼비아 음반에 나타난 경기민요 음반자료 분석」, 『한국음반학』 3, 한국고음반연구회, 1993.  
 정영희, 「경기민요 창부타령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5.  
 정경숙, 「경기 십이잡가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김미량, 「경기잡가의 시김새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논문, 1999.

## 1. 문화재 지정 경기민요의 양상<sup>4)</sup>

### 1) 향토민요

#### (1) 경기도 무형문화재 22호 고양 송포호미걸이

고양 송포호미걸이는 김을 다 매고 난 뒤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때에 앞으로 자연의 재해를 막아서 풍년이 들게 할 것을 기원하고, 사람들의 심신의 피로도 덜 겸 호미걸이를 하자고 발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와 같은 건의를 받은 두레의 최고 연장자인 영좌는 두레패 모두의 의견을 물은 뒤 합의가 되면 두벌 김을 마치고 7월 7석을 전후한 날을 택해서 호미걸이를 결정하게 된다. 호미걸이에 사용되는 음식과 기구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능력에 맞도록 분담해서 마련한다.

보통 칠월 백중날 새벽 동이 뜨기 전에 남자들이 모여 농기를 앞세우고 길군악을 치면서 당 앞에 가서 상산제를 지내는 것으로 호미걸이는 시작된다. 그러면 여자들은 당 마당에 시루상을 차려 놓고 대동제를 지낸다. 남자 중심의 상산제는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자 중심의 대동제에는 질병 없고 사람이 다치지 말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두 번째 마당인 대동놀이는 기를 앞세우고 이웃마을 두레패들을 맞이하러 마을 어귀로 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이웃 두레패들은 술독을 담은 수레를 끌고 당마당에 모여든다. 송포 두레와 금동, 금서마을 등의 두레가 모여 기(旗) 절 받기, 기 쓸기 등을 하면서 한데 어우러져 한바탕 신명나게 풍물을 치며 논다.

기 절받기가 끝이 나면 그해의 기수를 선발한다. 기수는 힘자랑을 해서 가장 힘센 사람이 선발된다. 그 해의 기수로 선발된 사람은 필목 등 상품이 주어진다. 그런 다음 무등 타기를 하고 멍석으로 짜서 만든 소가 등장하면서 호미걸이소리가 불리고, 모두 어울려 춤마당을 이루면서 흥을 돋우어 대동놀이의 절정을 이룬다. 호미걸이에서는 호미걸이소리를 부르고 풍물을 치는데, 그때 불리는 소리로는 사두어

4) 여기서 다루는 소리들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 문화재 홈페이지(www.gg.go.kr, 2006년 6월 7일 현재)와 기존에 조사된 자료 조사집, 그리고 필자의 현지조사 등을 이용하였다.

· 양산도 · 방아타령 · 자진방아타령 · 놀놀이 · 자진놀놀이 · 상사디야 · 훨훨이 · 몸돌려 등이 있다.

호미걸이의 마지막 마당인 유가(遊街)는 두레패가 농악을 올리면서 집집마다 도는 것이다. 가내 무사태평을 빌면 집주인이 나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온 동네를 다 돌면 호미걸이는 막을 내린다.

1984년 11월 김현규를 중심으로 송포호미걸이보존회가 구성되었으며, 1985년 제4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 1999년 제12회 때 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199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 (2) 경기도 무형문화재 23호 김포 통진 두레놀이

김포 통진 두레놀이는 이 지역 농민들의 두레 작업과정을 농사소리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sup>5)</sup> 앞서 살핀 고양 송포호미걸이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한바탕 노는 때를 형상화한 것이라면 이것은 한참 일하는 때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마을이 그러하듯이 통진에서도 주로 김을 매는 때에 두레를 짜서 작업을 해 왔다. 그리고 김매기뿐만 아니라 벼베기나 보(伏)막이 등의 일도 그 일에 맞는 두레를 구성하였는데, 그만큼 노동 조직이 발달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통진 두레놀이는 범씨 뿌리기, 논갈이(씨레질), 고사 지내기, 모찌기, 모내기, 새 찹 먹기, 두레싸움, 김매기, 벼 베기, 탈곡하기, 섬 쌓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순서들 중 고사 지내기는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고 고사떡을 나누어 먹는 것이다.

여기서 소리가 노래되는 부분을 보면, 먼저 모찌는 소리의 경우 원래 이 지역에는 이 소리가 없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방면의 피난민에 의해 “졌네” 류의 소리가 전해진 것이라 한다. 그리고 김포의 이웃인 강화에서는 눈에 물을 대기 위해 물 푸는 소리(용두레질소리)가 널리 퍼져 있는데, 이곳에선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지형적인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매기의 경우 김포지역에서는 모를 낸지 보름 만에 초벌을 매며 그 후 열흘 만

에 두벌, 두벌 이후 20일이 지나 세벌을 맨다. 초벌과 두벌은 호미로, 세벌은 손으로 훑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곳의 일반적인 논매는 소리는 긴방아, 사디소리, 방아타령, 상사디야, 몸돌소리이다. 긴방아나 사디소리는 유장하고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레패 중에서도 노래할 줄 아는 사람 몇이 모여 입을 모아 부른다고 한다. 그러다가 조금씩 일의 속도가 잦아지면서 방아 타령을 부르고, 이어서 상사디야와 몸돌소리(쌈싸는 소리)를 부르면서 일을 마친다.

## (3) 경기도 무형문화재 27-1호 양주 상여 · 회달이소리

양주 상여 · 회달이소리는 크게 상여소리와 회달이소리로 구성되는데 상여소리는 긴행상소리, 중간행상소리, 자진행상소리로 구성되고, 회달이소리는 긴달고소리, 자진달고소리, 꽃방아타령, 상사도야소리, 훨훨이소리, 새쫓는 소리로 구성된다. 여기서 긴달고소리는 달곳대(연춧대)를 짚고 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불린다. 그리고 자진달고소리는 동작이 조금씩 빨라지면서 소리가 이루어지는데, 달곳대를 왼손에 쥐고, 왼발과 함께 왼 안으로 달곳대를 짚고, 이 과정에서 광중의 회와 흠을 버무린 터를 단고, 다시 달곳대를 왼발에서 오른발 쪽으로 바꾸고, 오른쪽 팔을 바깥쪽으로 뻗은 뒤 달곳대를 오른손에 쥐고, 오른쪽 발과 함께 광중을 다진다.

상여소리 긴소리, 중간소리, 자진소리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sup>6)</sup>

허허허허 허러리 넘차 허헤/ 허 허 허 허 허러리 넘차 허헤/ 허허허허 허러리 넘차 허헤/ 허 허 허 허 허러리 넘차 허헤/ 허허허허 황천길이 멀다는데/ 허 허 허 허 허러리 넘차 허헤/ 허허허허 아니 가지는 못할까요/ 허 허 허 허 허러리 넘차 허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허허 허헤/ 실낱같은 약한 몸에/ 허허 허헤/ 어허 어헤/ 어허 어헤/ 아버님전에 뼈를 받아/ 어허 어헤/ 어머님전에 살을 빌고/ 어허 어헤/ 석달 만에 피를 모고/ 어허 어헤

어허 어헤/ 어허 어헤/ 어허 어헤/ 어허 어헤/ 어허 어헤/ 어허 어헤/ 어허 어헤

5) 통진 두레놀이와 관련된 사항은 통진 두레놀이 상쇠인 윤덕현과의 인터뷰(2004. 8. 9)를 통해 조사하였다.

6) 2003년 5월 4일 양주별산대 상설공연장에서 행해진 공연에서 조사하였다.

위 인용문에서는 중간소리에서 회심곡 사설만 나타났으나 다른 공연에서 채록된 자료들을 합쳐서 보면 탄로(嘆老)나 이별에 대한 슬픔, 유흥, 일하는 이들에 대한 노동 권유, 가족들에 대한 당부 등 다양한 내용들이 노래되고 있다. 이러한 사설 내용은 경기북부 다른 지역 상여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양주 상여·회달이소리의 특징은 상여소리보다는 회달이소리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회달이소리들 중의 하나인 꽃방아타령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좋다 좋구나 이 소리가 무슨 소리 자진방아로 에루하 인정했소/ 에헤 에헤 이요 에헤 에헤야 에야 에헤야 에헤리 좋소

좋다 좋구나 산에 올라 산진방아 들로 내려 수진방아 여주이천엔 자차방아 김포통진엔 에루하 물다리 방알세/ 에헤 에헤이요 에헤 에헤 에헤야 에야 에헤야 에헤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해 떨어지자 달 솟아오니 연잎 맺히고 솔아지고 금붕어 꼬리를 치고 살찐 가물치 향당에 놓고 어여쁜 기생 에루화 내 품에 논다/ 에헤 헤야 에헤야 에헤야 행헤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북망은 얼마나 먼데 한번 가면 에루화 왜 못오나/ 에헤 헤야 에헤야 에헤야 행헤리 좋소/

위에서 보듯 꽃방아타령은 유흥의 내용이 다양하게 노래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지역 회달이소리가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회달이소리가 불림과 동시에 이 소리들이 논맬 때 불리는 소리들과 구성, 사설 및 선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경기 북부에만 나타난다. 이러한 의식요와 노동요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맺음말 부분에서 재론하기로 한다.

#### (4) 경기도 무형문화재 27-2호 화성 상여·회달이소리

화성지역에서는 출상하는 날 아침 네 사람이 관을 들고 방을 나올 때 “중방 뚝이요-”를 동쪽부터 방의 네 귀퉁이에 각각 3회 외친다. 그리고 방문의 문턱을 넘을 때는 “툽질이요” 3번 외치고, 문턱을 바로 넘어서는 바가지를 발로 밟아서 깨고 나온다. 문 밖에 나와서는 발인제를 하고, 상두꾼들이 상여를 매고 유족의 인사를 받고 상주에게 인사를 한다.

그런 다음 집을 나서며 행상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긴상여소리인 ‘어넘차소리’를 메기고 받는다. 그러다가 동구 밖에 빠져나와 빨리 갈 때는 자진 상여소리인 ‘어호소리’를 부른다. 긴 상여소리인 어넘차소리는 뒷소리를 ‘어화 어화 어거리 넘차 어화’로 받고, 자진 상여소리인 어호소리는 뒷소리를 ‘어화 어화’로 짧게 받는다.

기준에 조사된 상여소리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A는 평지를 갈 때이고, B는 가파른 곳을 오를 때 하는 소리이다.

A : 에헤에 에이야 어거리 넘차 너허노호/ 에헤에에이야 어거리 넘차 너허노호/ 잘들 있거라 나는 간다 어거리넘차 너너노/ 에헤에에이야 어거리 넘차 너허노호/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잎진다 서러마라/ 에헤에에이야 어거리 넘차 너허노호/ 명년 삼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건마는/ 에헤에에이야 어거리 넘차 너허노호/ 일가친척 여러분들 나는 갑니다 나는 가요/

B : 너호너호/ 너호너호/ 운문에도 뒤로 하니/ 너호너호/ 수운도 적막하다/ 너호너호/ 초쾌왕은 초를 장차/ 너호너호(화성군 팔탄면 구장리 박조원, 한국의 농요)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광증을 파고 하관을 한 다음 흙과 회를 붓고 달구꾼들이 달구대를 들고 흙을 다지며 동작을 맞추어 밟는데, 보통은 세 번 회달이를 한다. 이를 첫굽정·두굽정·세굽정이라 하는데, 화성 팔탄지역에서는 회달이를 회방아라고도 하고, 달구대를 연추대라고도 부른다.

회를 다질 때는 매 굽정마다 긴 달구소리를 먼저 부르고, 이어서 자진 달구소리를 부른다. 긴 달구소리는 느린 굽거리장단에 뒷소리를 ‘에헤 에헤 어거리 남차 달구’라 받고, 자진 달구소리는 자진 굽거리장단에 ‘에헤리 달구’라 뒷소리를 받는다. 달구소리의 가락은 모두 메나리토리로 짜여졌다.

화성 상여·회달이소리가 전승되는 팔탄면 구장 2리는 일찍부터 농사일에 농요를 많이 불렀고, 장례에서도 유명한 선소리꾼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구장 2리의 박용일, 박조원 등이 선소리를 잘하였다. 화성 팔탄지역의 상여소리와 회달이소리는 한강 이남 경기도지역 향토민요의 특성과 장례문화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다.

#### (5) 경기도 무형문화재 27-3호 양평 상여 회달이소리

양평 석곡리에서는 초상이 나면 주로 3일장을 치렀는데, 이때 상여를 메는 일꾼을 상두꾼 또는 생여꾼(상여꾼)이라 부른다. 출상 전날 밤에는 빈상여를 메고 상여꾼들이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벌리기도 하는데, 이를 ‘대돋움’이라 한다. 그리고 출상 날 아침에 발인제를 지내고 나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두 번 절하고 나서 긴 상여소리를 부르며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를 ‘발 맞춘다’고 한다.

상여가 집을 나서면 긴 상여소리인 ‘어넘차소리’를 부른다. 그리고 빠르게 갈 때는 자진 상여소리인 ‘어화소리’를 부르는데, 이를 ‘짜른소리’라고도 한다. 석곡리에서는 상여가 가파른 산길을 오르거나 좁은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 긴소리를 불렀다 한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광중을 파고 하관을 하고 나서 회단이꾼들이 흠과 회를 붓고 세 번 회단을 하는데, 이를 ‘삼괘를 다진다’고 한다. 매번 회를 다질 때마다 긴 달구소리로 시작하고, 이어서 자진 달구소리를 부른다. 세 번째에는 끝에 ‘새 쫓는 소리’를 부르고 마친다. 상주나 친척들이 돈을 많이 걸면 회단을 길게 하는데 이때는 다섯 번(오괘)이나 일곱 번(칠괘)을 다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달구소리를 길게 불러야하기 때문에 회심곡이나 초한가 또는 옥설가 등의 사설을 달구소리의 곡조에 얹어 부르기도 한다.

긴 상여소리는 느린 굿거리장단이고 뒷소리를 ‘어호어 어허하 어이나 갈까 에호’라고 받으며 곡조는 메나리토리로 짜여졌다. 자진 상여소리는 자진 굿거리장단인데 뒷소리를 ‘에헤 어하’ 또는 ‘오호 어하’라 받으며 곡조는 메나리토리이다. 달구소리의 경우 긴 회단이소리는 느린 굿거리장단에 맞고 뒷소리를 ‘에야하리 달구’로 받으며, 자진 굿거리장단인 자진 달구소리는 뒷소리를 ‘에야라 달구’로 받는다. 새 쫓는 소리 역시 자진 굿거리장단에 맞는데, 곡조는 상여소리와 함께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어 경기도 동부지역 향토민요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 (6) 경기도 무형문화재 33호 파주 금산리 민요

파주 금산리에서는 곡우 무렵에 논이 한쪽 부분에 수온이 좋은 곳을 택하여 법씨를 뿌린다.<sup>7)</sup> 법씨를 뿌리기에 앞서 논둑에 제물을 차려놓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

고 빈 다음에 논에 들어가기도 한다. 모를 심을 때에 순번으로 정해서 품앗이로 작업을 한다. 품앗이의 순번 정하기는 일할 집의 모의 생육 정도와 강수량에 따라 한다. 망종 전후 3일부터 하지 무렵까지 모를 낸다.

모를 내고 한 달쯤 뒤 호미로 옛논을 매고, 그로부터 10~15일 후 손으로 두벌을 매고, 다시 보름 정도 후 역시 손으로 삼동논을 매다. 애벌 김매기 때 호미로 땅을 파서 엷고, 두벌 때 손으로 땅을 훑치면서 발로 땅을 평평하게 해준다. 땅을 평평하게 하는 이유는 낮으로 벼를 벨 때 땅에 낮이 부딪혀 낮의 날이 무더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벼를 베면 3~4일 정도 말렸다가 그 다음에 뒤집어서 2일 정도 말리고, 집으로 가져온다. 타작을 하고 나서 짚가리는 소여물로도 주고, 지붕을 이을 때도 쓰고, 불을 땔 때에도 쓴다.

파주 금산리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황해도와 마주하고 있다 보니 황해도의 소리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모찌는 소리인 찢네소리, 모심는 소리인 하날기로구나와 논매는 소리에서의 자진난봉가는 황해도에서 온 소리들이다.

금산리 논매는 소리는 모두 여섯 가지로, 긴소리부터 시작한다. 긴소리는 달리양산도, 미나리라고도 하는데, 느리고 유장한 맛이 있다. 그 뒤로 방아타령, 율윽이, 상사디야, 몸돌소리, 새 쫓는 소리가 불린다. 앞서 양주 상여·회단이소리에서 보았듯이 이 지역에서도 논매는 소리와 회단이소리가 공유되는 것이 특징이다. 논매기와 회단이 제일 뒤에 불리는 새 날리는 소리는 기존 연구에서는 주술적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나 조병호에 따르면 논매는 소리나 달구소리 제일 뒤에 이 소리를 함으로써 일을 마치는 신호로 쓴다고 하였다.

#### (7) 경기도 무형문화재 35호 포천 메나리

포천 메나리는 포천시 가산면, 소흘면 일대에 전승되는 농요이다.<sup>8)</sup> 포천 메나리의 제일 처음은 농사꾼들이 갈일을 꺾으러 산에 올라갈 때 부르는 자진아리와 지계에 짐을 지고 산을 내려오며 부르는 지계꾼소리, 소를 몰아 논을 갈 때 부르는 썩레질소리로 호리소리(외겨리소리)로 시작된다.

8) 포천 메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21일 포천 메나리 회장 이영재(1933)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7) 2002년 11월 3일 금산리의 선소리꾼 조병호(1926)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논농사 소리는 작업 과정에 따라 다양한 민요가 전하는데, 모심기 때는 심는 모를 하나 둘 세면서 부르는 열소리를 한다. 이 지역에서는 한식 때 볍씨를 담그고, 곡우 때 못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망종 때 품앗이로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는 기간은 보통 15일에서 한달 정도이다. 천동지기(천수답)의 경우 물길을 내서 물을 대야 모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논을 맬 때는 절차에 따라 각기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호미로 하는 아이논(초벌) 매키에서는 방아타령(긴방아타령과 곧방아타령으로 구성)을 부르고 손으로 하는 두벌 논매키에서는 메나리를 부른다. 메나리는 논매키에 참여하는 농사꾼을 다섯 패로 나눈 다음 노래 한 절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부르는데, 이를 각각 메기는 부분, 지르는 소리, 받는 소리, 내는 소리, 맺는 소리라 한다. 특히 지르는 소리는 고음으로 시원스럽게 가락을 뻗으면서 장식음을 화려하게 구사하면서 멋지게 부른다. 사설이 이처럼 독특한 형식으로 논매키소리를 부르는 경우는 다른 지방의 민요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두벌 논매키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새쫓는 소리를 부른다. 현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록한 메나리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a: 이 논배미 물새 좋아/ b: 에 이 에이/ c: 이 논배미/ d: 물새-/ e: 좋아-/  
 a: 일천가지 벌러섰네/ b: 에이 에이/ c: 일천 가지/ d: 벌여-/ e: 섰네-/ a:  
 일천가지 벌러서면/ b: 에이 에이/ c: 삼천석이/ d: 솟아-/ e: 떠났네/ a: 삼천  
 석이 솟아나면/ b: 에이 에이/ c: 부모봉양/ d: 하여-/ e: 보세-/ a: 부모봉양  
 하고나면/ b: 에이 에이/ c: 처자건사도/ d: 하여/ e: 보세-/ a: 처자건사 하고  
 나면/ b: 에이 에이/ c: 친구 접대도/ d: 하여/ e: 보세/ a: 친구 접대하고 나면  
 / b: 에이 에이/ c: 동래 구제/ d: 하여/ e: 보세/ a: 동래 구제하고 나면/ b:  
 에이 에이/ c: 나라 구제/ d: 하여/ e: 보세(a: 매키는 소리(김소성), b: 지르는  
 소리(김봉길, 윤동순), c: 받는 소리(유태균, 김창열), d: 내는 소리(이상주, 이  
 영재), e: 맺는 소리(박일용, 김상용))

위 소리는 현장을 떠나 소리 자체만을 들으면 어떻게 다섯 패가 번갈아 가며 소리를 주고받는지 잘 알 수 없다. 실제 일하면서 소리하는 것을 보면 전체 인원이 일렬로 늘어서서 허리를 숙여 앞으로 눈을 매 가다가 한 파트씩 쉬는 겸 허리를 펴고 소리를 주고받는다. 그런 점에서 메나리는 일의 능률과 노래의 수월함을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키는 소리는 앞에 서서 선 소리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나리는 선후창의 분화 형태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2) 경기잡가

### (1) 경기도 무형문화재 31-2호 경기소리(긴잡가)

경기잡가에는 긴잡가(12잡가)와 휘몰이잡가가 있다.<sup>9)</sup> 긴잡가 가운데 유산가(遊山歌), 적벽가(赤壁歌), 제비가(燕子歌), 소춘향가(小春香歌), 선유가(船遊歌), 집장가(執杖歌), 형장가(刑杖歌), 평양가(平壤歌), 십장가(十杖歌), 출인가(出引歌), 방물가(房物歌), 달거리를 12잡가라 한다. 이 밖에 긴잡가에 속하는 것으로 <풍등가(豐登歌)·<금강산타령>·<토끼화상>·<자진방물가>·<변강쇠타령> 등이 더 있다.

긴잡가는 대체로 19세기 중엽 이후에 발생한 속요(俗謠)로 지금은 서울특별시에 속하는 청파동 일대 사계축(四契軸)의 소리꾼들 사이에서 널리 불렸다. 사계축이란 지금의 서울역 앞에서 만리재(萬里峴) 위를 돌아서 남쪽으로 청파동 청패까지의 일대를 가리키는 지역 이름인데, 이 사계축의 상공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소리꾼이 많이 나왔고, 이 지역에 산재했던 공청(公廳)은 소리꾼들의 공연장인 동시에 연습장을 겸하였다.

긴잡가를 부르던 전문소리꾼은 사계축 외에도 문안과 문밖, 우대(옛날 서울 도성 안의 서북쪽 지역, 즉 인왕산 부근의 동네)와 아래대(서울에서 동대문과 광희문 지역을 이르던 말)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곳은 예전에는 모두 경기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 (2) 경기도 무형문화재 31-1호 경기소리(휘몰이잡가)

휘몰이잡가는 가사나 시조를 잘 부르던 잡가꾼들이 발전시킨 것으로 조선후기에 서울 소리꾼 이현익(李鉉翼)이 많은 휘몰이잡가를 지었다 한다. 이 소리는 선소리

9) 1975년에 지정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는 경기잡가 중 긴잡가, 즉 12잡가를 구연한다.

명창 김태운(金泰運)을 거쳐 이창배(李昌培)에 전승되었는데 주로 소리판이 끝나갈 때 불렀다고 한다.

현재 전승되는 휘몰이잡가에는 만학천봉·곰보타령·병정타령·기생타령·육칠월 흐린날·생매잡아·바위타령·맹꽁이타령·한잔부어라·비단타령·순검타령 등이며 음악적 특징이나 창법은 12잡가와 공통된다.

만학천봉(萬壑千峰)은 신선놀음을 자처하는 한 객이 옥황상제께 약 심부름 가는 선동(仙童)에게 각종 물고기를 잡아 입에겐 전하라고 하니 선동은 바빠서 갈지 말지 하는 내용이다. 곰보타령은 가장 널리 불린 휘몰이잡가 중의 하나로 갖가지로 엮은 중이 냇가로 나왔는데, 각종 고기들이 그 얼굴을 그물로 여겨 도망간다는 내용이다. 병정타령(兵丁打令)은 병정에게 심부름시키니 바빠서 전할 수 있을지 말지 하는 내용이다.

기생타령은 한 여인이 갖가지로 차린 기생에게 자기도 기생이 되겠으니 선생에게 전해달라고 하니 기생은 정든 입을 위해서 바쁜 것을 갖가지 나열하고 타인에게 미루는 내용이다. 육칠월 흐린 날은 만학천봉과 비슷한 내용이다. 생매잡아는 갖가지 물고기를 잡아 놓고 동자에게 손님이 오거든 냇가로 안내하라는 내용이다.

바위타령은 밥에 돌이 많은데 바위처럼 크다고 하여 각 고장 유명한 바위를 나열하는 익살스러운 잡가이다. 맹꽁이타령은 맹꽁이를 두고 갖가지 인생사를 주어 섬기며 풍자하는 익살스러운 내용이다. 한잔부어라는 호주가 술 마시고 호기 부리는 짧은 사설을 시조 형식으로 지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단타령은 각색 비단을 나열하는 사설로 서울소리조로 경 입듯이 주어 섬긴다.

이상 사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았지만 모두 장황하게 비슷한 내용의 낱말을 나열하는 사설이 많다. 휘몰이장단은 자진모리장단을 더욱 빨리 연주함에 따라 생성된 장단으로서, 이 장단이 사용되는 음악은 전반적으로 씩씩하고 격렬한 느낌을 준다.

### 맺음말 – 경기민요 및 수원지역 민요의 발전 방안을 대신하며

이상에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 민요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고양, 김포, 파주, 포천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농요 4편과 양주, 양평, 화성 등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의 상여·회달이소리가 3편, 그리고 경기잡가가 2편 있었다. 향토민요의 경우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입상해야 한다. 향토민요의 소리판이 이미 소멸된 상황에서 잊혀진 소리들을 발굴되고 보존회가 구성되어 다양한 공연을 통해 대중과 만나는 것은 경기민요 발전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문화재로 지정 받지는 못했으나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출품되었던 민요자료들을 살펴보고 그 자료들을 통해 경기민요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지역 민요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2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출품된 민요자료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sup>10)</sup>

순번	지역	참가명	순번	지역	참가명
1	성남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18	화성시	왕재 호상놀이
2	안양시	채석장 노동요	19	화성시	구장터 면생이
3	김포시	통진 두레놀이	20	가평군	회달이소리
4	김포시	김포 상두꾼소리	21	양평시	쌍거리놀이
5	김포시	통진 두레농요	22	양평시	풍년기원놀이
6	안성시	상여소리	23	용인시	두레싸움
7	안성시	지경다지	24	용인시	타맥놀이
8	포천시	메나리	25	하남시	지경다지기
9	연천군	쌍거리	26	군포시	지경다지기
10	연천군	아미산 올eri	27	군포시	둔대농요
11	연천군	아미산 성주걸	28	군포시	대야 상여, 회달이소리
12	이천시	자채농요	29	고양시	송포 호미걸이
13	이천시	정승 달구지놀이	30	안산시	둔배미놀이
14	파주시	금산농요	31	평택시	고리두레박놀이
15	파주시	회방아 평토 다지기	32	동두천시	고삐박놀이
16	파주시	탄현 두레놀이	33	동두천시	탑동상여소리
17	양주시	상여 회달이소리			

10) 출전 목록은 아래 책들에 소개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권, 경기도, 1996.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2권, 경기도, 1997.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3권, 경기도, 2004.

위 표에서 보듯 예술축제에는 향토민요를 중심으로 출전이 이루어졌다.<sup>11)</sup> 경기 잡가나 통속민요의 경우 민속예술축제의 성격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놀이 형태로 꾸며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이루어진 경기민요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를 보면 먼저 백대웅은 경기지역 향토민요가 여러 가지의 음 구조(음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각 지역간의 문화 교류로 인한 ‘문화 변용’(acculturation)의 결과라 하였다.<sup>12)</sup> 그리하여 경기도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민요에는 강원도나 경상도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미음계(메나리조)의 구조로 짜여진 노래가 많고, 인천시와 용진군을 비롯한 파주군, 포천군 등 서부 지역은 서도소리에 나타나는 레음계(수심가조)의 노래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기민요의 양상은 김현선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그는 경기지역 향토민요의 성격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서울, 경기 본토의 소리 외에 한강 이북의 지역으로 임진강이나 예성강 등에 가까운 지역(고양, 김포, 파주 등)은 서북부의 황해도 민요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원도에 가까운 동북부지역인 포천, 가평 등 메나리조의 선법에 가까운 민요가 많다고 하였고, 경기 남부지역 민요로 충남과 충북의 민요와 전라도 등지와 같은 선율과 후렴구 쓴다고 하였다.<sup>13)</sup>

이러한 지역적 특징을 대변하듯 위 표에서는 그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한 소리들이 많이 발굴, 출품되었다. 먼저 화성의 구장터 면생이의 경우 경기남부지역 농요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이 자료는 모심는 소리(여기도 하나), 논매는 소리(얼카덩어리, 두올레, 면생이, 긴방아, 자진방아, 에넬넬 상사디야, 먼들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카덩어리의 경우 원래 당진, 서산, 홍성을 중심으로 한 충남이 본고장인

소리로 경기도까지 전파된 예가 된다. 그리고 두올레와 면생이는 경기 남부지역의 특징적인 소리이다.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농요들이 경기 서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도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어야 한다.

향토민요 중에는 화성 구장터 면생이처럼 지역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소리도 있지만 희소성의 면에서 가치가 있는 소리들도 있다. 그 소리들은 연천의 아미산 울어리와 연천, 양평의 쌍겨리이다.

먼저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서 불리는 나무하러 가는 소리인 아미산 울어리는 다른 지역의 나무하러 가는 소리들에 비해 소리의 형태 및 내용, 구성 등에서 차별된다. 다른 지역의 나무하러 가는 소리의 경우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혹은 가을에 땔나무를 만들기 위해 혼자 가거나 아니면 몇몇이 지계를 지고 가면서 강원도 아리랑을 주로 부른다.

아미산 울어리의 경우 음력 7~8월에 땔나무용 풋나무를 꺾는데 개인적으로 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나무를 하면서 이 소리를 하였다. 이 지역은 대체로 높은 산이 많지 않아 땔감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논농사를 마치자마자 공동으로 땔감 마련을 나섰던 것이다. 나무하러 갔던 곳은 주로 유촌리 근처의 아미산이나 도리산이었다. 일꾼들은 이른 아침부터 지계에 낫과 솥들을 짊어지고 풍물을 울리면서 산으로 간다. 집단적으로 낫으로 나무를 베면서 하던 소리가 울어리이다.<sup>14)</sup> 이곳에서는 나무하러 갈 때에는 울어리소리, 나무를 다 해서 오면서는 남여행차, 집에 다 와서 한바탕 놀 때에는 동계타령을 불렀다.

울어리는 상겨리, 중겨리, 하겨리로 나뉘어 각 겨리의 대표자들이 번갈아가며 앞소리를 메겼다. 이렇게 한나절을 베어낸 다음 나무를 베어서 칩으로 엮어 임시로 남여(간단한 형태의 가마)를 만들어 제일 연장자인 좌상을 남여에 태우고 마을로 돌아온다. 후렴이 ‘끼루끼루’인 것은 좌상을 태운 남여가 두 줄로 늘어서서 뒤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기러기 형상과 같다고 하여 이렇게 소리를 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연천과 양평에서는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쌍겨리가 출품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논을 갈 때에는 그렇게 많은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호리로 일을 하지만

11) 경기지역 민요 중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하여 수상한 자료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77년 시선뱃노래(문화공보부장관상), 1979년 연천 아미산 울어리(문화공보부장관상), 1981년 강화 시선뱃노래(도지사상), 1983년 연천 아미산 울어리(공로상), 1986년 강화 용두레질노래(대통령상), 1987년 김포 두레농요 (도지사상), 1988년 고양 송포호미걸이(공로상), 1990년 김포 상두꾼소리(공로상), 1991년 안산 둔배미놀이(장려상), 1992년 포천 메나리(문화공보부장관상), 1997년 김포 통진 두레놀이(대통령상)

12) 백대웅, 앞의 책, 16~17쪽.

13) 김현선, 앞의 책, 923쪽.

14) 울어리의 명칭은 관북지방의 노동요에서 발작두를 할 때의 굵은 나무를 울어리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것과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 둥근 형태로 올라가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있다.

밭을 갈 때에는 돌이나 자갈이 많은 일명, 저드락밭이 많기 때문에 겨리소로 일을 하였다. 겨리소로 밭을 갈 때에는 논에서 일할 때보다 크고 무거운 보습을 이용하였다. 겨리소는 왼쪽에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왼쪽에는 황소를, 오른쪽이 암소를 세웠다. 두 마리 모두 암소로 겨리를 할 수는 있어도 황소끼리는 겨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같은 쌍겨리를 출품했음에도 연천과 양평의 양상은 조금 다르다. 연천지역의 경우 쌍겨리로 밭을 갈고,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콩이며 조를 심는 것을 중점적으로 표현했다. 반면 양평의 쌍겨리는 겨리소 몰면서 논 가는 것에서 모찌기(미나리 구연), 모심기, 초벌, 두벌 논매기, 추수하기, 뒷풀이로 구성하였다. 앞서 살핀 연천 자료의 경우 밭을 맨다는 점에서 실제 현상을 충실히 재현했다면 양평 자료의 경우 노동의 전체 맥락 속에서 쌍겨리를 구현한 장점은 있으나 논을 가는 것에 쌍겨리를 이용했다는 것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쌍겨리의 경우 같은 경기 북부지역인 포천이나 가평 등지에서 독창이 아닌 선후창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선후창은 뒤에서 두 마리의 소의 쟁기를 잡고 가는 밭갈애비가 소리를 매기고, 앞에서 고삐를 잡고 가는 이가 소리를 받는다. 이렇게 두 사람이 소리를 주고받는 것은 보다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쌍겨리는 전국적으로 희소성을 가지면서도 같은 지역 안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현실 문맥에 충실하되 그러한 다양성을 살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기민속예술축제에 출품된 자료들 중에는 그 자체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자료들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동두천 고삐반 놀이이다. 주지하듯이 경기도의 고삐반은 이 소리의 담당자인 농악대의 성격의 차이로 말미암아 소리 역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것이 각기 다르다. 동두천 고삐반 놀이에서 불리는 고삐반을 보면 천지조판부터 액풀이까지 이어지는 고사 선염불과 축원덕담 위주의 뒷염불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남부지역 고삐반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고삐반을 보면 그 자체로 소박하면서도 불교적 내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특징을 살리지 못하였다.

이밖에 자료적 가치가 뛰어나면서도 불구하고 놀이 구성에 있어 작은 문제가 있는 자료들도 있다. 가령 안산 둔배미놀이의 경우 성황당 고사, 길놀이, 용왕제, 선상

배치기, 노젓기, 농요(아낙네들에 의한 양산도 및 방아소리), 만선 귀향(배치기), 뒷풀이로 구성되었는데 놀이가 전체적으로 어업노동요와 관계되므로 중간에 들어간 농요는 빠지거나 다른 놀이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하다.

이러한 구성상의 문제는 안양 채석장 노동요나 양평 풍년 기원놀이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전자의 경우 채석(쇠메로 정을 치면서 채석을 함), 대꼬질(떼어낸 돌을 목도에 묶기 위해 받치거나 돌을 움직이는 작업), 목도, 지경담이로 구성되었는데 제일 뒤에 지경담이가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채석하는 것과 지경담이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도 추수, 연자방아노래, 디딜방아노래, 고사반, 줄타기로 구성되었는데, 이 자료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요소가 결합되었다.

앞서 양주 상여·회달이소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논매는 소리와 회달이소리와 의 연관성도 경기지역만의 특징인 만큼 개발 보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리에 초점을 두고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두 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지정해야 할 경우 어려움이 생긴다. 즉 특정 소리 중심의 지정이 아니라 특정 집단 중심의 지정하는 것이다. 노동요와 의식요가 공유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은 두 소리를 담당하는 집단(두레와 상두계)이 같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요와 의식요의 공유가 일어나는 마을이나 보존회를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보다 충실한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기지역에서 출품된 자료들 중에 대통령상을 받은 자료는 두 편이 있다. 그것은 통진 두레놀이(범씨 뿌리기, 논갈이, 씨래질, 못자리 고사 지내기, 모찌기, 모내기(막모로 한다.), 물고싸움, 김매기(방아타령), 벼베기, 탈곡하기, 섬 쌓기로 구성)와 강화 용두레질소리(모찌기, 모심기, 김매기, 두렁밟기, 물푸기, 들놀이와 파집놀이로 구성)이다. 위에서 살핀 자료들과 이 두 자료를 비교하면 전체 구성이나 각 부분의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출품된 자료들은 어렵게 만들어지고 출품된 만큼 잘 개발, 보존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수원지역 경기민요의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도 말하였듯이 경기민요는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경기잡가를 지칭한다. 그 중에서 수원의 경우 향토민요의 발굴은 그리 기대할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경기잡가 역시 곡목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미 문화재 지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원지역 경기민요의 발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경기민요 단체들 - 경기도리회, 경기도속민요회 등 -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리극 등 대중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기민요의 한 갈래인 통속민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보았듯이 아직까지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통속민요이다. 특히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 청춘가 등의 통속민요의 경우 다른 경기민요들에 비해 대중적 친숙도가 가장 높다. 그런데 수원지역에는 경기민요 통속민요 뿐만 아니라 12잡가까지 유능한 가창자가 있다. 그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기명창 이희완이다. 여기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은 이희완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 글의 마무리로 삼고자 한다.

이희완은 1938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에서 부친 이기선, 모친 차간난에게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sup>15)</sup> 부친은 원래 화성군 매송면 어천리에서 살았으나 이희완이 태어날 때 즈음 수원의 남창동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는 1951년 그의 나이 13살 때에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눈이 불편하긴 했지만 소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 이후엔 집안일을 도우며 소년기를 보냈다. 1958년 그의 나이 20살 되던 해에 지금의 부인인 제길용과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4형제를 두고 있다.

그의 소리와 관련된 생애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그의 가계(家系)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희완의 증조부 이영수는 인천지역에서 삼현육각의 악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의 집안은 여주로 이주했고, 여주에서 그의 조부인 이봉운은 성장했다. 그의 조부는 소리, 악기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재능을 가진 예인이었었는데, 특히 줄타기에 있어서는 당대에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한다. 이희완의 조모 이춘삼 역시 안산지역에서 이름난 무녀(巫女)였다.

이봉운과 이춘삼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1남이 이희완의 아버지인 이기선이고, 1녀가 이갑오였다. 이갑오도 도당곳의 무녀였는데 현재 경기 도당곳 전수자인 오수복의 선생님이다. 그밖에 이희완의 사돈으로 방인근(경기도 도당곳 이수자) 등이

있는데, 이희완은 그들과 교우하면서 소리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된다. 이렇듯 이희완의 집안은 경기도 도당곳을 비롯하여 민요, 악기 등 다방면의 예술분야의 것 줄을 타고 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이희완에게 이어져 여느 경기민요 소리꾼들이 가질 수 없는 이희완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희완은 어려서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재질을 보여 소학교에서부터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틈틈이 유성기음반이나 라디오를 들었다. 이때에 주로 들었던 소리로는 선일선, 이화자 등의 소리였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선일선, 이화자는 이희완의 간접적인 스승이 되는 셈이다.<sup>16)</sup>

이희완의 첫 소리 경험은 서라벌소년단, 동춘 씨커스단 등을 따라다니며 간간히 무대에 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에는 아직 경력이 없던 터라 전문적으로 노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타고난 목청 덕에 재창, 삼창 등의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그때 “잘있거라 황진이”, “페르시아왕자”, “여반장”, “고향설”, “삼각산 손님”, “남꽃불역사” 등의 가요를 불렀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남창동에 살고 있던 이병태에게서 상여소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리를 배웠다. 이병태는 이희완의 조부인 이봉운과도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 풍물, 덕담, 상여소리 등에 능통하였다고 한다.

부정기적인 공연 무대 경험과 능숙한 마을 선소리꾼으로부터 소리의 기반을 닦은 이희완은 보다 전문적인 소리를 배우고자 마음을 먹고 1977년경 그의 나이 사십 정도 되었을 때 어려서 유성기음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경기명창 김옥심을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당시 김옥심은 건강이 좋지 않아 개성 출신의 김정희를 소개해주었고, 그때부터 김정희에게서 12잡가 및 경기민요(통속민요) 등을 배우게 된다. 김정희는 한성권번 출신으로 이희완에 의하면 김옥심보다 훨씬 소리가 좋았다고 한다. 소리 수업은 선생이 한 소절을 부르면 따라 부르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희완은 워낙 목청이 좋아 수업에 차질이 없었으나 금강산타령, 정선아리랑, 이별가만은 노래가

15) 이희완과의 첫 인터뷰(2004년 8월 28일)에서는 개괄적인 생애사만 조사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사(2004년 9월 16일, 2004년 9월 20일)에서는 그의 소리 녹음 및 촬영, 그리고 소리와 관련된 생애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6) 이희완은 어려서 수원에서 서울 서대문으로 이사를 가서 5년 정도 살았다. 그 때 선일선, 이화자의 소리 공연을 몇 번 본적이 있는데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공연장이 북적였다고 한다.

워낙에 어려워서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한다. 요즘 이희완은 장애인 초청 잔치나 각종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경기민요를 부르고 자신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기민요를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다.

이희완의 구연 목록을 배운 시기별로 정리하면 유성기음반을 통해 배운 전통가요(진달래수첩, 오동동타령, 목단강편지 등), 마을 선소리꾼을 통해 배운 소리(신세타령, 상여소리 등), 그리고 권번 출신의 김정희선생에게서 배운 12잡가 및 경기민요로 정리할 수 있다.<sup>17)</sup> 그는 다양한 소리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의 소리 스타일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궁째(청승)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소리에 궁째(청승)이 들어가지 않으면 경기민요로서의 맛이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궁째를 넣어 소리 하는 것은 그 전에 이화자가 특히 잘하였는데, 그는 통속민요 뿐만 아니라 오동동타령 등의 전통가요에도 궁째를 넣어 불렀다. 이렇게 전통가요에 경기민요의 창법을 접목시키는 것은 그의 뛰어난 가창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요컨대, 향토민요나 통속민요, 경기잡가가 구연되기 위해서는 소리 자체의 개발이나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가창자의 자질이나 능력 또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경기명창 이희완이 구연하는 통속민요는 지금까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수원지역 경기민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강등학, 「민요의 현장과 장르의 기능」, 『민요와 민중의 삶』, 우석출판사, 1994.
2. 김홍식, 『경기민요의 이해』, 경기개발연구원, 2000.
3. 류의호 편, 『목계월 경기소리연구』, 깊은샘, 2003.

4.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경기도 민요해설집, 삼보문화사, 1996.
5. 신은주, 「경기지역 민요토리에 관한 고찰」, 『한국민요학』 11집, 2002.
6. 서한범, 「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미지정 종목의 검토와 보존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음악종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 40, 2004.
7. 손인애, 「경기민요 방아타령 연구」, 『한국민요학』 9집, 2001.
8. 손인애, 「경기민요 한강수타령연구」, 『한국음반학』11, 한국고음반연구회, 2001.
9. 손인애, 「경기도 토속민요 방아타령 연구」, 『한국민요학』 13집, 2003.
10. 이경엽, 「무형문화재와 민속 전승의 현실」,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 40, 2004.
11. 이용학,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9.
12. 이자균, 명인명창 - 이희완(www.kukak.com, 2004년 9월 4일 현재)
13. 임동권, 『한국민요집』, 집문당, 1961-1992.
14. 임석재 편저, 『한국구연민요-자료편』, 집문당, 1997.
15.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경기도, 1996.
16. 지영, 「경기소리의 창조적 계승과 전망」, 경기도 국악당, 『경기잡가』, 경기정판사, 2006.
17. 정창관, 「콜럼비아 음반에 나타난 경기민요 음반자료 분석」, 『한국음반학』3, 한국고음반연구회, 1993.
18. 정영희, 「경기민요 창부타령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5.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기지역의 향토문화(下), 한광문화사, 1997.
20. 최금오,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97.
21. 최공섭, 「무형문화재 보호정책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7.

17) 이희완은 2004년에 두 장의 음반을 낸바 있다.  
 이희완 외, 『KBS FM 기획 한국의 전통음악 시리즈 Vol.42: 우리시대의 숨은 명창 소리집』, 서울 음반, 2004.  
 이희완, 『이희완 경기민요 1: 노랫가락』, 드림비트, 2004.

## Abstract

# A Continuance and Change of the Kyonggi Folk song

– A Development plan of the Suwon area folk song –

Choi Ja-Un (Kyonggi Univ.)

Generally Kyonggi Folk song is recognized Kyonggi Japga(경기잡가) and Tongsokminyo(통속민요). But The Hyangtominyo(향토민요) must include in Kyonggi Folk song. To seek the development plan of the Kyonggi Folk song which is true to the name, We will examine the 3 kinds of the folksongs.

Intangible cultural assets No.22 Koyang Songpo Homiguli(고양 송포호미걸이) in Kyonggi province wish year of abundance and pray to protect the natural disaster after the farm work. Intangible cultural assets No.23 Kimpo Tongjin Duraenori(김포 통진두레놀이) consist of various work song. There are 3 kinds of bier song and 2 kinds of folk songs in in Kyonggi province.

Intangible cultural assets No.31 Kyonggi Japga is transmitted by an expert. Because it is refined and complicated, to sing and learn is more difficult than any other songs.

The folk song by farmer take part in art festival in Kyonggi province. Because of participant and singing method Kyonggi Japga and the Tongsokminyo did not participate art festival at all.

So, the songs which represent the feature of the area show on exhibition. First, Gujangtu Myunsaenii(구장터 면생이) in Hwasung represent the feature of the south area of the Kyonggi area.

There are some folk songs which have a scarcity-Amisan woolauri(아미

산 울어리) in Yeonchun, Ssanggyuri(쌍겨리) in Yeonchun and Yangpyung. These songs must preserve and develop itself. Gosatbannori(고삿반놀이) in Dongduchun must revise to its own features. It influenced by specialist in south area in Kyonggi area. The relationship between Hoedatisori(회달이소리) and Nonmaeneunsori(논매는소리) must preserve. It did not develop its own color. The good way to develop this relationship is to appoint a village which transmit these folk songs.

What is development plan of the Suwon folk song? There is a singer of ability in Suwon. He is Lee Hee-Wan who can various songs. He has his own singing skill and combine folk song with trot song. Lee Hee-wan can be a alternative plan to seek breach . in Tongsokminyo(통속민요).

Key-words : Hyangtominyo(향토민요), Tongsokminyo(통속민요), Intangible cultural assets, Koyang Songpo Homiguli(고양 송포호미걸이), Amisan woolauri(아미산 울어리), Hoedatisori(회달이소리), Nonmaeneunsori(논매는소리)

## 水原의 고승 眞覺國師 千熙와 고려말 불교계

황인규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머리말	2. 수원의 고승 천희와 고려말 불교계
1. 진각국사 천희의 생애와 활동	맺음말

### 머 리 말

화엄종은 의상이 개창한 이후 고려중기까지 융성하였으나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그 교세가 침체하였다.<sup>1)</sup> 고려후기 천희는 화엄종계 승려로는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사로 책봉되었다.<sup>2)</sup> 그는 흥해군에서 출생하여 경상도 일대를 중

1) 고려시대 화엄종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허홍식, 「화엄종의 계승과 소속사원-고려의 4대종파와 소속사원」,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최병현, 「고려시대 화엄종단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 『한국사론』 20, 서울대 국사학과, 1990.

2) 고려시대 초 중기 화엄종에 대한 논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최연식, 「균여 화엄사상연구-교판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한기문, 「고려중기 흥왕사의 창건과 화엄종단」, 『향토문화』 5, 밀양고적보존회, 1990.8.; 김두진, 「현종대 이후 화엄종, 법상종의 대두와 불교계의 모순」, 『한국사』 16-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국사편찬위원회, 1994.; 허홍식, 「고려중기 화엄종파의 계승-원경왕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5, 한국사연구회, 1981., ; 「고려불교사연구」, 민족사, 1986.; 허홍식, 「龍壽寺 개창기로 본 12세기 후반 화엄종의 단면」, 『석림』 18, 동국대학교 석림회, 1984. 11.; 최영호, 「화엄종계열 승려의 『강화경관 고려대장경』 각성사업 참여」, 『부산사학』 부산사학회, 1995.

심으로 활동하다가 수원에서 입적하였고 碑가 수원에 있다. 수원에서 활동한 고승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수원출신의 수원 최씨와 수원 김씨 가문 출신의 승려와<sup>3)</sup> 고려 원나라 간섭기 말부터 수원부 화성 만의사에서 활동한 趙仁規家門 출신의 승려들에 대해서 고찰한 바 있다.<sup>4)</sup> 비록 천희는 수원에서 출생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적처와 塔碑가 수원에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 동안 천희에 대한 연구는 한 편의 논고와 이와 관련된 논고가 있을 뿐이다.<sup>5)</sup> 본고에서는 천희의 생애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여보고 그의 불교계 활동과 아울러 여말선초 불교계와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진각국사 천희의 생애와 활동

천희에 대한 기록은 수원에 남아 있는 비명과 몇 건의 기록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연보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황인규, 「수원최씨·김씨 가문과 고려중기 불교계」, 『수원문화사연구』 5, 2001.;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혜안, 2003.)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황인규, 「조인규가문과 수원 만의사」, 『수원문화사연구』 2, 1998.: 앞의 책.)

5) 천희에 대한 논고는 다음의 연구가 유일하다.(유영숙, 「진각국사 천희의 생애와 신앙」, 『가산 이지관 스님 화갑기념논총』, 1992.) 그리고 여말선초 화엄종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고가 있다.(허홍식, 「공민왕시 조계종과 화엄종의 갈등 : 太古와 遍照의 사상적 차이」, 『太古思想』 1 : 태고보우국사의 원용불교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太古學會, 2001. 11.; 『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 집문당, 2004. ; 황인규, 「여말선초 화엄종승의 동향」, 『불교학연구』 1, 불교학연구회, 2000.; 이계표, 「신돈의 화엄신앙과 공민왕」, 『전남사학』 1, 전남사학회, 1987.)

6) 천희가 저술하였다는 『三寶一鏡觀』은 전하지 않고 있다. 그의 저서로 『진각국사어록』·『심요』·『선문송』·『무의자시집』이 있었다고 한 기록(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권하, 1997, 828쪽.)은 분명 오류이다. 『진각국사어록』 등의 저서를 남긴 인물은 수선사 제 2법주인 진각국사 혜심의 저술이다. 아울러 호는 雲山이 아닌 雲山으로 본 것도 오류이다.(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권중, 1997, 106쪽.) 참고로 千熙는 『고려사』에 千禧로도 나오고 있다.(『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공민왕 15년, 7월조.)

※ 千熙의 연보

.....  
1307년(충렬왕 33) 5월 21일, 경상도 興海郡에서 출생함.

.....  
1319년(충숙왕 6) 출가, 盤龍社의 一非大師를 찾아감.

.....  
1325년(공민왕 12) 승과 上品科에 합격함.

.....  
그후 金生寺 德泉寺 符仁寺 開泰寺 등 사원과  
소백산 오대산 금강산 등지를 편력함.

.....  
1364년(공민왕 13) 가을, 元나라로 감. 抗州의 蒙山 眞堂인 休休庵을 참배함.

.....  
1366년(공민왕 15) 봄, 聖安寺에서 萬峯을 만나고 귀국함.

.....  
그후 稚岳山에서 은둔하다가 洛山으로 가서 觀音菩薩을  
참배함.

.....  
7월 왕이 佛福藏에까지 걸어가서 千禧를 방문함.

.....  
1367년(공민왕 16) 1월, 치악산으로 다시 돌아옴.

.....  
5월, 國師에 책봉됨.

.....  
國師 千熙의 고향 흥해군을 知郡事로 승격시킴.

.....  
1370년(공민왕 19) 9월 功夫選 실시시 證明을 맡음, 이를 마치고 敬天寺에  
서 주석함.

.....  
1371년(공민왕 20) 금강산으로 들어감.

.....  
5월, 왕명을 받들고 개경으로 옴.

.....  
1372년(공민왕 21) 浮石寺로 가서 1376·1377년 전각을 중창함.

.....  
1382년(우왕 8) 6월 16일, 수원 彰聖社에서 입적함.

.....  
1386년(우왕 12) 창성사에 천희의 탑비가 세워짐.

천희의 가계 및 출생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의 것이 전부이다.

典理判書<sup>7)</sup>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崔氏이니, 최씨가 꿈에 큰 배를 보았는데 많은 스님들이 梵唄를 하고 있었고, 그 물이 대문 앞까지 이르러 오는 胎夢을 꾸고 임신하였다. 만삭이 되었을 때 白鶴이 그의 복부를 쪼아 靑帖袈裟를 입은 한 스님이 뛰어나오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 그 후 大德 丁未年 5월 21일 탄생하였다.(이색, <彰聖社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銘>, 『한국금석전문』중세 하.;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그는 어머니 최씨와 ‘典理判書’를 지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缺落된 비명으로는 그의 姓조차 알 수 없으나 지리지에서 그의 고향이 지금의 포항인 흥해군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興海郡은 공민왕 16년에는 國師 千熙의 고향이기 때문에 知郡事로 승격시켰다. 曲江 또는 鰲山이라고도 부른다.(『고려사』 권57, 지리 2, 경상도.)

이렇듯 흥해군이 천희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의 성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조선후기 지리지나 읍지류에서는 그의 성씨를 붙인 배천희라고 표기하고 있다.

공민왕이 국사 裴千熙의 고향이므로 승격시켜 군으로 삼았다.(『흥해군 읍지』건치연혁조.<sup>8)</sup>)

國師裴千熙墓 曲江面兩白洞葛店谷壬坐 谷江人麗朝國師恭愍王以興海爲公之鄉陞縣爲郡(한국인문과학원 편집부 편, 『韓國近代邑誌-迎日邑誌』, 20, 韓國人文科學院, 1991, 348쪽.)

郡人이 城隍祠에 제사를 지낸다.(『흥해군읍지』 인물 배천희조.<sup>9)</sup>)

7) 『해동금석원』과 『한국금석전문』의 판본대로 ‘具贈口理判書’로 읽었고 지관스님의 견해대로 ‘典理判書’로 보았다.(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490쪽, 498쪽.)

8)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읍지』 1, 경상도 1, 한국지리지총서, 아세아문화사, 1982.

9) 위와 같음.

천희의 성을 裴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묘가 흥해군 곡강 백동 갈점 壬坐, 즉 서북 방향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郡의 사람들이 천희의 성황사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20년대에 편찬된 지리지인 『조선환여승람』에도 전해지고 있다.<sup>10)</sup>

실제 천희의 고향인 흥해군 일대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방증이라도 하듯이 천희와 관련된 유적과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1) 國師裴先生遺虛碑

國師裴先生遺虛碑는 흥해읍 학천리 포항공원 묘원에서 좁은 비포장길을 따라 서쪽으로 2km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1m정도의 비석의 비문은 ‘國師裴先生遺虛碑’라 음각되어 있다. 비석옆에 새겨진 작은 글씨는 세운 연도와 새긴 이의 이름을 나타내는 듯했으나 마모되어 뚜렷하지 않다.

비석과 글씨의 마모 상태로 보아 국사가 입적한 후 이곳 고향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유희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은 남아 허물어질 정도이고 문에는 자물쇠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sup>12)</sup>



배천희국사유허비



배천희국사사당 현액

10) “배천희 곡강인이고 고려 국사이다. 묘는 곡강면 양백동에 있다”(『朝鮮實輿勝覽』영일군.) 『조선환여승람』은 李秉延이 1910년부터 1937년까지의 인문지리 현황을 담은 국내 최대의 지리서이다.(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목활자본, 70책, 1922~1937년, 普文社 발간.)

11) 천희와 관련한 유물유적 및 전설이야기는 포항의 향토사연구가 황인(포항 동성고 국사선생님)의 글에서 발췌하였다.(『포항역사이야기-진각국사 배천희』, <경북매일신문> 2006년, 6월, 16일자.(http://www.kbmaeil.com/featurestory/20060616) 흥해군에 소재하는 천희와 관련된 유적 및 사실들에 대하여 향토사연구사 황인선생님과 흥해 배씨 문중의 자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2) 裋千熙國師祠堂

裋千熙國師祠堂은 泉谷寺 옆에 있다.<sup>13)</sup> 절에서 북동쪽으로 200여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당도 본체와 담장 모두 낡아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처럼 보인다. 위패는 ‘國師公裋先生’으로 되어 있으며 현판은 ‘羅朝’라고 표기되어 있다.

사당은 아주 초라하며, 고려 국사의 사당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설 및 관리가 부실하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에 후손들에 의한 향사가 치러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닭을 제물로 사용하고 있다.

### 3) 배천희 국사의 묘소

배천희 국사의 묘소는 사당에서 북쪽으로 승용차를 타고 20여분 거리인 흥해읍 양백리 마을 뒷산인 백산에 있다.<sup>14)</sup> 이곳에서는 배천희 국사가 아닌 배장군으로, 무덤은 배장군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의 무덤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무덤 둘레에 자연석을 쌓아 무덤의 경계를 표시하였고, 더욱 특징적인 것은 무덤 앞에 망주석으로 당간지주 형태

의 석물이 양쪽에 서 있어 이 곳에 묻힌 사람이 불교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sup>15)</sup> 일반적으로 무덤에는 망주석을 세우지만 당간지주를 세운 무덤은 국내에서는 볼 수 없다.<sup>16)</sup> 후손들이 해마다 음력 10월 7일 이곳에서 묘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sup>17)</sup>



천희 사당



천희의 묘소와 당간지주

이러한 유적이거나 전설을 천희의 후손들을 비롯한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믿고 있다. 천희의 성씨가 흥해 배씨라는 것은 지리지류에서 보듯이 사실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천희의 유일한 家兄이 바로 裋諗이라는 것이다.

우선 裋佺(?~1361)은 興海郡 사람이며 그의 어머니는 宮婢였다. 그는 충혜왕의 嬖幸이 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 護軍이 되었으며 왕은 그에게 기밀 사무를 위임할 정도로 총애를 받았다. 군부판서로 있으면서 조적의 난 때에 왕을 시종한 공로로 공신 1등에 등록되고 興海君으로 봉군되었다. 그는 아들로 裋尙綱·裋尙度·裋尙志·裋尙恭을 두었다.<sup>18)</sup>

흥해군으로 봉군된 배전은 흥해 배씨의 실질적인 시조라고 볼 수 있는데 1390년에 작성된 흥해 배씨 戶口單子에서 그의 아버지 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기록

15) 최근에 진각국사 후손들이 별초를 위해 묘소에 들렀다가 봉분 오른쪽 윗부분에 지름 1m 30cm 정도로 파헤쳐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묘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후손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진각국사 무덤이 훼손되기는 했으나 매장품 등 문화재 도난 등의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연합뉴스> 2006년 9월 29일자.)

16) 포항시 향토사가 황인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무덤 건너편에 천희가 타고 다니던 말을 묻었다는 말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17) 천희가 수원 창성사에서 입적하여 탐비가 세워졌음에도 천희의 고향 흥해군에 그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본 고에서는 천희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증적 판단은 유보한다.

18) 『고려사』 권124, 폐행, 배전열전.

12) 이 지역에 전해 오는 배천희 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허 비각이 있는 곳에서 말을 타고서는 활을 쏘아 놓고 말을 달려 현재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화살을 찾으니, 화살이 보이지 않아 화살 보다 늦은 말이라 하여 말의 목을 칼로 치고 나서 보니, 화살이 말 엉덩이에 꽂혀 있었다고 한다. 그 만큼 배국사는 말을 평상시에도 많이 탔고 잘 탔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배장군이라 부르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라고 생각된다.

배국사 유허비 있는 곳은 아주 깊은 산중이었는데 이곳에 배국사께서 키웠던 닭이나 짐승들은 야생 동물들이 해치지 않았다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 오고 있다. 그래서 사당이 유허비각이 있는 곳에 같이 있을 때는 향사를 지내러 가서는 그곳에 방사되어 있는 닭을 잡아 생닭을 그대로 제물로 사용하였다고 후손들은 전하고 있다.([열린포항], 2005, 가을호)

또한 옛장수가 고개를 넘어 포항에 엿을 팔러 가다가 고갯마루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자 국사께서 보시고는 “어찌 짐승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느냐 너는 저 염전에 가서 빠져 죽어라”라고 하였다 전한다. 그 날 그곳에서 자고 다음날 포항쪽으로 엿을 팔러 나루 끝에 갔더니 정말 호랑이가 염전에 빠져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 오고 있다.(<각주 11>과 같음.)

그리고 大蓮里의 서당골에는 배천희국사와 같은 종교계의 큰 인물이 살던 곳이라 하여 得聖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서당골 또는 사당골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권하, 1999, 682쪽.)

13)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권하, 1999, 368쪽.

14) 앞의 책, 535쪽, 682쪽.

에 의하면 裊詮은 裊佺이라고도 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裊榮至이고 古名이 裊仁儉<sup>19)</sup>이었다. 그리고 벼슬은 奉翊大夫知密直司致仕尹行典理判書上護軍을 지냈다.<sup>20)</sup>

배전의 동생이 바로 천희라는 기록은 정사료나 문집류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있지만 흥해 배씨의 가문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천희의 아버지는 배인검이고 어머니는 궁비 최씨라고 하겠다.<sup>21)</sup>

그의 성장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sup>22)</sup> 출가부터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출가 · 구도기 ; 1319년(충숙왕 6) ~ 1364년(공민왕 13)
- 원나라 유력기 ; 1364년(공민왕 13) ~ 1366년(공민왕 15)
- 중앙불교계 활동기 ; 1366년(공민왕 15) ~ 1372년(공민왕 21)
- 지방 사찰 주석기 ; 1372년(공민왕 21) ~ 1382년(우왕 12)

천희의 출가 및 구도사실에 대하여 그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스님의 나이 13살 때 華嚴宗 盤龍社 주지인 一非大師를 은사로 하여 머리를 깎고 沙彌스님이 되었다. 19세에 上品選에 합격하였다.(이색, <彰聖真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銘>, 『한국금석전문』 중세 하.;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 고승비문』 고려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19) 배인검은 『고려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별장의 신분에 있었던 인물로 배천희의 아버지인 배영지이다.(『고려사』, 권123, 인후열전.)

20) 흥해배씨 戶口單子는 흥해 배씨 안동 종가집에 소장되었던 것이다.(여은영, 「西原 鄭氏 一件文書와 興海裊氏 戶口單子」, 『경북사학』 7, 경북사학회, 1984. 재인용.) 천희의 비문에 그의 아버지가 典理判書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치하고 있다.

21) 裊門大同譜編纂會·裊氏宗譜編纂會, 『裊門大同譜鑑』에 의하면 고려 태조 공신 배현경의 6세손으로 興海君과 배천희를 설명하고 배천희가 裊詮과 형제라고 하였고 아버지는 배영지, 어머니는 최씨라고 기록하고 있다.(100쪽, 188~189쪽.)

22) 천희의 고향 일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설에 의하면 천희는 말을 평상시에도 많이 탔고 잘 탔다고 한다. 때문에 배장군이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성장시절의 이야기인지 국사책봉 후의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천희는 출생 전 어머니의 태몽으로 미루어 보아 불교적 집안에서 성장하였고 그러한 영향 때문에 출가하였다고 생각된다.

천희는 13세에 화엄종 반룡사의 주지 一非대사를 은사로 출가하고 19세에 상품선에 합격하였다. 천희의 스승인 一非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으나 그가 주지로 있었던 반룡사는 무신정권초 왕실 출신의 승려 寥一僧統에 의해 개설되었던 結社道場이었다. 문인 崔滋(1188~1260)가 지은 기문에 의하면 요일의 결사이후 문도들이 누대에 걸쳐 법을 지켜 반룡사는 동방 대화엄도량이 되었다고 한다.<sup>23)</sup> 또한 崔滋가 지은 글에 의하면 ‘眉叟 李仁老와 그의 숙부[大叔]인 승려[關梨]와 교류한 시가 이인로의 시집에 전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숙부는 이인로(1152~1220)를 훈육한 화엄종승통 寥一을 지칭한다.<sup>24)</sup>

寥一은 1197년(명종 27) 고령으로 오면서 반룡사에서 신앙결사를 개창하였다. 요일이 반룡사의 신앙결사를 개창한 목적은 ‘불교를 공부하는 자들이 시류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것을 민망히 여겨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sup>25)</sup>’으로 일종의 불교개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룡사는 江華經板 刻成사업에 참여하였던 天其가 활동하였던 곳이다.<sup>26)</sup> 원나라 간섭기에 이르러 반룡사는 원나라 왕실의 비호를 받기도 하였다.<sup>27)</sup> 즉 1274년

23) 최자, 「送盤龍如大師序」『拙藁千百』卷1, 雞林後學崔氏彥明父文.; 『동문선』 권84, 序.

24) “盤龍精舍 予未之見 少閱李眉叟詩 中有與大叔關梨往復之作 無卷無之 稱其能收撫 至有成立 始未知關梨是何人 第奇身爲浮屠 行誼之篤 士夫有不可及者 後遇李氏宗人間之 實盤龍開社僧統一公也 社憫學佛者安於自暴 欲加策勵而作也 又知用力於其學爲不少也 其徒世守法不墜 迄今爲東方華嚴大道場”

위의 글을 『동문선』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盤龍精舍는 내가 보지 못했다. 젊어서 李眉叟의 詩를 뒤져보니 시집 가운데 대숙도리(大叔關梨)와 더불어 왕복한 시가 없는 권이 없는데, 그가 능히 수습하고 무마하여 성립하게 한 것을 칭도하였다. 처음에 도리(關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만 浮屠가 되었으나 독실한 행위는 사부로서도 미치지 못할 바가 있음을 기특히 여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뒤에 이씨의 宗人을 만나서 물어본즉 실로 盤龍社를 개설한 僧統一公이었다. 社는 부처를 배우는 자가 자포자기하는 데 그치는 것을 민망히 여겨 격려를 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 하니, 더구나 그 학에 힘을 기울인 것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 문도가 대대로 법을 지켜 떨어뜨리지 아니하여 지금 와서는 동방 화엄의 큰 도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關梨는 師範이 되는 승려를 지칭하는 말로 범어 ācārya의 음역인 阿闍梨로, 승려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大叔는 숙부를 말하며 여기서는 이인로 백부인 승통 寥一이다.

25) 최자, 「送盤龍如大師序」『拙藁千百』卷1, 雞林後學崔氏彥明父文.; 『동문선』 권84, 序.

26) 최영호, 「華嚴宗系列 승려의 『江華經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부산사학』 부산사학회, 1995.

2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慶尙道, 高靈縣, 佛宇, 반룡사조.

(충렬왕 즉위년)에 고려와 원나라의 여몽 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할 당시 원나라 세조가 사원의 침탈을 방지하라는 榜文을 영남지역의 중심사찰이었던 반룡사에 붙였다. 그러나 이 반룡사는 원나라 간섭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주지도 없을 정도로 퇴락했던 것 같다.<sup>28)</sup>

그리하여 泰定(1324~1327)年間 초기 화엄종의 고승대덕들이 청의하여 社에 主法할 이로 法水堂 두령 覺海如公을 추천하였다고 한다. 각해여공은 동암 이진의 둘째 아들이자 익재 이제현의 형이다. 이미 선학이 밝힌 바와 같이 각해여공은 화엄종 고승 體元이다.<sup>29)</sup> 그가 兩街僧統國一大師로서 요일이 개설한 반룡사 결사정신을 다시 계승하여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영남지역에는 반룡사결사 외에 水嶽寺와 安養寺에서 화엄종결사가 있었다. 大孤가 樞密相國 朴文備가 固城의 수령으로 나가 있을 때 창건한 水嶽寺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아 도반 惠資를 사주로 하여 화엄결사를 하였다.<sup>30)</sup> 그리고 안양사 결사는 1252년 조성된 「智異山安養寺飯子」의 기문으로 알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하였던 인물은 화엄종계 승려 華嚴業 三重 勝壽, 大選 景興, 知識 正之, 비구니 淸惠 등의 승려와 樞密院 右副承宣 孫挺烈, 尙書 皇甫琦, 김교상서 유승석 등이 참여하였다.<sup>31)</sup>

이렇듯 체원의 반룡사 결사는 멀리는 무신정권 초기 요일의 반룡사 결사운동과 무신정권 말기 수암사와 안양사의 결사정신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천희는 반룡사의 一非大師에게 출가하였으므로 결사정신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희는 그후 金生寺·德泉寺·符仁寺·開泰寺 등 10여 개 사찰을 두루 유력하였다.

천희는 40여년간 지방을 유력하였는데 훗날의 금생사는 義砧이,<sup>32)</sup> 부인사는 友

雲이,<sup>33)</sup> 개태사는 大華嚴教觀 海峰이<sup>34)</sup> 주석하였던 사찰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신돈이 玉泉寺 등 사찰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옥천사에서 결사도량이었던 안양사 飯子를 소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결사정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희는 이러한 참신한 분위기속에 활동하였고 원나라에 유력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의 비문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禪旨를 참구하면서 小伯山에 있을 때, 또한 꿈에 蒙山이 그에게 衣法을 전해주는 것을 보았다. 금강산과 五臺山에서도 같은 꿈을 꾸었으니 이것이 바로 南遊를 결심한 동기가 되었다.(이색, 〈彰聖社 眞覺國師 圓照塔碑銘〉, 『조선금석총람』 상.)

천희가 禪旨를 참구하면서 소백산과 금강산 그리고 오대산에서 꿈에 몽산덕이가 의법을 전해 준 것이 南遊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천희가 화엄종승임에도 불구하고 선종의 요지를 참구하였다는 사실은 특이하다.

화엄종승 천희는 몽산덕이의 제자 철산소경의 영향을 받아 禪을 참구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철산소경을 직접 모셔온 인물은 圓明國師 沖鑑이었고<sup>35)</sup> 그의 선대 수선사 제 1 법주 普照國師 知訥도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절요』를 수용하였으며, 그의 문도들도 마찬가지로였다.<sup>36)</sup> 체원도 사경시 선종승과 함께 참여하는 등<sup>37)</sup> 이러한 禪教一致의 분위기가 진작되고 있었다.

천희는 1364년(공민왕 13) 가을부터 1366년 봄까지 원나라에 유학의 길을 떠났다.

33) 정도전, 「送華嚴宗師友雲詩序」, 『삼봉집』 권3, 序.

34) 閔思平, 「大華嚴教觀海峯都講主歸開泰寺 階辭之日 上餞之以天廚之珍饌 問之以海印之妙旨 師嚴坐講床 舉揚稱旨 上嗟嘆者久之 仍問云如相法門 能證得否 師云非敢證得 但能信得而已 上益加褒賞 贈以名馬 伏聞勝事 不勝嘆美 率爾成章 拜呈行軒 師與公同庚」, 『及菴集』 卷2, 律詩.

3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황인규, 「고려 후기 선원사의 창건과 고승들」, 『경주사학』 21, 2002.; 앞의 책.)

3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황인규, 「목우자 지눌과 고려 후기 조선초 불교계 고승」, 『보조사상』 19, 2003.; 앞의 책.)

37) 권희경, 「고려사경의 연구」, 186. 423쪽.; 이기백 편, 『한국상대 고문서자료집성』, 일지사, 1987. 166~167쪽. 이에 의하면 체원은 1338년 大禪師 智然과 함께 『大方光佛華嚴經』 권21을 사경하였다.

28) 최자, 「送盤龍如大師序」, 『拙藁千百』 卷1, 雞林後學崔氏彥父文.; 『동문선』 권84, 序.

29) 채상식, 앞의 책, 199쪽.

30) 이규보, 「水嶽寺에서 『華嚴經』을 강론하기 위해 結社하는데 대한 문」, 『동국이상국후집』 권12, 雜著.

3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최영호, 「13세기 중엽 지리산의 안양결사-경상남도 고성군 옥천사 소장 「지리산 안양사 반자」를 중심으로」, 『고고역사학지』 17·18합집, 동아대 박물관, 2002.

32) 李集, 「送砧上人歸金生寺」, 『通村雜詠』 五言四韻律.; 金九容, 「送砧上人歸金生寺」, 『惕若齋先生學吟集』 卷下, 通善郎晉陽大都護府判官兼勸農兵馬團練判官男明理編 詩.; 권근, 「送砧上人歸金生寺」, 『陽村集』 卷4, 詩.

… 甲辰年(공민왕 13년) 가을 우리 스님께서 배를 타고 중국 杭州에 이르렀다. 내가 스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跣步도 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스님께서 休休菴에 이르렀다. 그 날 밤 蒙山의 영정을 모신 眞堂 곧 影閣에 放光함이 있었다. (결락)

人. 衣鉢心異之. 스님을 모시고 方丈室 앞에 다다르니 문에 자물쇠가 매우 견고하게 잠겨져 있었다. 三轉語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스님께서 그 글을 읽고 설명하니 자물쇠에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문이 열렸다. 이를 본 대중은 모두 肅然하였다. 室中에 薰가 있는데, 師 (결락)

그 속에 柱棒과 拂子が 있었다. 그것을 들어 나에게 주려고 하니 이를 본 대중들은 더욱 탄복하였다. 또 漆을 한 자그마한 罍가 있었는데, 이는 잠겨져 있지 않고 다만 上面에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여는 자는 하늘이 반드시 벌을 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浙省 丞相 張大尉의 弟 (결락)

“그 속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하였으므로 스님이 이르기를 “문서입니다”라 하였다. 또 물기를 “지금 그것을 열어 볼 수 있었습니까” 하므로 스님이 이르기를 “열어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곧 열어보니 과연 2秩의 문서가 있었다. 그 중 (결락)

하나에는 群盜가 三寶를 파괴하여 마침내 절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이를 본 丞相이 怒 (결락) “해외에서 온 사람을 죽인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나는 우리 佛法을 부지런히 배울 뿐이라” 하고, 받았던 蒙山의 衣物을 그냥 두고 떠나갔다.(이색, <彰聖社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銘>, 『한국금석전문』 중세 하.;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그는 抗州 休休庵에 봉안된 임제종의 蒙山德異의 영당에 참배하였다. 이처럼 화엄종승인 천희가 몽산의 선풍을 수용하였다.<sup>38)</sup> 이는 당시 조계종승인 太古普愚, 懶翁慧勤과 無學自超, 達空本寂, 竺元智泉 등이 원나라에 유학을 갔다 온 것과 같

38) 고려 후기 불교계는 몽산덕이의 선풍을 적지 않게 수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민영규, 「몽산덕이와 고려불교」, 『육조단경의 세계』, 민족사, 1989.; 허홍식, 「몽산덕이(1232~1298?)의 행적과 연보」, 『한국학보』 77, 일지사.; 허홍식, 「몽산덕이의 저술과 생애」, 『서지학보』 15, 1995.; 조명제, 「고려 후기 몽산법어의 수용과 간화선의 전개」, 『보조사상』 12, 보조사상연구원 1999.; 인 경, 『몽산덕이와 고려 후기 선사상 연구』, 불일출판사, 2000. 그러나 아쉽게도 몽산과 천희와의 사상적인 연계성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화엄종승과 몽산의 선사상과의 교류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요망된다.

은 맥락에서 이해된다.<sup>39)</sup> 즉 그가 소백산에 있을 때 몽산이 그에게 의법을 부촉해 주는 꿈을 수 차례 꾸었기 때문이라고 비문에 적혀 있지만<sup>40)</sup> 그가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 당시 신앙적 혹은 신비적인 성향에 경도되어 있는 화엄종풍에 새로운 氣風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臣이 들으니 普照國師 知訥은 六祖大鑑禪師를 스승으로 하고, 大慧普覺禪師를 道友로 삼았다고 한다. 스님이 입적한 후 侍者가 매일 夢中에서 친견한다는 사실은 지금도 諸方叢林의 美談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 圓應尊者 千熙는 꿈에 蒙山으로부터 衣法을 전해받았으니 釋氏의 教는 그 진리가 심오하여 가히 심구로서 思議할 수 없는 絕對無上의 教理라는 것을 참으로 믿을 만하다! 臣 稽 감히 碑銘을 지을 수 없지만 銘하여 이른다. …(이색, <彰聖社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銘>, 『한국금석전문』 중세 하.;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앞서 인용한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희는 공민왕 13년에 배를 타고 항주에 도착하여 곧 바로 휴휴암에 모셔져 있는 蒙山의 影堂에 참배했다. 천희가 참배하자 문이 열렸고 影堂안의 상자 속에 있는 柱棒과 拂子를 가지고 江浙省丞相 張大尉의 동생에게 갔다. 천희는 장대위의 동생과 만나 상자속의 3개의 문서를 열어 보았다는 것이다.

장대위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찾아진다.

가을 7월 갑진일에 江浙行省의 승상 張士誠이 理問 實刺不花를 보내 沈香山·水精山·畫木屏·玉帶·鐵杖·彩段 등을 헌납하고 글을 보내기를

“근자에 中原이 평온치 못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다. 나는 이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淮東 지방에서 펼쳐 일어나서 다행히 吳의 지방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서쪽에서는 도적의 무리들이 조량하여 백성들에게 잔인 무도하게 대하고 있으니 그들을 소탕하려는 생각이 가지고 있으나 그 성공 여부를 알

39) 천희의 도반이었을 제생군 우운의 경우는 중국에 유력하였지만 선사를 만나지는 않았다.(정도전, 「透華嚴宗師友雲詩序」, 『삼봉집』 권3, 序.; 황인규, 「여말선초 화엄종승의 동향」, 『불교학연구』 1, 2000.; 앞의 책.)

40) 이색, <彰聖社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銘>, 『한국금석전문』 중세 하.;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수 없다. 국왕께서는 유덕하여 국내의 백성이 생업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익히 듣고 대단히 위로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장사성은 杭州를 본거로 삼고 太尉로 자칭하고 있었다.(『고려사』 권39, 공민왕세가, 공민왕 7년, 7월.)

위의 인용한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대위는 장사성이다. 張士誠(1321~1367)은 1353년 高郵(江蘇省 揚州府 高郵州)를 함락시키고 세력을 떨치니 원나라말 중국대륙은 갑자기 균용할거의 무대가 되었다.<sup>41)</sup>

이들 한족의 반란세력에 대하여 원은 처음부터 토벌군을 파견하여 진압에 힘썼는데 丞相 脫脫이 高郵의 장사성을 토벌하기 위하여 조직한 남정군이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이었고 고려도 助征軍을 보냈다.<sup>42)</sup>

그런 한편 고려는 원나라 남방의 균용과도 교유를 가졌는데 가장 먼저 교빙한 세력은 장사성이다. 장사성은 공민왕 6년 7월 처음으로 來獻을 시작으로 동왕 14년(1365) 4월까지 전후 8년간 13회에 걸쳐 사절을 보내왔다. 장사성이 동왕 14년 4월 마지막으로 내왕할 때 吳王이라 칭할만큼 강성해지도 하였으나 동왕 16년 9월에 郭子興에서 독립한 吳國公 朱元璋(뒤의 명 태조)에게 격퇴되어 멸망하였다.<sup>43)</sup>

천희가 만난 장대위의 동생은 그의 동생 장사신이나 장사덕 둘 가운데 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張士德의 경우 가흥 抗州를 중심으로 한 浙西지방의 평정을 다 했다고<sup>44)</sup> 하므로 군사부문을 담당하였던 것 같고 정치는 동생 張士信에 맡겨 운영하게 하였다.<sup>45)</sup> 그리고 장사성은 선비는 좋아했지만 평강 承天寺의 불상을 파괴하고 銅

觀音을 거두어 동전을 주조하고 절을 궁궐로 삼았던 일이 있었다.<sup>46)</sup>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를 맡은 장사신이 천희를 맞이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천희가 장사성의 동생인 장사신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공민왕 6년 이래 고려와 교빙을 갖게 되면서 가능했다.<sup>47)</sup> 이러한 사실을 『고려사』에 찾아보면 고려는 장사성에게 공민왕 9년 4월과 공민왕 13년 5월 사이에 세 차례 이상 사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8)</sup> 비록 천희가 국가의 공적인 교빙사로 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예컨대 원나라 순제의 원찰이었던 해주의 神光寺에 원나라를 다녀온 나옹혜근과 백운경한이 머물면서 일정한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49)</sup>

장사신과 만봉시울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천희는 장사신을 만나고 1366년 봄 성안사의 만봉시울을 찾아 가서 禪을 물었다.

丙午年(고려 공민왕 15년) 봄 萬峯을 聖安寺로 찾아 갔으나 만봉은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萬峯이 이르기를 “高麗老和尚이 (결락)

入時가 없거늘 어찌 出時가 있겠습니까” 하니 萬峯이 말하기를 “내가 병이 있으나, 누가 친절한 마음으로 나의 병을 看護해 주겠는가” 하였다. 스님께서 주먹으로 그의 등을 안마해 주었다. 그 날 밤三更에 만봉이 袈裟와 禪棒을 전해주면서 이르기를 不聞 (결락)

聖安寺를 떠나 吳江에 이르니 어떤 스님이 그곳에 머물기를 請하였으나 스님은 굳게 사양하고 떠났다. 萬峯會上의 어느 스님이 만봉이三更에 스님에게

46) 『南村輟耕錄』 卷11, 「承天閣」, 175쪽. 위의 논문 4쪽.

47) 공민왕 9년에도 두 차례 교빙을 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월 병진일에 장사성이 사자를 보내 來聘하였다.(『고려사』 권39 공민왕 9년조.)’, 여름 4월 임신일에 金伯瓌과 權仲和를 답례사로 장사성에게 보내었다.(『고려사』 권39 공민왕 9년조.)

48) 이러한 기록들을 『고려사』에서 찾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여름 4월 갑신일에 장사성이 만호 袁世雄을 보내 來聘하였다.(『고려사』 권40, 공민왕세가, 공민왕 13년조.); 5월에 계유일에 대호군 李成林과 전교 부령 李鞠을 답례사로 장사성에게 보내었다.(『고려사』 권40, 공민왕세가, 공민왕 13년조.); 가을 7월 정해일에 吳王 장사성이 周仲瞻을 보내 옥 갓끈, 玉頂子, 彩段 40필을 바쳤다.(『고려사』 권40, 공민왕세가, 공민왕 13년조.); 여름 4월 신묘일에 吳王 장사성이 사절을 파견하여 방물을 바쳤다.(『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공민왕 14년조.)>

49) 神光寺는 원나라 순제가 잡저시 대청도에 유배시 발원하여 중창된 원나라 황실사찰이었다.(竹陽, 「神光寺蹟攷」, 『韓國寺刹全書』 하, 748쪽.; 洞俊, 「黃海道海州郡首陽山神光寺普光殿重修記」, 『韓國寺刹全書』 하, 744쪽.;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북한사찰연구』, 1993, 신광사 편.)

41) 원나라 마지막 황제 順帝는 淫樂遊宴에 빠져 재정을 낭비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니, 이 틈을 타서 漢族의 반란세력이 사방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그 수는 무려 백 여에 달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세력으로는 충목왕 4년(1348) 臺州(浙江省)에서 方國珍이 이 군대를 일으키고 공민왕 즉위년(1351) 永平(河北城 正政府)에서는 韓山童·韓咬兒·劉福通 등의 紅巾賊이 일어나 세력을 키웠으며, 동왕 2년(1353) 濠州(安徽省 鳳陽府 臨淮縣)에서는 郭子興이 일어났다.(『3. 고려말의 정국과 원·명 관계』, 『신편한국사』 20, 1994. 국사편찬위원회, 327~328쪽.)

42) 『고려사』 권38, 공민왕세가, 공민왕 3년, 6월 신묘일조.

43) 『3. 고려말의정국과 원·명 관계』, 『신편한국사』 20, 1994. 국사편찬위원회, 327~328쪽. 329~330쪽. 장사성은 한때 원나라 군사에게 패한 적도 있었으나, 1356년 양쯔강[揚子江] 하류 삼각주지대의 중심지인 장주성[江蘇省] 쑤저우[蘇州]를 함락시키고 ‘吳國’이라 칭하였다. 한때 세력이 장주성에서 저장성[浙江省] 일대에 미쳤으나, 1367년 徐達 등이 이끄는 朱元璋과의 오랜 항쟁 끝에 대패하여 포로가 되자 자살하였다.(전영진, 「朱元璋과 張士誠의 爭霸」, 『중국사연구』 1, 1996.)

44) 전영진, 「朱元璋과 張士誠의 爭霸」, 『중국사연구』 1, 1996. 6쪽.

45) 위의 논문, 15쪽.

전해준 衣·棒을 빼앗고자 이날 밤에 吳江까지는 따라왔으나 僧房에는 미치지 못하고 되돌아갔으니 그 스님의 俗姓은 馬氏였다. 우는 소리를 듣고 (결락)

건너간 것이 분명하다. 오호라! 蒙山이 休休庵에서 放光하여 앞의 일을 現夢으로 보여준 것이고, 萬峯이 三更에 傳法한 것은 後日을 경계한 것이다. 未來의 일을 훤히 내다보시고 妙하게 遺囑하였으니 스승과 제자간의 道는 시간적인 古今과 공간적인 遐邇에 間斷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釋氏之 (결락) (이색, <彰聖社 眞覺國師 圓照塔碑銘>, 『조선금석총람』 상.)

萬峰時蔚(1303~1381)은 원나라 말 명나라 초의 임제종 楊岐派의 破菴祖先(1136~1211)派 승려이다.<sup>50)</sup> 천희가 만봉시울을 참배한 곳은 성안사인데, 성은사의 異名이었던 것 같다. 이 성은사는 만봉시울이 말년에 머물면서 대가람으로 확장한 사찰이다.

萬峰時蔚은 ‘高峰原妙→中峰明本→千巖元長’을 잇는 중국 임제종 정맥을 잇고 있는 고승이다. 당시 여말삼사를 비롯한 고려의 선승들이 及庵宗信의 문도인 石屋 清瑋과 平山處林에게 법을 사사하였고 태고보우만이 고봉원묘의 선풍을 지녔던 사실과 대비된다. 그것도 선종승이 아닌 화엄종승이 고려의 선승들과는 달리 중국 임제종 정맥을 잇고 있는 만봉시울과 선을 나누는 장면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만큼 천희는 당시 고려의 불교계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천희는 오왕의 멸망 직전인 1366년에 귀국하여 공민왕의 환영을 받았으나 지방을 유력하였다.

玄陵이 스님의 入中遊學을 위로하는 한편 더욱 尊崇하였고 모든 사람들도 서로 앞을 다투어 먼저 친견하려 하였다. 스님은 雉岳山에 잠시 隱居하다가 東

50) 만봉시울의 속성은 金씨요, 浙江省 溫州 樂清 출신이다. 7살에 출가하여 『법화경』을 배우고 16살에 스님이 되었으며, 19살에 비구계를 받았다. 호포보성, 天台山의 無見先睹 문하에서 공부한 다음, 伏龍山의 千巖元長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 溪州(廣西省) 崇山에 주석하다가 蘇州(江蘇省) 鄧尉山에 聖恩寺를 개창하고, 30년 동안 종풍을 펼쳤다. 『五燈會元續略』 卷3 「蘇州鄧尉山萬峯時蔚禪師」.; 『五燈嚴統』 卷23 「蘇州鄧尉山萬峯時蔚禪師」.; 『五燈全書』 卷58 「蘇州鄧尉山萬峯時蔚禪師」.; (明) 道濟 撰; 如淵 等編. 『萬峰和尚語錄』 (1卷)/ (明) 時蔚 說; 『大傳乾禪師語錄』 (5卷)(明版) 嘉興大藏經; 40); (清) 乾說; 超宗 等錄,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76[1987].)

해를 순방하고, 양양 洛山寺에서 관세음보살님이 放光하는 祥瑞를 감득하였다.

丁未年(공민왕 16) 1월에 다시 치악산으로 돌아왔다. 공민왕이 세 번이나 使臣을 보내어 스님을 맞이하고자 하였으나 스님은 비로소 5월에야 이르렀으므로 國師로 추대하였다.(이색, <彰聖社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銘>, 『한국금석전문』 중세 하.;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위의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천희는 귀국하여 공민왕의 존숭을 받았고 사람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천희는 치악산과 동해안을 거쳐 양양 낙산사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였다.

그리하여 천희는 국사로 책봉되기에 이르는데 일반 선사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공민왕이 직접 천희를 찾아가 국사 책봉을 제의하였다. 천희가 머물렀던 佛福藏은 경성, 즉 개성의 진고개(泥岾)에 있는 유희장이었던 것 같다.<sup>51)</sup>

가을 7월 기유일에 왕이 佛福藏까지 걸어가서 승려 千禧를 방문하였다. 『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공민왕 15년, 7월조.)

승려 禪顯, 千禧는 모두 신돈과 친근한 자이다. 천희는 제 말로 중국 江浙 지방으로 가서 達磨法을 전습해 왔다고 했는데 왕이 그를 佛腹藏으로 친히 예방하고 이어 國師로 봉했다. 『고려사』 권132, 신돈열전.)

천희는 신돈과 가까운 왕사 선현과 더불어 국사직에 책봉되었다. 그는 귀국 직후 공민왕의 환대를 받고 國師로 책봉될 수 있었다.<sup>52)</sup> 고려 명종 때 玄悟國師 宗璘(1127~1179)이 국사로 추증된 이래 고려 후기 화엄종승으로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國師大華嚴宗師禪教總攝佛心印大智無礙性相圓通福□□□□□□□□圓應尊者’ 라는 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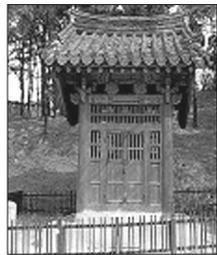
천희는 국사로서 禪教都總攝이라는 승직을 받은 것을 보아 僧錄司의 최고 지위

51) ‘京城 진 고개(泥岾)의 佛腹藏리에 눈이 먼 아이가 있었다.’ 『고려사』 권29, 충열왕세가, 충열왕 8년(1282), 4월조.). ‘佛福藏에서 활을 쏘고 못아이들의 풀던지기놀이(擲草戲)를 구경하였다.’ 『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공민왕 14년, 6월, 신묘일조.)

52) 『고려사』 권132, 신돈열전; 『東國通鑑』 卷48, 高麗紀, 恭愍王 16年 8月條.

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1370년(공민왕 19) 광명사에서 개최된 功夫選에 화엄종을 대표하여 참여하였다.<sup>53)</sup> 신돈이 실각한 후로는 지방을 유력하다가 부석사에 주석하면서 화엄종풍을 선양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372년(공민왕 21) 浮石寺로 가서 무량수전과 조사전 등 전당을 크게 중창하고 1382년(우왕 8) 수원 창성사에서 입적하였다.

진각국사의 진각국사탑비는 고려 우왕 12년(1386)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 창성사지 경내였던 곳에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 있는 공원으로 이전 碑閣을 건축하여 보존되고 있다.



진각국사비각



비



비(전면)

## 2. 수원의 고승 진각국사 천희와 고려말 불교계

천희의 불교계활동은 원나라에서 귀국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중요사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367년(공민왕 16) 5월 국사로 책봉됨.

1370년(공민왕 19) 공부선 실시시 증명법사로 참여함.

1372년(공민왕 21) 영주 부석사 주석후 1376·1377년 전각을 중창함.

1382년(우왕 8) 수원 彰聖社에서 활동하다가 입적함.

이를 내용별로 보게되면 불교계 중앙무대에서 한국불교사상 마지막 화엄종계 국

53)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사로 책봉되고 나옹이 주맹한 광명사의 공부선에 증명법사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영주 부석사를 중창하여 화엄종의 총본산으로 만들려고 하였고 그후 수원 창성사에서 활동하다가 입적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화엄종계 마지막 국사책봉

화엄종은 신라 중대 의상이 개조한 이래 고려전기까지 유가종과 더불어 교학을 대표하는 종파였으나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교세가 급격히 쇠락하여 갔다.

이는 무신정권이 들어선 이래로는 화엄종계 국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민왕대 천희의 국사책봉은 고려후기에 처음이자 한국역사상 마지막 화엄종계 국사로 책봉되었다.

천희가 국사로 책봉되게 된 것은 신돈에 의해서였다. 천희는 귀국하여 공민왕의 존숭을 받았고 사람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그리하여 천희는 국사로 책봉되기에 이르는데 일반 선사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공민왕이 직접 천희를 찾아가 국사 책봉을 제의하였다.<sup>54)</sup>

천희와 더불어 함께 왕사로 책봉된 선현은 수선사 14세로 추정되는 바이다.<sup>55)</sup> 신돈이 선현을 왕사로 책봉하여 당시 불교계의 최대세력인 수선사계를 아우르면서 정작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화엄세계의 구축을 위해 화엄종승 천희를 국사로 책봉하였다. 이렇듯 신돈에 의한 선현의 발탁은 당시의 불교계를 주도하였던 수선사계 세력을 아우르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화엄종풍의 구축과 전개는 천희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천희는 화엄종을 대표하여 국가적 불교행사라고 할 공부선에 참여해서 주관하였고 후에 부석사에 가서 화엄종의 본산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 2) 공부선 주관

54) 『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공민왕 15년, 7월조.

5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황인규, 「목우자 지눌과 고려 후기·조선초 수선사 고승들」, 『보조사상』 19, 2003.)

당시 보우의 교단시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埋骨僧이었던 화엄종승 辛毗(?~1371)이 1365년부터 1371년까지 집권하여 국정은 물론 불교계를 장악하고 화엄종승 천희(1307~1382)와 선현이 국사·왕사로 책봉되었다.<sup>56)</sup> 보우는 1371년 신돈이 축출된 이후 국사로 책봉되었을 때 나옹혜근이 왕사로 책봉되었다. 혜근이 입적할 무렵까지 공부선을 개최하고 그의 상수제자인 무학자초 등과 더불어 회암사를 중창하여 흥법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혜근이 주관한 공부선은 천태종의 신조와 화엄종의 천희가 참여하는 불교계의 거국적인 통합의 노력이었고 회암사 중창은 고려의 새로운 興法의 메카를 만들어 가려는 시도였다.<sup>57)</sup> 그리고 후대에 석가의 후신이 다시 와서 말세 외도를 파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로 중요한 불사였다.<sup>58)</sup>

庚戌年 9월 玄陵이 王師 懶翁을 청하여 개성 廣明寺에 禪教兩宗의 諸山衲子를 모아 功夫選 節目을 고시할 때 스님을 證明法師로 모셨다. 이 選科法會가 끝난 후 敬天寺에 주석하였다.(이색, 〈彰聖社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銘〉, 『한국금석전문』 중세 하.;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4, 가산 불교문화연구원, 1997.)

당시 공부선은 조계종의 혜근이 주맹을, 백운이 시관을 맡았는데, 천희는 화엄종승으로 불교계를 대표하였던 것이다.<sup>59)</sup>

17일에 임금은 가까운 신하 安益祥을 보내 길을 도우라 하고 스님께 회암사에 머물기를 청하였다. 9월에는 功夫選을 마련하고 兩宗五敎의 제방 승려를 크게 모아 그들의 공부를 시험했는데, 그때 스님에게 主盟이 되기를 청하였다.

5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황인규, 「편조신돈의 불교계 행적과 활동」, 『만해학보』 6, 2003.;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혜안, 2005.)

5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황인규, 「무학자초의 흥법활동과 회암사」, 『삼대화상연구논문집』 2, 불경서당 훈문회, 1999.)

58) 庚申之間 有一比丘作大沙門 作大佛事 破諸外道 號曰普濟懶翁 其會曰功夫選 迦葉當知我身是也(『熾盛光明經』, 『조원통록찰요』)

59) 覺宏, 「懶翁和尚行狀」, 『懶翁和尚語錄』, 韓佛全4.

16일에 選席을 열었다. 임금님은 여러 君과 兩府의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나와 보셨다. 그리고 선사 강사 등 여러 큰 스님네와 강호의 승려들이 모두 모였다. 그때 雪山國師도 그 모임에 왔다. 스님은 국사와 인사하고 처음으로 방장실에 들어가 좌복을 들고 “화상!” 하였다. 국사가 무어라 하려는데 스님은 좌복으로 그 까까머리를 때리고는 이내 나와버렸다.(『나옹화상행장』; 『나옹화상어록』.)

千熙는 천태종승 神照·선종 가지산문 백운경한과 더불어 참여했으며 僧錄司의 左街大師 慧深도 참여했다. 여기에서 혜근에게 수모를 당한 듯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듯이,<sup>60)</sup> 그는 불교계의 중앙무대에 서기까지는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것 같다.

따라서 공부선 개최후 천희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부석사에서 전각을 중창하는 등 지방에서 화엄종풍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3) 부석사 중창과 화엄종의 교세진작

천희는 공부선 참여후 1372년 부석사에 와서 1376년부터 1년여 동안 전각을 중건하였다. 이는 1916년 전각의 전면 해체 수리시 발견된 기문들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즉 경내의 「鳳凰山浮石寺改椽記」나 「無量壽殿墨書銘」에 의하면 천희는 1376년(우왕 2)에 당우를 보수하였다.<sup>61)</sup> 이는 목서명에 「洪武九年戊辰圓融國師 改造改金」이라 한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sup>62)</sup>

또한 이 때 「祖師堂桁記」(祝華殿에 보관)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발견되었다.<sup>63)</sup>

60) 이는 선사의 선문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책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선승이 화엄종 출신의 국사에 대한 경책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신비성에 접합되어 있는 신돈에 가까이 하였고 때문이 아닐까 한다.(황인규, 「편조신돈의 불교계 행적과 활동」, 『만해학보』 6, 2003.;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혜안, 2005.)

6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金東賢, 「浮石寺無量壽殿과 祖師堂」, 『佛敎美術』 3, 1977. 권희경, 『고려사경의 연구』, 미진사, 1986.)

62) 기문에서 원용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圓應國師 천희의 오기이다.(한국불교연구원, 『부석사』(한국불교연구원, 1976, 55쪽.)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부석사의 조사당의 벽화를 발원한 이가 圓應國師 志勤이라고 하였는데(권희경, 『고려사경연구』, p.332), 바로 설산국사 千熙이다.

宣光七年 丁巳 五月初二日 立柱 大施主寺住持國師圓應尊者雪山和尚 同願  
施主眞信翁主

1377년(우왕 3)에 조성된 부석사의 벽화의 간기에 의하면 후의 공양왕의 順妃 盧氏의 둘째 딸인 眞信翁主가 시주하여 절 내에 벽화를 조성하는 등등 왕실녀가 주목할 정도였다. 앞서 조사당 중건시 공민왕이 흥건적의 침략으로 안동으로 몽진을 갔을 때 현액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천희는 왕의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비문에 천희를 부석국사라고 하였던 것이다.

壬子年(공민왕 21, 1372)부터 영주 浮石寺에 住錫하면서 殿堂을 일신 중수하여 완전히 복구하였으니 대개 이는 스님이 入寂하기 전에 華嚴宗 총본산인 부석사를 완전히 복구하겠다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이색, 『彰聖社 眞覺國師 圓照塔碑銘』, 『조선금석총람』 상.;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 고승비문』 고려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浮石寺의 중건, 특히 祖師堂의 중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절의 창건자인 義相의 眞影을 봉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비조인 의상을 부각시키면서 화엄종의 교세를 진작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sup>64)</sup> 그래서 천희가 부석국사로 칭하게 된 것은 그의 불교계 위상이 의상의 그것

6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金東賢, 「浮石寺無量壽殿과 祖師堂」, 『佛教美術』 3, 1977, 권희경, 『고려사경의 연구』, 미진사, 1986, 332쪽.). 浮石寺無量壽殿은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부석사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전이다.(국보 제18호) 부석사의 主佛殿으로 無量壽佛인 阿彌陀如來를 本尊으로 봉안하였다.

현존하는 건물은 1916년 해체 수리 때 발견된 墨書銘에 1376년(우왕 2)에 재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사당이 1377년에 재건된 것과 비교하여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건물양식으로 보아 조사당보다 100년 내지 150년은 더 앞서는 건물로 추정하여 왔으며, 앞서 말한 목서명은 그 뒤의 보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김동현, 『문화재대관-국보』1-(한국문화재보호협회, 대학당, 1986).

64) 의상은 부석사를 창건한 후 이 절에서 40일 동안 법회를 열고 화엄을 설법함으로써 이 땅에 화엄종을 정식으로 펼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상이 浮石尊者라고 불리우고 그의 화엄종을 浮石宗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바람.(김상현, 「신라 중대 전제왕권과 화엄종」, 『동방학지』 4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1984.; 김상현, 「신라 화엄학승의 계보와 그 활동」, 『신라 문화』 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김복순, 「신라 중대 화엄종과 왕권」, 『한국사연구』 63, 한국사연구회, 1988.)

만큼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



무량수전 현액



부석사 조사당

#### 4) 수원 창성사 활동 및 입적

앞서 천희는 부석사를 중창하여 화엄종의 총본산으로 삼았던 것인데 그후 수원 창성사<sup>65)</sup>에 와서 활동하였다. 아마도 이는 부석사의 교세를 빌어서 근기지방인 수원 창성사를 興法의 本山으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sup>66)</sup>

창성사는 광교산 89개의 부속암자를 지닌 대사찰이었고<sup>67)</sup> 조선 태종 6년 불교 교단 대탄압시 국가공인 사찰<sup>68)</sup>로서 지정될 만큼 수원을 대표하는 대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65) 창성사는 현재 장안구 상광교동 산 41번지(향토유적 4호)에 있는 사지에 불과하다. 사지는 16,50m2(약 500평)의 규모로 상하층 2기단이 남아 있다. 화강암과 잡석으로 이루어진 기단에 상층기단 상부 서북쪽 대웅전 터에는 길이 12m가량의 장대석이 있으며, 그 보다 작은 장대석 10개, 주초석 10개 정도, 우물 2개와 와편과 자기편이 널려 있는 폐사 터에 불과하다.(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권중, 105~106쪽.)

66) 고려시대에만 해도 광교산은 창성사와 서봉사를 비롯한 89개의 사찰이 깃들 만큼 수원의 진산으로, 영산으로 사랑받던 명산이다. 창성사가 언제 창건되고 어떤 이유로 폐사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목은이색이 쓴 비문(1386년), 『둔촌유고』(1410년), 『태종실록』(14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등에서 그 이름을 찾아 볼 수 있고, 이후 『수원부 읍지』(1793년)와 『범우고』(1799년)에서 다시 창성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창성사에 관련된 기록은 문집류에 다음의 것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영세하기 그지없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集, 「訪葵軒於彰聖寺不遇權鑄」, 『遁村雜錄』 七言絕句. ‘出城四日到清溪 不是泥塗惜馬蹄 並轡笑談殊未足 更尋彰聖路多迷/ 宿雨初晴日在西 獨行尋寺路高低 僧總不作同年會 自酌村醪醉似泥/ 憶昔少年爲客日 當時此院正新修 堂前鴨脚依然在 自愧書生白了頭.’

67) 『수원군 읍지』 고적, 光教山, 鍾樓.; 『수원시사』 권하, 571쪽.

68)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2월, 2일 신사조.

그런데 수원 무봉산에는 만의사가 소재하고 있다. 이 만의사는 조인규가문의 승려들이 『법화영험전』을 간행하면서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성계의 신왕조의 창업에 동참하였던 천태종의 神照가 이 사찰에 주석하면서 왕조의 창업을 축하하면서 대법회를 개최하였던 바 있다.<sup>69)</sup> 조인규 가문의 또 다른 원당인 과천의 청계사에는 무학자초와 그의 제자 祖禪이 주지로 있었다.<sup>70)</sup> 또한 과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흥에서도 천태종의 운목무기가 참신한 불교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sup>71)</sup> 그리고 나옹혜근과 그의 제자 무학자초가 당시 동방제일 도량인 송광사의 사세를 빌어 양주 회암사를 중창하여 흥법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1376년 혜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자초는 안변 석왕사로 갔으며, 무학자초는 여기서 이성계의 신왕조 창업을 처음으로 중용하였다.<sup>72)</sup>

천희는 나옹혜근의 등장과 신돈의 실각에 즈음하여 낙향하여 대구 부인사를 거쳐 부석사의 교세를 몰아 근기지방인 수원에 와서 彰聖社<sup>73)</sup>에 와서 興法의 메카로 만들려다가 입적하였다고 생각된다.<sup>74)</sup>

洪武 15년 여름 6월 16일 華嚴宗 浮石國師께서 彰聖社에서 입적하였다. (결락)  
스님의 偉業을 영원히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判宗 (결락) 에게 奏達하였다.  
부고를 받은 禰王께서 시호를 眞覺國師라 하고 塔號를 大覺圓照塔이라 내

69) 권근,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華會衆日記」, 『陽村集』 卷12, 記類; 황인규, 「趙仁規家門과 水原 萬義寺」, 『水原文化史研究』 2, 1998.; 앞의 책.  
70) 이승인, 「神勒寺大藏閣記碑」, 『도은집』 권4, 記.; 황인규, 『무학대사연구 - 여말선초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 혜안, 1999.  
71) 천태종의 백련사계통의 고승인 無寄雲默이 당시 불교계와 사회를 말법관이라는 입장에서 인식하여 시흥산 탁일암에서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고 彌陀를 염하여 晝를 晝寫하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채상식, 「無寄와 『석가여래행적승』」, 앞의 책, 참조.)  
7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 (황인규, 『무학대사연구 - 여말선초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 혜안, 1999.; 황인규, 「고려말 이성계의 불교계 세력기반」, 『한국불교학』 28, 2001.; 앞의 책.)  
73)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고하기 바람. (리제재, 「창성사와 진각국사에 대한 고찰」, 『화성문화』 12, 1991.)  
74) 이는 지나친 억측인지 모르겠으나 본고에서는 彰聖寺가 결사도량인 彰聖社로 불리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았다. 그리고 창성사는 결사도량인 점을 중시하여 彰聖寺는 彰聖社로 불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彰聖社로 표기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리고는, 臣 李穡에게 命하여 비문을 짓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門人들이 스님의 行狀을 적어 보내 왔으나, 매우 불충분하여 감히 下筆하지 못하고 미루어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敬南이라는 스님이 있어 (결락) (이색, <彰聖社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銘>, 『한국금석전문』 중세 하.;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彰聖社 光教山에 있다. 李穡이 지은 고려 중 千熙의 비명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京畿, 水原都護府.)

이상과 같이 수원, 시흥 등 근기지방을 중심으로 불교계 일각에서 전개된 興法운동은 화엄종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되며, 천희도 근기지방인 수원 창성사를 화엄종의 메카로 삼으려다가 입적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75)</sup>



창성사 터(1)



창성사 터(2)

### 맺음말

이상으로 眞覺國師 千熙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상을 고려말이라는 시간과 수원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조명하여 보았는데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희에 대한 기록이 비문 외에는 거의 찾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애 및 불교계 활

75) 진각국사의 彰聖社 眞覺國師 圓照塔碑銘(보물 제14호)이 1965년 6월 9일 광교산 창성사에서 팔달구 매향동으로 옮겨 세워져 있다. 이처럼 천희가 마지막으로 활동하였던 창성사에 그의 塔碑가 세워졌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무덤이 고향인 흥해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동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희의 출생과 입적과 관련된 사실이다.

우선 그의 고향은 경상도 포항인 興海라고 알려져 있으나 정작 그가 興海 裴氏라는 사실이 학술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본고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천희의 고향인 포항에서 향토사연구가들에 의해 제기된 地理誌와 유적에 대해 검토를 하여 보았다.

조선후기이래의 제 지리지나 邑誌類에 천희가 흥해 배씨이고 城隍祠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이 찾아지며, 실제 그와 관련된 사당과 무덤 등의 유적이거나 야기가 전하고 있다고 한다.

천희의 비문에 천희는 수원 창성사에서 입적하여 왕명으로 부도탑이 건립된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승려임에도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한 무덤이 있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고학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포항일대에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나 흥해 배씨 문중에서는 천희가 고려말 興海君으로 봉군된 裴詮(詮)의 형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이를 처음으로 학술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배전의 아들 배상지 등이 머물렀던 흥해 배씨의 안동종가의 1390년에 작성된 戶口單子에 의하면 배전의 아버지의 이름은 裴榮至이고 古名이 裴仁儉이었다. 그리고 벼슬은 奉翊大夫知密直司致仕尹行典理判書上護軍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고려사』 배전 열전에 의하면 배전의 어머니는 宮婢 崔氏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바로 배전의 형인 천희의 부모이다.

천희는 고려 후기 이래 화엄종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책봉된 화엄종계 국사였다. 천희는 원나라 간섭기 후반 結社道場인 盤龍社에 출가하여 40여년간 전국의 화엄종계 사찰을 유력한 다음 원나라에 2년간 다녀 왔다. 천희가 원나라에서 유력하면서 만난 고승은 화엄종승이 아니라 선승이었다. 이미 입적한 蒙山德異의 影堂에 가서 참배하고 千巖元長의 제자 萬蜂時蔚과 禪을 나누었다. 이는 고려 불교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이지만 당시 불교계에서 제기되고 있던 禪敎문제와 아울러 불교계의 혁신을 위한 행위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고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이지만 천희가 만난 張大尉의 동생은 漢族 반란군인 張士誠의 동생 張士信이었고 그와 만난 천희는 당시 원명교체기에 있어서 외교문화적 일익을 담당했다고 평가된다.

천희는 귀국 후 공민왕의 환영을 받고 천희와 교유했던 辛旽에 의해 국사로 책봉되어 불교계를 대표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개혁을 하다가 신돈이 축출된 후 懶翁惠勤이 왕사로 책봉되어 주관한 국가적 불교행사라고 할 공부선에 참여했다가 화엄종의 가장 중요한 사찰인 영주 浮石寺에서 전각을 중창하는 등 지방에서 화엄종의 교세를 진작시키고자 하여 부석국사라고 불렸다.

그러나 천희는 당시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그랬던 것 처럼 근기지방인 水原 彰聖社로 와서 興法の 메카로 삼으려다가 입적함으로써 한국 불교역사상 화엄종 출신의 국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천희는 고려말 수원에서 입적한 고려 후기 마지막 華嚴宗의 國師로서 그 위상이 살아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 Abstract

# The Buddhist Movement Reflected in Activities of the Master ChunHee(千熙) at the Later Koryo Dynasty

Hwang In-Gyu (Dongguk Univ.)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ChunHee(千熙), a high-ranked Buddhist priest in the later Koryo dynasty.

Because only a few manuscripts and documents related with him have been left, I have a very difficulty in finding a true history at that time. Thus, the limits of these documents were so distinctive that the understanding about true history of him was very difficult. Fortunately, records concerning him can be found on the epitaph, which supports his existence. It tried to illuminate his life and Buddhism at private phase above all.

As previously stated, since records about him can only be traced in the epitaph, his life, including his birth and death, and total activities in Buddhism, do not become well known. His hometown is known as Pohang(浦項). It was a Heung Hae Bae(興海 裴氏)'s family, the presence of which is not to do investigated historically. He was Baejeon(裴詮)' brother, his father was Baeyoungji(裴榮至) and his mother was Ms. Choi(崔氏).

He was last National Preceptor(國師) in Hwaum Buddhist sect(華嚴宗界). He was entered into the Buddhist priesthood at Banryong temple(盤龍社) in later Koryo dynasty. After that he was undergone discipline in Hwaum Buddhist sect for entire country during almost forty years. He studied abroad at Y'an Dynasty (元王朝) for two years in the Y'an Dynasty rule(元

干涉期).

He would have gone to worship Mongsan(蒙山)'s Shrine(影堂) and he learned Manbong(萬峰) who was high-ranked priest in Seonjong sect(禪宗界). It is a rare case which cannot easily be found at Buddhist society in Koryo Dynasty. It was interpreted that he wanted the renovation of Buddhism.

And he had a meeting with Jangsashin(張士信) who was Jangsasung(張士誠)'s brother called Ohwang(吳王) of a regional a kingdom fo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yo dynasty and the Y'an Dynasty.

At that time, as the King's tutor Sindon(辛旽) held both the political power and buddhist power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Kongmin(恭愍王), fortunately the Hwaom priest was recognized as a prominent Buddhist in the Capital, Gyegyung(開京).

He emphasized that the miserable general public should practice both prayers to Buddha and acts of merit. He recommended Chunhee(千熙) who belonged to Hwaum Buddhist sect(華嚴宗) as National Preceptor(國師) and Sunhyun(禪顯) as Royal Preceptor(王師) respectively. He accepted Reverence Buddhist when he went to China(the Y'an Dynasty). In the same manner, Chunhee(千熙) had to purify the religious buddhism.

After he was appointed to Hwaum Buddhist sect(華嚴宗) as National Preceptor(國師), he went to reconstruct Booseok temple(浮石寺), who is called Booseokjonja(浮石尊者). He decided to rebuild Changseong temple(彰聖社) at Soowon(水原) in the Capital, Gyegyung(開京) for the purpose of reforming their buddhist doctrines which is needed for new times.

Key-words : 裴詮(Baejeon), 盤龍社(Banryong temple), 蒙山(Mongsan), 萬峰(Manbong), 張士信(Jangsashin), 浮石尊者(Booseokjonja), 彰聖社(Changseong temple)

## 화성건설의 노동력 동원과 노동조건

이달호 (수원시청 학예연구사)

---

머리말	2. 노동조건
1. 노동력 동원	1) 노동조건 연도별 변화
1) 관리분야	2) 노임지불 방식
2) 기술자[工匠]	3) 작업조건과 특별혜택
3) 품팔이[募軍]	맺음말

---

### 머 리 말

화성(華城)에 대한 연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선구적 업적이 있었다.<sup>1)</sup> 18세기 우리 문화의 집약이라고 하는 화성에 대한 연구는 1997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후 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으며 심화·발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간주되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와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

1) 차용걸, 「화성의 축성사적 위치」, 『화성성역의궤』, 수원시, 1977.

차용걸, 「화성의 성격과 특징」, 『화성성역의궤』, 수원시, 1978.

차용걸, 「임진왜란 이후의 성제변화와 수원성」, 『화성성역의궤』, 수원시, 1979.

최홍규, 「朝鮮後期 華城築造와 鄉村社會의 諸樣相」, 『國史館論叢』, 第30輯, 國史編纂委會

유봉학, 「정조대 정국 동향과 화성성역의 추이」, 『규장각』, 19호, 1996.

유봉학, 「화성성역의 역사적 의의와 화성의 문화유산」, 『향토사 연구』, 1996.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수원성』, 발언 제9집, 1996.

시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익숙한 상식들<sup>2)</sup>과 화성축성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 즉 정조시대에 대한 ‘맹목적 찬양’이 과연 주도면밀한 연구의 결과물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역사적 사실보다 더 ‘아름답게’ 또는 ‘과도하게’ 평가한 바탕에는 과거자료에 대해서 총망라한 결과물이라기보다 일면적이며 단선적인 분석이 있었으며, 또한 ‘정조의 언어’로 당시 역사를 해석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 때문에 기존 선행 연구에 더하여 정조의 개혁의 실체는 조선시대와 정조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큰 줄기 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보다 새로운 연구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식민사관에 의한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문제와 아울러 ‘조선 최고의 문예부흥기’라거나 ‘순환론적’ 역사관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화성성역의궤』 권4의 개설·내관·감결·품목·사목·식례·공장, 권5의 재용(財用) 상(上)의 조비(措備), 권6의 재용 하(下)의 실입(實入) 2·3의 내용을 도표화하여 이를 통해 화성성역에 동원된 관료, 기술자와 품팔이들이 어떻게 편제 되었으며 그들의 노동조건은 우리가 현재 인식하는 사회적 기준 즉 상식과 부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자[工匠]와 품팔이[募軍]를 분리해 보고 노동조건에서도 노동력 동원의 방식과 노임 지불 방식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1. 노동력 동원

### 1) 관리 분야

정조는 1793년 12월 6일에 영의정을 역임한 채제공(蔡濟恭)을 총리대신으로,<sup>3)</sup>

훈련대장을 역임한 조심태(趙心泰)를 감동당상으로 임명하면서<sup>4)</sup> 화성건설을 본격화하였다. 이어 12월 8일에 화성성역소를 설치하고 낭관(郎官)의 우두머리인 도청에 이유경(李儒敬)<sup>5)</sup>을 임명하였다. 그 아래에 작업관리 및 현장감독 분야와 사무관리 및 지원부서로 나누었다. 먼저 작업관리 및 현장감독 분야는 별감동 10명, 감동 12명, 별간역 2명, 간역 4명, 경패장 40명, 부패장 120명 등이 편제되었다. 사무관리 및 지원 부서에는 책응도청 1명, 경감관 7명, 부감관 5명 등이 배치되었다.<sup>6)</sup> 그 하부조직에는 문서기록과 수발을 담당하는 경서리 5명, 부서리 50명, 글씨를 쓰는 부서사 3명, 창고를 지키는 고직 1명, 심부름 하는 경사령 4명, 기로 신호하는 부기수 54명, 문서를 처리하는 경문서직 2명, 부문서직 2명, 부사환군 4명, 경포졸 5명, 부포졸 18명 등을 편제하고 있다.

이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관리분야 편제

직책		성명	기간		
총리대신(總理大臣)		채제공	1793. 12.06 -		
감동당상(監董堂上)		조심태(수원부 유수)	1793. 12.06 -		
도청(都廳)		이유경	1793. 12.08 -		
작업관리·감독			사무관리·지원		
직책	성명	비고	직책	성명	비고
별감동(別監董)	전 부사 양훈 등 10명	경기 중군 김후 실사 886일	책응도청	수원부 판관 김노성 →정동협→홍원섭	홍원섭은 1795년 윤2월 2일부터
감동(監董)	전 목사 이백연 등 12명	참봉 황정언 530일 실사	경감관	전 동지 김명우 등 7명	김명우 930일 실사
별간역(別看役)	전 현감 정우태 등 2명	한량 김계중 795일 실사	부감관	전 별장 이원영 등 5명	가의 이위 918일 실사

4) 조심태는 1789년 7월 11일 금성위 박명원의 상소로 사도세자 영우원 천장(遷葬)이 결정되자 수원부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1791년 1월까지 수원의 신도시 진흥정책을 수행하였다.

5) 이유경(李儒敬)은 이미 1791년 1월 종2품 금위(禁衛) 중군으로 한강 주교를 건설한 경험이 있었다.

6) 『의궤』에는 조직된 관료와 상·하 관리직 그리고 기술자들의 동원된 숫자 명칭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는 봉건적 신분 질서가 의연히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기술 및 현장 감독 경·부(京·府) 패장과 관리 및 지원 부서의 부감관까지는 원(員)으로, 경·부서리는 인(人)으로, 그 이하 기술자 및 집꾼, 헤드레꾼은 명(名)으로 호칭하고 있다.

2) ‘축성시 임금의 성과급제 채택’, ‘수원 천도설’, ‘화성 축성시 1795년 6개월 공사 정지설’ 등

3) 채제공은 1788년 2월 12일 우의정에 임명되었고 이후 1789년 9월 27일 좌의정에 승진되면서 사도세자의 친봉 총책임자인 총호사에 임명되었다. 정조는 1793년 1월 12일 수원부를 수원유수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좌의정을 역임한 채제공을 수원유수로 임명하였다. 채제공은 이때부터 화성 건설을 치밀하게 조사 준비하고 5월 25일 영의정에 임명되면서 화성 축성 방략에 대해 정조에게 보고하였다.

간역(看役)	전 오위장 이종범 등 4명		경서리	임치우 등 5명	
경패장 (京牌將)	가선 이도문 등 40명	박충수 889일	부서리	이완수 등 50명	
부패장 (府牌將)	가의 박진항 등 122명		부서사	박인수 등 3명	
			경고직	조원진 1명	
			경사령	김봉문 등 4명	
			부기수	민춘득 등 54명	
			경문서직	손성득 등 2명	
			부문서직	윤한동 등 2명	
			부사환군	진철용 등 4명	
			경포졸	황기린쇠 등 5명	
			부포졸	조만성 등 18명	

〈표 2〉 시설물별 작업 관리 및 현장 감독자

장소 및 시설물	별감동	감동	별간역	간역
부석소	양훈(129), 조운상(313), 황기정(250), 이태협(256)			
사근 외소	신백록(283)			
왕륜 외벽소		홍채주(236)		
동쪽 벽소		황정언(530)		
서봉동 벽소		황정언(530)		
안면도 벌목	김처한(585)			
왕륜 벌목	황기정(250)	홍채주(236)		
남양 벌목	신백록(283)			
구포 제재소	김처한(585), 최명건(323)			
양우소		정호남(453)		김보명(243)
도소 잡물	김후(886)			
개울 파내기	김후(886)			
수렛길 공사	신백록(283)			
구천방 흙채우기	김후(886)	김혁(282)		
잡부석소, 매향동정리, 성안팍식목, 내포사				이종범(382)
하동지		서유건(379)		

북성	양훈(129), 김처한(585), 조운상(313)	이백연(416), 윤예기(476), 서유건(379)		
동북성	김후(886)	윤예기(476), 서유건(379), 조학신(202)		
동성	김처한(585), 최명건(323)	이백연(416), 김낙순(485), 서유건(379), 김혁(282), 정호남(453), 조학신(202)		
동성여장		김낙순(485)		이성연(179)
서성	김처한(585), 조운상(313), 이방운(356)	김혁(282)		서택성(79)
남성	조한진(345), 최명건(323)	이백연(416), 김낙순(485)		
남서성	조운상(313), 이방운(356), 최명건(323)	윤예기(476), 김혁(282)		서택성(79)
벽성	최명건(323)			
장안문	양훈(129)	이백연(416)	정우태(206), 김계중(795)	
팔달문	이방운(356)	이백연(416), 김낙순(485)		
화서문	김처한(585)			
창룡문		김기승(140)		
서砲루	김처한(585)	김혁(282)		
북서포루		서유건(379)		
동포루, 동북노대, 서북공심돈, 봉돈				이성연(179)
남포루	최명건(323)			
북동포루		윤예기(476)		
북포(舖)루	조운상(313)			
동북포루		윤예기(476)		
남수문	조운상(313)	김혁(282)		
북수문	김후(886)			
서장대	조운상(313)		정우태(206)	
동장대	김후(886)		김계중(795)	
서노대	조운상(313)			
동북노대		윤예기(476)		
서암문	조운상(313)			
남암문	조한진(345)			
북암문	최명건(323)			

동암문		윤예기(476)		
동북각루	김후(886)		정우태(206)	
화양루		김낙순(485)		
동북공심돈		윤예기(476)		이성연(179)
서용성	조운상(313)			
북용성		윤예기(476)		
남용성		정호남(453)		
동용성		정호남(453)		
남동적대	조한진(345)			
남서적대		김낙순(485)		
북동적대		이백연(416)		
용도		김낙순(485)		
장락당			김계중(795)	
경통관			김계중(795)	
낙남헌		신섭(105)	정우태(206)	
노래당			김계중(795)	
득중정			김계중(795)	
복내당행각			김계중(795)	
봉수당행각			김계중(795)	
유여택행각			김계중(795)	
낙남헌동쪽행각				서택성(79)
정리대청			김계중(795)	
남북군영		김백빈(60)		
강무당 뒤 행각		김혁(282)		

관리분야 편제표<표 1>를 살펴보면 별감동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에 10명이 배치되었으나 300일 이상 일한 별감동은 김후(886일), 김처한(585일), 이방운(356일), 조한진(345일), 최명건(323일), 조운상(313일)으로 6명이다. 이들은 부석소, 각 지역의 별목, 제재소, 성벽 쌓기 등에 집중 투입되었다. 그러나 별감동들에게 탈이 많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들 모두가 전체 공사기간 중에 원만하게 직무에 충실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sup>7)</sup> 감동의 경우는 총12명으로 300일 이상 감독한 인물은 윤예

7) 별감동 중에 탈이 있는 자들이 많아 북쪽 성 쌓는 일을 삼화부사 별감동 김처한에게 더 하도록 지시한 대목에서 그 탈이 무엇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문제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성성역의궤』 권3, 장계, 갑인년 7월 초8일. 이하 의궤(儀軌))

기(476일), 정호남(453일), 이백연(416일), 서유건(379일) 4명으로 각 시설물별로 하나의 공사가 끝나면 다른 시설물로 이동하여 감독하고 양우소, 성벽 쌓기 등에 집중 투입되었다. 별간역 2명 중 김계중은 795일을 일하면서 주로 화성행궁 증축에 집중 투입되었다.

경패장은 40명이 배치되었는데 박충수가 889일 동안 일하였고, 300일이상 일한 사람은 11명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장 2~3군데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채석장, 돌 다듬기, 돌 운반, 개울파기, 별목, 숲 조달, 석회 조달, 소 조달, 재목 운송은 물론 각 시설물에 배치되어 작업관리 및 감독을 맡았다.

부패장은 총 122명이 동원되었는데 주목되는 인물로는 박진황이 있다. 그는 대장간에서만 939일을 종사했다. 이정은 구포제재소와 잡물소에서 826일, 최호빈은 왕륜와벽소에서 739일, 박종간은 왕륜의 별목 및 와벽소에서 838일, 이경배는 장안문·북성·북서적대·본부 별목·왕륜 별목 및 와벽소에서 791일, 홍명룡은 채석장과 화서문에서 708일, 이광현은 돌 운반·북성·동북성·동북노대·서포루·봉돈 등에서 773일, 유광춘은 단청일에 676일 동안 종사했다. 이들은 돌운반, 석회 제조, 흙 조달, 개울 파내기 등에 집중 투입되어 작업관리 및 감독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부패장은 현장감독으로서 곤장(棍杖)으로 임부를 다스리기도 하고 노동의 성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무관리 및 지원 부서에는 수원부판관이 책응도청을 겸하여 김노성, 정동협, 홍원섭<sup>8)</sup>이 역임하였다. 경감관은 총 7명으로 김명우는 930일, 구석하는 354일, 정영은 552일 동안 일했고, 이해승은 회계소에서 200일, 나동욱은 도소에서 354일, 심이진은 책응소에서 354일, 한명철은 경책응소에서 419일을 일했으며, 부감관은 5명이 종사했는데 이원영은 도소에서 434일, 권치명은 책응소에서 434일, 최윤익은 잡물소에서 434일, 이위는 구포제재소와 잡물소 등지에서 918일, 황치욱은 북동포루와 책응소에서 609일을 일했다. 부서리(府書吏) 50명은 도소(都所), 책응소, 양우소, 채석장, 잡물소, 대장간, 와벽소 및 화성 각 시설물에 분산 배치되었다. 바

8) 순조 1년 『화성성역의궤』의 간인(刊印) 감독과 찬집하는 데 종사하였다. (『순조실록』 권3, 1년 9월 18일 임진)

로 이 50명이 현장의 패장들과 함께 자재의 수발과 기술자 모군들에게 품삯을 주는 등 실무적인 일을 처리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부기수(府旗手) 54명인데, 이들은 각 현장과 현장을 잇발로 각종 연락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포졸 5명과 부포졸 18명은 돌 도난, 기울 세우기 등과 같은 범법자를 체포, 응징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비변사, 호조, 예조, 공조, 병조, 한성부, 균역청, 금위영, 선혜청, 군기시, 장용내영, 장용영, 훈련도감, 좌우포청, 좌우순청,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용호영, 총융청, 내수사, 선공감, 상의원, 와서, 사복시, 제용감 등 중앙부서와 경기관찰사(찰), 충청도 관찰사(철물), 경상도 관찰사, 전라도관찰사(괴목, 잡목), 강원도 관찰사(숙마 재목), 황해도 관찰사(철물 숙마), 평안도 관찰사(석수), 전라좌·우수사(재목), 충청수사(재목), 황해수사(재목), 황해병사(돈), 강화부(석수), 개성부(석수), 광주부(변와소), 영흥부(흑토), 함흥부(벽돌장이), 풍천부(수레), 장연부(수레), 남양부(재목), 풍덕부(구운회), 영월부(철물), 성주목(철엽), 금천군(석회), 양성현(곡물), 평신진(석회), 연일현(숫돌), 단성현(숫돌) 등의 현직 지방수령들도 화성건설의 인원 및 자재 동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조는 선진관을 파견하여 자재 수급 과정에서 각종 폐단과 민정을 시찰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 2) 기술자

화성성역에 동원된 기술자는 석수, 목수, 미장이, 와벽장이, 대장장이, 개와장이, 수레장이, 화공, 가칠장이, 큰 끌톱장이, 작은 끌톱장이, 기거장이, 걸톱장이, 조각장이, 마조장이, 선장, 나막신장이, 안자장이, 병풍장이, 박배장이, 부계장이, 회장이 등 549명이었다.

기술자들 동원과정은 먼저 1793년 12월 6일 각 지역에 거주하는 기술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책자로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하고,<sup>9)</sup> 다음은 훈련도감, 수어청, 총융청, 용호영, 내수사, 선공감 등의 석수·목수·대장장이들의 본래 일을 면제하고 화성성역소로 올려 보낼 것을 지시하는 것이었다.<sup>10)</sup> 이는 기술자의 경

우 강제로 부역토록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숙련된 기술자들의 경우 화성성역에 부역 동원되는 것이 불이익이 될 때에는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화성성역이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1794년 7월에 화성성역소에 숙련된 기술자를 차출하도록 각 지역 관청에 당부하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대신 세우는 폐단이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숙련된 기술자들을 제 때에 동원하고자 각 지역 관청에서는 노자돈을 주어 평안도 지역에서 수원까지 5일안에 도착하도록 격려하기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1) 석수

석수는 돌을 떼 내는 일, 다듬는 일, 조각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일을 보조해주는 조역 1명과 함께 2명이 1패가 되었다. 조역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되었다. 석수의 경우 공장(工匠)의 제1순위로 뽑는 것이나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성곽의 대부분이 돌로 건설된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으며, 성곽축조를 위해 돌 뜨는 일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경아문의 석수만으로는 모자라 우선 급한 대로 도편수 2명을 1793년 12월 23일까지 올려 보내도록 개성과 강화부에 지시하였다.<sup>12)</sup> 더 나아가 도내 각 읍소재 공·사(公·私) 석공을 1794년 1월 10일까지 올려 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sup>13)</sup>

그러나 석수도 부역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 각 도의 읍에서 올린 사람들은 주로 늙은이나 초보자가 다수였고,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성역이 시작되어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1794년 7월에 전국에 공문을 보내 제대로 된 석수를 탐문하여 석수의 성명, 나이, 얼굴모양, 흉터, 거주지를 책자로 제작성하여 보낼 것을 지시하고 있다.<sup>14)</sup> 이는 기술자의 경우 국가에서 처음 의도한 대로 뛰

10) 『의궤』 부편2, 감결, 갑인년 1월 7일. 이러한 정황은 1759년(영조 35)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인 의식을 기록한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의 「도감사목」 중 “부역에 응해야 할 장인(匠人)이 회피하거나 각사의 하인으로서 숨을 어기는 자는 즉시 잡아가두고 태형(笞刑)으로 벌한다.”는 조목과 같은 조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봉건적 관행인 태형의 형태는 일제시대를 거쳐 1960·70년대까지도 잔존하고 있었다.

11) 『의궤』 부편2, 내관, 갑인년 7월 21일.

12) 『의궤』 권3, 이문, 계축년 12월 17일.

13) 『의궤』 권3, 이문, 계축년 12월 22일.

14) 『의궤』 권3, 이문, 갑인 7월 초2일.

9) 『의궤』 부편2, 감결, 계축년 12월 6일.

어난 기술자들이 동원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성 성역에 동원된 석수의 출신 지역, 작업일수 및 작업장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석수별 세부 관련 내역

성명(명)	지역	작업일수	소속	작업장 공문(내관 접수일)
한시웅	서울	782	내수사	부석소, 장안문, 북성, 남성, 북용성, 북동적대, 북동치, 서성, 장릉문, 화서문, 남수문
송도향	서울	761	"	부석소, 북성, 북동포루, 남공심돈, 동북성, 동성, 남수문, 동1포루, 동북공심돈, 동1치
김상득	서울	645	"	부석소 팔달문, 북성, 남성, 남서적대, 남용성, 서성, 동성, 동장대, 동암문, 서암문, 서포루
김차봉	서울	514.5	"	부석소, 장안문, 화홍문, 방화수류정, 북동적대, 남수문
김중세		296	"	부석소, 남수문, 남성, 남동적대
박상길		152	"	부석소, 장안문, 북성, 남성, 북용성, 화서문, 북암문, 서성, 서암문, 서1치, 서2치, 남포루, 남치, 서남암문, 용도
김계익 등 40명	서울		내수사	
박복득		329	장용영	
김중일		541		부석소, 북성, 남성, 북서포루, 북포루, 북서적대, 서성, 동암문, 북암문, 서암문, 남포루, 서3치
김홍엽 등 16		720등	훈련도감	
박완석		649	금위영	부석소, 장안문, 남성, 북용성, 동성, 서성, 북암문, 서남암문, 서포루, 용도
방순태 등 5명		742일 등	금위영	
박복상 등 2명		393일 등	어영청	
이택보		88일	수어청	
최창복 등 2명		365일	용호영	
최유토리		433일	선공감	부석소, 팔달문, 남성, 남암문, 남동적대, 남공심돈, 동성
장막쇠 등 77명		755일 등	선공감	
박복돌		380일	경기감영	
최홍세		481일	무소속	부석소, 팔달문, 남성, 남수문, 남용성, 동성, 동북노대, 봉돈, 동2포루, 동포루, 동2치, 동3치, 동북공심돈, 동남각루

유보한		418일	무소속	부석소, 남성, 낙남현, 동북성, 동암문, 동성, 동1치, 동1포루
김시대		393일	무소속	부석소, 장안문, 남수문, 서성, 남치
최귀득		341	무소속	부석소, 북성, 화홍문, 방화수류정, 북동포루,
황석기		223	무소속	부석소, 팔달문, 남성, 남동적대, 남용성
조귀남 등 50명		605일 등	무소속	
소계 209명				
박삼득 등 9명	수원부	556일 등		
고복인 (편수)	개성부	752일		부석소, 북성, 북동포루, 북동적대, 북동치, 서성, 동성(1793.12.21)
김백이 (편수)	개성부	560일		부석소, 동장대, 남수문, 화서문, 서성, 서북공심돈(1793.12.21)
조호명 등 38명	개성부	726일 등		
차연노미 등 40명	강화부	754일 등		편수로 이복기, 이기엽 보냄(1793.12.22)
송복남	광주부	577.5일		
정수대 등 58명	경기	694일 등		
김순노미 등 53명	충청도	168일 등		
이장쇠 등 17명	강원도	464일 등		
이성득 등 74명	황해도	433일 등		
김성손 등 41명	전라도	485일 등		
서귀삼 등 23명	경상도	146일 등		
김덕언 등 52명	평안도	291일 등		
총 642명				

〈표 4〉 작업장별 석수 명단

작업장	성명
부석소	한시웅, 송도향, 김상득, 김차봉, 김중세, 김중일, 박완석, 최유토리, 최홍세, 유보한, 김시대, 최귀득, 황석기, 고복인, 김백이(15명)
동성	한시웅, 김상득, 김중세, 박상길, 김중일, 박완석, 최유토리, 송도향, 최홍세, 고복인, 유보한(11명)
남성	한시웅, 김상득, 김중세, 박상길, 김중일, 박완석, 최유토리, 최홍세, 유보한, 황석기(10명)
서성	한시웅, 김상득, 박상길, 김중일, 박완석, 고복인, 김시대, 김백이(8명)
북성	한시웅, 송도향, 김상득, 박상길, 김중일, 최귀득, 고복인(7명)
남수문	한시웅, 송도향, 김차봉, 김중세, 최홍세, 김시대, 김백이(7명)

장안문	한시웅, 김차봉, 박상길, 박완석, 김시대
팔달문	김상득, 최유토리, 최홍세, 황석기
북동포루	송도항, 고복인, 최귀득, 황석기
서암문	김상득, 박상길, 김중일
북암문	박상길, 박완석, 김중일
동암문	김상득, 유보한, 김중일
화서문	한시웅, 박상길, 김백이
북용성	한시웅, 박상길, 박완석
남용성	김상득, 최홍세, 황석기
북동적대	한시웅, 김차봉, 고복인
남동적대	김중세, 황석기, 최유토리
남공심돈	송도항, 최유토리
동장대	김상득, 김백이
화홍문	김차봉, 황석기
동북공심돈	송도항, 최홍쇠
동북각루	김차봉, 황석기
서남암문	박상길, 박완석
동1포루	송도항, 유보한
용도	박상길, 박완석
동북성, 동1치	송도항, 유보한
서포루	김상득, 박완석
남포루	박상길, 김중일
동1치	송도항, 유보한
동2포루, 봉돈, 동북노대, 동2,3치, 동남각루, 동포루	최홍쇠
북서적대, 서3치, 북서포루, 북포루	김중일
서포루, 남서적대	김상득
서1,2치, 남치	박상길
창룡문	한시웅
서북공심돈	김백이
북동치	고복인
남치	김시대
남암문	최유토리

석수들은 부석소에 가장 많이 파견되었고 다음은 동성, 남성, 서성, 북성, 남수문, 장안문 순이다. 부석소에서 돌을 떠내고 그 돌을 다듬는 일과 특히 돌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동서남북의 체성과 남수문, 장안문의 돌쌓기에 석수들이 집중 투입되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되는 석수는 내수사 소속의 한시웅이다. 그는 석수 중 가장 오랜 782일을 작업하면서 부석소 및 장안문, 북성, 남성 등 모든 시설물 건축에 관여하였다. 이외에도 내수사 소속 편수 송도항, 김상득, 박상길, 김차봉, 지방 편수 강화부의 차언노미, 개성부 고복인, 청주의 강아지, 안협의 김영대, 전주의 김성손, 대구의 서귀삼, 해주의 한복기, 광산의 이정빈 등이 주요 시설물에서 활약하였다.<sup>15)</sup>

주목되는 것은 돌로 만든 시설물 중 예술적 조형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회자되는 서북공심돈은 김백이가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김백이는 개성부 편수로 화성 건설에서 560일을 일했다. 그는 부석소, 동장대, 남수문, 화서문, 서성 등에서도 작업을 했다. 그러나 서장대와 서북·서남각루 그리고 서노대에는 석수가 파견되지 않았다.

## (2) 목수

목수는 총 335명이 투입되었다. 목수도 석수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도내 각 읍에 소재한 목수 중에서 공장이건 사장이건 승과 속을 막론하고 솜씨가 뛰어난 자를 택하여 거주지와 성명을 상세하게 책자로 정리 보고하고, 보고된 뒤로는 제 멋대로 떠날 수 없다는 뜻을 엄하게 당부하도록 하였다.<sup>16)</sup> 1794년 1월 30일 화성 문루 공사를 위하여 급히 공문을 발송하여 경상도 영천 은해사의 승 쾌성(快性)과 강원도 양양 명주사의 승 진련(震蓮)을 급히 올려 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sup>17)</sup> 그러나 이들 기술자들 중에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자들도 있었다. 파주에서 온 3등 목수 김여백은 몇 달을 부역하다가 다른 지방으로 사

15) 『의궤』 권2, 상전.

16) 『의궤』 권3, 이문, 갑인년 정월 초2일.

17) 『의궤』 권3, 이문, 갑인년 정월 30일. 그러나 『의궤』에 명단이 보이지 않으므로 화성건설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라졌다.<sup>18)</sup> 화성 건설에 동원된 목수들의 지역 및 작업일수, 소속, 작업장 등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목수별 세부 작업 내역

성명(명)	지역	작업일수	소속	작업장
정복룡	서울	730	내수사	구포 치목소, 팔달문, 복내당, 낙남헌, 노래당, 경룡관, 북동포루, 북서포루, 북포루, 향교
권성문	서울	640	내수사	팔달문, 노래당, 동장대, 창룡문, 영화정, 유여택 행각, 나포루 서북각루, 동포루
김성인	서울	343	내수사	동장대, 창룡문, 남공심돈, 남수문, 봉돈, 동남각루
양세득	서울	328	내수사	섬에서 별목, 팔달문
전후창 등 9명		576일 등	내수사	
한천석		278	장용영	장안문, 화홍문, 방화수류정
김광복 등 2명	서울	530.5	훈련도감	
이귀재		177	금위영	장안문, 서장대, 북용성, 북서포루
이광우 등 2명		610.5	금위영	
김복상 등 2명		270일 등	어영청	
김철량 등 2명		305일 등	수어청	
안성대		51일	총융청	
윤복쇠		281일	상의원	
한익량 등 12명		371일 등	선공감	
손삼득		706일	무소속	창호, 장안문, 낙남헌, 노래당, 화서문, 서북각루, 동북공심돈, 중포사
손동현		646일	무소속	장안문, 득중정, 영화정, 화서문, 서북공심돈, 서포(砲)루, 서북각루, 서포(舖)루
민백록		512일	무소속	팔달문, 낙남헌, 득중정, 동장대, 창룡문, 북암문, 봉돈, 동북공심돈
이광록		457일	무소속	구포치목소, 팔달문, 장락당, 낙남헌, 노래당, 유여택행각, 화양루, 서남암문
송상득		104일	무소속	낙남헌, 노래당
최벽송 등 196명		688일 등	무소속	
한진옥	수원부	738일		장안문, 화홍문, 낙남헌, 방화수류정, 서포루, 영화정, 군기고, 수성고

김치한	수원부	467일		구포 치목소, 장락당, 복내당, 낙남헌, 노래당
황득중 등 41명	수원부	690일 등		
윤점돌 등 10명	광주부	336.5일		
중 회충 등 15명	경기	269.5일		
나복상 등 4명	충청도	185일 등		
윤사범	강원도	258일		팔달문, 서장대, 남암문
중 굉흡	강원도	144일		장안문, 방화수류정, 북서포루
이운성 등 14명	강원도	193일		
이종학	황해도	289일		
박성빈 등 8명	경상도	137일 등		
총 335명				

〈표 6〉 작업장별 목수 명단

작업장	성명	작업장	성명
구포치목소	정복룡, 김치한, 이광록	남포루	권성문
팔달문	정복룡, 권성문, 양세득, 윤사범, 이광록, 민백록	북포루	정복룡
장안문	한천석, 이귀재, 한진옥, 굉흡, 손삼득, 손동현	동포루	권성문
창룡문	권성문, 김성인, 민백록	봉돈	김성인
화서문	손삼득, 손동현	북용성	이귀재
화홍문	한천석, 한진옥	동북공심돈	손삼득, 민백록
남수문	김성인	남공심돈	김성인
남암문	윤사범	서북공심돈	손동현
방화수류정 (동북각루)	한천석, 한진옥, 굉흡	낙남헌	정복룡, 한진옥, 김치한, 손삼득, 민백록, 이광록, 송상득
서북각루	권성문, 손삼득, 손동현	노래당	정복룡, 권성문, 김치한, 손삼득, 이광록, 송상득
동남각루	김성인	경룡관	정복룡
서남각루	이광록	복내당	정복룡, 김치한
동장대	권성문, 김성인, 민백록	장락당	김치한, 이광록
서장대	이귀재, 윤사범	유여택 행각	권성문, 이광록
북동포루	정복룡	향교	정복룡
북서포루	정복룡, 이귀재, 굉흡	영화정	권성문, 한진옥
서포(砲)루	한진옥, 손동현	군기고	한진옥

18) 『의례』 권3, 장계, 을묘년 3월 초8일.

서포(舖)루	손동현	수성고	한진옥
북암문	민백록	득중정	손동현, 민백록
서남암문	이광록	중포사	손삼득

대표적 목수 편수는 내수사 소속의 정복룡, 양세득, 권성문, 김성인이다. 정복룡, 김치한은 치목소에서 총괄 편수로 활약하고 4대문과 주요 시설물 대부분을 담당하였다. 특히 정복룡은 북서포루와 북동포루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아 두 건물의 우진각 지붕을 반토막 낸 장본인으로 추정된다.<sup>19)</sup> 권성문과 김성인도 팔달문과 창룡문 등 주요 시설물 건설에 관여하였다. 장용영의 한천석은 장안문, 화홍문, 방화수류정, 금위영의 이귀재는 장안문, 서장대, 지방편수로는 회양의 운사범이 팔달문, 남암문, 서장대, 금화의 스님 핑흡은 장안문, 방화수류정, 북서포루 등에 관여했다. 서울 편수로 무소속의 손동현, 이광록, 민백록, 지방편수로 수원부의 한진옥은 장안문, 화홍문, 방화수류정 그리고 같은 수원부의 김치한은 장락당 등 화성행궁의 주요 시설을 담당하였다.<sup>20)</sup> 이외에도 서울의 무소속[私匠] 편수로는 손삼득, 박패득, 송상득 등이 활약하였다. 특히 화성 시설물 중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방화수류정과 화홍문 건설에 관여한 한천석과 한진옥 그리고 강원도 스님 핑흡은 당대 최고의 건축 예술가로 판단된다.

### (3) 미장이

미장은 총 295명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지 이미 1년이 지난 1794년 12월에 미장이 50명 정도를 급히 올려 보낼 것을 촉구하는 공문<sup>21)</sup>을 개성부에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장이도 원활하게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벽 여장과 웅성, 적대, 공심돈, 노대, 포루, 봉돈 등의 벽돌쌓기에 주로 투입되었다.

다음은 화성 건설에 동원된 미장ীদের 지역 및 작업일수, 소속, 작업장 등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19) 이 반토막 지붕은 부석사의 법고각 지붕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2개소뿐인 지붕형태이다.

20) 『의궤』 권2, 상전.

21) 『의궤』 권3 이문 갑인년 12월 22일.

〈표 7〉 미장이별 세부 작업 내역

성명(명)	지역	작업일수	소속	작업장
권옥	서울	210	장용영	북성, 장안문, 화홍문, 서장대, 방화수류정, 북동포루, 북서포루, 서노대, 북옹성, 북동적대, 북서적대, 남옹성, 근기교
김만대 등 4명	서울	370일 등	훈련도감	
홍시태	서울	108	금위영	
고귀등 등 2명	서울	46일 등	어영청	
박용복	서울	41	수어청	
배상복 등 94명		269	선공감	
김명철	서울	442	무소속	팔달문, 북성, 북옹성, 남옹성, 동장대, 창룡문, 화서문, 남수문, 서북공심돈, 동성, 동북노대, 봉돈, 남포루, 동북공심돈
박도성	서울	359	무소속	장안문, 팔달문, 남성, 남옹성, 남공심돈, 화서문, 서북공심돈, 봉북성, 서성, 서포루, 화양루, 서남암문, 서포루
윤동주	서울	324	무소속	장안문, 서장대, 낙남현, 득중정, 노래당, 북옹성, 남성, 남암문, 남동적대, 남서적대, 봉수당 후행각, 동북성, 동장대, 서성, 서암문
오경로 등 107명	서울	358일 등	무소속	
김상득	수원부	385일		장안문, 북성, 북내당, 낙남현, 노래당, 득중정, 경룡관, 봉수당 후행각, 북옹성, 향교, 영화정, 남수문, 유여택 행각, 외별고
유바위 등 12명	수원부	470일 등		
이삼이	개성부	54일		북성, 북서포루, 동북성, 서성, 동성, 서포루, 서암문, 남포루, 서남암문, 서포루
조목득 등 66명	개성부	84일 등		
김광택	경기	107일		
충청도	충청도	32일		
총 295명				

미장이로는 서울 편수 장용영의 권옥, 무소속의 김명철, 박도성, 윤동주, 지방 편수 수원부의 김상득, 개성부의 이삼이 등이 크게 활약하였다.<sup>22)</sup> 권옥은 주요 시설

22) 『의궤』 권2, 상전.

물은 물론 벽돌이 주로 사용된 포루, 노대, 적대, 옹성 등에서 활약했으며 김명철, 박도성 등도 4대문과 옹성, 공심돈, 봉돈, 암문, 등에 집중 투입되었다.

(4) 기타

위에서 살펴본 석수, 목수, 미장이 이외에도 와벽장이는 150명, 대장장이 83명, 개와장이 34명, 수레장이 10명, 화공 46명, 가칠장이 48명, 큰끝톱장이 30명, 작은 끝톱장이 20명, 기거장이 27명, 길톱장이 12명, 조각장이 38명, 마조장이 2명, 선장 8명, 나막신장이 34명, 안자장이 4명, 병풍장이 1명, 박배장이 1명, 부계장이 1명, 회장이 1명 등이 동원되었다. 이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기타 공장 세부 관련 내역

구분	성명(명)	지역	작업일수	소속	작업장
와벽장이	황윤구 등 4명	서울	764일 등	훈련도감	왕륜벽소
	김일광 등 10명	서울	471일 등	훈련도감	
	서봉세 등 2명	서울	764일	금위영	왕륜벽소, 북성벽소
	이용해 등 9명	서울	772일 등	무소속	왕륜벽소
	이봉화 등 116명	서울	764일 등	무소속	
	김팔월쇠 등 4명	수원부	692일 등		
	이태근	광주부	69일		
	장호성	경기	214일		
	최삼득 등 3명	함경도	각 486일		왕륜 및 북성벽소 1794.2.18
	총계 150명				
대장장이 [冶匠]	박덕항 등 3명	서울	30일	훈련도감	
	이만석 등 3명	서울	321일 등	어영청	이만석은 대장간에서 쇠 구매
	김성복	서울	284일	총용청	
	이수명 등 58명	서울	784일 등	무소속	
	최장천	수원부	875일		대장간, 부석소, 팔달문, 북성, 화홍문, 남성, 북용성, 북서적대
	정복홍 등 19명	수원부	833일 등		
총계 83명					
	권덕량 등 2명	서울	66일	훈련도감	
	이근성	서울	48일	금위영	

개와장이	이흥득	서울	143일	총용청	장안문, 팔달문, 장락당, 낙남헌, 서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경룡관, 좌익문 행각, 동장대, 창룡문, 유여택 행각
	최득춘	서울	66일	용호영	
	김용득 등 11명	서울	187일 등	선공감	
	강명대 등 18명	서울	54일 등	무소속	
	총 34명				
수레장이	박기혁 등 2명	서울	130일	훈련도감	
	최득룡 등 2명	서울	210일 등	어영청	
	이중백 등 6명	서울	740일 등	무소속	
	총 10명				
화공	엄치옥	서울	342일	훈련도감 마병	
	최봉수 등 4명	서울	103일 등	무소속	
	중 경환 등 11명	수원부	108일 등		
	정천복	개성부	31일		
	중 성담	광주부	43일		
	중 경옥 등 28명	경기	82일 등		
총 46명					
가칠장이	오두명 등 38명	서울	70일 등		
	김경문 등 10명	수원부	163일 등		
	총 48명				
큰끝톱장이	김세희 등 30명	서울	191일 등	선공감	
작은 끝톱장이	서성손 등 16명	서울	388일 등	무소속	
	김독이 등 3명	수원부	302일 등		
	윤선진	광주부	68일 등		
총 20명					
기거장이	김귀득 등 12명	서울	188일 등		
	신중환 등 6명	수원부	235일 등		
	김용대 등 9	경기	62일 등		
	총 27명				
길톱장이	한천홍 등 9명	서울	213일 등	선공감	
	형이정	수원부	75일		
	이복세 등 2명	광주부	41일		
	총 12명				
	박문화 등 31명	서울	79일		

조각장이	김한일 등 2명	수원부	309일 등		
	장봉한 등 3명	경기	92일 등		
	총 36명				
마조장이	심성복	서울	112일	훈련도감	
	심소량	서울	112일	무소속	
	총 2명				
선장	김인득 등 2명	서울	90일	무소속	
	신광복 등 6명	수원부	92일 등		
	총 8명				
나막신장이	최태기 등 10명	서울	442일 등	훈련도감	
	이언춘 등 2명	서울	94일	금위영	
	진만근	서울	36일	어영청	
	이지형 등 20명	서울	240일 등	무소속	
	김한기	수원부	120일		
총 34명					
안장장이	이광휘 등 4명	서울	79일 등	무소속	
병풍장이	유창기	서울	25일	훈련도감	
박배장이	안덕	서울	245일	무소속	
부계장이	한대복 등 2명	수원부	370일 등		
회장이	고철세	황해도	260일		
총 549명					

벽돌장이는 훈련도감의 황윤구, 오태운, 황윤창, 강희대, 금위영의 서봉세, 서봉천, 서울의 무소속 서득세, 김광손, 조중남, 심세득, 이용해, 우유득, 이흥손, 황상신, 서도희 등이 지방편수로 함흥의 최삼득, 이득실, 천창룡 등이 활약하였다. 벽돌 만드는 일에는 150명이 종사하였는데 지금의 의왕시 백운산의 왕륜벽소와 영화동으로 추정되는 북성벽소에서 구웠다. 벽돌장이는 함경도에서 특별히 차출하여 충당하였다.<sup>23)</sup>

대장장이는 83명이 동원되었는데 서울 편수로 어영청 소속의 이만석, 지방편수로 는 수원의 최장천이 활약하였다. 그들은 대장간과 부석소에 배속되어 일하였다. 이들은 야장 1명에 연마장(鍊磨匠), 취로군(吹爐軍), 타조군(打造軍) 등 조역 3명 모

23) 『의궤』 권3, 이문, 계축년 12월 17일.

두 4명이 1패가 되어 작업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화성을 떠난 자들도 있었다.<sup>24)</sup>

화공은 46명이 참여하였는데 훈련도감의 엄치욱이 큰 활약을 하였다. 46명 중 40명이 승려 신분이었다. 그렇지만 남북문루 단청 일을 위한 화승도 부족하여 1794년 9월 11일에 양주의 덕사(德寺) 화승(畫僧)을 도(都)화승으로 임명하여 15일까지 공사장에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sup>25)</sup> 기와장이의 경우는 서울 총용청의 이흥득, 수레장이는 서울 편수 이증백, 나막신장은 서울 장용영의 최태기 등이 뛰어난 활약을 하였다.<sup>26)</sup>

### 3) 품팔이[募軍]

기술자를 제외한 모군은 화성성역 현장에서는 자재를 운반하는 담군과 허드렛일을 하는 모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돌을 운반하거나 기초공사, 성벽 쌓기, 석회 번조, 흙집지기, 돌 운반하기(一般擔負), 솥돌 같은 길 치도(治道) 또는 신작로 등 길 닦기, 준천 및 연못 파기 등에 고용되었다.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는 벌목, 나무운반, 남양부 구포나루까지의 운반 뱃사공 등이 고용되었다.

모군 동원방식에 대해 정조는 신하들과 화성건설 이전과 건설 과정에도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고 있다. 왜냐하면 1789년 수원부 청사를 팔달산 동쪽으로 옮길 때에도 각 도의 백성이 구름같이 몰려든 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군들이 팔방에서 몰려들 것을 우려하여 8도와 3도에 화성성역은 10년을 기한으로 하니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전국에 시행문으로 공지하고 백성들에게 일일이 알리도록 하였다.<sup>27)</sup> 이러한 현상들은 당시 농촌을 떠난 유이민과 낱품을 팔기 위한 예비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그러함에도 관료들은 모두 강제 부역을 주장하거나 승군조발을 건의하였다.

24) 3등 야장 전주인 김만손은 부역에 응하다가 서울로 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의궤』 권3, 장계, 을묘년 3월 초8일

25) 『의궤』 권3, 이문, 갑인년 9월 11일.

26) 『의궤』 권2, 상전.

27) 『의궤』 권3, 이문, 계축년 12월 20일.

화성건설의 총책임자인 채제공은 부역을 주장하거나 승군을 동원하자고 건의하고<sup>29)</sup> 우의정 이병모도 공사에 들어갈 공사군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여러 도에 배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sup>30)</sup> 또한 좌의정 김이소와 행판중추부사 김희, 행예조판서 정창순 등도 부역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길이 먼 곳은 품삯을 대신 내게 하여 재원을 조달하자는 내용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사직 홍양호, 정민시, 판돈령부사 김지묵 등이 부역을 주장하였다. 특히 김지묵은 “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나오는 것”이라는 논리로 부역을 주장하였다. 좌참찬 홍수보는 구체적인 동원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오고갈 때의 양식과 비용도 준비해 오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호조판서 심이지는 가난한자와 변방의 백성을 제외하고 부역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병조판서 구상, 행부사직 서유대, 형조판서 이득신, 행부사직 이경무, 이조판서 김재찬, 행부사직 서유대, 행부사직 이한풍, 전참의 윤행입, 홍낙성 등이 2일 또는 3일,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역을 시킬 것을 건의하였다.<sup>31)</sup> 이러한 논의 사항은 1794년 7월 1일에 있었는데 관료들의 일치된 주장에 정조는 1796년 2월 7일에야 비답을 내려 부역도 아울러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1794년 5월 22일 정조는 “일의 체면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면서 “공사에 한 사람이라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는 내 뜻도 역시 생각이 있으니 그리 알라”며 모군 방식을 지시한 바 있다.<sup>32)</sup>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1794년 9월 29일 「감결」의 내용을 살펴보자.

품삯을 주고 장정을 고용하는 것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한 방편인데, 다만 역(役)이 없는 백성[無役之民]이 이에 의지하여 풀질을 할 뿐만 아니라 신역(身役)이 있어서 쌀과 돈을 내는 부류들도 이것으로 충당하게 된다. 경내

28) 모군들은 성역이 시작되자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 천막을 짓고 눌러 앉아 2/3 정도는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매우 적고 새로운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의궤』 권3, 장계, 갑인년 7월 초8일)

29) 『의궤』 권1, 계사, 갑인년 5월 22일; 권1, 계사, 병진년 2월 초7일; 『정조실록』 권40, 18년 5월 22일 무신.

30) 『의궤』 권1, 계사, 갑인년 6월 28일; 『정조실록』 권40, 18년 6월 28일 계미.

31) 『의궤』 권1, 계사, 병진년 2월 초7일.

32) 『의궤』 권1, 계사, 갑인년 5월 22일.

의 각 면에 일일이 통지하여 신역을 부담해야 할 백성 중에서 자원하여 공사에 참가할 사람[自願赴役]은 모두 와서 일하게 하고 여기서 받을 품삯으로 마땅히 내어야 할 신역을 그만큼 계산하여 감해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백성의 힘을 덜어주고 품삯은 각 군색처에 옮겨 보내고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여 지급하도록 할 일<sup>33)</sup>

위 글에서 화성건설에는 날품팔이 동원 방식은 첫째, 신역이 없는 사람들의 모군 방식, 둘째, 수원 인근의 자원 부역자로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자원 부역자도 품삯을 계산하여 신역에서 감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의 부류는 토지에서 쫓겨난 ‘유이민(遊離民)’ 들로 규정할 수 있고 두 번째의 부류들은 역(役)을 지는 양인(良人)농민들로 이들의 처지도 ‘일용(日傭)농민’ 과 별다르지 않아 건설현장에 고용되어 품삯을 받아 생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화성 건설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하였을까. 다음 표는 화성 건설기간 중 정조가 노동자들에게 더위를 이기는 척서단(滌暑丹) 등을 나누어 준 개수를 통해서 본 화성 현장에 있던 총인원들의 변화이다.

〈표 9〉 화성건설에 동원된 인력양상

(단위:명)

연도	관리직	서리 및 기술자	짐꾼 및 허드레꾼	총계
1794. 6. 25	101	1,844	1,714	3,659
1794. 6. 26	232	1,106	2,452	3,790
1794. 9. 16	113	1,578	2,150	3,841
1795. 윤2. 13	158	726	122	1,004
1795. 10.19	67	1,064	1,130	2,261
1796. 6.24	78	904	1,048	2,030
1796. 7.15	72	780	1,101	1,953
1796. 7.29	84	831	1,157	2,072
1796. 8.27	86	681	1,147	1,914

(『의궤』 권2, 반사·호궤·별단)

화성건설에 동원된 인력양상 표를 살펴보면 화성건설에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

33) 『의궤』 권4, 감결, 갑인년 9월 29일.

된 시점은 1794년 9월까지 임을 알 수 있다. 약 4,0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터 다 지기, 개울치기 등 화성건설 초기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이후 1795년과 1796년에는 약 2,000명 내외의 인원들이 투입되어 화성 건설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 2. 노동조건

### 1) 노동조건 연도별 변화

조선시대 전시대를 통하여 건설 및 토목공사에서 노동력 동원과 노동조건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봉건제의 큰 흐름인 지주전호제의 변화와 신분제의 해체는 노동조건에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인간의 자주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조선시대 건설공사와 산릉에서의 노동력 동원과 노동조건이 변화하는 양상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10〉 건설공사와 산릉에서의 노동력 동원과 노동조건 변화

시기	공사명	노동력 동원	노동일수	노동조건(노임)	비고
태조 2~5(1393)	도성 축성	민정 118,070여 명 등		징발, 주야 식량지참	식량 일부 지급
세종 3(1421)	도성공사	403,755명	40일	징발, 지역별로 구간할당	
세종 4(1422)	산릉	인부 2,000명	10일		
세종 20(1438)	홍천사	승군(僧軍) 600명 사리가각 수리	15~30일	식량지참자 15일. 도첩 수여	
성종5(1474)	빙고 수리	변상 정병		사역	
선조 30(1597)	오례산성	10,000명		징발	양식지급
광해군 1년(1608)	창경궁 수리	군정(軍丁), 장인(匠人)		미포(料布) 지급	
인조 4(1626)	남한산성	승, 공장(工匠)	2년	요포지급	20리의 공사
인조 8(1630)	천릉공사	연인원 270,000명, 승군 동원		품삯 지급	
현종 즉위년(1659)	산릉	승군 1,000명 연군(煙軍) 3,000명		각 아문의 쌀과 베를 품삯으로	

현종 6년(1665)	숙경공주 집	공장(工匠)과 모역(募役)	3년	역가(役價) 약 10,000냥	
숙종 44(1684)	탕춘대 축성			양식과 고포(雇布) 지급	
정조 화성건설 당시	화성건설	기술자 : 부역 품팔이 : 모군 및 부역민	2년 9개월	품삯 지급	

노동력 동원방식에서 선조대까지는 민정 동원, 강제징발, 변상 정병 등과 같은 강제 부역으로, 노동조건도 각자 식량을 지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승군의 경우 도첩을 주는 특혜를 부여하였다. 이후 17세기 광해군 대부터 강제부역이라고 하더라도 요포(料布)를 지급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608년(광해군 1) 창경궁을 수리하면서 군정과 장인을 부역시키면서 요포를 지급한 예나 1626년 인조가 남한산성을 2년에 걸쳐 수축하면서 승군과 공장을 동원하면서 요포를 지급한 것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1665년(현종 6)에는 모역(募役)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지우는 강제노역이 인식적, 법률적, 인격적 구속의 강제 징발(부역)에서 17세기 중반에 강제부역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자유로운’<sup>34)</sup> 노동자를 모집하는 모군의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sup>35)</sup> 특히 화성건설에서의 노동자는 기술자의 경우에는 부역으로, 품팔이는 모군의 방식과 자원부역 방식으로 동원되었다. 정조대 화성 건설에서 처음 모군과 고가의 지불 형태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17세기 초반부터 노동조건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 2) 노임지불 방식

화성건설의 노임 지불 방식에 대하여 그 간의 연구에서는 관리직, 기술자, 모군의 구별 없이 급가모군, 급가고립제, 고가, 일당제, 임금노동, 일당제가 아닌 짐수 즉 일한 만큼의 실고가(實雇價) 지급 등으로 표현하였다.

34) ‘자유로운’이란 ‘경제외적 강제’가 작동치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이지만 ‘경제적 착취’ 관계 속에서는 그들도 ‘부자유’ 하긴 마찬가지이다.

35) 윤용출은 17세기 초인 선조(宣祖)대에 강제부역 대신 경모군들이 관부의 역사에 고용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윤용출, 『조선후기의 용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23쪽.)

먼저 모군들 고가 지불방식은 정약용의 『성설』과 정조가 화성 둔전을 조성하면서 지시한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한 걸음마다 표목(表木)을 세워 3천 6백 단(段)으로 나누고, 그 다음 인부를 모집하여 개울의 자갈을 지고 와 일단(一段)을 채우는 데 따라 품삯을 얼마씩 준다면 그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많이 저 나를수록 이익이 많으므로 힘껏 일을 하여 며칠 안 되어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날품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이 절약되고 공정도 빠를 것입니다.(여유당전서 1집, 시문집 설 성설)

품삯을 날짜로 계산해서 주지 않고 짐을 단위로 해서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 차등을 둔다면 강한 자는 넉넉히 백전을 취할 것이요 약한 자도 제 한몫 가리기에는 족할 것이다.(정조 권 42, 18년 11월 1일(을유))

화성건설에서 모군들의 노임 지불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당제가 아니고 위 글의 표현 그대로만 보면 많이 저 나르고 원근을 헤아려 차등을 두는 성과급제로 보인다. 그렇지만 『의궤』의 기록을 살펴보면

담기로 운반하는 담기군은 1일 6번, 큰 돌은 1덩어리, 작은 것은 2덩이를 운반하도록 정식화 하였다. 이를 여기는 담기군은 패장이 곤장으로 다스리고 품삯도 삭감하도록 하였다.<sup>36)</sup>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 지불 방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한 양과 거리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는 성과급제가 아니라 1일에 해야 할 노동량을 지정한 것이다. 이는 모군의 경우 일당 2전 5푼으로 정하고 노동량을 지정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건이 성과급제가 시행되었는지 아니었는지의 판단근거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은 정해진 노동량을 못 지켰을 경우의 단서조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성건설 당시 노동조건은 정부에서 직접 고용한 일당제에 기초한 성과급제로 추정된다.<sup>37)</sup> 그러나 일당제 자료는 확인할 수 있지만 성과급제는 정약용의 건

의와 정조의 지시자료만 있을 뿐이다.<sup>38)</sup>

한편 화성건설에서의 노임 지불 방식에서 봉건적 유제도 남아 있었다. 즉 하루 정식화 되어 있는 노동량을 여기는 담가군(擔架軍)을 곤장으로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의연히 ‘경제외적 강제’의 봉건적 관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책임자와 감독들 그리고 기술자들은 일당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책임자는 삭하식례(朔下式例)로 보아 월급제로 보이지만 책임자 및 감독은 월급 액수를 정하였으나 도청을 제외한 감독 이하는 일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불하였다. 결국은 일당제였던 것이다.

다음 표는 화성 건설에 동원된 인원들에 대한 일당을 비교한 것이다.

〈표 11〉 화성 건설 관리,감독자 및 하위직 일당

직위	월급	환산/일	비고
내도청	쌀 12두, 돈 12냥 = 16.8냥	5.6전	나무와 기름값 각 방마다 2냥
별감동 경감관	쌀 10두, 돈 10냥 = 14냥	4.7전	
부감관	쌀 6두, 돈 5냥 = 7.4냥	2.5전	
경·부패장	쌀 9두, 돈 6냥 = 9.6냥	3.2전	
경 책임감관	쌀 6두, 돈 4냥 = 6.4냥	2.1전	
경포교	돈 2냥	0.7전	
도소 경서리	쌀 4두, 돈 4냥 = 5.6냥	1.9전	
도소 부서리	쌀 6두, 돈 4냥 = 6.4냥	2.1전	
각소 부서리	쌀 6두, 돈 2냥 = 4.4냥	1.5전	
경 책임 고지기	돈 4냥	1.3전	
부서사	쌀 6두, 돈 3냥 = 5.4냥	1.8전	
경사령 경·부 문서지기 사환군	7냥 5전	2.5전	
부기수	쌀 6두, 돈 1.5냥 = 3.9냥	1.3전	
경포졸	2냥	0.7전	
부포졸	쌀 6두, 돈 1.5냥 = 3.9냥	1.3전	

(쌀 1섬 당 6냥, 1섬은 15두, 1두는 10승, 1승당 4푼, 1달은 30일로 계산)

38) 이러한 임금 지불 방식은 인격적 신분적 법률적으로 구속하면서 강제 부여시킨 한양성 축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노동력 동원이었다. 한양성 축조의 경우 봉건적 강제력을 가지면서 노임지불이 없었다. 봉건적 ‘경제외적 강제’의 시대가 지난 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노동량과 노동시간을 늘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제고시키는 방법은 ‘돈’에 기초한 ‘성과급제’의 시행이 유효하게 사용된다.

36) 『의궤』 권4, 갑결, 갑인년 2월 5일.

37)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 한국사회는 ‘하청 다단계 일당제’가 일반적이다.

위 표에서 내도청은 이유정이 계속 근무했으므로 월급으로 정한 금액이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별감동, 경감관, 부감관, 경·부패장, 경 책응감관까지는 11일부터 886일까지 그 근무일수가 다양하였다. 따라서 월급으로 정식을 삼았지만 임금지불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월급을 일당으로 환산하여 보니 기술자 모군의 일당 2.5전~4.2전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하 경포교부터 서리, 서사, 부포줄까지는 화성 건설 전 기간에 걸쳐 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일당은 경사령, 경부문서지기, 사환군 등을 제외하고 일반 모군 2.5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표 12〉 기술자·모군의 일당

구분	일당	비고
석수	매패 쌀 6승+돈 4.5전=6.9전/2 3.45전/1인	助役 1명 作 1牌 8패마다 火丁 1인 1일 쌀 3승, 돈 1.3전
대장장이	8.9전/4 2.23/1인	조역 3명 작 1패
목수, 미장이	4.2전	10명마다 화정 1명 1일 2.5전
조각장이, 나막신장이, 수레장이, 안자장이, 마조장이, 화공, 가칠장이, 부계장이	3전	
기와장이	3전	5량각 매간 6전, 행각 매간 4전, 3일에 짚신값 7푼
차부	3.2전	
담군	3전	12명마다 等牌 1명 화정 1명 고가는 2.5전
모군	2.5전	30명마다 등패 1명, 화정 1명, 복직 1명 고가는 2.5전
소지기	2.5전	

(쌀 1섬 당 6냥, 1섬은 15두, 1두는 10승, 1승당 4푼, 1달은 30일로 계산)

기술자, 모군의 일당은 모군과 소지기가 기본 2.5전으로 고정되고 담군 3전, 차부 3.2전, 기와장이, 조각장이, 나막신장이, 수레장이 등이 3전, 목수와 미장이

4.2전이였다. 석수의 일당은 3.45전이나 1패에 지급한 총액 6.9전에서 조역에게 2.5전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보면 4전이 넘는 돈이 석수장이가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장이 역시 4명에게 8.9전이 지급되었으므로 야장과 마련장, 취로군, 타조군 4명이 차등 있게 지급되었을 것이다.

### 3) 작업조건 및 특별혜택

각처에서 동원 및 고용된 관리 및 노동자들을 위해 각종 임시건물도 세워졌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화성 건설의 임시가옥

장소	임시가옥	석수 흠방 및 방앗간	화부막사	대장장이 임시가옥	비용
1부석소	2칸(감동)	10칸(석수)	4칸	10칸	41.12냥
2부석소	2칸(감동)	10칸(석수)	4칸	8칸	45.12냥
복수문		9칸(석수)		3칸	
3부석소	2칸	12칸(송도 석수)	4칸	6칸	75.25냥
		8칸(강화 석수)	4칸	3칸	
외양간	54칸	2칸(방앗간)			88.21냥
구포 치목소	10칸				28.7냥
들깃꾼	40칸		8칸		68.3냥
남·북문, 남·복수문	130칸(모군막사 4곳)		28칸		234.95냥

(『의궤』 품목, 갑인년 2월 초9일)

임시건물은 각 부석소의 감동들을 위한 2칸 자리 임시가옥, 석수들을 위한 흠방이 49칸, 화부들의 막사 74칸, 대장장이의 임시가옥 30칸 등이 지어졌으며 담부를 위해서는 40칸의 임시가옥 그리고 모군들을 위해 남·북문과 남·복수문 각각 4곳에 130칸의 임시가옥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방축서탕, 우황육일산, 진사익원산, 청심운, 광제환, 제중단 등은 고급 도청에 별도로 지급하고<sup>39)</sup> 척서단은 허드레꾼

39) 『의궤』 권2, 반사, 병진년 6월 24일.

까지 공사 현장에 있던 관원부터 전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부채는 원(員)들 이상에게만, 제중단·달력·모자는 기술자까지만, 각종 어물은 각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sup>40)</sup> 한편 병이 든 기술자와 막일꾼들에게는 1일 쌀 2승과 돈 1전씩이 지급되었다.<sup>41)</sup> 비가 오거나 몸이 아프면 밥값 마련을 위해 목수·조각장이·나막신 장이는 1일 1.6전, 선장·큰끝톱장이·겉톱장이·기톱장은 1.4전씩 지급하였다.<sup>42)</sup>

또한 공사를 시작해서 첫 번째 맞이한 설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기술자들에게 모두 휴가를 주고 1월 10일까지 돌아오도록 하였다. 기술자들에게는 그 거리의 원근을 계산하여 노자를 마련하여 지급하였고, 남아 있는 자들에겐 연말 음식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sup>43)</sup> 더위도 문제였지만 추위도 만만치 않았다. 추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함흥 벽돌장이에게는 특별 방한용 저고리 유의(襦衣)를 지급하고 석수, 목수, 수레장이, 벽돌장이, 대장장이 등 293명에게는 추위에 대비하여 옷감으로 베와 모자를 특별 지급하였다.<sup>44)</sup>

상금과 시상도 하였는데 각색 기술자에게는 0.5전, 담기군·수레꾼·모군들에게는 0.3전이 지급되었고 공장들에게는 등급을 나누어 1등 1석 5두, 2등 쌀 1석, 3등 쌀 9두씩 시상하였다.<sup>45)</sup> 이외에도 지방기술자들에게는 환곡 미상환분, 그리고 군역이나 잡역을 탕감하거나 승군의 경우 부역을 면제하였다.<sup>46)</sup>

한편 석수들이 돌아갈 때에는 가까운 진위와 용인의 경우 별하전 2냥, 쌀 3두, 노жат돈 2전씩을, 그리고 기타 원거리는 노жат돈을 경상도 양산의 경우 4냥 5전까지 추가로 지급하였다.<sup>47)</sup>

또한 성역이 모두 끝나고 600석의 물력으로 기술자들에게 회식과 3등급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또한 이미 일을 마치고 떠난 자들에게도 시상토록 하였다.<sup>48)</sup>

40) 『의궤』 권2, 반사.

41) 『의궤』 권3, 감결 갑인년 2월 초6일.

42) 『의궤』 권4, 감결 갑인년 4월 27일.

43) 『의궤』 권4, 품목, 갑인년 12월 초8일; 권3 이문, 갑인년 12월 22일.

44) 『의궤』 권3, 별단, 을묘년 11월 11일.

45) 『의궤』 권4, 내관, 을묘년 윤 2월 28일; 감결 갑인년 6월 10일.

46) 『의궤』 권4, 내관, 을묘년 윤 2월 28일.

47) 『의궤』 권2, 호궤, 병진년 8월 19일.

48) 『의궤』 권4, 내관, 병진년 9월 초10일.

특히 품계를 올려주는 특혜를 부여하였는데 원 이상은 패장의 경우 변장으로, 기타 품계를 올리거나 활쏘기와 총쏘기는 재주를 시험하여 화살, 화살통, 활, 무명, 모자 등을 하사하기도 하였으며 석수 김중일의 경우 직접 전시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채제공에게는 호랑이 가죽, 수원부 유수 조심태와 기타 다른 관료들에게는 품계를 올려주어 사기를 진작시키었다.

## 맺음말

화성(華城) 건설은 정부에서 직접 주도하고 건설한 조선 최대의 토목공사였으며 성곽과 같은 군사시설은 물론 도로·다리·가로수 등 도시기반시설, 저수지·둔전 등 생산기반시설까지 총체적으로 준비한 신도시 건설이었다. 화성건설에서 노동력 동원은 가장 먼저 공사를 총괄할 채제공(蔡濟恭)을 총리대신으로, 조심태(趙心泰)를 감동당상으로, 이유경(李儒敬)을 도청으로 임명하여 현역 관료조직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그 하부에 전 관료 및 잡역직들로 조직된 작업관리 및 현장감독 분야와 수원 판관을 우두머리인 책응도청으로 하는 사무관리 및 지원부서로 나누어 조직하였다. 여기에서 작업관리 및 현장감독 분야는 작업한 일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계속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여기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한 조직이었다. 이러한 조직에 더하여 모든 중앙부처와 현직 지방수령들도 화성건설의 인원 및 자재 동원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적으로 화성건설을 독려했다.

기술자(工匠)는 총 549명이 동원되었는데 중앙관청과 전국의 지방관청 공사(公私) 공장(工匠)들을 부역토록 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원활하게 동원되지는 않았다. 모군(募軍)의 경우는 첫째, 신역(身役)이 없는 사람들의 모군 방식과 둘째, 품삯을 지불하는 수원 인근의 자원(自願) 부역자로 충당되었다. 이러한 모군의 방식은 조선 초기 강제부역 보다는 보다 진전된 인력동원 방식으로 이미 17세기 초반부터 출현한 형태이다. 기술자와는 다르게 모군들은 지나치게 많이 몰려들어 정부 측에서 곤란할 지경이었다. 이는 농촌으로부터 유리된 '유이민'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농민층의 분해'와 '신분제의 해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징표라 여겨진다. 따라서 화성 건설이 정조가 의도한 대로 '빈민

구제'를 위한 대책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투입된 이들은 1794년도 화성 건설 초기에는 약 4,000명, 1796년경에는 약 2,000명의 내외의 인원들이 항시 화성에 머물면서 화성 건설을 마무리하였다.

화성건설의 노임 지불 방식은 관리 감독 분야는 내도청을 제외하고 별감동, 경감관, 부감관, 경·부패장, 경 책응감관까지는 월급으로 정식을 삼았지만 임금지불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이하 경포교부터 서리, 서사, 부포졸까지는 화성 건설 전 기간에 걸쳐 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일당은 경사령, 경부문서지기, 사환군 등을 제외하고 일반 모군 2.5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기술자는 전형적인 하루 3전 이상의 '일당제'였으며 모군의 경우는 일당제에 기초한 성과급제로 추정된다.

한편 화성건설에서의 노임 지불 방식에서 봉건적 유제도 남아 있었다. 즉 하루 정식화 되어 있는 노동량을 어기는 담가군(擔架軍)을 곤장으로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의연히 '경제외적 강제'의 봉건적 관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성 건설에서는 각처에서 동원 및 고용된 관리 및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각종 특혜도 베풀었다. 가족이 없는 관리자 및 노동자들을 위해 임시건물을 세우거나 더위를 이기게 하는 척서단 등과 같은 약품 제공, 부채, 방한복, 음식 등을 지급하거나 병가, 휴가는 물론 상금과 시상도 베풀고 특히 일반관료는 물론 잡역직과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품계를 올려주거나 신분상승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 Abstract

# Working force mobilization and working conditions for Hwaseong city construction

Lee Dal-Ho (Suwon city)

In Chosun dynasty, Hwaseong city construction was the biggest civil construction led and undertaken by government, and the whole new city construction with military facilities like ramparts; urban infra such as roads, bridges, roadside trees; agricultural facilities reservoir, garrison farms.

Regarding working force mobilization for Hwaseong city construction, the Chosun government set up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ppointing Chejegong(蔡濟恭) to the General minister to supervise the construction in general, Sim Tae Cho(趙心泰) to Gamdong Dang Sang-superintendent-, You Kyoung Lee(李儒敬) to Do Chung.

And under its aegis, a work management team which is composed of officers and general servant and administrative & support team having check-ung do chung led by the judge for Suwon district is supposed to be in charge of site supervision.

The number of work days for work management and site supervision varied and even continuous and consistent engagement was not available.

So the organization wa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dding to these, all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ors also did their best to supply labor and materials for Hwaseong city construction to encourage the Hwaseong city construction.

There were all five hundreds forty nine craftsmen mobilized and they were brough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nd local office in nation-wide for labor work.

But, the working force mobilization was not effective as much as the government had anticipated.

Concerning recruited construction worker, first, they recruited folks without service obligation. And second, they hired volunteers near Suwon city area who received wages.

Recruited construction worker like this was more advanced labor sourcing method than pure compulsory conscription in early days of Chosun dynasty and appeared from early 17th century.

Differently from craftsmen, too many recruited construction worker gathered that caused embarrassment to the government.

This indicates that there existed widely wandering and jobless people segregated from rural area and this symbolizes disassembly of peasantry class and the collapse of social status system .

Thus, Hwaseong city construction surely became a useful means for 'poor relief' as the king 'Jeongjo' had intended.

All engaged in this construction were 4000 in early stage of Hwasung construction in 1794, and 2000 in 1796 and they finished Hwaseong construction staying in Hwa-seong all the time.

Regarding wage payment system in Hwa-seong City construction, Monthly salary system was officially adopted for Byulgam dong, Kyounggam gwan, Bugam gwan, Kyoung/Bu-Pae jang, Kyoung Chaek Eung Gam gwan excluding Nae do chung, but wage payment was given on a daily basis.

Kyoung Po Kyo, Suri, Su-Sa, Bu Pozol seemed to work over the entire period for Hwasung construction and it is estimated they were paid fixed wage on a monthly pay.

However, the daily payamount was far less than 2.5 Jeon of ordinary conscripted recruited construction worker except for Kyoung Sa Ryoung, Kyoung Bu archiver, Sa-Hwan Gun.

And the craftsmen were paid on a 'daily basis' over 3 jeon a day, and recruited soldiers were paid basedon daily fixed plus variable according to

their performances.

Meanwhile, Hwaseong city construction also adopted feudalistic traditional system . In other word, Dam Ga gun(擔架軍) who failed to perform daily labor amount, were supposed to take cudgel punishments.

This indicates still there feudalistic practice of non-economical compulsion had functioned effectively.

There were also various benefit systems to inspire officers and workers requisitioned and hired from all over the provinces.

They supplied improvised dormitory for officers and workers who had no family members, medicines like ChukSeo-dan for them to overcome hot weather and offered also fans, winter clothes, foods or either sick leave, vacation, as well as rewarding money, various prize-awarding, and especially, as well as ordinary officers, people who worked in miscellaneous and ignoble jobs were offered raised grades or given an opportunity for social position rise

Key-words : Working force, Working conditions, Recruited construction worker, Craftsmen, jobless people, peasantry class, collapse of social status system, poor relief, daily allowance, monthly salary

## 수원군 지역의 3·1운동

- 송산면 일대의 현장답사와 후손들의 증언 -

박 환 (수원대학교 사학과)

---

머리말	동가 흥남후, 흥열후, 흥관후 3형제의 묘소를 찾아
1. 송산면 일대의 현장답사와 후손들의 증언	6) 송산 3·1운동 주동자 왕광연선생 묘를 찾아
1) 송산지역 3·1운동의 중심지 사강을 찾아서	7) 서신면 전곡리 은쟁이 마을
2) 송산면 만세운동의 집결지 사강장터와 만세유적지	8) 마도면 답사
3) 예종구의 아들 예문택씨와의 면담	9) 마도면 답사 2
4) 흥면옥의 손자 흥광유씨를 찾아	10) 남양초등학교
5) 송산면 매봉산에 묻혀 있는 독립은	11) 남양교회, 남양주재소, 면사무소 땃음말

---

### 머 리 말

수원군 지역의 3·1운동은 1919년에 전개된 만세운동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상징되듯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도 일찍부터 이 지역의 3·1운동에 주목하여 제암리, 우정면, 장안면 등 다수 지역의 운동 상황 및 일제의 학살 전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수원지역 3·1운동의 전체상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나치게 만세운동과 학살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운동의 발

발 배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살피지지 못하였으며, 그 영향과 다른 지역과의 상관관계 또한 아직까지 심도 있게 조망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정면, 장안면, 향남면 제암리 등이 부각된 나머지 송산면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특별히 송산면 지역의 3·1운동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송산지역의 3·1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오늘날 수원의 화성지역에서 가장 먼저 전개된 만세운동이 송산면 사강지역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 운동은 그 후 화성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식인과 특히 농민주도의 운동으로서 폭력성을 띤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순사부장의 처단은 그 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우정면, 장안면 등과 같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이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 경제적으로는 부농, 중농, 자작 및 소작농 등 다양한 계층이, 연령별로는 10대부터 50대까지, 학력으로는 한문, 신학문, 문맹 등 다양한 그룹, 종교는 신앙하지 않는 인물들이 주로 참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수원군 송산일대의 3·1운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답사와 후손들의 증언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송산면 일대의 현장 답사와 후손들의 증언

### 1) 송산지역 3·1운동의 중심지 사강을 찾아서

2002년 9월말 3·1운동 당시 송산면 사강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관련 유적을 답사하기 위하여 남양에서 사강으로 향하였다. 새로 난 큰 대로를 따라 고개를 넘어 마도면을 지나니 좌측에 사강이란 이정표가 보였다. 길을 따라 들어가 송산파출소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이 길로 해서 농협, 송산초등학교 뒷문, 송산중학교 방향의 길이 옛 구 도로였기 때문이었다. 이 길은 옛 영화는 간 곳이 없고 이제는 퇴색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먼저 송산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사강교회로 향하였다. 사강교회는 1902년과 1903년에 시작된 경다리 신앙공동체에서 시작되어 1911년 목조 4칸 예배당으로 발전하였다가 3·1운동 당시 일제의 의하여 전소된 교회의 후신이었다. 현재는 감리교 교회로서 선교원을 운영하며 웅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우선 사무실을 방문하여 1997년에 간행된 『사강교회 95년사』(1997)를 얻었다. 초창기 사강지역 기독교 공동체, 홍승하의 남양선교, 경다리에 세워진 예배당, 포막동(마산포) 신앙 공동체 등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3·1운동 당시 주역이었던 홍면옥의 장인인 김명제가 감리교 신자였다는 사실, 홍면옥이 출옥 후 사강교회를 다녔다는 증언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지금은 학교와 교회 그리고 집들이 서 있는 이곳은 과거 산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다. 사강 입구에서 이곳 언덕 지역까지 흰색으로 덮혀 있던 한인들과 태극기의 물결이 보이는 듯하였다.

사강교회를 뒤로 하고 좁은 길로 내려오니 공영주차장 건물과 사강 4리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과거 송산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다. 아울러 3·1운동 당시 일제가 작성한 도면에 따르면, 노인정 근처에 주재소 또한 위치하고 있었다. 주변 칠곡리에 사는 홍준유(1937년생), 송산초등학교 뒷문 문방구의 왕씨 할머니(77세)도 이를 증언해 주었다. 특히 왕씨 할머니는 남편 김정묵이 일제말 일본으로 5년간 징용을 갔다 왔으며, 고생만하고 임금도 못 받았으며 일제의 만행에 분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녀는 현재 작고한 동구리 마을에 계신 분과 송산면 신촌에 사는 이기순씨 등이 남편과 함께 징용을 갔다 왔으며 이분들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였다.

필자는 3·1운동 당시 동포들에 의하여 처단된 노구찌 순사부장의 흔적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제측 기록에 따르면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동단 사강경찰관주재소로부터 동방 약 63간(1간은 1.818m)(인가로부터 23간) 남양에 이르는 도로변 밭(사강리 姜業同소유)”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곳의 위치는 현재 송산파출소 방향이나 건물들이 모두 들어서 있어서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 어려울 듯하였다.

면사무소 뒷산인 송산초등학교 운동장 쪽에서 홍면옥 등이 중심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를 기념하여 현재 송산초등학교 뒷

문 운동장에는 이 지역의 3·1운동을 기념하는 <3·1독립운동기념비>가 서 있었다.

## 2) 송산면 만세운동의 집결지 사강장터와 만세유적지

10월 3일 개천절에 사강유적지 제2차 답사에 나섰다. 지난번 답사에서 만세운동의 중심지인 사강장터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만세운동 시 불탄 고포리, 마산리, 관현동, 장문동, 양지촌, 대정동, 용포리, 문산동 등을 답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남양을 지나 고개를 넘어 사강으로 향하였다. 봉가칼국수 집에서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사강장터를 확인하기 위해 나섰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사강장은 현재는 수퍼마켓 등 상시로 서 있는 가게 때문에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2일, 7일장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일단 송산 농협 맞은편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강장터를 확인하였다. 구 송산면사무소 아래부터 그 아래 동네까지 전체적으로 장이 섰다고 한다. 그리고 송산파출소 맞은편 쪽으로는 소시장이 있었다고 알려 주었다. 이곳에서 1919년 3월 28일 장을 보러온 주민들이 약 1000명(일부 5~600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당시 사강지역 거주 호수가 120호인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웃주민들이 만세에 참여했는가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때문에 일제는 마도면의 두곡리, 중간리, 해문리, 금당리, 소곡리, 백곡리, 송산면의 고포리, 마산리, 관현동, 장문동, 양지촌, 대정동, 문산동, 용포리, 봉가리, 삼촌리, 중송리, 육일리, 육교동, 일일리, 사강리, 서신면의 송교리, 궁평리, 대안동 광평리, 사곶리, 상안리, 지곡리, 전곡리, 칠곡리 등지를 방화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마산리, 관현동, 장문동, 봉가리, 중송리, 육교동, 사강리, 해문리, 중간리, 소곡리, 백곡리, 상안리, 칠곡리, 전곡리, 지곡리, 육일리, 소곡리 등에서는 주민들도 체포해 갔던 것이다.

사강장터를 뒤로 하고 송산중학교를 거쳐 우회전 하여 쌍정리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사강 3리(세갱이)가 나왔고 군부대가 나왔다. 군부대 못미처 사강 3리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로 내려가니 그곳은 쇠터마을이었다. 쇠터마을에서 마을안으로 1km 정도 들어가니 언덕이 나왔고 그 언덕을 지나니 양지촌 입구란 뜻말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양지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절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이 당시 양지촌 일대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왔다. 양지촌은 말 그대로 햇볕이 따뜻하게 드는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 현재는 100여 호 정도 살고 있다고 한다. 양지촌에서 나오니 사강리에서 독지리로 향하는 길로 도로포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사강리에서 가까운 이 마을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사강 3리 입구로 다시 나와 길을 계속 가니 쌍정 2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입구에는 대정이란 표시도 함께 있었다. 쌍정은 명칭 상 두개의 우물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정'은 큰 우물이 있던 곳으로 생각되었다. 이 마을 출신으로 송산면사무소에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응춘선생님은 지금도 큰 우물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대정을 지나 계속 가니 고정리가 나타났다. 이 지역은 쌍정, 고정 등 우물 정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고정초등학교를 지나니 독정리 공룡알유적지 안내판이 나타났다. 안내판을 따라 가보니 시화호 단지가 나타났고 200미터 정도 더가니 유적지가 나타났다. 청원경찰인 홍 선생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유적지를 살펴보았는데 공룡알 화석이 있는 곳은 모래로 이루어진 바위들 위에 남아 있었다.

홍선생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은 대부분 많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는 사강이란 지명 역시 이에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였다. 멀리 용포리가 보였다. 그는 서신면 흥법리 출신이라고 하며 젊은 시절 삼촌리, 용포리 쪽에 많은 염전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알려 주었다. 또한 용포리의 경우 큰 호수 같은 것이 있어 염전이 더욱 발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었다.

공룡화석지를 뒤로 하고 용포리로 향하였다. 고정초등학교 못미처 좌회전을 하니 용포리로 가는 길이었다. 가는 길목마다 포도가 많이 열려 있었다. 주민들의 말을 들으니 토질도 좋고 바닷바람도 불어 포도가 맛이 있다고 한다. 포도밭에서 포도 10kg을 구입하였다. 시중 가격 2만 5천원인데 2만원에 해주었다. 포도밭 주인인 노선생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향토사랑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용포리를 지나 면사무소 방향으로 향하였다. 바로 문산동(현재 삼촌 1리)이었다. 문산동에서 매봉산을 지나 직진하니 바로 송산농협이 나왔다. 그때서야 필자는 사강만세 운동시 문산동, 용포리, 대정동, 양지촌 분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다시 송산농협에서 송산초등학교 뒷문을 거쳐 직진하여 중송리, 마산리, 고포리로 향하였다. 가는 길목마다 포도축제를 하고 있었다. 이 길을 따라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하였겠구나 하니 더욱 가슴 뭉클하였다. 중송리에서는 이규선이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만세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40년대까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41년 서대문감옥에서 옥사한 인물이었다.

중송리를 지나 마산 1리(갯마루)로 향하였다. 조금 못 미쳐 좌측으로 도로가 나 있었다. 바로 마산 1리 장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길을 따라 언덕너머로 가니 조그마한 마을이 나타났다. 바로 이 마을이 3·1운동에 참여한 장문이었다.

장문에서 다시 큰 길을 따라 내려오니 맛간 1리 갯마루였다.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진 이마을을 일제는 관현동이라고 불렀다. 현재는 마산 1리라고 부르고 있었다. 관현동에서 계속 길을 따라 가니 마산간 2리가 나타났고 큰 교회 역시 나타났다. 이곳 마산 2리에는 홍면옥, 홍효선 등과 3·1운동을 주도한 예종구가 살던 곳이었다. 이곳 마산 2리와 고포 2리에 예씨들이 주로 산다고 노인들을 입을 모아 말하였다. 예종구란 인물은 3·1운동이후 체포되지 않아 그 행적을 알 수 없다. 예씨 족보 등을 구하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고포리를 보고 다시 사강을 거쳐 남양으로 들어와 현대 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를 지나 석포 5리 방향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목마다 왕새우 안내판에 들어서 있었다. 석포 2리 못가 큰 둑이 나타났다. 이 둑이 바로 1918년부터 일제가 쌓았던 그 둑이었다. 이에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어 결국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둑 안으로 사람들이 낚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둑을 지나 석포 5리-박우물-주곡리를 지나 선창포구로 향하였다. 포구에는 칼국수, 회 등을 먹고 계, 왕새우를 사기 위해 온 객지인들로 야단법석이었다. 차도 주차할 곳이 없어 200미터 전방에 새워 놓고 걸어갔다. 이 선창포구는 마산포구, 고온리 포구 등과 함께 일제시대의 화성지역의 대표적인 포구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은 물이 들어오지 않아 황폐화되었으나 전갈, 왕새우 등 해물시장으로 번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계와 왕새우 각 1kg씩을 사서 흐뭇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왕새우에 맛있는 저녁을 들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막혀 주곡리-석포 6리-노하리-팔탄을 지나 의왕-과천 고속도

로, 안산 신갈 고속도로를 거쳐 용인 수지 안식처로 돌아왔다. 송산 고정리에서 산 맛있는 포도를 먹으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다.

### 3) 예종구의 아들 예문택씨와의 면담

예종구는 1919년 3월 28일 사강 지역 3·1운동 당시 홍효선, 홍면옥, 이규선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실체에 대하여 학계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하여 필자는 예종구란 인물에 대하여 추적하기로 하였다.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은 사강 만세운동 당시 홍면옥 등과 함께 송산면사무소 뒷 언덕에 일본순사들에 의하여 주도자로 체포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 주소지가 마산리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

송산면 사무소 백응춘은 현재도 마산 2리와 고포 2리 등에 예씨 등이 14대째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필자는 그곳을 방문하여 족보 등을 찾아보면 예종구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런 가운데 백선생이 친구인 예종길(48세, 오토바이점 경영)에게 문의하였더니 용케도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하여 행운을 얻게 되었다. 예종길을 통하여 예종구의 5째 아들인 예문택(1928년생)씨를 만나 면담을 하게 되었다.

예문택씨 택(마산 2리 185번지)은 사강에서 마산포구를 향하여 가다가 마산 2리(도말)의 마산교회 못미처 마산 2리(도말)입구 700m란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1km 정도 가다가 컨테이너 있는 곳에 좌회전하여 200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속칭 '도두물' 이란 곳이었다. 집안으로 들어서니 예문택씨와 그의 부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음은 예문택씨와의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예종구는 1897년 고포 2리의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마산 2리 176번지로 이사하였다. 마산리로 이주한 그는 주로 한문공부를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농사일을 할 줄 몰랐으며, 주변의 공부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렸는데 그들이 홍면옥 등이었다고 한다.

1919년 3·1운동 당시 20년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그는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후 해방 후 인천시 경찰청장을 지낸 지화 1리의 정수일의 집 다락에 피신하였다. 정수일의 모친은 조사를 나온 일본군을 속이는 기지를 발휘하

여 예종구를 안전하게 피신시켰다. 이러한 연유로 예종구 집안과 정수일 집안은 각 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다시 예종구는 마산리의 안성열의 도움으로 밤에 마산포 앞에 있는 풍도로 배를 타고 피신하였다. 그 후 처인 홍선행의 집이 있는 대부도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어도와 형도의 조수가 빠졌을 때 물이 허리춤에 차는 것을 이용하여 가끔 마산리에 들리기도 하였다. 이때 그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산리 이수석의 집 건너 방에 숨어 있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때인 1919년 4월 일본군은 예종구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 분풀이로 마산리 176번지 그의 집을 전체 소각하였다고 한다. 이때 조선인 순사가 앞으로 예종구를 볼 낯이 없다고 하며 장롱, 먹을 것 등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고 한다. 지금 현재도 이곳은 밭으로 변해 있다. 이때 집에 불타자 예종구 집안은 마산리 185번지에 새로이 집을 짓고 현재까지 살고 있다.

결국 예종구는 배를 타고 인천으로 피신하였다가 그 후 일경에 체포되었다. 투옥 중 고초를 겪다가 그의 부인이 3,000평의 논을 팔아 일본 경찰에 제공함으로써 석방될 수 있었다. 석방된 후 그는 인천에서 선교사인 아펜젤러 등이 활동한 영화소 학교에서 교사로서 일하였다. 그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집 앞에 간이소학교를 만들어 학생들 교육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당시 간이소학교 자리가 현재에도 집 앞에 남아 있었다.

마산리로 돌아온 그는 다시 사강으로 나가 그곳에서 여관, 대서소, 양약방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그는 농사일을 할 줄 몰랐으므로 대서업 등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사강리에서 그는 주로 송산면 육일리에서 살고 있는 홍면옥과 교류를 가졌다. 그러나 그는 요시찰 인물로서 행동이 상당히 제약되었다.

해방이 되자 예종구는 치안대장이 된 홍면옥과 함께 치안대에서 활동하며 송산면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당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들의 위세는 대단하였던 것 같다. 한편 해방 이후 김구선생이 국내로 귀국하자 예종구는 홍면옥과 함께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국독립당의 통일노선에 반대한 사람들은 예종구 등을 공산주의자로 지목하여 이념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결국 홍면옥과 예종구는 수원경찰서에 사상범으로 수시로 불리어 다녔으며, 홍면옥은 월북의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예종구는 6.25전쟁 당시인 1950년 수원경찰에 의해 광교산에서

처형되었다. 예종구의 묘는 현재 예문택의 집 뒷산에 있다.

결국 3·1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예종구는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어 처형을 당하였다. 그 결과 송산초등학교 교내에 설치된 사강 3·1운동 기념비에도 홍면옥과 예종구의 이름은 기록되지 못하였으며, 역사의 뒤편에 묻히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 예문택의 집에는 예종구 부부의 사진과 예종구가 새긴 현판 2점이 보관되어 있다.

#### 4) 홍면옥의 손자 홍광유씨를 찾아

2002년 11월 23일 오전 송산지역 3·1운동을 주도한 홍면옥의 손자를 찾아 사강 3리로 향하였다. 사강 3리는 정도리와 함께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옛날부터 세깁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사강리 옛길에 위치하고 있는 송산중학교를 지나 쌍정리 방향으로 향하니 시화자동차공장이 보이고 이어 멀리 파란 양철지붕집이 보였다. 주소는 사강 3리 4번지였다. 바로 홍면옥의 손자 홍광유씨가 사는 곳이다.

홍광유씨는 찾아뵙겠다는 필자의 연락을 받고 이미 대문 앞에 나와 계셨다. 얼굴을 보니 사진에서 본 홍면옥씨와 아주 유사하여 후손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홍면옥선생을 만난 것 같아 기쁜 마음 누를 수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우선 큰 절을 올리고 선생님 자신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본인은 1934년생이라고 밝혔다. 남양에서 출생하여 살다가 해방 전에 사강 3리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씨는 할아버지가 남양 송림 1리 정씨마을 출신인 정봉래씨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다고 한다. 그중 첫째가 홍수봉, 둘째가 홍수성이라고 한다. 홍수봉은 홍현유를 두었고, 홍수성은 홍관유와 자신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홍면옥은 감옥에서 출옥한 후 엽일여(1921년생, 비봉 벼들무지, 화성시 비봉면 육포리)와 결혼하였으며 그 사이에 홍진후(1936년생)를 두었다고 한다. 엽일여는 1948년 홍면옥이 행방불명 된 이후 다시 시집을 가 3남 1녀를 두었고, 현재 송산면 육일리 69번지에서 중풍으로 고생하며 살고 있다.

11월 25일 오전 9시경 사강리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난 길을 따라 송산면 육일리로 향하였다. 이곳 마을에서는 육도리라고 불리고 있었다. 산을 배경으로 집들이 여러채 들어서 있었다. 길 가던 노인에게 홍면옥씨를 알고 있는 가고 물으니 오래

전 이야기라고 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노인은 이웃 칠곡리에 산다고 하며, 홍면옥이 해방 전에 강습소를 열었으며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지금 주유소 뒤편에 있는 성원사 옆에 가서 나이드는 노인들에게 물으면 누구나 다 안다고 일러주었다. 주유소 뒤를 따라 5분쯤 올라가니 폐허화된 사찰 성원사가 있었다. 그 옆집에서(육일리 69번지) 홍면옥의 3번째 부인 엽일녀의 남동생 부인인 김옥분(현재 74세)을 만났다. 그녀는 홍면옥이 해방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엽일녀는 현재 생존해 있으나 중풍으로 고생하며 제 정신이 아니라며 한사코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녀는 엽일녀는 어려서 부친이 작고하셨고 그런 연유로 나이 차이가 많은 홍면옥에게 시집갔다고 일러 주었다. 그녀의 고향 비봉 버들무지는 조그마한 어촌이며 배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한다.

### 5) 송산면 매봉산에 묻혀 있는 독립운동가 홍남후, 홍열후, 홍관후 3형제의 묘소를 찾아

송산종합고등학교에서 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길 선생님을 만났다. 매봉산 약수터 근처에 3·1운동에 참여한 홍씨 3형제의 묘소가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 3형제는 남양홍씨 참의공파이며, 송산면 삼존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홍남후, 홍관후는 각각 감옥살이를 하며 고생하였다.

송산면사무소를 지나 용포리 당산교회 방향으로 향하다 매봉산 뒤 끝에서 우회전을 하여 들어갔다. 얼마안가 차를 세우고 산속으로 50미터 정도 들어가니 약수터가 나타났다. 그곳에서 멀리 산중턱을 바라보니 잘 가꾸어진 묘소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종길 선생은 바로 그곳이 3·1운동에 참여한 3형제의 묘소라고 알려주었다.

홍남후(1873~1927), 홍열후(1878~1958), 홍관후(1891~1971) 등의 묘소가 있었다. 홍남후는 동몽교관으로 되어 있고 아들은 홍병유라고 되어 있다. 홍열후는 병유, 민유, 광유 세아들을 두었으며, 첫째는 홍남후에게 출계하였다. 홍관후는 중유, 세유 등 두 아들을 두었다.

묘소 앞에는 <남양홍씨 3형제 3·1운동비>라고 적혀 있었다. 그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南陽洪氏三兄弟三一運動紀功碑

水原郡 松山面 三尊里의 南陽 洪氏 諱 南厚(1873~1927) 諱 說厚(1878~1958), 諱 寬厚(1891~1971)의 三兄弟는 始祖 諱 先幸의 23代孫으로 考는 諱, 祖는 諱 始進 祖는 諱 龜命 高祖는 諱 喜相이며 10代祖가 號 鹿門으로 詩名이 一世에 높았던 弘門館 副提學 諱 慶臣이다. 이 洪氏는 代代로 이어온 文翰과 祖 諱 始進이 일으킨 家産으로 郡内外에 名門의 稱이 자못 높았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一九一〇년에 日本과의 合邦의 恥辱을 겪었고 이어 一九一九年 三月一日에는 三一獨立運動이 熾烈하게 일어났다. 이 萬歲運動은 同月 二六日에 이곳 松山面에 波及되었고 二八日 沙江장날에는 絶頂을 이루어 千餘名의 示威群衆이 沙江場과 周邊野山에 雲集하여 獨立萬歲를 高唱하여 氣勢를 올렸다. 이때 日警의 巡查部長 野口廣三이 主導者 洪冕玉을 拳銃으로 쏘아 어깨에 貫通傷을 입혀서 쓰러지게 하자 이에 激憤한 群衆은 一齊히 일어나 野口에게 投石하여 그를 죽게 하였다. 이것이 世稱 沙江里事件이다.

이로 因하여 洪氏 三兄弟도 同志들과 같이 主動者로 逮捕 連行되어 長期에 걸쳐서 갖은 惡 毒한 拷問을 받았으며 드디어 三兄弟中 伯氏와 季氏는 洪冕玉等 諸氏와 더불어 總三二人이 起詐되었고 一九二〇年 四月七日 京城地方法院에서 七年刑의 判決을 받았다. 이어 이중 二二명の上訴에 의한 同年 五月三十一日의 京城覆審法院의 判決에서도 七年刑을 받았고 다시 一九名에 의한 上訴는 同年 七月五日에 高等法院으로부터 棄却되어 七年刑이 確定되고 兄弟가 다같이 京城監獄에 收監되었다. 仲氏는 惡辣한 拷問에 頑強히 抵抗했고 또 有利한 證言이 있었으나 拘束된 翌年에야 비로소 放免되었다.

이를 朝鮮獨立運動 二十年史에는 九個月의 刑을 받았다고 記錄했다. 伯氏는 긴 七年刑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病으로 保釋되었으나 이미 白髮의 衰弱한 몸으로 出獄後 二年만에 卒하였다. 季氏는 韓龍雲 李昇薰의 諸氏와 同房에서 獄苦를 달래기도 했으나 결국 刑期를 다 채우고 나서 어린 男妹에게로 돌아와 긴 餘生을 極貧에 시달리다 돌아가셨다. 三兄弟가 逮捕되어 갔을 때 伯氏의 子子이며 仲氏의 生長子인 諱 昞裕는 겨우 三一歲의 나이로 堂內의 生計와 三兄弟분의 獄마라지를 위하여 京郷間을 東奔西走해야 했고 仲氏의 次子 諱 旼裕는 나이 一八歲였으나 곧 病死했고 季氏의 子 鍾裕는 겨우 九歲로 母親마저 死別했던 몸을 伯母에게 依托해야 했으니 이 三兄弟의 拘禁과 服役이 실로 洪氏一家에 얼마나 큰 打擊이였는가는 可히 想像하고도 남음이 있다. 諱 昞裕는 이 事件에 썼던 出財를 恢復하고자 事業에 손뎠으나 成功을 못하고 병

들어 부추하였다. 참으로三一運動에서 三兄弟분 自身이 받았던 苦楚와 그 遺族이 치른 犠牲은 너무도 컸다.

그러나 哀痛의 歲月이 흐르는 동안에 長孫 思憲은 苦鬪 끝에 다시 家産을 일으켜서 門中을 收拾하였고 三兄弟분의 墓所도 나란히 同岡에 모시었다. 仲氏의 宅 子孫의 事業도 날로 順坦하며 季氏宅 또한 逆境속에서도 復興의 曙光이 비치고 있으니 이 어찌 三兄弟분의 蔭德의 所致가 아니겠는가. 이에三一運動에서의 三兄弟분의 愛國의 功을 記錄하고 아울러 遺族이 겪었던 苦難의 一端을 傳하노니 後孫들은 길이 이를 矜持로서 記憶하고 祖上을 追仰하며 家內的 和睦에 힘써서 洪氏一家의 永遠한 繁榮을 期할지이다.

一九九〇年 一〇月 二五日

甥姪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俞景老 謹撰

仲氏三子 韓榮文化社 代表 光裕 謹書

한 명도 아닌 3형제가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니 대단한 명문가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석에는 그들의 집안 내력에 대하여 자세히 적혀 있었다. 3형제는 시조 선행의 23대손으로 아버지는 근, 할아버지는 시진, 증조할아버지는 구명, 고조는 희상이며, 10대조가 호 녹문으로 시명이 일세에 높았던 흥문관 부제학 경신이다. 경신의 무덤은 바로 흥씨 3형제 묘소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흥씨집안은 대대로 이어온 문학과 할아버지 시진이 일으킨 가산으로 군 내외에서 명문으로 일컬어졌다고 한다.

3·1운동에 참여한 이들 3형제 중 남후와 관후는 7년형을 확정 받았으며, 둘째인 열후는 구속된 다음해 방면되었다. 흥남후는 7년형이 다 끝날 무렵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 후 그는 어린 남매에게 돌아와 긴 여생을 가난에 시달리다가 고생하다 사망하였다고 한다.

3형제가 체포되어 갔을 때 흥남후의 양자 흥열후의 큰 아들인 병유는 겨우 21세의 나이로 가계와 3형제의 옥바라지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그리고 사업을 통하여 가세를 만회하려다 병들어 일찍 사망하였다. 흥열후의 둘째 아들인 민유는 18세에 병사하였고, 흥관후의 아들 중유는 겨우 9살에 어머니를 잃고 큰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다.

명문가 한 집안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겪은 비애를 보는 듯하여 더욱 가슴

아팠다.

## 6) 송산 3·1운동 주동자 왕광연선생댁을 찾아

2002년 11월 23일 송사면 사강 1리 605번지에 살고 있는 3·1운동의 중심인물인 왕광연의 며느리 이남순(1919. 11. 10일생, 송산면 고포리 어도출생)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댁은 송산면 구길을 따라 송산농협을 지나 문화서림 옆집에 위치하고 있었다. 집 입구는 초라하였지만 <유공자의 집>이라는 문패가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니 할머니와 두 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할머니는 9남매를 낳았는데, 5남 1녀만 살았다고 한다. 오늘 마침 서울에서 큰 아들인 왕의명(1941년생)이 와 있었으며, 3자인 왕의항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1919년생이며 중풍을 앓은지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나 기억력이 좋아 면담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할머니는 어려서 1935년에 왕광연의 외아들인 왕화식(1914~1998)에게 시집왔다고 한다. 당시 시집왔을 때는 시아버지인 왕광연이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다고 한다. 왕광연은 1920년에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으니 출옥한지 몇 해 안되어 아들을 결혼시킨 것 같다. 할머니에 따르면 왕씨들은 신천 가는 길에 있는 동구리에 주로 살고 있으며 현재에도 그렇다고 한다. 왕광연의 경우 분가하여 현재 사강 2리인 아랫 정도리로 이사 나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3·1운동 당시에도 정도리에 살았으며, 1970년경에 왕화식이 자식들의 학업을 위하여 현재의 집으로 이사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왕광연이 살던 집터(사강리 523번지)는 1919년 4월 일본 군대가 들어와 집을 모두 태워 버렸으며, 정도리의 경우 아래 위 할 것 없이 구장(현재의 이장) 집만을 제외하고 모두 불태웠다고 한다. 집을 잃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못해 서신면 전곡리 은쟁이 마을에 살고 있던 500석 지기의 부자인 흥헌씨가 자신의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 집을 짓도록 도와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현재 전곡 2리에는 흥헌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비가 서 있다.

할머니의 집에는 왕광연 지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거의 말년에 찍은 사진으로 보이니(71세시) 그 단정함과 엄격함, 도도함이 바로 드러나 보이는 듯하였다. 할머니에 따르면 왕광연은 직접 농사에 종사하지 않았다. 특히 재미있는 사실은 왕광연

이 3·1운동의 중심인물인 홍면옥의 고모부라는 사실이다. 왕광연의 부인(홍선희)은 홍면옥의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던 것이다. 특히 홍면옥은 고모를 잘 따랐다고 하며, 1945년 이후 해방불명되기 전에 고모에게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한다. 할머니는 당시 홍면옥이 짚신과 붓집을 지고 와서 인사를 하고 새벽녘에 떠나갔다고 알려 주었다. 홍면옥이 살던 집터는 현재 아래 정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광연씨 집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혈연 및 인접관계로 홍면옥과 왕광연이 힘을 합쳐 만세운동에 나섰던 것이 아닌가 짐작되었다. 할머니는 또한 홍면옥의 집안은 송산면에서 세도가였다고 알려주었다. 그의 부친이 조선 후기 벼슬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남양홍씨세보』를 찾아보니 그의 부친과 조부 역시 무과에 급제한 인물들이었다.

왕광연의 손자들과 함께 정도리에 있는 왕광연과 홍면옥의 집(후에는 홍면옥의 동생인 홍준옥이 살았음)을 찾아 나섰다. 먼저 사강 4리 경로당 길을 따라 나섰다. 옛날의 면사무소 자리였다. 왕의항씨에 따르면 현재 그곳의 주차장 화장실 자리에 일본 주재소가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송산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언덕을 끼고 길이 있었다고 알려 주었다. 그 길에는 지금 담장이 들어서 있으며 길의 모습은 확연히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송산초등학교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었으며, 초등학교 뒷문 쪽으로 일본식 간이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재소 터에서 5분 정도 이동하니 정도리가 나타났다. 이곳은 예로부터 문씨와 홍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안으로 들어서니 계곡이 깊고 집들이 많아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큰 길에서 테니스 코트를 지나 한집 건너에 밭이 나타났다. 이곳이 과거 왕광연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시 길을 지나 위로 5분쯤 걸어 올라가니 기와집이 나타났다. 그곳이 바로 홍면옥이 살던 집터라고 한다. 오직 두세 그루의 고목만이 옛 일을 기억하게 하고 있었다.

### 7) 서신면 전곡리 은쟁이 마을

오늘은 송산종합고등학교와 서신중학교에서 송산지역의 3·1운동에 대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날이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홍면옥이 1930~40년대에 살던 육도리와 3·1운동시 피해를 입었던 칠곡리, 전곡리 등을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사강을 지나 대부도로 향하는 길목에 육도리 입구라는 이정표가 서 있었다. 조금 지나가니 노인이 있어 육도리의 중심지역과 해방전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홍면옥씨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영감님은 칠곡리에 살고 있다고 하며 위치를 알려 주었다. 홍면옥이 강습소를 하던 집은 사라지고 현재는 그의 부인 염일녀가 살고 있는 단정한 집 한 채가 우뚝 서있었다.

육도리를 뒤로 하고 칠곡리로 향하였다. 칠곡리에서는 경운기를 몰고 가는 최철희(1934년생, 칠곡리 거주)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씨는 자신이 최항의 19대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곳에 최씨들이 10여호 살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는 전곡 2리 은쟁이 마을에 사는 홍현씨가 자신의 뒷산 나무를 베어 불탄 정도리 마을에 집을 짓도록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전곡 2리의 홍성유가 3·1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그 후 약간 다른 길로 갔다가 6.25사변시 좌익들에게 총살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곡 은쟁이에서 일명 <비둘기쌈님>으로 알려진 사람이 일본군이 출동하자 구봉산으로 도망하다 일본군에 의해 총살당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은쟁이 마을 홍영유씨에게 문의하라고 알려 주었다.

은쟁이 마을은 전곡 2리를 지나 큰 길에서 1km 정도 안으로 들어가니 나타났다. 구봉산 밑에 안정된 조그마한 농촌 촌락이었다. 은쟁이 마을에서 나와 대부도 길로 조금 가니 언덕위에 홍현선생 불망비가 위치하고 있었다.

### 8) 마도면 답사

마도면 답사에 나섰다. 마도(麻道)라는 이름은 중국과 해상을 통해 무역이 활발하던 조선초에 중국 사신이 마옷(삼베옷)을 입고 해문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다녔다하여 마도로 불려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필자는 3·1운동 당시 불탄 금당 2리, 금당 1리(소고지), 중간리(해문 2리), 해문 1리, 백곡 2리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금당리로 향하였다. 이곳은 고려 때부터 마을에 부자가 많고 집을 호화롭게 짓고 살던 곳이라 하여 금당리(錦堂里)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남양에 도착하여 쌍송방향으로 향하였다. 청원리를 지나 언덕을 내려가니 좌측 언덕에 금당 2리라는 마을 표시가 나왔다.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도로를 따라 산을

넘어가니 넓은 들이 나오고 마을들이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금당 2리였다. 금당곡, 대촌 등의 자연부락이 전개되었다. 일본군이 이곳에 출동하여 마을을 불살랐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장소가 어딘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일본군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집을 중심으로 불을 지를 것으로 보아 이곳 역시 그렇지 않을까 추정되었다.

금당 2리에서 다시 큰 도로로 나오니 맞은 편에 금당1리 소고지란 마을 표식이 나왔다. 금당 1리는 행정지명이고, 소고지는 자연부락명이다. 넓은 들판을 앞에 두고 산아래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 역시 만세운동의 근거지 가운데 하나였다.

다음에는 해문리로 향하였다. 이곳은 조선조 중엽 동네 어구 산간지대를 배편으로 출입했다고 하여 해문동(海門洞)으로 불리다가 1956년 8월 30일 해문리(海門里)로 되었다. 소고지를 가로 질러 마을 언덕을 넘어가니 별판과 역시 4~5채의 집이 나타났다. 좌측으로는 해문 역골 입구란 이정표가 있었다. 바로 중간리였다. 중간리 언덕을 넘어 가니 그곳에는 해문 2리 마을회관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 역시 중간리 마을이었다. 해문리와 금당리 사이라 중간리라고 한다고 한다. 중간리의 넓은 별판을 지나 송산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니 도로 우측편으로 마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바로 해문 1리라고 한다. 해문 1리를 따라 언덕을 넘으니 바로 송산면 봉가리였다. 바로 일본 군대가 송산-해문 1리-해문 2리(중간리)-금당 1리(소고지)-금당 2리로 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금당 1리(소고지)로 나와 서신 방향으로 향하여 고개를 넘어내려가니 좌측으로 백곡 2리, 고모리란 이정표가 나왔다. 백곡리는 마을을 둘러싼 청명산 줄기에 크고 작은 골짜기가 99개나 되어 1백개에서 1개가 모자라 일백 백(百)에서 한 획을 뺀 흰 백(白)자를 써서 백곡리(白谷里)로 불렀다고 한다. 이정표를 따라 10분 정도 차를 모니 마을과 큰 별판이 나타났다. 입피골이었다. 마을에는 제법 오래된 집들이 여러채 보였다. 이곳에는 보기 드문 큰 별판이었다. 들판 멀리에 웃고모, 아랫고모 등의 마을이 황금빛 물결들 뒤에 보였다. 고모리는 마을 지형이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를 돌아보는 형국이라 하여 고모리(顧母里)로 불려 오다가 1962년 12월 12일 행정구역 개편 때 고모리(古母里)로 개칭되었다. 산 속에 아득히 자리잡고 있는 백곡 2리를 바라보면서 3·1운동 당시의 일본군의 무자비한 탄압과 행진 모습을 보는 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었다.

## 9) 마도면 답사 2

마도면의 독립운동사적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마도면으로 향하였다. 남양에서 과거에는 남양향교를 지나 산길로 해서 마도면 두곡리 등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또는 남양에서 은장을 지나 고개를 넘어 두곡리로 향하였다고도 한다. 과거에는 이길로 버스가 다니었다고 한다. 우선 남양에서 쌍송리 방향으로 들어서니 우측으로는 은장가는 길이었고, 좌측으로는 신남리로 가는 길이였다. 신남리 역시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마을이었다. 이곳은 남양지역에 속하는 곳으로 현재 신남 몇리가 당시 신남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신남리에서 나와 다시 서신방면으로 향하였다. 청원리 등 책에서 본 이름들이 나타났다. 이어서 계속가니 금당 1리(소곡)이라는 표시가 보였다. 이 마을 역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마을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바라보니 벼가 무르익은 들판 뒤로 산을 배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해문리 방향으로 가는 곳에 중간리(해문 2리)가 있다고 한다. 마을 호수는 3~4호 정도라고 하는데 이곳 역시 만세운동 근거지였다. 금당리는 현재 금당 1리와 2리로 형성되어 있었다. 마도면장을 하신 이학성의 증언에 따르면 금당 2리가 큰 마을이며, 오랜된 마을이라고 알려 주었다. 아울러 백곡리의 경우도 2리가 오랜된 마을임을 알려주었다. 바로 이들 마을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길을 따라 서신방향으로 가니 마도면사무소 방향의 이정표가 있었다. 그곳을 따라 가니 석교리가 나타났고, 옆전이었던 곳 위에 마도면 사무소가 있었다. 그곳을 방문하여 총무를 담당하는 경선생님으로부터 면의 현황에 대하여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 10) 남양초등학교

수원군 연구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남양초등학교 100년사(『남양백년사』(1898~1998), 1998)를 구하고자 화성시 남양동 소재 남양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남양초등학교는 1898년 10월 1일 남양군에 의하여 남양도호부 집사청을 차용하여 설립, 개교된 이 지역의 가장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학교이다. 1913년 남양도호부 시절 오위장을 지낸 박용현 공의 도움으로 1913년 4월 27일 음력면 남

양리 1165번지(현 남양시장터)에서 독립된 교사 낙성식을 가졌다. 그리고 1939년에는 신외리 거부 박창원씨의 도움으로 붉은 벽돌 2층 교사를 지어 1939년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이 학교는 특히 1913년 4월 오산공립보통학교(현재 성호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남양반도는 물론 발안반도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하던 화성 지역의 유일한 학교였다.

남양초등학교는 남양에서 송산으로 가는 대로 4거리에서 좌회전하여 3분 정도 이동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학교 정문 좌측에는 오래된 고목이 서 있어 이곳이 오랜 역사를 지닌 곳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학교는 1998년에 재건축하여 신철학교처럼 잘 단정되어 있었고, 학교 내부 시설도 아주 최신 설비로 이루어져 있어 자못 놀랐다.

일단 2층 교무실로 가 이동하 교감선생님을 찾아 뵙고 학교의 역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들었다. 백 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로서 선생님의 자부심도 대단하였다. 특히 이 학교에는 학교 사료전시실이 설치되어 있어 한눈에 학교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남양초등학교 동문 및 선생님들의 역사의식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역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방문하여 보았지만 자체적으로 사료관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는 거의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역사적 전통이 있는 발안지역의 한 학교에서 자료가 거의 소실된 것을 확인한 필자로서는 더욱 감동스러웠다. 앞으로 화성 관내의 여러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 학교의 역사의식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사료관에는 해방이후 것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의 학교관련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어 필자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1913년도의 목조단층교사, 1940년의 붉은 벽돌 2층교사 등 교사의 모습, 1935년도, 1939년도, 1943년도 교직원 사진, 1912년 제5회, 1935년 제25회, 1939년 제29회, 1942년 제32회 졸업생 사진, 1935년 여학생들의 일본어 수업광경, 1942년의 여학생들의 산술수업광경, 1935년의 마스게임, 1942년의 꾸미기 체조운동회 사진, 1939년의 서호 저수지 단체 소풍 사진, 1942년 학예회 사진(소녀의 기도), 1927년 남양공립보통학교 졸업장, 1940년 남양공립심상소학교 졸업장, 1945년의 남양공립국민학교 졸업장 및 상장, 통지표 등 다양한 자료 등은 남양지역의 식민지시대 교육사의 이해에 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 100년사의 올바른 이해에 중요한 생생한 자료들이었다.

## 11) 남양교회, 남양주재소, 면사무소

남양초등학교 정문을 나서니 큰 길 좌우로 남양파출소, 보훈회관, 남양교회 등 주요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바로 이 길이 과거 남양의 중심거리였다. 그러나 노인들의 사랑방으로 이용되는 풍화당만이 옛 이름을 간직하고 있었다.

우선 3·1운동 당시 33인 가운데 한 분으로서 활동하신 이필주목사가 목회활동을 하였던 남양교회를 찾아 나섰다. 교회 입구에는 <고이필주목사기념비> 2개가 서 있어 이곳이 남양지역의 기독교 전파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감리교회임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교회에 들어가 목사님을 만나 교회관련 자료에 관하여 문의를 하니 지난번 목사님께서 가지고 가 이곳에는 현재 보관중인 자료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화성일대의 기독교 전교 및 이필주, 김교철 목사등의 민족운동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들일 터인데 하는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남양파출소로 향하였다.

3·1운동 당시 사강 지역의 만세운동을 진압한 곳이 남양주재소였고, 남양지역의 일제 통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곳이었으므로 방문하고 싶었다. 파출소는 옛 모습은 없고 새로이 단장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주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옛날 주재소가 있던 위치 그대로라고 알려 주었다.

파출소에서는 우정 조암출신의 유영섭씨가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다. 일단 일제시대 주재소의 구조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다. 그는 화성지역에서 25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였다며 그림을 그려가며 구조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계단을 올라가면 문이 있으며, 문의 상단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좌우 벽면의 경우는 하단은 나무로, 상단은 유리창과 회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화장실의 구조에 대하여도 설명해주면서, 남양에 거주하고 있는 조흥만씨가 원로 경찰이므로 자문을 구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또한 과거 남양에서 사강으로 가는 길은 산이 전면에 높이 솟아 있으므로 현재 마도면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쌍송리로 다녔다. 마도면은 갯벌이기 때문에 현재도 연약지반으로 교통안내가 있다. 사강은 사실상 과거에는 섬과 마찬가지로, 남양의 경우도 남양천까지 배가 들어왔음을 알려주었다. 남양을 지나다 보면 큰 배오양의 음식점이 있어 평소 이상하게 생각하던 필자의 의혹은 이로서 풀리게 되었다.

또한 그는 과거 인천-대부도-마산포-고온리-당진 등으로 인천에서 왕경호가 운행되어 뱃길이 발달되어 있었다. 인천에서 대부도까지는 1시간 30분, 대부도에서 마산포까지는 30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대부도, 마산포 일대의 경우 생활권이 인천이나 안산 등과 연결되어 있고, 수원 쪽보다는 인천, 당진 등 여러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사강지역의 경우 마산포가 중심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도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 송산지역의 이해에 있어서는 뱃길 등 해상 교통로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또한 우정면 조암 파출소를 부수고 신축할 당시 지하에 고문하던 방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며 일제의 잔악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남양파출소 옆에는 보훈회관 건물이 있었다. 이곳에 얼마 전까지 남양동사무소가 있었다고 한다. 과거 일제시대시 면민들을 괴롭히던 면사무소가 있던 곳이다.

남양도호부가 있던 옛 거리는 오늘날 새로이 조성된 길들의 영향으로 과거의 명성은 점차 퇴색해 가는 것 같았다.

## 맺음말

수원군 지역의 3·1운동은 1919년에 전개된 만세운동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상징되듯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도 일찍부터 이 지역의 3·1운동에 주목하여 제암리, 우정면, 장안면 등 다수 지역의 운동 상황 및 일제의 학살 전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화성지역에서 가장 먼저 전개된 송산면 지역에는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특별히 송산면 지역의 3·1운동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송산지역의 3·1운동은, 화성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인과 특히 농민주도의 운동으로서 폭력성을 띤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순사부장의 처단은 그 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정면, 장안면 등과 같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으로서 경제적으로는 부농, 중농, 자작 및 소작농 등 다양한 계층이, 연령별로는 10대부터 50대까지, 학력

으로는 한문, 신학문, 문맹 등 다양한 그룹이, 종교는 신앙하지 않는 인물들이 주로 참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원 송산일대 지역의 3·1운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답사와 후손들의 증언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자료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후손들의 경우도 아들 또는 손자들에 해당이 되어 일정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면담을 추진한 주요 인사로는 예문택(1928~ : 예종구의 5남), 이남순(1919~ : 왕광연의 며느리), 홍광유(1934~ : 홍면옥의 손자), 김삼순(민용운의 며느리)등을 들 수 있다.

주요 현장 답사지로는 송산면 사강리 만세운동의 현장인 사강장터, 일본 순사 노구찌를 처단한 곳, 송산면사무소 자리,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거주지였던 아랫 정도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만세운동가들의 집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상익, 예종구, 왕광연, 이규선, 홍관후, 홍남후, 홍면옥, 홍준옥, 홍효선 집터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문상익, 왕광연, 정군필, 홍남후, 홍관후, 김용준, 예종구, 민용운 묘소 등도 답사하였다.

## Abstract

### March 1st movement in Su Won district

– a field investigation in Song San and oral interviews with the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

Park Hwan (Suwon Univ.)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Suwon district was one of the most aggressive and the heaviest experienced destruction as can be seen from the slaughter at Jae Am-Ri on March 1st Movement. This is currently much discussed issue in the academic world and new scholarship is uncovering casuse of the massacres and the circumstances around the movement in Jae Am-Ri, Woo Jeong-myeon, Jang An-myeon, etc.

Though Song San-myeon was the location of the first protest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is fact. So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movement of Song San-myeon, 1919.

Song San was the source for the violent peasant led independent the entire HwaSeoung region. Important characteristic about the movement is that it included various classes raging from the reach, middle-class farmers and peasants, joined the movements to noneducated people, educated people and the atheists.

The paper is based on a field investigation and oral interviews with the descendants of local activists in order to study more deeply and than written documents can provide. However, the descendants could not giv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ir ancestors and their actions.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our interviews are Yea Moon-taek(1928~ : Yea Jong-gu's fifth son), Lee Nam-soon(1919~ : Wang

Kwang yeon's daughter-in-law), Hong kwang yoo(1934~ : Hong Myeon ok's grandchild), Kim Sam soon(Min Yong woon's daughter-in-law) and so on.

The main places we surveyed were Sagang Market, the center of the movement in SongSan-myeon Sagang-ri; the place where Noguchi, a Japanese policeman, was killed; site of SongSan-myeon office; and Jeongdo-ri where many independence activists lived at that time. In addition, we found many house sites for the independence activists, Moon Sang-ik, Yea Jong-gu, Wang kwang-yeon, Lee Gyu-sun, Hong kwan-hoo, Hong Nam-hoo, Hong Myeon-ok, Hong Jun-ok, Hong hyo-sun. We also went to survey the followings people's tombstones : Moon Sang-ik, Wang Kwang-yeon, Jeong Goon-pil, Hong Nam-hoo, Hong kwan -hoo, Kim Yong-jun, Yae Jong-goo and Min Yong-woon

Key-words : March 1st movement of SongSan-myeon, Hong Myeon-ok, Hong Jun-ok, Moon Sang-ik, Yae Jong-goo, Sagang Market

## 일제강점기 수원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한 동 민 (중앙대 강사)

머리말	1) 水原神社의 건립과 중창
1. 조선후기 한말 팔달산의 재발견	(1) 수원신사의 창건
1) 신읍지와 팔달산	(2) 수원신사의 확장
2) 성신사와 팔달산	(3) 팔달산의 민간인 불하
(1) 성신사의 건립과 의미	2) 팔달산의 공원화
(2) 기우제 설행처와 국가공인 사당	3) 일제강점기 팔달산의 상징 빼앗기
3) 한말 경부철도 노선과 팔달산	맺음말
2. 일제강점기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 머 리 말

한 도시를 상징하는 지형지물은 그 지역민의 일체감과 자부심의 원동력이다. 근대 도시공간학적 측면에서 한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Land Mark)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라도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등과 같이 한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은 도시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며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어떠한 시대를 보다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적 지향을 보여주는 상징물을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전통시대 鄕校와 祠堂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지향을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각지에 건립했던 神

社와 각종 기념비는 그 시대의 지향과 내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주요한 곳에는 기념비와 동상 등이 건립되어 있어 당대의 정치적 지향과 문화의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풍수지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조형물이 아닌 자연지형지물의 조화를 중시하는 보다 거시적인 지리학이었다. 이러한 자연관에 기초한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도읍과 관아의 터전을 잡았다. 따라서 이러한 명당은 풍수와 더불어 坐向과 고을의 主山의 확보를 중요하게 여겼다. 더욱이 산악숭배 신앙과 더불어 고을의 主山 혹은 鎮山에 대한 의미부여는 남다른 것이었다.

수원의 八達山은 1789년 수원 邑治를 花山에서 이곳 아래로 옮기면서 수원의 중심이자 상징이 되었다. 읍치 이전과 더불어 팔달산에는 鄉校와 社稷壇이 건립되는 등 수원읍치의 주요한 산이 되었다. 더욱이 1796년 화성 축성과 더불어 팔달산은 華城將臺가 위치하는 화성의 중핵적 위치가 되었고, 또한 화성을 지키는 성신을 모시는 城神祠가 위치하는 곳이 되었다. 이후 1800년 정조 죽음 후 정조의 사당인 華寧殿이 행궁 옆에 건립되면서 다시금 화령전의 주산이 되었다.

또한 지역에 가뭄이 들면 팔달산 성신사에서 祈雨祭를 지내는 享祀處로 활용되는 등 조선후기 이래 팔달산은 수원읍민을 지켜주는 수호신적인 위상과 더불어 수원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의한 한국강점 이후 팔달산에 神社와 일본군인기념비, 隔離病舍, 국기계양대, 그리고 팔달산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조선의 정신적 상징인 鄉校 위쪽으로 水原神社를 높게 세우면서 팔달산에 대한 조선인의 신성성과 상징성을 허무는 일을 자행하였고, 더욱이 일본인 군인인 古志소좌 기념비를 팔달산에 세우고, 일장기가 높이 펴터는 국기계양대를 팔달산 정상에 세움으로써 팔달산의 상징을 일본화하고 있다.

더욱이 八達山公園을 조성함으로써 팔달산을 일상적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팔달산에 대한 조선인의 이미지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따라서 화성축성 과정에서 팔달산에 세운 성신사에 대한 의미를 통해 전통적인 팔달산에 대한 관념을 살펴보고, 일제강점기 수원신사의 조성과정과 팔달산공원화 과정을 통해 팔달산의 의미 변화를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팔달산의 역사에 대하여는 정해득에 의해 잘 정리된 논문이 발표되었다.<sup>1)</sup> 즉 팔달산이 塔山-八呑山-八達山으로 바뀌는 사실과 신읍치 이전하기 전까지는 야산에 불과했던 팔달산이 신읍치의 주산이 되면서 그 권위를 이고(李臯, 1341~1420)와 太祖의 전설을 통해 팔달산으로 고정화되는 상황을 밝혀냈다. 또한 일제 시기 팔달산의 훼손과 공원 조성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팔달산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성신사의 건립 의의와 팔달산의 훼손과정에서 신사의 조성과정과 팔달산공원 과정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선후기 한말 팔달산의 재발견

### 1) 신읍치와 팔달산

팔달산은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팔달산 남동쪽 기슭에 4기가 서 있다. 이는 한강 유역의 선사 문화를 밝히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는 고인돌로 1991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125호로 지정되었다.<sup>2)</sup>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약 3만 기 정도가 남아 있다.

팔달산이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드날리게 되는 것은 화성 건설에 따른 것이다. 즉 1789년 수원의 읍치를 옮기면서 가장 먼저 鄉校를 부의 남쪽 3리, 팔달산 남쪽으로 옮겨 세웠다. 그리고 동시에 팔달산 서쪽 기슭에 社稷壇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직단은 1795년(정조 19) 城役 때 돌을 뜨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留守 趙心泰가 보고하여 府 북쪽 2리 광교산 서편 기슭으로 옮겨 세웠다.<sup>3)</sup> 따라서 수원읍치는 팔달산을 중심축으로 동·서·남쪽에 행궁·사직단·향교를 배치하였는데, 이는 左廟右社의 배치와는 다른 형태지만 팔달산의 지리적 특성과 옛 수원의 배치 양

1) 정해득, 「水原 八達山의 歷史」, 『水原文化史研究』 7, 2005.

2) 우장문, 「수원의 선사문화에 관한 고찰」, 『수원문화사연구』 2, 1998, 10~14쪽.

3) 『水原郡邑誌』와 『華城城役儀軌』에는 사직단의 울타리와 제단도 처음 옮겨 설치한 것이 많이 기울었음도 이유로 들었다. 『社稷壇』 『壇廟』, 『화성성역의궤』 부편 1, 경기문화재단, 2005, 672쪽.

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sup>4)</sup>

산이 둥그스름하게 높이 솟아서 성의 鎭山이 된 것은 팔달산이다. 팔달산 정상에 將臺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 보면 멀고 가까이에 산봉우리들이 둘러 있는 것이 마치 못 별들이 북극성을 옹호하고 있는 것과 같다.<sup>5)</sup>

따라서 팔달산은 수원읍치의 主山으로서 화성을 아우르는 華城將臺가 서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졌다. 즉 화성의 전체 局面은 동쪽을 향하여 열리었는데 팔달산이 높이 솟아 後鎭이 되어 있는 양상이 되었다.

화성성역 당시 중요한 시설물이었던 4대문과 2개의 장대 및 화성행궁의 중요한 건물들의 상량문에는 반드시 팔달산에 대한 언급과 칭송 및 자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sup>6)</sup> 이렇듯 화성의 주산으로 팔달산은 가장 중요한 樞要地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정조는 팔달산에 대한 소나무 등을 심어 보호하였고 이후 이러한 팔달산 송금정책은 지속되어 낙낙장송이 우거진 명산으로 수원의 자랑이 되었다. 화성건설 이후 대도회지가 된 수원읍민의 처지에서 팔달산은 남산(南山)으로 불리는 산이기도 했다.

화성이 조성이 되고 난 이후 화성의 절경을 꼽아 완상하는 것은 당대 사대부들의 풍류였다. 이는 옛부터 지역의 경승이 빼어난 곳을 뽑아 8경, 10경, 12경 등으로 부

4) 『水原府邑誌』에 따르면 옛 수원의 社稷壇은 府 서쪽 5리, 文廟는 처음 부 서쪽 3리에 있었으나 1661년(현종 2)에 부 남쪽 2리 禿岫山으로 옮겨 세웠다. 따라서 수원 신읍치의 社稷壇과 文廟의 배치는 옛 수원의 배치양식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5) 『華城紀蹟碑』 「碑文」, 『華城城役儀軌』 권2, 경기문화재단, 2005, 369쪽.

6) 장안문상량문과 화성문상량문, 동장대상량문과 창룡문상량문을 비롯하여 서장대상량문에는 “...저기 팔달산 바라보니 그 위는 천 명의 웅결이 앉을 만큼 길고, 양치(楊峙)의 먼 들이 아득하니 말 가고 소 오는 게 역력히 보이는구나...”, 화성문상량문에는 “...읍 다스리는 곳을 옮겨 팔달산을 등지게 하니 고기비늘이나 빗처럼 나란한 마을이요, 털고 더하여 삼군(三軍)의 명령을 다스리니 虎符와 金節이 휘황히 빛나누나...”, 신흥루상량문에는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아름다운 기운을 품고 팔달산 높은 봉우리에 와서 모여 새가 날개치듯 굉장한 규모로 집을 지으니 멀리 두 경계의 중요한 지점을 향하였네...”, 노래당상량문은 “...팔달산의 새로운 고을을 살펴보니 참으로 만년토록 그윽한 궁전 같구나...”, 강무당상량문에는 “...산은 팔달산에서 시작하여 나는 용과 춤추는 봉황이 모여 이 땅에 천년의 신비를 간직하여 신령스런 까마귀와 거북이가 조화를 이루었네...”, 복내당 상량문에는 “...팔달산이 높으니 검푸른 빛 가지런하고 주나라가 오래오래 이어감을 알았으니 곧 백성들이 함께 붙들어주고 잡아줄을 보는구나...” 등 팔달산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르며 완상했던 것과 관련된다. 이는 중국의 瀟湘8경 등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도 國都八詠, 漢城八詠, 한성10영, 남산8영, 마포팔경, 용산팔경, 지리산팔경, 단양팔경, 瀛州 12경 등으로 부르며 시인·묵객을 불러 모으는 명승지를 만들었다.

수원도 그 예에 따라서 이미 정조 당대에도 수원 春八景·秋八景을 꼽았다. 그 가운데 팔달산이 직접적으로 운위되지는 않았지만 『華城城役儀軌』의 춘·추 팔경 가운데에 추팔경에 서성의 매사냥과 화양루의 눈오는 감상이 팔달산과 관련되어 있다. 정조의 사랑을 받았던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도 팔달산과 관련하여 ‘閑亭品菊’ 과 ‘西城羽獵’ 의 그림이 남아있다.

정조의 고임을 받았던 魏伯珪(1727~1798)의 『存齋集』에는 ‘華城十詠’ 이 실려 있어 춘팔경·추팔경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sup>7)</sup>

춘·추 8경과 화성10경이 수원팔경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즉 ①광교적설(光教積雪) ②팔달청담(八達淸嵐) ③남제장류(南堤長柳) ④화산두견(花山杜鵑) ⑤북지상련(北池賞蓮) ⑥서호낙조(西湖落照) ⑦화홍관창(華虹觀漲) ⑧용지대월(龍池待月)이다.<sup>8)</sup>

언제부터 수원팔경이 현재의 형태로 정리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이미 수원8경의 용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sup>9)</sup>

따라서 정조 이후 조선후기 일정한 시기에 수원8경이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華城誌』 및 1899년 『水原郡邑誌』에 수원8경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말 혹은 일제강점기에 확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수원8경으로 정리된 이후 팔달산과 관련되어 ‘팔달청담(八達淸嵐)’ 이 주로 쓰였지만 ‘팔달제미(八達霽美)’ 도 함께 쓰였다.<sup>10)</sup> 수원8경의 8곳의 특정한 장소는 변함이 없지만 그를 설명하는 용어의 차이가 보이고 있을 뿐이다. 팔달산에 비 오고

7) 魏伯珪, 『存齋集』 권8, 詩, 1875년 간행.

8) 華虹觀漲, 龍池待月, 西湖落照, 八達淸嵐, 光教積雪, 華山躑躅, 南堤長柳, 北池賞蓮 등이 쓰였다. ‘시조 水原八景’, 『조선일보』, 1925. 12.18~12. 20.

9) “南山으로도 불린다. 옛 성벽이 산꼭대기를 이어져 壯觀을 연출하고 老松이 울창하여 온 산을 덮고, 팔달의 霽景은 水原八景의 하나인데, 화성장대의 고적이 복구되어 산상에 있다.” 朝鮮總督府 鐵道國, 『朝鮮鐵道旅行案内』, 斯道館, 1915, 39쪽.

10) 水原 一記者, 『巡廻探訪 205, 停車場近處부터 日人의 蠶食(10) 大悟를 要할 우리』, 『동아일보』 1927. 1. 23. ①南堤長柳 ②西湖落照 ③華山躑躅 ④光教積雪 ⑤北池賞蓮 ⑥華虹觀漲 ⑦八達霽美 ⑧螺閣待月

난 뒤의 개는 모습이 수원8경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인왕산의 비개 뒤의 풍경을 그린 겸재(謙齋) 정선(鄭澈, 1676~1759)의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의 풍취와 비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팔달청람(八達晴嵐)’이 해방 후 ‘팔달청풍(八達晴風)’으로 고쳐 쓰이고 있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晴嵐’의 뜻과 글자가 어려워 ‘晴風’ ‘淸風’으로 와전되어 정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시정을 하거나 합의를 통해 보다 쉽고 의미있는 용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성신사와 팔달산

### (1) 성신사의 건립과 의미

팔달산 중턱에 정조의 왕명으로 화성을 지키는 城神을 모시는 城神祠를 조성하고 매년 향축을 내려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팔달산의 의미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sup>11)</sup>

성신은 城隍神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城隍은 국가나 고을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방어시설을 의미했다. 즉 성과 그 둘레에 파놓은 참호에 대한 명칭이었다. 그러나 고대에는 여기에도 신이 있다고 여겨 城隍祠를 건립하고 성황신을 모셨다. 이러한 성황신앙은 통일신라 내지 고려초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2)</sup> 그러나 성황이라는 기록은 후삼국기에 나타난다고 한다. 궁예가 904년 국호를 摩震으로 정하고 여러 관부를 설치하였을 때 장선부(障繕府)를 두었는데 그 관장업무가 城隍에 대한 수리였다. 따라서 성황의 뜻은 방어시설에 대한 명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성황신앙은 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sup>13)</sup> 고려 1055년(문종 9) 북쪽 변경지역에 宣德鎮에 새로운 성을 쌓고 여기에 城隍神祠를 설치하여 춘추로 제사를 지낸 기록과 金富軾이 妙淸의 난을 진압하고 사람을 보내 여러 城의 城隍廟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sup>14)</sup> 이를 통해 성황신이 성신과 같은 의미임

11) “팔달산 오른편 기슭에 있다. 정조 丙辰年(1796, 정조 20) 城役을 마치고 特敎로 華城 城神의 신주를 모시게 하고 매년 香祝을 내렸다.” 城神祠, 『水原郡邑誌』

12) 金甲童, 「高麗時代의 城隍信仰과 地方統治」, 『韓國史研究』 74, 1991, 2~6쪽.

13) 김갑동, 「고려시대 순창의 지방세력과 성황신앙」, 『한국사연구』 97, 1997, 86쪽.

14) 『高麗史』 63 禮志 5, 雜祀; 『高麗史』 98 金富軾傳; 김갑동, 위의 글, 86쪽(재인용).

을 알 수 있다.

화성의 성황신을 모시는 성신사는 팔달산 오른쪽 기슭의 ‘병풍바위(屏巖)’<sup>15)</sup> 위에 자리 잡았다.

병진년 봄에 특교(特敎)로써 터를 잡고 택일하여 이를 지었다. 正堂은 오량삼가(三架)인데 벽돌을 쌓아 벽을 만들었다. 앞 기둥 안팎에는 네모난 벽돌을 깔았고 당 아래에는 계단 셋을 놓았다. 전면에 삼문을 세우고, 문의 좌우에는 5칸 행각을 붙였는데, 남쪽으로 2칸은 안쪽을 향하게 하여 전사청(典祀廳)을 삼았고, 북으로 3칸은 바깥쪽을 향하게 하여 齋室(1칸은 온돌, 1칸은 마루, 1칸은 空廊)을 삼았다. 뜰의 삼면을 네모진 담으로 둘러쳤다. 단청은 삼화토를 사용하였고 들보 위는 회를 발랐다. 사당이 이루어지자 화성 성신의 神主「재목은 太常에서 가져왔음」를 탁자를 갖추어 사당 안 정면 칸에 봉안하였다. 이날 향과 祝을 내려 제사를 지냈다. 해마다 봄·가을의 맹삭(孟朔)에 제사를 지낸다. 香祝과 祭品으로는 변(邊) 2개, 두(豆) 2개, 보(簋)와 궤(簠) 각 1개, 작(爵) 3개를 내려 보내는 것을 규칙으로 하였다.<sup>16)</sup>

1796년 7월 11일 성신사 터를 병풍바위 위 西坐 卯向으로 터를 자리잡으면서 禿城中軍 김후가 城神祠開基告由祭文을 올렸다. 열흘 뒤인 7월 22일 성신사 주춧돌을 놓고, 이를 뒤인 7월 24일 상량을 하였다. 이때 ‘성신사 상량문’은 수원부판관 洪元燮이 교서를 받들어 지었던 것이다.

이후 3달 뒤인 1796년 9월 성신사는 正堂(5楹 3架 = 정면 3칸, 측면 2칸)과 三門 및 좌우 行閣(5칸) 그리고 좌측 2칸 典祀廳, 우측 3칸 齋室로 완성되었다. 이에 정조는 친히 聖神祠 奉安祭 축문을 지어 보냄으로써 성신사의 위상을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15) “屏巖은 부내 팔달산 아래에 있으니 望雲岩이라 새겼다. 바위는 3층이고 좌우로 병풍같이 들렸으며 그 아래에는 藥泉이 있다.” 『水原郡邑誌』; 일제강점기 병풍암의 주소는 남창정 산1-9번지, 산1-33번지이다.

16) ‘城神祠’, 『圖說』, 『華城城役儀軌』 卷首, 경기문화재단, 2005, 99~100쪽.

〈표〉 성신사 건립 일정

일시	내용	비고
1796. 2. 1.	정조의 城神廟 건립 명령	
7. 11. 묘시	성신사 터 닦음	고유제(고유문) 독성중군 김후 전사관 겸 대축 - 전 부사 金處漢, 찬자 - 전 부사 金樂淳, 알자 전 현감 尹芮基
7. 22. 오시	주춧돌 놓음	
7. 24. 묘시	기둥 세우고 상량	상량문 - 수원부판관 洪元燮 교서 받들어 짓다
9. 17.	성신사 건립 보고 위판 봉안 길일을 잡다	일관 安圭祥(9. 19. 묘시로 결정)
9. 18.	성신사 祭物 규정함	변(鑊) 2개, 두(豆) 2개, 보(籩)·궤(簋) 각 1개, 잔 3개로 원칙을 정함 두 - 육장과 김치, 변 - 계절 과일, 보 - 벼나 조, 궤 - 기장, 조 - 통돼지
9. 19. 卯時	성신사 奉安祭	聖神祠 奉安祭 축문(정조 어제) 제관 - 수원유수 조심태, 전사관 겸 대축 - 수원판관 洪元燮, 齋郎 - 남양부사 田義顯, 축사 - 용인현령 丁遇泰, 찬자 - 수원중군 김후, 알자 - 영화도찰방 李五鎭.

이렇듯 성신사에 정조 御製의 축문이 내려옴에 따라 1796년 9월 19일 오전 6시 성신사에 위패를 봉안하였다. 또한 매년 봄 가을 맹삭(孟朔), 즉 4월 1일과 10월 1일에 제사를 지내게 규정함으로써 팔달산 성신사는 수원의 신성한 공간이자 또 다른 상징이 되었다.

실상 화성성역에 있어서 정조가 친히 지은 상량문 또는 축문은 얼마되지 않는다. 화성성역 당시 上樑文은 남문(팔달문)·북문(장안문), 동장대·서장대 및 城神祠 그리고 得中亭을 상량할 때 지어 올린 것이고, 그 나머지는 추후에 하교를 받들어 지어 바친 것이다. 따라서 상량할 때 상량문을 지어올린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건축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화성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남·북의 대문과 동·서장대 그리고 임금이 활쏘기 하는 득중정과 더불어 성신사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던 셈이다.

성신사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정조가 직접 지은 어제의 축문의

존재이다. 이는 성리학적 질서가 살아있는 현실에서 왕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성리학 이외의 불교와 고유신앙은 斥邪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정조는 용주사를 증진하면서 직접 ‘花山龍珠寺奉佛祈福揭’를 지었고, 성신사를 창건하도록 하면서 직접 봉안 축문을 지음으로써 신하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해 버렸던 것이다.

이렇듯 화성 성신사의 존재는 조선에서도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한데, 술한 성곽이 있는 조선에서 성신을 모신 성신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든 유일한 예가 되었다. 따라서 성신사에 대한 정조의 지극한 정성은 팔달산 남쪽의 향교에 대한 예에 버금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기우제 실행처와 국가공인 사당

고종 때까지 신성한 공간으로서 팔달산과 성신사는 기우제의 실행 장소이기도 했다.

〈표〉 1876년 수원부 기우제 실행 상황<sup>17)</sup>

날짜	차수	장소	제관
4. 19	1차	사직단	현관 - 水原府判官兼任 迎華道察訪 金勉孺
4. 22	2차	팔달산	현관 - 수원부판관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
4. 25	3차	광고산	현관 - 수원부판관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
4. 28	4차	용연	현관 - 수원부판관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
5. 2	5차	축만계	현관 - 수원부판관 閔斗鎬
5. 5	6차	성신사	현관 - 迎華道察訪 金勉孺
5. 8	7차	사직단	현관 - 수원부판관 민두호
5. 11	8차	용연	현관 - 水原府留守 宋近洙
윤5. 4	1차	사직단	현관 - 水原府判官兼任 中軍 李奎顏
윤5. 7	2차	용연	현관 - 수원부판관겸임 중군 이규안
윤5. 10	3차	팔달산	현관 - 수원부판관겸임 중군 이규안
윤5. 12	4차	축만계	현관 - 수원부판관겸임 중군 이규안
윤5. 14	5차	광고산	현관 - 수원부판관겸임 중군 이규안
윤5. 16	6차	성신사	현관 - 水原府留守 宋近洙
윤5. 18	7차	사직단	현관 - 수원부유수 송근수

17) ‘水原府啓錄’ 『水原府留營狀啓騰錄』 第3冊, 『各司騰錄』 5, 462~471쪽.

윤5. 20	8차	용연	현관 - 수원부유수 송근수
윤5. 22	9차	팔달산	현관 - 수원부유수 송근수
윤5. 24	10차	축만제	현관 - 수원부유수 송근수
윤5. 26	11차	광고산	현관 - 수원부유수 송근수
윤5. 28	12차	성신사	현관 - 中軍 李奎顏
6. 7	1차	사직단	현관 - 수원부관관 閔斗鎬
6. 9	2차	용연	현관 - 수원부관관 민두호
6. 11	3차	팔달산	현관 - 수원부관관 민두호
6. 13	4차	축만제	현관 - 수원부관관 민두호
6. 15	5차	광고산	현관 - 수원부관관겸임 중군 이규안
6. 17	6차	성신사	현관 - 수원부관관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
6. 19	7차	사직단	현관 - 수원부관관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

사직단-용연-팔달산-축만제-광고산-성신사의 순서로 기우제가 진행되었다. 이는 사당인 사직단·성신사 그리고 수원의 진산과 주산인 팔달산·광고산 및 용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물가로서 용연·축만제가 기우제 설행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팔달산과 성신사는 수원의 기우제의 설행장소로 활용될 만큼 수원을 지키는 신성한 장소였던 것이다. 성신사 건립 이래로 국가적 향사의 대상으로서 성신사의 위상은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표〉 1898년 경기도 향사처<sup>18)</sup>

府郡	享祀處所	府郡	享祀處所
廣州	崇烈殿	楊州	楊津祭
	顯節祠祭	長湍	德津廟 敬順王墓
開城	麗顯陵	坡州	坡山書院
	松嶽山祭	抱川	龍淵書院
	五冠山祭	高陽	紀功祠
	蠶祭	金浦	牛渚書院

18) 『各司謄錄 근대편』, 「各地方享祀에 關한 請議書」, 光武二年七月日.

江華	摩尼祭	麻田	崇義殿
	忠烈祠	龍仁	深谷書院
	蠶祭	積城	紺嶽山祭
	三忠壇祭	南陽	蠶祭
	李摠兵祠祭	果川	四忠書院
	廣城表忠壇		鷺江書院
驪州	江漢祠	陽城	德峯祠宇祭
水原	城神祠	喬桐	蠶祭

1898년 대한제국기 각 지방 향사와 관련하여 享祀費를 지원을 해주었던 공인된 享祀處는 전국적으로 154곳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성곽과 관련한 향사로는 강화 廣城表忠壇과 진주 蠶石樓陷城祭가 있으나 순수하게 성곽과 관련한 향사는 수원의 성신사가 유일한 셈이다.<sup>19)</sup>

1898년 성신사 향사는 1차 22냥 6전5푼으로 2元이 배정되었다.

따라서 화성 성신사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신사는 전통적이고 민간신앙적인 城神을 모신 사당이라는 점이다. 성신사는 삼국시대 이래 唐城, 淸海鎭 등 의미있는 진보 등에는 그 보호를 위한 堂이 존재했던 전통을 잇고 있다.

둘째, 성리학적 가치체계가 강고하게 작동하던 조선시대에 화성을 지키는 성신을 모시는 국가 공인 사당이라는 점이다. 즉 화성 완성과 때를 같이하여 정조의 왕명으로 성신사를 건설한 점이다.

셋째, 정조가 직접 ‘성신사 봉안제 축문’을 지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조정의 신료들의 반발을 막았던 것인데, 이는 용주사 중창과 더불어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계」를 지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성신사 건설 이후 매년 봄·가을로 제사를 지낸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정조 때 만들어진 성신사의 춘추 제사는 이후 역대 왕조에도 지속되었다.

더욱이 수원의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팔달

19) 「각 지방 享祀에 관한 청의」, 『各司謄錄 근대편』, 1898. 7.

산, 특히 성신사의 신성성이 부각되었다. 성신사는 조선시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신을 모신 국가 공인 사당으로 매년 국가에서 향축을 받아 제사를 지냈던 신성한 곳이다.

따라서 팔달산은 화성행궁의 주산이자 성신사가 위치한 산으로 신성성과 유용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부여받았던 셈이다.

### 3) 한말 경부철도 노선과 팔달산

경부선의 개통은 수원의 근대 도시 변천사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이다. 정조대 수원로(水原路) 개설 이후 전통적으로 서울과 수원을 넘나드는 길은 지지대 고개를 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 경부 철도의 노선도 이 수원로를 기본적으로 따랐다. 즉 1901년 4월 경부철도 노선을 잡으면서 일본인들은 지지대(遲遲臺)로부터 대유평(大有坪)을 지나 서문(西門) 밖에서 팔달문 후록(後麓)을 관통하여 상유천(上柳川)에서 대황교(大皇橋) 동편으로 지나는 철도노선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팔달산이 화령전(華寧殿, 정조의 사당)의 주산(主山)이고 지지대 역시 조정에 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땅인데, 그 사이 전답과 분묘가 철도노선에 들어가면서 일반 민중들의 소송도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sup>20)</sup>

여기서 팔달산을 화령전의 주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화령전은 주지하다시피 정조를 모신 사당이다. 당시 광무개혁을 통해 개혁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고종황제는 따라배워야 할 임금으로 정조를 꼽고 있었다. 정조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으려 했던 고종황제의 처지나 고종황제의 연원으로서 정조에 대한 존중은 다른 어떤 임금과는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정조의 사당을 모신 화령전의 주산인 팔달산을 건드린다는 것은 당대 조선황실에 대한 능욕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컸다.

이에 수원부민들은 남문 밖에서 모여 철도의 지지대 통과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20) 據水原郡守報告, 則京釜鐵道線路, 本郡境內經過次, 日人踏查立票, 而自遲遲臺, 歷大有坪, 自西門外, 貫八達山後麓, 自上柳川, 經大皇橋東邊, 始役在邇, 而八達山華寧殿主山, 遲遲臺亦係所重地, 一直立票, 其間田畝墳墓, 多入線路, 民訴逕至, 何以措處云爾. 작자미상, 『日新』 壬寅(光武六年·一九〇一)四月二十九日.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황실도 정조 임금과 관련된 유서깊은 지지대의 훼손에 대하여 반대 입장이었다. 특히 철도원(鐵道院) 총재 유기환(俞箕煥, 1858~1902)<sup>21)</sup>은 경기관찰사 이근명(李根命)에게 명하여 사그내-지지대 터널 공사를 엄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철도원은 군산포(軍山浦)-사시현(四時峴)-대대동(大垈洞)-서둔동(西屯洞)-상유천(上柳川)을 지나는 노선을 주장하였다. 외부대신 서리로 영전한 유기환 총재는 하야시 일본공사에게 부탁하고 하야시가 수락하는 형식으로 결국 경부철도 노선은 수원군민의 의지대로 변경되었다. 수정된 노선은 수원읍치에서 서북쪽으로 에돌아 군포-부곡-수원역-병점으로 확정되었다. 지지대 터널을 뚫는 난공사를 피해 너른 평야지대를 관통하는 노선이므로 실제 철도 부설자의 처지에서도 손해되는 것은 아니었다.

1900년(광무 4) 4월 6일 布達 第56號로 궁내부관제를 개정하여 鐵道院을 설치하였다. 이는 宮內府 通信司 산하 鐵道課를 폐지하고 內藏院에 鐵道院을 설치한 것이다. 철도원은 황실소속 철도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인·경부 철도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철도원 직제는 철도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는 總裁 1명을 비롯하여 監督 2, 技師 3, 主事 3, 技手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었다.<sup>22)</sup> 1900년(광무 4) 4월 7일 농상공부대신 閔丙奭이 철도원 총재를 겸직하면서, 前 會辦 大三輪長兵衛를 鐵道院監督, 會計院卿 成岐運을 兼 鐵道院監督에 임명하였다. 이에 대한철도원은 5월 19일 사무실을 재동에 두고 업무에 들어갔다. 宮內府 特進官이었던 유기환은 1902년 2월 24일(月) 閔丙奭의 뒤

21) 유기환은 고종 18년(1881)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서 일본을 시찰하였고, 1887년(고종 24) 10월 24일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を 거쳐 1889년 부산항 방관(釜山港幫辦)을 지냈다. 1889년 駐劄日本辦事大臣 書記官, 1896년 궁내부 협판·궁내부 대신서리사무·한성부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97년 중추원 의관·특명전권공사를 거쳐 1898년 외부 대신서리, 군부 협판, 군부대신 서리를 지냈다. 독립협회의 간사로도 활동했지만, 군부대신 서리로 있으면서 독립협회가 공화정치를 실시하려 한다하여 독립협회를 탄압하기도 하였다. 1899년 고등재판소 재판장·귀족원 경·겸임 표훈원 의정관·궁내부 특진관을 지냈다. 1900년 철도원 총재·임시서리 외부대신 사무를 지냈다. 1902년 7월 조선전권대신으로 덴마크와 통상조약을 맺었다. 그 뒤 주일한국대리공사를 지내면서 중국과 교섭하여 김옥균(金玉均)을 암살한 홍종우(洪鍾宇)를 송환시켰다. 수원 영통에 연고를 두었던 인물이다. 1902년 8월 26일 사망하였다.

22) 『日省錄』 光武 4年 3月 8日; 『高宗實錄』 光武 4年 4月 6日; 『官報』 光武 4年 4月 9日; 『大韓季年史』 下 光武 4年 4月 6日.

를 이어 철도원 총재가 되었다.<sup>23)</sup> 이후 유기환은 철도원 총재직을 1902년(광무 6) 6월 25일 의원면 특히 유기환이 수원 영통지역에 연고를 지니고 있었던 대신이었기 때문에 팔달산에 대한 수원사람들의 염려와 정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 2. 일제강점기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

### 1) 수원신사의 건립과 중창

#### (1) 水原神社의 창건

일본인들은 경부철도의 수원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민 집단을 만들며 그들의 위상과 역할을 늘려갔다. 이미 일본종파불교가 수원에 진출해 있었다. 특히 일본의 종파 불교 가운데 진종(眞宗)·조동종(曹洞宗)·정토종(淨土宗)·진언종(眞言宗)·임제종(臨濟宗)·일련종(日蓮宗) 등이 주요하게 조선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 사찰을 건립하였다. 이들 각 종파는 경쟁적으로 자파 세력을 늘리기 위해 사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수원의 경우 정토종에서 1905년 12월 수원군 남부면 교동(校洞)에 수원사(水原寺)를 건립하였다.<sup>24)</sup> 이로써 수원지역에 일본의 종파 불교의 전초기지가 마련되었다. 이미 정토종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는 경성에 진서파개교원(鎭西派開教院, 1898. 12)과 인천에 인천사(仁川寺, 1901. 6)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원사(水原寺)의 건립을 통해 경기남부 지역에 대한 포교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1909년 정토종교회소(淨土宗敎會所(1909. 2), 高野山大師敎會水原支部(1909. 3), 眞宗大谷派水原布敎所(1909. 6) 등이 설치되었다.<sup>25)</sup>

대곡과 본원사 수원포교소의 주임자는 마에다(前田鐵心)로 1909년(명치 42) 5월 설치되었는데, 烏山出張所·天安출장소도 1909년 5월 함께 설치되어 수원에서 출

장하게 되었다.<sup>26)</sup>

일본인 설립 神社寺院은 水原神社·정토종 水原寺·眞言宗 高野山 法隆寺·眞宗大谷派 本願寺布敎所·眞宗本願寺派 본원사포교소·日蓮宗 妙法寺·曹洞宗 포교소·天理敎 宣敎所 등이다.<sup>27)</sup>

1910년대 일본 불교 종파의 수원지역에서의 활동은 정토종을 비롯하여 진언종·진종이던 것이 1920년대가 되면 일련종·조동종 등이 추가되었다. 더욱이 포교소에서 점차 정토종의 수원사처럼 진언종 범룡사와 일련종의 묘법사 등이 사찰의 형식을 갖추며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원 이외에 일본인이 설립한 포교소로 수원에는 신도(神道)로는 천리교수원선교소(天理敎水原宣敎所)가 1912년 8월 설치되었다.

일본인을 위한 종파불교의 활동과 더불어 수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신사의 창건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1910년 이전에도 이미 경기도에는 서울과 인천에 몇 개의 신사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표〉 1912년 경기도 신사현황<sup>28)</sup>

지역	신사명	所在地	神職	創立年月
京畿道	大神宮	京城倭城臺	1	1898. 11.
	仁川皇大神宮	仁川宮町3丁目	1	1890. 10.
	菅原神社	仁川宮町3丁目	-	1897. 12.
	氏神社	永登浦本町	-	1906. 1.

이에 수원에서는 곤도오(近藤虎之助) 외 48명이 수원신사 창건에 대한 청원을 하여 수원군 수원면 水原神社 창건 허가를 받았다.<sup>29)</sup> 수원신사는 수원향교(水原鄕校)를 굽어보는 팔달산 중턱에 1915년 10월 자리잡았다. 수원향교 위에 신사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적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각 도시마다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 광대한 넓이의 땅을 점유하여 공간적으로

23) 『日省錄』光武 6年 1月 17日; 『承政院日記』光武 6年 1月 17日; 『高宗實錄』光武 6年 2月 24日; 『官報』光武 6年 2月 26日·27日.

2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0)』, 1912, 659쪽.

25) 京畿道, 『大正4年 朝鮮總督府京畿道統計年報』, 1917, 112~113쪽.

26) 福崎毅一, 『京仁通覽』, 1912, 160~161쪽.

27) 酒政政之助, 『水原』, 1923, 21~22쪽.

28) '第552表, 日本人이 設立한 神社 狀況(1912년 12월말 현재)',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2.

29) 『朝鮮總督府官報』, 1915. 12. 20.

도시를 제압하고 정신적으로 도시민을 지배했던 것이 神祠였다. 한국의 거류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의 황민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순화되어 가던 조선인들에게도 신사는 각 도시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갔다.<sup>30)</sup>

신사는 일본인이 일정한 양식의 건물에 특정한 신령을 모셔놓고 제사지내며 그곳을 신성한 터전으로 여기는 곳을 말한다. 이는 농경사회로 정착한 예부터 고을과 마을과 지켜주는 신령이 계시는 신성한 곳으로 추송되어 계승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계층은 이러한 원시신앙인 신도를 지배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신도를 일본 천황가의 가계에 맞춰 확대 조직하고 제도화하면서 세속적 지배를 유리하게 변질시켰던 것이다.

사실 고대 불교를 수용한 이래 지배적 종교는 불교였다. 그러나 명치유신 이래 근대 천황가가 탄생하면서 살아있는 現人神으로서 천황을 추앙하면서 신도는 새롭게 재발견되고 독립되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신도로 확대 발전하였던 것이고 근대 일본의 국가주의적 발전과 더불어 신도 또한 성장하였던 것이다. 큰 나라로 일본 스스로 전쟁의 승리를 예견하지 못했던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신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적인 종교가 되어 갔다.

명확한 敎義와 제대로 된 神學 및 지켜야 할 계율도 없어 종교·사상적 투쟁도 결여된 허술하기 짝이 없는 神道가 일본인을 광신자로 만들어간 이유는 종교 외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전과 짝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31년 만주침략과 1937년 중일전쟁으로 확대된 침략전쟁에서 들려오는 계속된 승전보는 神國 일본과 神風에 대한 자기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전쟁을 수행하던 군부와 정부를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도 전염되어 갔고,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신도에 대한 자발적인 광신자들로 넘쳐나게 되었다.<sup>31)</sup>

1910년 당시에 이미 부산·목포·진남포·인천·군산·원산·성진·마산 등의 일본거류지에는 12개의 신사가 건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일합방을 기화로 그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 1912년말 전국적으로 60개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神職이 있었

던 신사는 경성·인천·부산·신의주 등 4개 도시 8개 신사에 불과하였다.

〈표〉 1912년 神職이 있는 신사 현황

지역	신사명	所在地	神職	創立年月
京畿道	大神宮	京城倭城臺	1	1898年 11月
	仁川皇大神宮	仁川宮町3丁目	1	1890年 10月
慶尙道	馬山神社	馬山府馬山櫻村	1	1909年 11月
	龍頭山神社	釜山府釜山琴平町	1	1678年 3月
	龍尾山神社	釜山府本町1丁目	1	1678年 3月
	水産神社	釜山府南濱町	1	1903年 10月
	蛭子神社	釜山府絶影島洲岬	1	1906年 6月
平安北道	平安神社	新義州府州常盤町	1	1911年 8月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5년 8월 「神社寺院規則」을 발표하면서 神社 건립 기준과 인가절차를 정하고, 1917년 3월 「神祠에 관한 건」을 발하여 神祠에 미달하는 것은 神祠로 정하였다. 이에 거류지 신사들은 공식적인 神社로 인가받았고, 신사가 없는 지역은 神祠라도 건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높아갔다.

이에 따라 신사가 없었던 수원에서도 신사 건립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일본거류민 곤도오(近藤虎之助) 등 48명이 청원하여 1915년 12월 20일 수원신사 창립이 인가되었던 것이다. 곤도오를 비롯한 48명은 당시 수원의 유력한 일본인들을 망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원신사의 자리에 있었다. 이는 수원향교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화성의 건설과정에서 가장 먼저 터를 잡은 것이 수원향교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향교에 대한 상징성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수원 신읍치 이전 이후 정조 스스로 수원향교 고유문을 짓고 직접 전배함으로써 그 상징성을 더욱 분명히 하기도 했다.<sup>32)</sup>

따라서 수원신사를 수원향교를 지국이 누르는 위치에 자리 잡음으로써 수원신사 건설을 통하여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미 조선의 상징적 건물이었던 향교 인근으로 서구 근대 문명의 상징으로 이해

30) 孫神睦, 「朝鮮總督府의 神社普及·神社參拜 強要政策 研究」, 『한국사연구』 58, 1987, 106쪽.

31) 손정목, 위의 논문, 107~108쪽.

32) 『華城聖廟告由文』, 「祭文」5, 『弘齋全書』 권23.

되었던 영국성공회 교회가 1907년 근대식 건물로 들어서고, 일본인 학교가 1906년 새롭게 신축되는 등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정신적 문화적 상징이었던 수원향교 위에 높게 지은 수원신사는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상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인 학교였던 수원소학교를 드나들며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수원신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심성은 조선인들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인으로 하여금 향교를 누르고 선 신사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일본인들의 처지에서 보면 눈 들어 팔달산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굽어 살피는 위치에 있는 신사의 존재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령스런 존재였던 셈이다.

이제 팔달산은 수원신사가 있는 상징의 장소로 변화되어갔다. 화성행궁이 수원의 중심이었던 것에서 경부선 개설 이후 일본인들의 상권으로 발돋움하며 수원의 신시가지로 형성했던 수원역과 권업모범장 등에서 바라보면 수원신사와 수원소학교 등이 새로운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 (2) 수원신사의 확장

신도는 1930년대 이후 일본 軍部와 政府,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신앙하면서 이를 한반도와 대만을 비롯한 식민지는 물론이고 八紘一宇라는 이름 아래 아시아와 전 세계에 포교·전도하려고 했다. 이는 1931년 만주침략과 1932년 만주국 건설 이후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군국주의 체제로 전환되어 갔다. 이러한 분위기와 궤를 같이하여 천황가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 신도에 대한 광신자들이 늘어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수원 거류일본인들은 수원신사 확장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수원의 일본인 유지집단의 주도로 ‘水原神社奉讚會’가 조직되었다. 위원장은 수원읍장 아사히카와(旭川和一)였고 부위원장으로 黒岩覺一·車瀧潭이었다. 그리고 供進部(7명), 工營部(6명), 神苑部(4명) 등의 부서와 이사 20명을 두었다.

〈표〉 水原神社奉讚會 조직 구성

부서	부장	위원
供進部(7)	近萬泰吉	椿原實雄 吉浦英信 梁川龍夫 洪原吉善 木村榮吉 永禮一七
工營部(6)	橫江吉四	苧田甫 野中末吉 三和基成 鈴川泰重 宮永博顯(상담역)
神苑部(4)	西澤賢愛	西村久三郎 朝原宗良(金學培) 植木秀幹(상담역)
理事(20)		黒岩覺一 近萬泰吉 尹泰貞 安永台 徳山義治(李光鉉) 野中末吉 西澤賢愛 苧田甫 西村久三郎 果川靜夫 椿原實雄 本木有一 車田瀧潭 橫江吉四 吉浦英信 三和基成 鈴川泰重 洪原吉善 朝原宗良 木村榮吉

수원신사봉찬회에는 신사중건을 위하여 1939년 2월 수원신사봉찬회의 이름으로도·음의원 및 수원읍장 梅原靜雄 등 13명의 연서로 총독 南次郎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제 수원신사 중건 문제는 수원의 일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와 관련된 사업이 되었다. 당시 수원신사봉찬회는 수원신사 중축에 9만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9만원의 예산은 수원의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과중하고 또 신사 중건은 일반 업무와 다른 특수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조치는 팔달산공원의 계획 아래 수원읍이 무상 대부받아 10여 년간 보존하고 있는 팔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신사 중축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수원신사는 “팔달산의 靈地에 鎮坐한 수원신사는 大正 6년(1917년)에 御창립됨에 수원 邑民 모두에게 崇敬의 중심이 되는 祠壇”이고 “수원군의 總鎮護로서 수원 17만 민중 崇敬의 鎮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수원신사 神域이 너무나 협소하여 社殿과 기타 조영물의 정비가 되지 않아 송구스러우니 속히 개선·중건하여 神靈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진정서는 적고 있다.<sup>33)</sup>

이러한 진정서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모르지만 1939년 6월 水原神社御造營準備委員會가 조직되었다. 이는 수원신사봉찬회가 조직 개편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수원신사 중건공사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신사 중건 내용은 神殿 개축 1동, 祝詞弊殿 1동, 拜殿 1동, 神饌·祭器庫 1

33) 「水原神社御造營」, 『京城日報』, 1939. 2. 5.

동, 手水舎 1개, 제1鳥居, 제2鳥居, 社務所·齋館 신축 1동, 社宅 1동, 神門·玉垣 등의 조성이었다.

1942년 5월 23일 수원읍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10명이 참석하여 土工 및 하수구는 급속히 실시할 것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신사 중건 비용은 10만8천539원으로 계상되었고, 건축비용을 위해 수원읍의 각 町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기부금의 명목으로 징수하고자 하였다. 기부금은 寄進金에서 供進金으로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자발적인 신앙심에 기초할 것을 강요하였다. 개인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공서에 대한 기부금을 강제하였다. 당시 「水原신사 공진금 관공서 집계표」에 따르면 69개의 기관에 할당금이 배정되었다. 이들 기관은 당시 수원을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수원군청, 수원군農會 수원군食量配給組合, 수원세무서, 酒造組合, 수원읍사무소, 警防團, 수원우편국, 역전우편국, 道立水原醫院, 법원 수원지청, 土木管區 사무소, 경찰서, 農事試驗場, 蠶糸部, 곡물검사소, 砂防관리소, 煙草판매소, 農業倉庫, 수리조합, 수원역, 保線區, 수원신사, 고등농림학교, 수원농업학교, 고등여학교, 華城學院, 商業專修學校, 수원국민학교, 신흥국민학교, 세류국민학교, 八達小學校, 종로유치원, 梅山女學校, 殖産은행, 漢城은행, 수원금융조합, 화성금융조합, 중앙無盡회사, 第一社, 화성興産회사, 京電수원지점, 農具회사, 南北綿業회사, 麴子회사, 경기산업회사, 동경파래粉회사, 雲母회사, 釀造회사, 京東철도회사, 本수원역, 화성車部, 중앙車部, 경수車部, 수원車部, 조선운송회사, 수원도라쿠회사, 경인도라쿠회사, 東山農場, 東拓농장, 수원농장, 富國園, 万種園, 동양種苗, 昭和직물공장, 수원직물공장, 수원상회, 木材統制組合, 華城券番 등이었다.

이들을 보면 행정·치안·교육·의료·교통·산업·상업 등 수원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기관들을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본의 패망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물자의 통제를 위한 식량배급조합, 목재통제조합 등의 특수한 조합이 눈에 띄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팔달소학교, 매산여학교 등의 존재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개인과 기관의 협찬을 받는 한편 팔달산 국유림을 민간인에게 불하하여 얻은 돈을 재원으로 수원신사 중건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1940년 5월 1일 오전 9시 수원신사 奉告祭를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여 ‘어조영 초립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수원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은 ‘근로보

국대’라는 이름으로 수원신사 건립공사에 강제 동원되었다.<sup>34)</sup>

### (3) 팔달산의 민간인 불하

국유지였던 팔달산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불하함으로써 팔달산을 훼손한 경우이다. 수원읍은 예산확보를 위해 팔달산의 국유임야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팔달산 불하계획은 수원의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종종 논의되었던 것이다. 즉 수원읍 발전책으로 수원의 명승지인 팔달산 1만평을 불하하여 料理業旅館, 貸室營業, 溫泉 운동장을 설비하여 방문객의 위락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sup>35)</sup>

이후 이러한 계획은 실행으로 옮겨졌다. 수원군수는 수원읍장에게 1940년 1월 25일 팔달산 매각원의 인가와 더불어 팔달산 국유림 매각예정지의 가격을 통보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진행되었던 팔달산 처분은 이미 ‘八達山處分委員會’가 조직되어 지속적으로 매각토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팔달산 국유임야 15,822평에 대한 민간인 불하계획은 이미 1941년 12월에 매각 토지에 대한 地價조사를 마치고 매수자 협의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팔달산처분위원회가 1945년 3월 22일 수원읍사무소에서 출석위원 黑岩覺一·清原光鎬(한광호)·椿原寅雄·吉浦英信, 읍장 梅原靜雄, 부읍장 松岡義郎, 서기 荒木五郎·廣田 豊·安原運承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기록이 있다.

〈표〉 팔달산 공유임야 매각 예정 현황<sup>36)</sup>

지번	坪數	가격	매매자	적요	지번	坪數	가격	매매자	적요
南昌町 山1-8	450	1,350	近藤虎之助		宮町 山1-28	210	525	金組社宅	
1-29	30	180	車田濬潭		1-4	270	675	〃	
1-25	300	1,800	〃		1-29	210	1,260	安田永台	
1-30	150	900	〃		1-30	270	1,620	〃	
1-26	300	1,800	鈴川泰貞		1-34	240	1,680	八達庵	

34) 「水原神社 御造營 工事不遠着手」, 『동아일보』, 1940. 5. 5.

35) 「八達山을 華城遊園地로, 朝鮮人維持가 會社組織」, 『조선중앙일보』, 1934. 10. 28.

36) 「八達山處分ニ關スル委員會開催ニ關スル件」, 1945. 3. 19.

1-31	120	720	鈴木泰貞		1-31	510	4,080	八達庵	
1-27	480	2,880	清原健錫		1-32	90	450	靑木有一	
1-32	60	360	"		1-35	510	2,550	"	
1-28	180	0	-	道路	1-36	420	2,100	"	
1-40	660	3,300	高峰		1-37	660	1,980	德山光鉉	
1-41	16	0	-	도로	1-38	30	90	"	
1-33	120	300	屏風岩		1-39	1,230	3,690	"	
1-9	120	300	"		1-41	600	4,200	鈴木泰貞	
1-42	1,710	13,680	병풍암 上方		1-40	210	-		
1-34	1,380	11,040	梁山聖寬		1-33	840	-		
1-45	1,200	7,200	高野山	南昌町 산 1-38	30	-			
1-35	960	5,760	"						
1-44	1,260	7,560	평산씨의 上						
1-36	540	3,780	平山鉉益						
1-37	150	600	順安宣友						
1-45	28	-							
1-46	21	-							
1-39	810	-							
합 계	15,240평			88,410원					

원래 팔달산 국유림은 풍치보안림으로 수원읍에 무상대여된 것으로 팔달산의 매각은 실제 수원신사의 확장에 따른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따라서 팔달산의 불하는 이후 팔달산의 풍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또한 국유지 불하의 목적이 수원신사의 개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도의 불순함을 넘어 분노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팔달산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국유림의 매각은 특혜이거나 강제 불하가 될 수밖에 없었다. 효용성의 측면에서 임야 특히 산지인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야 하는 땅이지만 필요없는 경우 쓸모없는 땅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각대상은 수원의 재력이 있는 유력한 인물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읍장을 지냈던 近藤虎之助를 포함한 유력한 일본인들과 수원의 대표적 지주들이 대상이었다.

조선인의 경우 차준담·윤태정·안영태·신현익·이광현 등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八達庵인데 경내의 확장 차원에서 매득을 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古義眞言宗인 고야산 法隆寺의 경우이다. 고야산 법룡사는 팔달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소위 '四國靈場'을 1921년 설치한 이래 지속적으로 경내 확장을 목적하였다. 그러나 팔달산이 풍치보안림이었던 상황에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팔달산 매각 소식과 함께 법룡사 위쪽의 팔달산 지역 951평의 불하를 수원읍에 간절히 신청하였다. 즉 법룡사 주지 津山眞澄, 법룡산 總代 湯淺用平을 비롯하여 秦卯八郎·香山弘·長谷川第馬 등 14명의 연명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고야산 법룡사는 청원한 토지의 두 배가 넘는 총 2,160평의 임야를 불하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팔달산 국유지 1만5천여 평의 매각대금 8만8천여원의 수입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 매매가 예정된 가격과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943년 9월 17일부로 토지매각 대금을 수원읍에 지불하여 토지를 매득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팔달산 국유임야 매각 예정 현황

지번	坪數	예상가격	매매예정자	매매자	예상가	매매가
南昌町 山1-8	450	1,350	近藤虎之助	車田濬潭	4,230	4,230
1-29	30	180	車田濬潭			
1-25	300	1,800	"			
1-30	150	900	"			
1-26	300	1,800	鈴木泰貞	鈴木應烈	2,520	2,520
1-31	120	720	"			
1-37	150	600	順安宣友	順安宣友	600	600
1-27	480	2,880	清原健錫	洪原勳	3,840	3,840
1-32	60	360	"			
1-33	120	300	屏風岩			
1-9	120	300	"			
1-44	1,260	7,560	평산씨의 上	朝原宗良 (金學培)	11,340	11,340
1-36	540	3,780	平山鉉益			
1-40	660	3,300	高峰	高峰清一	3,300	3,300

宮町 山1-28	210	525	金組社宅	鈴木泰貞	1200	1200
1-4	270	675	"			
1-41	600	4,200	鈴木泰貞	鈴木應烈	4,200	4,200
1-29	210	1,260	安田永台	安田文榮	2,880	2,880
1-30	270	1,620	"			
1-37	660	1,980	徳山光鉉	安田蕙云	3,600	6,000
1-34	240	1,680	八達庵			
1-39	1,230	3,690	"	鈴木應烈	3,690	3,690
1-42		1반5무	-	立川海成	1,350	1,350
1-47		7무	-	臨山正義	600	600
합 계			2町9反8畝歩			45,750

실제 토지의 매각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8천여평에 4만5천원 정도의 매각이 이루어졌고, 매매자들도 상당수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 매매자는 차준담·윤응렬·안문영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에 1943년 9월 17일부로 매각대금이 들어 온 것은 4만2천520원 정도였다.

대개 매각토지는 조사된 예정가격으로 매각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팔달암과 이광현에게 매각 예정된 宮町 산 1-34번지와 산 1-37번지만이 거의 2배 가격으로 安田蕙云에게 매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팔달암과 이광현 그리고 실제 매득자 간에 매매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팔달산의 일부 국유림의 매각처분에 따라서 1942년부터 팔달산 아래쪽부터 합법적인 훼손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 2) 팔달산의 공원화

팔달산에 대한 일본화의 결정적 계기는 팔달산 공원화에 있었다. 1927년 1월 14일 水原面協議會 회의를 통해 팔달산 공원 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議長은 수원면장 近藤虎之助, 面協議會員 竹下平三朗·車裕舜·韓相鳳·香山弘 등이 참여하였다. 회의 안건은 '國有林野貸付 및 水原 西公園 設置에 관한 건' 이었다.<sup>37)</sup> 처음 팔달산의 공원 명칭은 西公園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공

원이라는 명칭은 중포산의 東公園의 존재를 의식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① 공원 설치의 내용으로 都市公園의 素質을 최소한도로 계획하고, ② 공원 도로는 팔달산을 渦狀形으로 산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게 길을 뚫어 그 사이 작은 다리와 暗渠를 설치하며, ③ 팔달산 꼭대기의 廣場을 다져서 園亭 등을 설비하여 놀러온 사람들의 展望所로 하고 ④ 植樹는 주로 단풍과 뱃나무로 하며, ⑤ 부속의 작은 庭園에는 觀賞 草木을 식재하기로 하는 등 공원의 전체적인 틀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928년 9월 7일 수원면은 팔달산 공원화 계획을 조선총독부에 인가 신청을 하였다. 즉 국유림인 팔달산의 8町2段8畝21步를 무상으로 대부분 뱃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어 面營公園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었다.<sup>38)</sup>

팔달산공원조성은 '御大典記念事業'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御大典記念의 명목으로 일본에서는 소위 '大正天皇御大典記念事業'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및 관공서 등 공공건물들이 건립운영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昭和天皇御大典'의 기념사업으로 1928년 名古屋市役所 청사가 건립되거나 武生公會堂이 1929년 건립되는 등 이 시기 대대적인 기념사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大典記念은 즉위를 기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위 大正天皇 大典記念日은 11월 10일이었다.

이러한 기념사업은 조선의 일본인들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즉 1919년 3·1운동 당시 경북 예안(禮安) 면사무소 뒷산에 일본인이 세워 놓은 '大典記念碑'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이렇듯 '대전기념비'와 '대전기념사업'을 통한 조형물과 상징물을 건립함으로써 조선을 일본화하고자 한 것이었고, 조선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것을 제거하고자 했다.

따라서 팔달산공원 조성은 '소화천황대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지만 또 다른 공원조성 사유로는 유서 깊은 국유림인 팔달산의 보호와 水原面民의 衛生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팔달산공원은 대전기념사업의 명목으로 팔달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국유림인 팔달산을 보호하면서도 수원면민의 위락시설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이유 이외에도 내적으로 수원읍에 사는 일본인들은 변변한 공원조차 없는 수원읍의 위신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

37) 「公園經營事務處理의 件」(1929. 5. 8), CJA0002745, 『面事務所處理認可關係綴』, 1929, 329~330쪽.

38) 수원읍, 『재산관계참고서류첩』, 刊記없음.

다.<sup>39)</sup> 이는 거류일본인들과 조선인 지역 유지의 愛郷心을 추동하여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수원면장이었던 近藤虎之助는 ‘水原面 國有林野保護組合’을 급조하여 조합장을 맡았고, 국유임야보호조합장의 이름으로 848원을 기부함으로써 공원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그 기부금의 단서조항으로 팔달산공원사업이 실현될 경우 1차년도 사업비로 기부한다는 것을 특기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면장이었던 곤도오가 솔선하여 공원조성을 위한 조합을 조직하고 기부금을 냄으로써 일반 유지들의 동참을 유도한 셈이다.

이에 수원면은 「면제시행규칙(面制施行規則)」 제1조 제2항에 의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경영 신청을 경기도에 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1929년(소화 4) 3월 26일 조선총독에게 「공원설치사무처리방법신청의 건」(地第644호)의 문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수원면이 계획한 팔달산공원 계획은 매년 7,848원의 경비로 9개년도로 나누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植樹계획으로 팔달산 전체에 소나무가 울창한데, 도로 부근의 어린 나무를 적당하게 間伐하고 여기에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또 산록에는 벗나무를 드문드문 심어 봄·가을로 조화있는 풍치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1933년 단풍나무 500그루(300원), 1936년 벗나무 1,000그루(200원)를 심는 계획이었다.

둘째, 道路 계획으로 폭 2칸의 回遊道路와 4척의 小路를 통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로 개설에 따른 경비와 규모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표〉 팔달산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

연차	연도	연장(間)	경비(円)	1間當	비고
1	1929년	630	1,008	1.60	
2	1930년	210	340	1.62	
3	1931년	250	400	1.60	

39) 예를 들면 인천의 경우 天照皇大神 및 明治天皇神을 合祀하는 東公園(八坂公園)과 西公園(萬國公園), 월미도공설운동장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수원의 일본인들이 경기남부의 대도회였던 수원에 공원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4	1932년	130	220	1.69	
5	1933년	130	220	1.69	
6	1934년	150	245	1.63	
7	1935년	200	320	1.60	
8	1936년	120	195	1.62	
계		1,820	2,948	1.63(평균)	

셋째, 橋梁 계획으로 총 4개소에 架橋(총 240円 소용)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1929년 3개소(180원, 1개당 60원), 1930년 1개소(60원)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暗渠 계획으로 7개소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즉 1929년 3개소(180원, 1개당 60원), 1930년 2개소(120원, 1개당 60원), 1931년 2개소(120원, 1개당 60원) 등이다.

다섯째, 땅고르기 계획으로 1932년도 300평(300원)에 대한 계획이었다.

여섯째, 公衆便所 8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1934년 5개(200원, 1개당 40원), 1937년 3개(120원, 1개당 40원)의 설치 계획을 세웠다.

일곱째, 電燈 20개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1935년 10개(200원, 1개당 20원), 1937년 10개(200원, 1개당 20원)의 계획이다.

여덟째, 벤취 30개 설치 계획이다. 즉 1934년 15개(75원, 1개당 5원), 1937년 15개(75원, 1개당 5원) 등이다.

아홉째, 園亭 5棟 설치 계획으로 1936년도에 125원(1棟當 25원)의 예산으로 5동을 짓는다는 것이다.

열째, 園丁 급료로 월 40원으로 4,445원의 소용을 예상하였고, 財源 확보 방안으로 이상의 총경비 9,848원을 9개년도로 나누어서 지출하고, 1929년도에는 一般經費로부터 1,000원과 寄附金 848원의 합계 1,848원을 지출하고 이후로 매년 일반경비로부터 1,000원씩을 지출한다는 계획이었다.<sup>40)</sup>

당시 수원군 수원면의 192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 2만9천855원으로 경상

40) 「公園經營事務處理의 件」(1929. 5. 8), CJA0002745, 『面事務所處理認可關係綴』, 1929, 319~323쪽.

예산 1만7천353원과 임시예산 1천502원이었다.

이러한 수원면의 팔달산공원화 계획은 곧바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34년 공원설립 및 공원경영에 대하여 인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1934년 9월 14일부로 팔달공원 설립 및 공원경영 사무처리 수속이 인가되었다. 팔달산 1백여 정보 대부허가를 청원한 것으로 향후 15년간 조성 계획이었다.…<sup>41)</sup>

팔달산공원을 추진하였던 사람들은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사통팔달한 시가지로 왕래가 많고 1만2천여 시민을 갖고 있는 수원에 아직까지 공원 하나 없는 것은 수원면민의 일대 유감을 넘어 시가지 체면상으로도 큰 수치라고 여겼다.

공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 전통적인 山監의 명칭이 公園看守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공원간수 德富來煥의 이름이 보이고 있으며 팔달산공원이 조성된 이후 식목이 진행되면서 ‘御大典記念林’으로 명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觀光의 古都 水原〉(1936)이라는 지도에는 성신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팔달산에 그려져 있다. 남일치 위로 팔달산(팔달산공원)을 횡단하는 길이 그어져 있다. 그 길은 화서문에서 팔달산으로 올라 산 중턱을 가로질러 남일치 위에서 문묘(文廟) 즉 수원향교에 이르고 있다. 등산로로 추정되는 길이지만 林道로 활용하고자 한 것인지 확인해 볼 일이다.

이 지도에서 보면 성신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남일치와 남이치의 삼각 꼭지점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성신사는 1936년까지는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삼일여학교 위로 中鋪舍로 추정되는 건물도 그려져 있다. 따라서 팔달산공원 조성과정에서 성신사가 파괴되고 중포산을 東公園으로 조성하면서 중포사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3) 일제강점기 팔달산의 상징 빼앗기

현재 경기도청 뒷길의 벚나무 등은 일제강점기 팔달산공원화 계획에 따라 식목

41) 『水原에 公園計劃』, 『동아일보』, 1934. 10. 30.

된 벚나무임을 알 수 있다. 명목상 상록수인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팔달산을 봄에는 벚나무, 가을은 단풍으로 울긋불긋한 풍치있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였지만 실제 화성행궁과 화령전의 주산으로 성신사가 위치한 팔달산은 禁松지역으로 신성한 산이었다.

그러나 팔달산 서남쪽의 수원신사에 더하여 팔달산의 온전한 일본적 상징으로 바꾸는 것은 국기계양대의 설치와 일본군인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팔달산에 위치한 ‘古志少佐義死之碑’는 일본인의 수원소학교에 있는 ‘二宮尊德銅像’과 방화수류정 옆 중포산의 ‘野口廣三 殉職碑’와 더불어 수원에 있는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 조형물이었다.

古志少佐義死之碑가 있는 곳은 수원을 국기계양대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을 宮町 으로부터 팔달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항상 많다. 이 기념비는 1894년 7월 27일 오전 5시 수원 성내에서 자결한 고시 마사츠나(古志正綱) 소좌의 죽음을 기념하는 비이다.<sup>42)</sup> 1894년 27일이면 일본이 청나라와 7월 25일 풍도(豊島) 앞바다의 해전을 이기고 난 뒤이며 7월 29일 成歡전투 직전의 상황이다. 고시 마사츠나는 일본군 전위부대 제21연대 제3대대장이었는데 징발한 조선인과 말이 도망쳐서 급양대는 26일 중식에 필요한 쌀이 부족해 밥을 짓지 못했다. 할 수 없이 포병대대와 보병 제11연대 제2대대 휴대쌀 절반을 급양대와 나누어 간신히 중식을 해결했다. 하지만 이날 힘을 다해 집합시킨 말과 마부가 도망치려했고 끝내 도망을 치고 말았다. 이에 다음날 출발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대대장 코시 마사츠나는 27일 오전 5시 자결하였던 것이다.<sup>43)</sup>

청군과의 운명을 건 중요한 전투가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제 때 출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결한 그의 행위는 성환전투에서 일본군의 승리로 마감됨에 따라 의로운 죽음으로 미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청일전쟁의 승리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광은 당연히 수원에서 죽었던 그를 역사에서 불러내 팔달산 중턱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다. 근대 일본의

42) 京高特秘 제1098호, 「古跡 長安門內 및 石碑의 不穩落書 發見에 관한 건」, 『思想에 關한 情報(14)』, 1941. 5. 3.

43) 나카즈카 아키라, 박맹수 역,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

성취의 발판을 되새기는 훌륭한 기제가 되는 셈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인소학교(현 매산초등학교)에 있었던 동상의 주인공 ‘니노미야 손도쿠(二宮尊徳, 1787~1856)’는 근대 일본인의 표상으로 떠받들어지며 힘껏 따라 배워야 하는 인물이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서야 했던 청년 니노미야는 1822년 이후 영내 농촌경영에서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고 지주로 성장했다. 일하는 중에도 ‘논어’ ‘대학’ 등을 손에서 놓지 않던 독서광이었다.

일본의 근대교육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은 엄청나다. 즉 『普通學教 修身書』의 경우 제3과~제7과까지 온통 니노미야의 孝行·勤勞·修學·貯蓄·公益 등의 항목으로 실려 있을 정도였다.<sup>44)</sup> 에도시대 이래 일본의 사상적 흐름을 朱子學派-水戶學派-陽明學派-神儒佛一致의 思想-石門心學-二宮尊徳로 정리할 만큼 그는 일본정신의 완성자로 추앙되었다.<sup>45)</sup> 그는 근대 일본이 지향했던 인간상이었다. 이에 등에 땀감을 지고 손에는 책을 들고 걸으면서 공부하는 모습의 그의 동상을 일본의 학교마다 세웠고,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교에도 세워 아침마다 등교 길에 머리숙여 절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노구찌 순직비’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노구찌는 3·1운동 당시 경찰관으로 순직했던 野口廣三(31세)을 말한다. 노구찌는 1919년 3월 28일 오후 3시쯤 수원군 松山面 沙江里에서 수 백명이 모여 독립만세시위를 막는 현지 沙江警察官駐在所에 응원하기 위해 출장했던 수원경찰서 巡查部長이었다. 그는 수원경찰서 순사부장으로 일본인 순사 竹内些吉와 명, 鄭寅玉 등 巡查補 3명 등 4명을 데리고 사강시위를 막으려 했다. 시위군중들을 향해 무모하게 권총을 쏘았던 자로 시위군중에게 의해 돌과 곤봉에 맞아 타살당했던 자였다.

1919년 3·1운동은 전국적으로 각계 각층이 참여한 거족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수원군 조암반도 일대 화수리·제암리 및 남양반도의 사강리 등지에서 펼쳐졌던 일제 관현을 차단하는 등의 강력한 시위는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화수리주재소의 가와바타 및 사강리의 노구찌 처단이 그것이다.<sup>46)</sup> 이러한 일련의 사태

는 좀 더 특별히 ‘수원사건’으로 불리며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높은 지명도와 함께 수원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러한 수원지역의 강도 높은 무력시위에 대하여 일제는 무자비한 방화와 학살로 대응하였고 그 결정판이 제암리 학살사건이었던 것이다.

노구찌 순직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는 1923년 5월 20일 남산 왜성대에서는 독립운동단체에 의해 처단된 경찰들을 위한 초혼제가 열렸다.

朝鮮警察協會 주최 ‘殉職警官招魂祭’가 京城府 倭城堂에서 열리었는데 同名單에 의하면 1919년 3月末 水原事件 이래 獨立團들에 의하여 살해된 數가 46명이며 그 중 韓國人 출신이 19명이다.

순직비의 설치의 이렇듯 수원사건으로 처단되었던 노구찌 등을 포함하여 46명(한국인 19명 포함)에 대한 왜성대의 초혼제 실시 이후가 아닐까 추정된다. 당시 처단되었던 경찰 가운데 수원사건의 노구찌는 순사부장으로 상당히 고위직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수원의 일본인들과 수원경찰서의 주도로 추모의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노구찌 순직비를 중포산에 세웠던 것이다.

고야산 法隆寺가 팔달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소위 ‘四國靈場’을 1921년 설치한 이래 팔달산의 일부는 일본인을 위한 신성한 영장이 되었다. 영장은 ‘신령이나 부처를 모신 신성한 곳’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神政사회에서 신성시하던 장소로 여러 신이 집회하던 靈場으로 神市 등을 꼽을 수 있고, 여러 산에 남아 있는 天帝壇 등이 영장으로 신성시하며 수호해온 장소이다. 불교에서는 불타가 탄생한 곳, 성도한 곳, 초전법륜한 곳, 반열반한 곳 등이 일찍부터 靈場으로써 존송되었고, 순례하는 성지로서 대접받았다. 중국의 경우 五臺山 등 불교 3대 영장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넓은 의미로 淨土教라고 말할 경우는 아미타불 신앙 이외의 정토를 설한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미타불 신앙이 정토신앙의 주류로 그 명칭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高野山派 법륜사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弘法大師를 종조로 하는 정토진종의 古義眞言宗이다. 따라서 흥법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시코쿠(四國)의 영장’을 수원

44) 『普通學教 修身書』 권3(生徒用), 1914.

45) 山田義直, 『日本精神の一貫と國史教育』, 目黒書店, 1930.

46) 박환,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94(27-1) 2004. 봄호; 송재준, 「화성시 송산면의 3·1운동」,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2002.

팔달산 법룡사에 현현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아미타불의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정토의 他方淨土說과 더불어 靈場淨土說은 일본의 정토신앙을 대표한다. 따라서 고야산과 법룡사의 처지에서 팔달산은 신성한 또 다른 그들의 영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의진언종 법룡사는 팔달산의 상징성을 일본종파 불교의 정토관에 입각하여 또 다시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일제강점기 팔달산은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상징과 내용으로 변용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隔離病舍를 팔달산 서북쪽에 둠으로써 팔달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했다. 이미 1910년 화성행궁 봉수당에 수원자혜의원을 설치한 이래 화성행궁의 많은 건물들 가운데 낙남헌만을 남기고 1923년 높다란 벽돌건물의 근대식 병원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헐린 조선식 건물과 높다랗고 세련된 근대식 건물의 비교를 통해 일제에 주눅들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인 트릭을 사용하였다. 이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衛生과 清潔을 강조함으로써 발달하고 깨끗한 일본과 일본인, 불결하고 개성되어야 할 후진 조선과 조선인을 각인시키는 작업과 마찬가지로였다.<sup>47)</sup>

전통적인 한의학에 의존하던 조선인의 의료체계보다 우월한 근대 의학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의료시스템이었다. 따라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치료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환자에 대한 隔離病舍를 팔달산 서북쪽에 두었던 것이다.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에 격리병사를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지만 팔달산은 근대 의료시설의 시혜적 위상을 지닌 격리병사가 위치한 곳으로 또 다른 상징과 이미지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격리병사가 있던 곳은 '病幕'으로 불렸는데, 현재 경기도지사 관사가 위치한 일대이다. 1960년대까지도 일반인들은 이곳의 출입을 꺼렸던 곳이다.<sup>48)</sup>

격리병사의 설치가 팔달산의 훼손과 활용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원자혜의원과 이후 확장운영된 도립수원의원이 화성행궁을 헐고 그곳에 높다랗게 서게 된 배경 자체가 화성행궁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상징을 허무는 동시에 근대적 일본의 발달한 문명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47) 한동민, 「근대 수원지역 공립의료기관- 官立水原慈惠醫院에서 道立水原醫院까지」, 『京畿史學』 8, 2004.

48) 수원시, 『수원지명총람』, 1999, 269쪽.

팔달산 꼭대기 화성장대를 대신하는 일장기 휘날리는 국기계양대는 새로운 일본적 상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었다. 일장기를 계양했던 국기계양대가 팔달산에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팔달산 정상 남단에 철제 국기계양대와 국기 각 1개씩을 1944년 3월 1일 帝國在郷軍人會 수원분회장 橋間實平가 기부채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이전의 국기계양대를 대신하여 보다 튼튼한 철제로 재향군인회 수원분회 차원에서 제작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국 재향군인회는 일본의 國策수행에 방해를 하는 어떠한 자라도 응징을 하겠다는 결의를 할 정도로 군국주의 일본의 선봉 역할을 수행했던 단체였다.<sup>50)</sup>

국제연맹의 문제나 1931년 만주 침략 이후 만주와 몽고에서 일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던 조직이다.<sup>51)</sup> 그리고 시국대책 강연회 등을 조직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기도 하였다. 즉 '時局對策 在郷軍人大會'가 朝鮮神宮에서 帝國在郷軍人會 京城支部 주최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國際聯盟에 일본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일본이 세계평화를 위해 정의의 길로 매진한다'는 주장을 시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10만장의 삐라를 만들어 각 분회로 발송하여 각도 각지에 살포하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었다.<sup>52)</sup> 이렇듯 제국 재향군인회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 헌신하며 제국주의의 일본의 침병역할을 하던 단체였던 셈이다. 세계평화와 정의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앞길을 막는 어느 누구도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는 그들이었다. 그들에게 팔달산에 펼쳐있는 일장기의 존재는 수원에 대한 온전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은 일본적인 상징물에 대한 훼손을 통한 저항이었다. 우선 일본군인인 고시(古志)소좌기념비는 흑색 크레용으로 조선총독 南次郎과 일본타도 및 대한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낙서가 1941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경 발견되었다.

49) 「寄附採納願」(1944. 3. 1), 수원읍, 『재산관계참고서류철』, 刊記없음.

50) 「國論結束코저 帝國在郷軍人會蹴起」, 『동아일보』, 1932. 10. 24.

51) 京鍾警高秘 제8579호, 「'帝國在郷軍人會京城聯合分會' 集會取締에 관한 건」, 『思想에 관한 情報綴(1)』, 1931. 9. 29.

52) 「時局對策의 在郷軍人大會 朝鮮神宮境內에서」, 『동아일보』, 1932. 10. 30.

기념비의 정면 2층 기단부에 ‘미나미를 주살하라, 황국신민은 무어나?’ 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동쪽 측면 비신에는 ‘죽음으로 미나미를 박살내자. 우리들은 대한국민이다’, 그리고 탑신받침에는 ‘대한 만세’, 2층 기단에는 ‘타도 일본, 대한만세, 독립청년군’ 등이 적혀 있었다. 또한 서쪽 측면에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대한독립을 이루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sup>53)</sup> 이는 수원읍 본정 2정목 102호에 사는 나홍석의 아들 羅奭均(21세)의 거사로 밝혀졌다.<sup>54)</sup>

이렇듯 팔달산의 일본적 상징물의 훼손은 곧 그로 대변되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이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한국인이 제일 먼저 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일본인들이 세운 기념비와 동상 및 신사를 불지르는 것이었는데, 이는 조선을 지배하고 있다는 상징적 조형물이었기 때문이다.

…해방과 더불어 日인들이 채 물러가기도 전에 탑을 망치로 때려 부셔서 光教川에 밀어넣어 버렸다. 해방의 환희와 더불어 이들은 이곳에 독립기념비를 세웠다. 그것도 성급한 나머지 노구찌순직비의 탑신만을 없애고 그 석대 위에 독립기념비의 탑신을 얹어놨으니 역사의 운명은 항상 정의의 번복이라 하겠다.<sup>55)</sup>

노구찌 순직비는 해방과 더불어 파괴되어 그 자리에 비신만을 갈아 독립기념비를 세웠던 것이다. 수원신사가 불타고 고시기념비가 파괴되는 시점과 거의 일치할 것이다.

그후 노구찌 순직비를 부수고 세운 독립기념비는 3·1운동 동지회에 의해 八達山 중턱으로 옮겨져 고시기념비를 없애고 세운 3·1탑과 나란히 시내를 지켜보고 있다.

53) 京高特秘 제1121호, 「古志少佐義死碑의 不穩落書에 관한 건」, 『思想에 關한 情報(14)』, 1941. 5. 5.

54) 京高特秘 제1098호, 「古跡 長安門內 및 石碑의 不穩落書 發見에 관한 건」, 『思想에 關한 情報(14)』, 1941. 8. 18. 고모 나혜석의 영향 탓인지 모르지만 그림에 취미가 있었던 그는 항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55) 金雲成, 『水原五十年』, 學友社, 1973, 24쪽.

## 맺음말

수원의 八達山은 1789년 수원읍치를 花山에서 팔달산 아래로 옮기면서 수원의 중심이자 상징이 되었다. 읍치 이전과 더불어 팔달산에 鄕校와 社稷壇이 건립되는 등 수원읍치의 主山이 되었고, 1796년 화성 축성과 더불어 팔달산은 華城將臺가 위치하는 화성의 핵심적인 위치가 되었다. 더욱이 화성을 지키는 신을 모시는 城神祠가 위치하는 곳이 되면서 상징성을 확보하였고, 더욱이 정조의 사당인 華寧殿이 행궁 옆에 건립되면서 팔달산의 신성성을 더욱 커졌다. 이러한 신성성은 가뭇이 들면 팔달산과 성신사에서 祈雨祭를 지내는 곳으로 활용되는 등 팔달산은 화성을 지켜주는 수호신적인 위상과 더불어 수원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철도가 개통되면서 수원의 도시공간은 새롭게 재편되었다. 水原驛을 중심으로 서북쪽의 勸業模範場과 동쪽의 팔달산을 아우르는 공간은 일본인들의 거점이 되었다. 이에 팔달산을 기준으로 서쪽의 일본인 지역과 동쪽의 전통적인 조선인 지역으로 도시는 양분되었다.

물론 조선의 식민통치라는 측면에서 행정과 경찰기구는 조선인이 밀접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관아가 있던 화성 안에 위치하였다. 특히 팔달산 아래 화성행궁을 허물며 근대적 통치기구들 - 慈惠醫院·土木管區·警察署 - 등이 들어섰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상권은 수원역을 거점으로 하여 점차 기존의 조선인 상권인 화성 안쪽으로 지속적으로 잠식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수원의 중심이자 상징인 팔달산에 대하여 일본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팔달산에 神社와 日本軍人 기념비, 국기계양대, 그리고 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조선의 정신적 상징인 鄕校 위쪽으로 水原神社를 높게 세우면서 팔달산에 대한 조선인의 신성성과 상징성을 허무는 일을 자행하였고, 일본인 군인기념비와 일장기가 높이 펄럭이는 국기계양대를 산 꼭대기에 세움으로써 팔달산의 상징을 일본화하고 있다.

더욱이 공원을 만들며 팔달산에 단풍나무와 벚나무를 심음으로써 소나무로 대표되는 팔달산을 훼손하였다. 더욱이 수원신사 증건을 위해 팔달산 국유림을 민간에게 불하함으로써 팔달산의 훼손을 부채질하였다. 팔달산공원을 만들어 오락과 여흥의 일상적 공간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팔달산의 상징성과 의미를 변질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팔달산은 화성의 주산이 된 이래 禁松政策을 폈던 신성한 땅이었고,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수원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팔달산의 훼손이면서 일본적 시각에서 보면 일본화의 상징공간이자 근대적 공간으로의 활용이었다.

지금 팔달산은 여전히 독립기념탑과 3·1운동기념비 및 강감찬장군 동상·홍난파 노래비 그리고 정조대왕 동상 등이 서서 이 시대 수원을 상징하며 수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 Abstract

# Damage and Utilization of Suwon Paldal Mountai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n Dong-Min (Jung-ang Univ.)

Suwon Paldal Mountain(八達山) has become a center and symbol of Suwon after Suwon Eup-settlement was transferred from Hwa Mountain(花山) to the lower part of Paldal Mountain in 1789. Along with the transfer of Eup-settlement, Hyanggyos(鄉校) and Sajikdan(社稷壇) were built on Paldal Mountain and it became the guardian mountain of Suwon Eup-settlement. Together with the construction of (Suwon) Hwaseong (Fortress) in 1796, Paldal Mountain became the essential location of Hwaseong where Hwaseongjangdae(華城將臺) was located. Furthermore, it became a place where Seongsinsa(城神祠, where Hwaseong guardian was dedicated) was located and after Hwaryeongjeon(華寧殿), a palace housing a shrine to Jeongjo(正祖), was built beside the temporary palace, the symbol of Paldal Mountain was ever more emphasized than before. Such sacredness was maintained by its use for the location where a ritual praying for rain in Seongsinsa when experiencing drought; in this way, Paldal Mountain had a guardian status that protected Hwaseong and became a symbol of Suwon.

However, as Gyeongbu (from Seoul to Busan) Railroad was opened to traffic, the urban space of Suwon needed to be re-arranged. Gwoneopmobeomjang(勸業模範場) in northwest area and Paldal Mountain area in east part centering on Suwon Station became a stronghold for Japanese people. Based on Paldal Mountain, the city was divided into two: the western area for Japanese people and the eastern area for

Korean people.

Obviously, the administration and police organizations were closely related to Korean people in terms of Japanese colonial rule over Joseon; therefore, these organizations were located in Hwaseong where traditional government offices had been located. Especially, after demolishing Hwaseong Haenggung(華城行宮, temporary palace) on the lower part of Paldal Mountain, some modern governing organizations such as Jahye-Uiwon(慈惠醫院, charity hospital), Tomokgwangu(土木管區, District for civil engineering) and police station and so on were established. In the meantime, Japanese commercial zone kept penetrating gradually into the inside of Hwaseong, which used to be the existing Joseon's commercial zone, based on the stronghold of Suwon Station.

In this regard, the Japanese people wanted to japanize Paldal Mountain, the center and symbol of Suwon. Therefore, they built up the Japanese shrine, a monument for Japanese soldiers, a flag raising pole and a park on Paldal Mountain. They attempted to destroy the sacredness and symbolism of Korean people and Paldal Mountain by means of constructing a Suwon Japanese shrine highly over the Hyanggyo, the spiritual symbol of Joseon and they japanized the symbol of Paldal Mountain by placing the Japanese flag raising pole and the monument commemorating Japanese soldiers on the peak of Paldal Mountain.

Furthermore, they made a park and damaged Paldal Mountain where pine trees were the most representative by planting lots of maple and cherry trees there. Eventually, they deteriorated the symbolism and meaning of Paldal Mountain by making the Paldal Mountain Park and transforming it as a daily space for entertainment and amusement.

Key words : 읍치(邑治) - eup-settlement, 향교(鄕校) - Hyanggyo; a Confucian temple and a school belonging to it; a government-run

provincial school in medieval Korea, 사직단(社稷壇) - Sajikdan(Altar for the State Guardian Deities), 주산(主山) - a guardian mountain(located to the north of a town or a grave), 화성장대(華城將臺) - Hwaseongjangdae (West Command Post), 성신사(城神祠) Seongsinsa; Shrine where a fortress guardian is dedicated, 화령전(華寧殿) - Hwaryeongjeon, a palace housing a shrine to Jeongjo in Suwon, 기우제(祈雨祭) - a shamanist service to pray for rain; a ritual(praying) for rain,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 Gwoneopmobeomjang(the predecessor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자혜의원(慈惠醫院) - Jahye-Uiwon; a charity「public」 hospital; a free clinic

## 수원지역 민속문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정리 (최자운 :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사회자** :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학연구소와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속놀이, 농악, 경기도 도당굿, 경기민요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각 주제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토론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의선생님 경기남부지역 민속놀이의 공연화 양상과 발전방향에 대해 이천시립박물관에 계시는 이태호선생님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이태호** : 이천시립박물관에 이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한 양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민했고 발표하신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남부에 위치한 경기 남부권 10개 시군에 전승되거나 복원된 현 지역 축제 속에서 어떻게 공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적 양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발생적 연행 예술적 벗어나 일정 경합의 자리인, 경기도 민속예술축제라고 명칭을 걸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속에서 이벤트성 공연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탈맥락적 연행 상황과 그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재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지역축제는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행해지던 목적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화합,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인들에게 창작의욕 고취 등에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민속예술 축제는 각 지역의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과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을 내세우고

있는 이시대의 지역전통예술은 탈맥락적인 상황에서도 외부의 지원과 내재적인 관심이 어우러져 보존 전승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전통공연의 개적 또한 같은 변화의 노정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사회적 변화에 맞는 민속공연예술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개선책으로 새로운 공연종목에 대한 발굴과 기존 공연팀의 공연능력의 향상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적으로 남사당 다양한 종목개발과 자체적 공연능력 향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남사당과 같은 경우, 전문예인 집단으로 다양한 공연종목과 공연능력향상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에 비하여 타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속예술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다양한 종목개발이나 공연자의 자체적 공연능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예술의 현 위상과 지역주민들의 인식태도는 어떠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 축제 속에서 공연화 되고 있는 민속예술 축제에 출품되는 지역예술이 과연 오늘날 행정단위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몇몇 축제 추진위원회의 추진 프로그램에서 민속예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민속예술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동시에 누리게 하는 문화적 기재로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배제된 지역 축제 속에서 민속예술의 공연은 오히려 지역민들을 타자로 만들면서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배경을 도외시 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자리매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 지역축제와 민속예술 축제 지역에서 공연되는 지역의 민속예술은 그 발생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담당자들의 주체적 인식 속에서 변화하면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자들 뿐만 아니라 민속예술의 전승자이자 향유자인 지역민, 관람하는 외부인들이 민속예술의 진정성을 향유할 때 창조적 종목의 발굴 또는 신선한 공연예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 홍원의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의 :** 이태호 선생님의 질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공연 종목에 대한 발굴과 기존 공연팀의 공연능력 향상과 두 번째는 지역민들이 축제 속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을 예로 들었는데, 남사당 같은 경우에는 전문예인 집단으로써 다양한 공연종목과 공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 과연 다른 시군에도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된다, 안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천 거북놀이의 경우에는 거북놀이 보존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북놀이 보존회 단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의 문제 때문에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단원으로 채용한다면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성 남사당은 서울의 중견 문화재로 지정된 남사당 보다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현재로 봐서는 훨씬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중견 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들은 개별적인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수입과 관련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성에서는 모든 단원들을 시립화해서 연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에서는 개별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공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시립화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걸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민들이 지역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축제를 하는 곳에서는 지역민들의 동참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안성에서는 바우덕이 축제를 열기 전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민속예술에 관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곡동 줄다리가 발

굴 되었습니다. 현장성에 근거가 된 지역민들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충실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종목도 발굴하지만 또 축제를 하기 직전에 길놀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현대에 개량된 것을 포함한 자기 지역의 특색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고 관심을 재고한다면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 :** 답변 고맙습니다. 안성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나 이른바 지정된 또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민속예술의 공연 같은 경우, 일반 시민이나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잘 알려지지 않는, 예를 들어 예술 축제에 출품되지 않는, 지역 내에서만 전승되고 있는 민속예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속예술이 다른 지역에서 공연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인지도가 있는 민속예술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민속 예술의 경우 일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같이 향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민속예술의 장르를 만들거나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이에 대해서 홍원의선생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홍원의 :** 남사당 바우덕이 같은 경우, 현재 여섯 마당을 복원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안성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풍물놀이 한 가지만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에 시립풍물단이 창설되면서 나머지 여섯 마당을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줄타기 같은 경우 줄 타는 사람을 별도로 초빙하였고, 네 종목은 서울 남사당에서 대부분이 배워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가진 것으로 하자면 남사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축제와 같은 노력을 통해 알려진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민속예술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지은선생님 발표 수원지역농악연구-수원 대유평 농악 중심으로에 대해서 손영철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손영철 :** 손영철입니다. 이 글은 수원 대유평 농악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설과 연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글입니다. 문헌적 자료와 시청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고전 자료의 일관성이 없고 어려움이 더해지는 조건에서 현존하는 자료와 구술 자료를 가지고 대유평농악을 찾아 가려는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조 실록 원문을 통해서 해석한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대유평 농악의 유래와 연행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유평농악의 유래에서 2003년 안내도에 보면 농한기에는 각종 무술을 연마하고, 나발 등을 들고 가지고 진행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전해 내려온 풍물이 좀 더 세련되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또한 화성 재인천이 생기면서 흡수하며 발전하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 대유평 농악과 관해서 화성 재인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재인천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대유평농악을 더욱 실재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성 재인천에 관한 존재하는지 아니면 없는지 궁금함을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자께서는 대유평농악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도당굿 장단은 들리지 않으면 놀이 등은 그동안 연행된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나열한 놀이들이 재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유평농악에 대한 농악에 대한 분들을 고증 신뢰성 어떠한 기준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글은 구전과 행위로 전해지는 민속 문화의 보존과 전승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과이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 역사적 근거가 들어나고 그 결과 대유평 농악의 원형의 모습에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손영철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지은** : 첫 번째 질문은 대유평농악을 소개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유평농악이 다른 경기도 지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원 대유평과 관련하여 화성 재인청이 존재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수원 대유평 농악은 발탈이라는 춤의 보유자이시기는 하시지만 이동안선생님의 고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농악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고, 화성재인청이나 이동안 선생님의 수원이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화성 재인청에 있는 재인들이 화성이라는 신도시에 자기들의 재능을 펼치면서 지역주민들과 교류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유평농악의 특징들이 연행된 바가 없다고 제가 확인을 하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고증을 통한 놀이나 소리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을 상황으로서는 전혀 구연되지 않고, 사라진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하면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유평농악의 고증과 관련해서 제가 면담을 했던 분들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세분의 인터뷰 결과 유청자선생님이 제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영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유청자 선생님께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봉연선생님 같은 경우 수원과 화성지역의 독특한 기능이나 연행에 관한 부분은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 고증된 부분을 바탕으로 조금씩 퍼즐 맞추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사회자** : 손영철 선생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손영철** : 대유평농악에 대해 굿들이 재연이 된다고 하면은 농악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악이라는 틀로 묶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농악과 굿들이 다르게 진행된 놀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지은** : 유청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경환 선생님의 형 오정환님이 수원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대유평 농악에 대한 진술을 가장 자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유평 농악이 이동안 고증, 유청자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 점은 문화재에 대한 명성이나 명예로 올라간 이름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안내문과 실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성 축성과 관련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대유평농악 안에 춤굿, 마당굿 등이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탕이 될 뿐이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세 번째, 이용범 선생님의 ‘경기도 도당굿의 현재와 미래-수원지역을 중심으로’에 대해 변남석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변남석** : 안녕하세요. 변남석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당굿의 전문가인 무당과 화랭이, 도당굿을 수용·실천하는 지역공동체, 그리고 이 양자를 포괄하면서 양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세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를 논하였습니다.

첫 번째, 굿을 실행하는 무당의 수가 적고 다른 지역과 달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랭이의 전승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도당굿이 행해지고 있는 곳으로는 고색동, 평동 지역 등인데요. 현재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개발로 인하여 지역공동체가 해체되어 새로운 사람이 유입됨에 따라 마을 의례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자의 글에 토론자의 의견을 조금 보태어 현재 도당굿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서술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도당굿에서 하고 있는 일과 몇 가지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당과 화랭이 부분에 있어서 세습무와 강신무의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능과 의례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승되고 있어야 세습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세습된 무당과 화랭이가 아니지만 세습 화랭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복원 또는 전승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당굿의 종교, 예술적인 구체적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 도당굿이 벌어지고 있는 일정부분을 공동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로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당굿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약화되고 소멸된다면 도당굿은 소멸되어야 하는지,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비교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교, 예술적인 형태로 발전되는 방향이나 현재 유사한 예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당굿은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굿인데, 현재는 마을굿만이 보존이 되고 집안의 재수굿, 성주굿은 전승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저희 보존회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자 :** 이용범 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 첫 번째, 경기도 도당굿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와 의견이 같은 것 같아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재 도당굿의 보존에 대한 활동, 관심에 대한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객관적인 연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방향에 대한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과 관련 없이 민속예술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굿이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 행사인데, 그저 예술의 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진정하게 살아 있는 것이냐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역 내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새로운 지역적 삶이 일어났을 때 이전의 전통적인 형식이 사람들에게 의해 요구될 수 있을지 다

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경기민요의 지속과 변화-수원지역 민요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최자운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정서는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서는 :** 안녕하세요. 정서는입니다. 최자운 선생님의 논문은 수원지역 민요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향토민요를 살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글입니다. 특히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향토민요를 토대로 한 연구는 새로운 향토민요의 특수성 발굴에 기초가 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 민속예술 축제에 출품되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자료들을 살핌으로써 그 지역의 특수성 발굴 및 문화재 지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현재 향토민요의 보존과 발굴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 민요에 해당되는 과제입니다.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향토민요의 보존과 발전방향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 민속예술축제나 문화재의 지정, 발굴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발표자의 노력이 엿보이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문의 제목과 내용에 나타난 지속, 변화, 발전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표자가 생각하는 민요의 발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연구를 조금 더 진행시킨다면 향토민요가 예술 축제에 출전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변화양상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만약, 향토민요가 예술축회에 출전하는 것을 준비함으로써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러한 변화가 과연 민요의 보존과 발전에 관한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통해 발전 방향의 마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민요의 보존과 발전에 민속예술축제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예술축제 참가나 수상을 위한 동기 부여 관련안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의 참가나 수상에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본문에서 발전방향의 핵심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민속예술축제의 출전과 입상, 문화제 지정 등 입니다. 그리고 수원지역 통속 민요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가창자의 발굴도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문에 표시된 외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문적이나 그 외적으로 각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다양한 노력만이 살아져가고 있는 우리 민요의 맥을 잇고,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원지역 민요의 보존과 활성화에 많은 연구와 실천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네, 정서는 선생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자은 :** 첫 번째, 지속, 변화, 발전의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발전은 대중과 호흡하면서 기본 정서나 본질이 바뀌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은 본질적 정서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변화는 형태를 바꾸면서 대중과 호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과 변화가 합쳐진 개념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토민요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굴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보면 입장마당, 놀이마당, 뒷풀이 마당 등의 틀에 끼워서 하는 것이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리 뿐만 아니라 배경 또한 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부족한 부분일 것입니다. 앞으로 영역을 넓혀서 출전하면서 겪게 되는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을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또한 두 번째 답변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제의 정책이나 보존의 운영, 공연의 양상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를 공연하시는 분들과의 인터뷰를 해본 결과, 현재에 공연하면서 힘든 점은 대체로 공연주체와 행사주체가 만나는 통로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인식의 변화, 다른 민요들에 비해

조금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시나리오, 연출가, 공연장소 등 하나의 소리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크게 이런 세 가지 부분에 관해서 보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오늘 이 네 가지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드러난 문제가 전통문화 자체, 좁혀 말한다면 민속 문화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 전략적인 보존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전승되는 문화 자체의 단절 위기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낙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판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현실적인 변화 자체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응답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수원 지역 민속 문화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살펴보는 데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요약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제 제도 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끝에서 발표하신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는 :**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학문하는 사람이나 관련자들을 기르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자고 하는 것이 학자의 몫이라면, 그것은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서서도 나왔던 안성풍물놀이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지원이 가짜 민속을 양상 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홍원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원의 :** 오늘 제가 발표 드린 것은 지역축제 속에서 민속공연의 활성화에 대해서 발표한 것 뿐, 가짜 공연에 대해서 발표 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이 문제를 예각화시켜서 답을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짜 민속, 가짜 문화재, 진짜를 표방한 가짜 축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우리 의식을 가다듬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영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철** :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윤추구와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점, 많은 사람에게 보여져야 의미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문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긴 세월동안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가 같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 지금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삶의 모습들이 같이 동반되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문화를 재단하는, 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인해 없어지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교수님이 물어 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고 주변사람들과 공유하는, 작은 단위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새롭게 고민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네, 고맙습니다. 아까 발전이나, 지속과 변화냐는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참 대학을 다닐 때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범람하는 외래문화에서 우리 민속의 고유문화를 지키겠다는 소박한 신념에 의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애착,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으로 관점이 크게 돌아갔고, 전승자체를 위태롭게 하던 위협 요인이 많은 부분 제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상품화라는 더 큰 적대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진단하기에는 앞으로 문화재 자체가 제풀에 꺾어져 버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제 형식이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생각됩니다. 혹시 이런 견해에 대해

이용범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용범** : 저도 문화제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문화제 스스로 자생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근본이나 삶이나 모델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한다면, 전통문화 자체의 재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사회의 전반적인 면에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전통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사회자** : 다시 요약 하자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내면적 정서와 관념이 중요한 것인데, 본격적인 평가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홍원의 발표자 한분씩 논의한 것을 요약하시고, 또 토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익** : 경제적인 지원이 문화제에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경제적인 지원으로 인해 문화제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제가 지정됨으로써 그 혜택으로 인한 폐해가 있고, 현실에서 필요하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 없을 때에 계승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계승을 할 수 있는 종목과 경제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쉽게 없어지는 종목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제 지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두 번째 발표자였던 시지은 선생의 수원학 연구소에 대한 지침과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지은** : 선생님께서 처음 사회를 보실 때 전통문화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단절된 전통 문화도 상당히 많고, 당장 단절될 직면에 처해 있는 문화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전통 문화가 단절되었다고 하기에는 고증해 줄 수 있는 원로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절되었다고 주저 않기 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힘은 살아 계신 분을 찾아다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유평농악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발전적인 전망을 해보자면, 수원이라는 테두리를 어떻게 굿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유평농악을 출품한 것으로만 한정 지어서 볼 것인지, 수원에서 토박이로 그 문화를 유지했던 연행자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의견입니다. 만약 수원의 화성을 중심으로 놓고 포함한 화성, 남양으로 확장해서 본다면, 수원은 수원 이상의 이미르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원 뿐만 아니라 화성까지 포함한 넓은 부분의 농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탐구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봉담이라는 지역의 농악, 허성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밀접한 연구결과를 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선생님께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범 :**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현실이 바뀌더라도 사람들의 의식이 있다면 전통문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학연구소 등에서 전통문화의 연구, 정리가 지속적으로 필요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 지역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것의 토양이 되는 마을 등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최자운선생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자운 :** 전통적인 부분과 현대화 되는 부분을 동등한 시각을 가지고 보며, 다음에 학회를 기획할 때에도 이를 고민함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자 :** 이상으로 수원학연구소와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수원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며 수원지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2. 수원지역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용역
3. 각종 학술회의 및 국, 내외 학술 교류
4. 정기 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 제 2 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 약간 명
3. 연구위원 약간 명
4. 상임연구원
5. 연구보조원 약간 명

제7조(자격 및 임면)

1. 연구소장은 수원문화원 원장이 당연직 소장으로 겸임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면한다.
3.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소장이 임면한다.
4.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직무)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3.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면한다.

제11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서면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송이나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정관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4 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면한다.

제15조(회의 소집)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연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
3. 연구도서 간행, 학술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정 및 회계)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원시 지원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수원문화원 회계처리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자료 수집비, 활동비, 회의비, 기타 수당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수원문화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0조(재정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준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규정과 문화원 정관에 준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취 보

##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성명	소속	자택주소		전화	핸드폰		비고
		직장주소	이메일				
유병헌	수원문화원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62번지	031-254-5162	011-710-5162	president@suwonsarang.com	연구소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2-1번지	031-244-2161				
최홍규	경기대 사학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 128-701	031-242-6795	011-319-0211	namgokchoi@naver.com	운영위원장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94-6	031-249-9169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 건영 113-601	031-702-9413	011-774-9413	pabalo@hanmail.net	운영위원 연구위원장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94-6	031-249-9168				
박희정	수원문화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롯데아파트 1동 201호	031-247-7005	011-304-7081 fax)253-0740	ing@suwonsarang.com	사무국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2-1번지	031-244-2161				
조성을	아주대 사학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대우아파트 109-503	031-222-6091		eul@madang.ajou.ac.kr	운영위원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031-219-2850				
박 환	수원대 사학과	서울시 동작구 사당 3동 대림아파트 5동 103호	02-3477-0731	017-268-3569	hwpark@suwon.ac.kr	운영위원 연구위원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산2-2	031-220-2346				
박천우	장안대학교 교양학부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한진 현대A 107동 304호	031-258-8856	017-768-8856	pcwjangan@hanmail.net	운영위원 연구위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중부일보	031-299-3294				
김대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백설마을 주공 561-103	031-268-4157	010-4739-4157	kimdk@history.go.kr	운영위원 연구위원	
		과천시 중앙동	02-500-8343				

성명	소속	자택주소	전화	핸드폰	비고
		직장주소		이메일	
정일동	수원대사학과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삼성7차아파트 702-801	031-304-1064		연구위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031-220-2349	idchung@suwon.ac.kr	
정형지	오산대교양과			011-9709-3402	연구위원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17번지	031-370-2648	bwhje@hanmail.net	
김현선	경기대국문학과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현대2차 아파트206-1405	02-3272-3970	018-356-9108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031-249-9108	y3k@kyonggi.ac.kr	
장필기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197동남빌라 5-303	031-213-6951	019-9158-5870	연구위원
		과천시 중앙동	02-500-8346	jpk@history.go.kr	
이세형	수원문화원이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씨미트빌A 215동 1501호		011-9732-5136	운영위원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율곡관 209 수원발전연구센터	031-219-1732 fax)219-1737	lsh3111@hanmail.net	
최홍규	수원미협자문위원			011-744-2392 fax)256-5917	운영위원
		수원시 팔달구 교동 56-2	031-256-4917		
김철규	수원문화원이사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보은맨션 806호	031-243-0053	019-212-4119	운영위원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031-233-3028	nomih@hananet.net	
조성운	천천고 교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3	017-726-1686	choseongwoon@hanmail.net	연구위원
김준혁	수원시청학예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0-0	016-309-9847	jhkim1789@suwon.ne.kr	연구위원
최자운	수원학연구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61-196 2층		016-721-0296	상임연구위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2-1번지	031-244-2161	jauni@hanmail.net	

취보

##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 < 1 > 제목, 목차, 필자명

1. 게재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2.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1) (2) (3).
3.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 < 2 > 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 < 3 >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 4 > 각주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 ① 한국사,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 101쪽, 1998.
  - ② 한국사, 『역사연구』, 『한국사학보』 1, 1960 ; 『역사의 사회사』, 한국출판사,

재수록, 100쪽, 1998.

③ 한국사,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1997.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 )...」와 같이 처리

사료 인용

⑤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高麗史』 권76, 百官1 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원문 이용은 “”로 표시)

『世宗實錄』 권9, 世宗 6년 5월 庚子(국편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⑥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 5 〉 주의 사항 : 영문 초록, 주제어 첨부

1. 맺음말 뒤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2. 영문초록에는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3. 주제어는 5개 이상을 선정하여 맺음말 뒤에 첨부한다.

수원학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 조병로(경기대 사학과 교수, 수원학연구소 연구위원장)

위 원 : 정일동(수원대 사학과 교수, 수원학연구소 연구위원)

조성운(천천고등학교 교사, 수원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철규(수원문화원 이사,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박희정(수원문화원 · 수원학연구소 사무국장)

간 사 : 최자운(수원학연구소 상임연구원)

水原學研究

第三號

인쇄	2006년	12월	일
발행	2006년	12월	일

발행인 유 병 현

편집인 조 병 로

발행처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 2-1  
TEL : 031-244-2161~3

제작 풍광 : 031-211-7784

비매품

이 책자는 수원시의 지원에 의해 제작된 것임.



